언론사: 국민일보-4-602.txt

제목: [명의&인의를 찾아서-(107) 서울대학교암병원 대장암센터] 환자 5년 이상 생존율 70.8%…아시아 최고 수준  
날짜: 20170404  
기자: 이기수 의학전문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404195855001  
ID: 01100201.20170404195855001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span class='quot0'>한국 남성의 대장암 발병률은 아시아 1위, 세계 3위다.</span>” <br/> <br/> 국제암연구소(IARC)가 발표한 2012년 한국인 대장암 발생 현주소다. 그만큼 대장암의 조기발견 및 예방을 위해 건강한 생활습관을 유지하고 정기검진을 거르지 않는 것이 중요해졌다는 뜻이다. <br/> <br/> 대장암이란 소장의 끝에서 시작해 항문까지 연결된 약 1.5m 길이의 소화기관에 생긴 암을 말한다. 크게 결장암과 직장암으로 나뉜다. 2014년 기준 국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암 가운데 3번째로 많이 발생하는 암이다. 한국인 발생빈도는 인구 10만 명당 33명꼴이다. <br/> <br/> 모든 암이 그렇듯이 대장암 역시 발병 초기 조기발견 및 치료가 관건이다. 진행단계에서 늦게 발견될수록 합병증 및 원격 전이로 완치 확률이 줄어들고 삶의 질도 떨어지기 마련이다. <br/> <br/> 특히 항문 가까이 위치한 직장암은 치료 시 항문을 보존해야 하는 어려움이 따른다. 암 절제 시 항문을 손상시켜 아랫배에 구멍을 뚫어 배변기능을 대신해야 하는 장루(인공항문) 형성 수술까지 받아야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br/> <br/> 직장암 환자 10명 중 8.4명이 항문 보존 <br/> <br/> 서울대학교암병원 대장암센터(센터장 박규주·대장항문외과 교수)는 이들을 위해 최신 대장항문 생리기능검사 및 치료 장비를 갖추고 암 치료 후에도 직장 및 항문기능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게 적극적으로 도와 난치성 대장암 환자들 사이에서 우리나라 상급종합병원 중 최상급, 4차 의료기관으로 통한다. <br/> <br/> 이 센터는 암 절제수술 시 항문폐쇄를 피할 수 없어 장루 형성 수술을 받은 직장암 환자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국제 장루 창상전문 간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전문 간호사 2명을 확보, 환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해줘 인기를 끌고 있다. <br/> <br/> 그동안 중하부 직장암의 경우 표준수술은 항문 폐쇄가 불가피한 ‘복회음절제술’이었다. 서울대암병원 대장암센터는 이 수술을 할 때도 최대한 암 조직만 도려내 항문을 살리는 항문 보존 수술을 도모하고 있다. <br/> <br/> 항문에서 3∼5㎝ 떨어진 직장에 암이 생겼을 때도 항문을 살려주는 경우가 10명 중 8명 이상(86.5%)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1990년대 초반만 해도 이 센터의 항문보존비율이 16.4%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실로 엄청난 발전을 이룬 셈이다. <br/> <br/> 서울대암병원 대장암센터장 박규주 교수(대장항문외과)는 3일, “<span class='quot1'>수술 전 항암화학요법과 방사선 치료를 병행할 경우 심지어 항문에서 3㎝도 안 되는 곳에 암이 생긴 환자도 10명 중 약 7명은 배변기능을 유지시켜줄 수 있게 됐다</span>”고 강조했다. <br/> <br/> 요즘 이 센터에서 치료 받은 대장암 환자들의 5년 생존율은 초·중·말기 구분 없이 평균 70.8%다. 지난 1973년부터 2010년까지 37년간 서울대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대장암 환자 9600여 명의 5년 생존율을 추적 조사한 결과다. 국내는 물론 아시아권에서도 최고 수준의 기록이다. 선진적인 암 치료가 대장암 수술 환자들의 장기 생존율 향상으로 이어진 것이다. <br/> <br/> 2016년 한 해 동안 서울대암병원 대장암센터를 방문한 암 환자는 총 2만4932명이었다. 이중 타 병원을 거쳐 정밀검사 또는 수술을 받기 위해 찾아온 이들이 대부분인 신환자와 초진 환자는 각각 1194명(4.8%), 4412명(17.7%)이었다. <br/> <br/> 다학제 협력진료 활성화로 완치율 높여 <br/> <br/> 서울대암병원 대장암센터는 대장암의 진단 및 치료와 관련이 있는 진료과 의료진이 모두 참여하는 다학제 협진회의를 주1회 이상 열고 있다. 최적의 환자 개인맞춤 처방을 찾아 암 치료 효과를 극대화하고 동시에 장기 생존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br/> <br/> 회의 멤버는 대장항문외과 박규주 정승용 유승범 박지원 교수팀을 비롯해 혈액종양내과 김태유 한세원 이경훈 임유주 교수팀, 소화기내과 김주성 임종필 천재영 이현정 교수팀, 영상의학과 이정민 김세형 김효철 신청일 윤정희 교수팀, 방사선종양학과 지의규 강현철 교수팀, 병리과 강경훈 김정호 교수팀 등 모두 21명이다. <br/> <br/> 백지장도 혼자 들기보다 여럿이 들면 낫다는 게 이들의 신념이다. <br/> <br/> 이들은 대장항문외과 정승용 교수를 중심으로 국립암센터, 분당서울대병원 등 3개 병원에서 2006년부터 3년간 복강경 직장암 수술을 받은 환자 170명과 개복수술로 직장암을 절제한 환자 170명의 수술 후 생존율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추적 조사했다. <br/> <br/> 그 결과 직장암에서 복강경 수술을 받은 환자들도 개복수술 환자들과 같이 수술 후 장기 생존이 가능하다는 사실이 처음으로 확인됐다. 이 연구결과는 2014년 임상의학 분야 저명 학술지 ‘란셋 온콜로지’에 게재됐다. <br/> <br/> 정승용 교수팀은 수술 전 방사선 치료를 받은 직장암 환자들에서 복강경 수술을 시행할 경우 개복수술에 비해 수술 후 빠른 회복과 단기 삶의 질의 향상이 있다는 것도 증명했다. 이 역시 ‘란셋 온콜로지’를 통해 전 세계에 공개됐다. <br/> <br/> 국내 외과 의사들이 이 같이 란셋지에 잇달아 임상 연구논문을 게재하기는 정 교수팀이 처음이다. 복강 내시경(복강경)을 이용해 대장암을 제거하면 개복을 안 해도 되고 상처도 작기 때문에 수술 후 흉터가 거의 눈에 띄지 않게 되고, 회복도 빨라 입원기간이 대폭 단축되는 이점이 있다. <br/> <br/> 유전성대장암 연구의 세계화도 선도 <br/> <br/> 서울대암병원 대장암센터는 1990∼1991년, 서울대암연구소에 최초로 ‘한국 가족성 용종증 등록소’와 ‘한국 유전성대장암 등록소’를 설립, 한국인 유전성대장암 연구를 선도하기도 했다. 두 등록소는 1993년 8월 ‘한국유전성종양등록소’로 통합돼 지금까지도 우리나라 유전성 종양 가계에 대한 조사연구 및 관련 유전자 연구의 산파 역할을 해내고 있다. <br/> <br/> 그 뿐만이 아니다. 1997년 국내 최초로 암유전자클리닉을 개설, 유전성 암 환자의 전문적인 진단 및 치료, 그 가족에 대한 유전 상담도 시작했다. <br/> <br/> 이 클리닉은 훗날 서울대암병원 대장암센터 교수진이 유전성대장암의 조기진단에 큰 도움이 되는 진료지침을 표준화하는데 밑거름이 됐다. 유전성대장암 중 가장 흔한 형태인 유전성비용종증대장암(HNPCC)의 발병에 관여하는 돌연변이유전자 hMLH1, hMSH2 검사법과 무증상 단계에서 가족성 용종증을 찾아내는 유전자검사법 개발도 이곳서 잉태됐다. <br/> <br/> 한편 서울대암병원 대장암센터는 대장항문병에 관한 최신 의학지식을 발굴, 국내 의사들에게 보급하는데도 앞장서고 있다. 한 예로 1994년부터 해마다 열고 있는 ‘서울 대장항문학 연수강좌’는 국내 젊은 대장항문외과 의사들이 매회 200∼300명씩 수강 신청을 할 만큼 인기를 끄는 강좌로 자리매김했다. <br/> <br/>이기수 의학전문기자 kslee@kmib.co.kr

언론사: 국민일보-4-603.txt

제목: 세상을 바꿀 24개 혁신기술은 언제쯤… 휘어지는 스마트폰 2023년 한국서 상용화  
날짜: 20170404  
기자: 김동우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404190255003  
ID: 01100201.20170404190255003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2033년 서울, 직장인 A씨(70)는 자율주행자동차를 타고 회사에 출근하고 있다. 손은 운전대를 잡지 않았다. 사람의 의도까지도 연결하는 초연결 만물인터넷이 모든 차량의 흐름을 제어하기에 사고 걱정도 없다. <br/> <br/> 그는 종이처럼 휘어지는 컴퓨터를 펼쳐 미국 클라이언트와 급한 미팅을 한다. 그렇다고 A씨가 영어공부를 열심히 한 건 아니다. 영어 번역은 옆 좌석에 앉은 지능형 로봇이 맡는다. 며칠 전 치매가 의심돼 줄기세포로 만든 신경세포를 이식받았지만 부작용은 없다. <br/> <br/> 10년 전인 2007년만 해도 대부분 사람은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은 스마트폰 없는 세상은 상상할 수 없다. 단 몇 년 만에 전혀 다른 세상이 펼쳐진 셈이다. <br/> <br/> 영화 속에서만 보던 미래 혁신기술은 언제쯤 우리 삶 속으로 다가올까.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은 사람들의 실생활과 밀접한 24개 혁신기술이 사회에 급속도로 확산하는 시점(기술확산점)을 예측한 도서 ‘기술이 세상을 바꾸는 순간’을 3일 발간했다. <br/> <br/> 한국에서 가장 먼저 상용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혁신기술은 롤러블 디스플레이(자유롭게 휘어지는 화면)다. 2023년 한국에서 세계 최초로 휘어지는 스마트폰이 출시된다는 얘기다. 스마트폰을 종이처럼 말아 두루마리로 들고 다닐 수 있다. 유리를 사용하지 않아 깨질 염려도 없다. 스마트폰과 태블릿, 노트북의 구분도 사라진다. <br/> <br/> 그해 만물인터넷도 상용화된다. 인터넷으로 사물을 연결하는 사물인터넷이 진화한 형태다. 사물인터넷이 사전에 지정된 온도로 집안 온도를 설정한다면 만물인터넷은 사용자의 선호 온도와 현재 체온까지도 고려해 최적 온도를 설정한다. 초연결 만물인터넷 시대가 도래하면 신호등이 사라지고 도로와 차량, 사람의 의도까지도 상호 연결돼 교통사고 없는 차량 흐름이 완성된다. <br/> <br/> 의료기술은 규제 등으로 미국 등 선진국보다 2∼3년 늦춰질 것으로 예상됐다. 2028년 상용화될 유전자 치료는 암 등 질환을 일으키는 돌연변이 유전자를 정상 유전자로 대체 가능케 한다. 그해 줄기세포 치료가 난치병 치료에 임상 적용될 전망이다. 2029년에는 인체에 삽입돼 독립적으로 기능하는 인공신장 이식이 상용화된다. <br/> <br/> 평가원 미래예측본부 박종화 부연구위원은 “<span class='quot0'>기술의 발전만큼 사회로의 기술 확산도 중요하다</span>”며 “<span class='quot0'>기술이 언제쯤 대중에 확산될지를 알 수 있도록 해 기술을 예측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했다</span>”고 말했다. <br/> <br/>김동우 기자 love@kmib.co.kr

언론사: 국민일보-4-604.txt

제목: [이제는 정신건강이다] “정신건강 없이는 건강은 없다” 국민시름 씻어주는 것이 새정부의 최우선 과제  
날짜: 20170403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403202155001  
ID: 01100201.20170403202155001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거나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는 옛 속담을 지금도 자주 듣는 이유는 이 시대에도 큰 손해를 보는 줄 알면서도 당장 노력이나 투자를 하지 않는 현상이 반복되기 때문일 것이다.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가장 흔한 영역이 건강이다. <br/> <br/> 오늘 하루를 살고 말 거면 게으르고 양껏 먹고 무절제하게 살면 된다. 그러나 사십 년을 살아야 한다면 하루살이처럼 살아서는 몸이 견뎌내지 못한다. 더군다나 사십 년을 살도록 설계된 몸을 가지고 백 년을 살아야 하니 건강을 소홀히 했다가는 육십 년을 죽지 못해 고통 속에서 살아야 한다. 그런데 지금까지 건강을 말하면 육체의 건강만 챙겼지, 정신 건강은 생각하지 않았다. 그러다 보니 개인과 사회가 치러야 하는 비용이 가래로도 막을 수 없는 상황이 됐다. <br/> <br/> 보건경제학이 매우 발달한 영국의 연구에 의하면 우리나라 보다 인구가 약간 더 많은 영국의 2011년 정신건강 비용을 지금 환율로 계산해서 140조원이라고 추정했고 2031년이 되면 280조원까지 늘어날 것이라고 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2005년 세계보건기구의 유럽 지부는 ‘정신건강 없이는 건강은 없다(No health without mental health)’는 선언을 하고 정신건강이 인간과 사회와 경제적 자원의 중심에 있기 때문에 인권, 사회보장, 교육, 고용 등의 핵심사안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br/> <br/> 지금 이 선언은 미국의 보건기구, 유럽연합 각료회의, 세계정신건강연맹, 일본정부에서도 승인됐다. 이들 나라들은 선언에 그치지 않고 이미 정부 차원에서 최고 지도자들이 주도해 예산을 확보하고 전문가를 양성하고 정책적인 움직임을 시작했다. 늦었지만 대단히 현명한 움직임이다. <br/> <br/> 우리나라 역시 정신건강 없는 건강만 챙기다가 큰 비용과 대가를 치르고 있음이 여기저기 속속 드러나고 있다. 대표적으로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를 수년째 지속하고 있다. 폭력적 환경에 놓인 청소년들의 정신건강 문제는 가정을 넘어 사회적 문제로 발전(?) 중이다. 100조가 넘는 막대한 비용을 쓰고도 악화 중인 저출산 문제 중 정신건강 관련 사안이 큰 원인을 차지한다. 하소연 할 데 없는 감정노동자들이 호소하는 위험 수준의 스트레스로 사회의 활력이 떨어지고 있다. 만성통증이나 당뇨병, 암 같은 신체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의 상당수가 경험하는 정신건강의 문제를 아무도 다루지 않아 삶의 질이 떨어지고 의료비용은 증가된다. 그러면서도 ‘정신’이라는 용어에 극도로 반감을 갖고 있어서 최적의 치료시기를 놓치고 검증되지 않은 치료를 찾아다니며 정신건강 문제를 해결하기 보다는 오히려 악화시키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 <br/> <br/> 이 모든 문제들은 결국 국가의 미래를 어둡게 만드는 일이니 시급하고도 중요한 일이다. 정부도 2016년 범부처 정신건강 종합대책을 발표했으나 정치적 소용돌이로 인해 정신보건 정책 추진과 실행에 많은 제약이 따르고 있는 실정이다. 5월에 들어설 새 정부가 마주 칠 가장 시급한 과제는 국민 통합과 상처받은 국민의 정신건강 문제일 것이다. <br/> <br/> 선진국의 성공과 실패를 교훈삼고 단기와 중장기 실행 과제로 나누고 전문가 집단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고 행정 서비스를 확대하고 정부 부처별로 조각조각 난 정신건강 관련 서비스를 통합해야 이 문제를 풀 수 있다. 상상을 초월한 혼란을 뚫고 출범하는 새 정부의 첫 과제를 해결해 국민의 시름을 멋지게 날려버리는 모습을 보고 싶다. <br/> <br/>최성구 국립정신건강센터 의료부장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언론사: 국민일보-4-605.txt

제목: [토론회] 고령화시대 골다공증 관리 어떻게 할 것인가 “획기적 신약 보험적용 치료기회 넓혀야”  
날짜: 20170403  
기자: 정리=전미옥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403201355001  
ID: 01100201.20170403201355001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골다공증은 대한민국의 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앞으로 환자가 늘고 사회·경제적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질환이다. 골다공증 환자의 골절 예방과 함께 지속적인 치료와 관리가 무엇보다 필수다. 쿠키뉴스는 효과적인 골다공증 치료환경 개선과 예방을 위한 의견을 모으고, 골다공증 치료 방법의 다양화를 통한 환자 치료보장성 확대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 3월28일 제37차 고품격 건강사회 만들기 방송토론회를 진행했다. <br/> <br/>◇주제=고령화시대 골다공증 관리와 예방 현실화 방안 모색 <br/> <br/>◇참석=구미정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사무관, 김진환 일산백병원 정형외과 교수, 장윤형 쿠키뉴스 기자, 허윤정 아주대 인문사회의학교실 교수 <br/> <br/>◇진행=원미연 쿠키건강TV 아나운서 <br/> <br/>◇연출=이지현 쿠키건강TV PD <br/> <br/>◇방송=4월 5일(수) 오후 7시20분 <br/> <br/>Q.골다공증이란 어떤 질환이고, 주목해야할 이유는 무엇인가 <br/> <br/>김진환=골다공증은 뼈에 구멍이 많은 현상으로, 뼈에 구멍이 생기면 골절이 발생하기 쉽다. 뼈의 튼튼한 정도는 뼈의 양과 질로 설명할 수 있는데 나이가 들면 칼슘이 빠져 나가고 뼈의 양이 줄어든다. 특히 골다공증은 골다공증성 골절로 이어지게 된다. 고령화시대를 맞는 한국에서 고령 인구의 골다공증 심각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이로 인한 골절은 환자의 삶의 질도 떨어뜨리지만 사회 경제적 손실이 크기 때문에 당연히 주목할 수밖에 없는 질환이다. <br/> <br/>장윤형=골다공증은 대부분 폐경기 이후의 여성에서 높게 나타난다. 우리나라 50대 이상 여성 10명 가운데 8명, 남성 10명 중에 5명이 골다공증의 전 단계라 할 수 있는 골감소증이나 골다공증을 앓고 있다. 50대 이상의 유병률이 높은 만큼 급속한 고령화가 진행 중인 우리나라에서 골다공증의 유병률은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다. <br/> <br/>허윤정=골다공증은 급속한 고령화와 함께 우리 사회에 경제적 재앙을 안겨줄 수도 있는 분야다. 골다공증성 골절 환자는 고관절 등 정상생활이 불가능한 치료 기간을 수반할 경우 약물치료 외에도 체계적인 사후 관리가 요구된다. <br/> <br/> <br/> <br/>Q. 골다공증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은? <br/> <br/>장=건강보험공단 자료에 의하면 골다공증 환자는 지난 2008년 약 61만명에서 2013년 80만명까지 늘어 매년 5.6%씩 증가하는데 앞으로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노령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이 숫자는 더 급증할 것으로 예측된다. 실제 골다공증으로 인한 진료비가 2008년에 1404억원, 2013년에 1738억원으로 늘었다. 골다공증뿐 아니라 골다공증성 골절로 인한 장기 요양비나 생산성 손실까지 따질 경우 그 비용이 1조166억원으로 추정된다. <br/> <br/>허=골다공증으로 인한 골절로 거동이 불편한 환자를 돌보는 환자 가족들의 기회비용과 삶의 질 저하에 따른 고통을 비용으로 환산하면 가히 어마어마할 것이다. 단순히 일차원적인 진료비면에서 접근하기 보다는 장기적인 측면에서 이차적인 삶의 질과 심리적 고통 측면에서 고려해 다각적인 방식의 보장성 강화가 필요하다고 본다. 고관절 골절을 겪으면 환자들은 굉장히 수치스러운 간병을 받아야 한다. 환자들이 이러한 고통에 이르기 전에 미리 질환을 예방하고, 치료 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사회적 투자가 이뤄져야 결과적으로 사회적 비용을 더 절감할 수 있다. <br/> <br/> <br/> <br/>Q. 현 정부에서 골다공증을 포함한 만성질환 보장성은 상대적으로 낮아졌다는데? <br/> <br/>구미정=지금까지 4대 중증질환, 즉 생명에 치명적이라고 인식되는 질환에 중점을 두었던 것이 사실이다. 자료를 조사해 보니, 골다공증을 주상병으로 앓고 있는 환자가 80만명, 골다골증을 부상병으로 가지고 있는 환자까지 포함하면 2015년 기준으로 240만명 정도다. 2011년 기준으로 210만명이었으니 4년동안 30만명이 증가한 것이다. 많은 환자들이 골다공증으로 고통을 겪고 있지만 사회적 관심이 상대적으로 적었던 탓도 있고, 환자 스스로도 이 질환을 자연스럽고 가볍게 생각했던 경향이 있었던 것 같다. 복지부는 골다공증 약제의 접근성 및 다양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br/> <br/> <br/> <br/>Q. 골다공증 치료법은? <br/> <br/>김=골다골증 치료는 생활관리부터 약물치료, 고관절 골절 수술까지 여러 측면에서 접근이 가능하다. 생활관리의 경우 근력 운동이나 생활 환경 개선을 통한 낙상 관리, 비타민 D와 칼슘 등을 섭취하는 영양 관리 등이 있다. 약물치료의 경우 현재 우리나라에는 총 4가지의 옵션이 있는데 첫째는 골다공증이 폐경기 여성에게서 주로 발생하는 원인에 작용하는 여성 호르몬 조절 제제(SERM), 두번째로 골다공증 치료의 대표 약물인 골흡수억제제(비스포스포네이트)다. 이는 뼈의 칼슘을 빠져나가게 만드는 세포 작용을 억제하는 기전인데 부작용이 있지만 현재까지 오랜 기간 1차 약제로 많이 사용돼 왔다. 그리고 골형성촉진제인 부갑상선호르몬(PTH) 제제가 비교적 최근 급여화됐다. 기존 골흡수억제제 중 한 가지 이상 약제로 1년 이상 치료했지만 효과를 보지 못한 환자 중 65세 이상, 골다공증성 골절이 2개 이상 발생한 환자가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최근에 많이 쓰이고 있는 것이 RANKL 단일클론항체인 생물학적 제제(데노수맙)다. 그리고 골절이 심하게 발생한 경우는 수술로도 치료가 이어진다. <br/> <br/>허=가장 좋은 치료는 예방이다. 병원에서 받는 약물이나 수술치료는 이미 환자에게 상당한 고통을 주는 단계로 고비용 저효율이다. 예방 차원에서부터 생활·치료단게, 그 이후까지 전 생애 동안 골다공증 질환 관리가 정책적으로 지원되어야 근본적인 치료 개선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br/> <br/>김=최근 나오는 약제들은 기존 약제와 달리 골밀도를 최대 9∼10%까지 상승시켜주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획기적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다. 하지만 골밀도만으로 골다공증이 치료됐다고 보기는 어렵다. 결국 뼈의 질을 높여나가기 위해 생활습관 등 전반적인 관리를 통해 근본적인 골절 예방을 해야 한다. 의료현장에서 최근 도입된 약제의 경우 기존 약제보다 두 배 이상의 골밀도 개선율을 보일 정도로 효과가 있지만, 현재는 비급여로 선택의 폭이 좁고, 급여 기준이 좁게 설정되면 보통 쓰지 못하고 골다공증이나 골절로 심각한 상태가 돼야만 신약을 쓸 수 있게 된다. 미리 쓰면 골절이라는 심각한 상태를 예방할 수 있는데 심해지기를 기다렸다가 신약을 써야 하는 상황은 아이러니다. <br/> <br/>장=환자 입장에서 취재를 해 보면, 골절 이후의 삶의 질이 현격히 저하된다. 심한 경우 병상에 평생 머무르는 상황도 발생하는데 좋은 약을 빨리 쓸 수 없다면 죽음을 기다리라는 의미로 비춰지기도 한다. 골형성촉진제의 경우도 우리나라에서만 10년이라는 긴 시간을 거쳐 급여가 됐다. 물론 정부가 보장성 강화에 대한 큰 그림을 그리고 있겠지만, 신약이 출시되는 속도에 비해 급여 속도가 따라가지 못하는 것은 아쉬운 부분이다. <br/> <br/> <br/> <br/>Q. 골다공증 치료제 보장성 강화는 어떻게 추진돼왔나 <br/> <br/>구=한정된 재원 탓에 모든 질환에 대해서 보험 적용할 수는 없다. 대부분의 효과가 좋은 신약들은 효과 이상으로 약값이 높아 비용 효과성의 기준을 맞추기가 쉽지 않다. 보험 재정에서 지출하기에 타당하다고 결론을 내리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급여 등재를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환자만이라도 쓸 수 있도록 살피다보니 기준이 좁아질 수밖에 없다. 그러다 시간이 지나고 약값이 내려가면서 급여 기준이 확대되는 상황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한다. 데노수맙의 경우는 현재 급여 평가가 진행 중이다. 향후 결과를 예측할 수 없지만 여러가지 고려가 필요한 상황이다. 오늘 여러가지 측면에서의 정책적 지원을 제안해 주셔서 다각적으로 검토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br/> <br/>김=골다공증 치료환경의 문제점으로 질환 인지율과 치료율이 매우 낮다는 점이 꼽힌다. 암과 같이 환자가 적극적으로 치료 의지를 보이는 질환과는 좀 다르다. 사실은 어떤 약제를 급여화하기 위해 경제성 평가를 하더라도 실제 의료 현장에서 예상되는 지출 수준만큼 약제가 사용되지는 못하는 형국이라는 말도 있다. 경제성 평가를 이유로 급여 등재에 어려움을 겪는 것이 그런 의미에서 답답하다. <br/> <br/>허=만성질환의 경우 전면적으로 유병률이 높아지고, 중복 질환으로 상당한 후유증에 시달리는데 약제 개선, 급여 등재, 급여의 속도뿐 아니라 재활이나 사전 예방에 대한 등 여러 방면에서의 검토가 필요하다. <br/> <br/> <br/> <br/>Q. 신약급여와 관련해 환자들의 요구가 많다는데? <br/> <br/>장=건보재정의 한계가 있다고는 하지만 언론에서는 건보재정 흑자라는 시선도 있다. 물론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재정 관리도 필요하겠지만 소외된 질환의 환자는 방치되는 거나 다름없다고 생각한다. 그 중에 골다공증도 포함된다. 해외의 상황을 보면 호주나 미국, 일본에서는 골다공증 신약인 데노수맙을 현재 사용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급여가 되지 않아 의사들이 처방 현장에서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 아쉬운 부분이다. <br/> <br/>구=복지부에서는 급여 등재나 기준 설정에 있어 여러 문헌과 전문가의 의견 그리고 해외 가이드 등을 전반적으로 참고하고 있다. 급여 기준이 보험의 기준이기도 하지만 이 정도의 환자라면 꼭 해당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또 다른 가이드라인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골다공증 치료 보험 적용과 관련 학회 쪽에서 주장하는 대로 골다공증뿐 아니라 골감소증까지 보험을 적용할 경우, 범위가 매우 넓어지기 때문에 엄두가 나지 않는 부분이 있다. 그러나 치료제는 학계, 의료진과 지속적으로 논의해 더 많은 골다공증 환자 들이 골다공증 신약과 보험 적용된 약제를 폭넓게 사용할 수 있도록 명확한 기준을 만들고 검토해 나가겠다. <br/> <br/> <br/> <br/>Q. 골다공증 예방 무엇이 필요한가? <br/> <br/>김=골다공증은 이미 고령화와 함께 국내에 심각한 사회 문제로 자리잡았으며, 앞으로도 골다공증 환자는 더 증가할 전망이다. 따라서 환자와 의료진, 정부는 체계적인 시스템을 통해 일상 생활 관리부터 약물치료, 재활까지 일련의 치료 과정을 제도화 해 나가야 한다. 이미 의료현장에서는 백세시대를 피부로 느끼고 있다. 골다공증을 비롯한 건강 문제를 소홀히 할 경우 앞으로 다가올 백세시대가 재앙이 될 수 있다. 백세시대가 축복으로 다가오기 위해서는 폭넓은 보장성 강화와 다자간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br/> <br/>장=박근혜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가장 집중했던 질환은 4대 중증질환이다. 그러나 우리 삶과 생명에 직결된 다양한 질환 중에서 골다공증도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는 분야가 됐다. 따라서 정책적으로 좀 더 완화된 지원책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근본적인 치료환경을 개선함으로써 국내에 우수한 효과가 확인된 신약들이 도입됐을 때, 이를 급여권에 빠르게 도입시켜 조기에 환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br/> <br/>허=뼈 건강은 한 번 잃으면 사실 회복이 불가능하다. 골다공증과 같은 만성질환이 향후 대한민국의 중대한 사회적 문제가 되게 하지 않으려면 청소년층, 성인 남녀, 그리고 중장년층과 고령층에 이르기까지 전 연령대의 생활 습관 개선을 위한 획기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br/> <br/>구=건강한 백세시대를 대비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 재정이 어떻게 작용해야 할지, 약제 부분에서 어떤 노력을 더해야 할지 지속적으로 고민하겠다. 의료 현장에서도 여러 교수님들이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나 건의사항들을 전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수렴할 것이고, 환자와 사회의 요구들 역시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적절한 방향으로 건강보험이 발전해나갈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 <br/> <br/>정리=전미옥 기자 romeok@kukinews.com

언론사: 국민일보-4-606.txt

제목: 환자교육 효과 크지만 보상제 미비 시행 포기  
날짜: 20170403  
기자: 조민규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403171955001  
ID: 01100201.20170403171955001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환자들에게 보다 효과적인 치료를 위해 교육이 필요하지만 이에 대한 보상책이 마련되지 않아 의료서비스의 질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3분 진료 체계상 제대로 된 환자교육이 어렵다며 의료현장에서는 정부에서 환자 교육에 대한 보상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br/> <br/> 현재 급여가 되는 교육상담은 특정 질환에 한정돼 있다. 우선 기본진료비에 ‘6세 미만의 소아환자와 보호자에게 직접 교육한 경우’ 교육상담료가 포함돼 있다. 또 병원급 이상에서는 ▶암환자 교육상담료(항암화학요법, 방사선치료, 수술 후 교육) ▶심장질환(교육상담) ▶장루/요루(교육상담) ▶만성신부전 교육상담료(투석이 필요 없는 환자, 복막투석, 혈액투석) 등이 급여가 되는 상황이다. 하지만 비급여 교육은 더욱 많다. <br/> <br/>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비급여진료비 중 교육상담료를 보면 ▶당뇨병교육 ▶고혈압교육 등으로 최저 5000원에서 최고 15만8000원까지 환자가 지불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나마 이들 교육은 병원에서 공식적으로 운영하는 교육프로그램으로 환자가 비용을 지불한다면 들을 수 있다. 반면 환자에게 필요한 교육이지만 병원에서도 자체 커리큘럼이 없어 의료진 등이 진행하거나, 아예 교육을 받고 싶어도 받을 수 없는 교육들이 있다. <br/> <br/> 최근 류마티스관절염의 성공적인 관리를 위한 환자 역할의 중요성을 알리고자 17개국의 39개 의료기관 및 환자 단체 대표들로 구성된 국제 프로그램 ‘RA NarRAtive’의 서베이 결과를 보면 한국의 의사들이 진료하는 월평균 환자수는 약 201명으로 나타나 다른 나라에 비해 2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즉 많은 환자를 진료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의료시스템은 3분 진료가 당연시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이로 인한 부작용은 의사와 환자의 의사소통 문제였다. <br/> <br/> 의사소통 만족도 결과 의사의 78%, 환자의 87%에서 치료계획에 대해 더 많은 대화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이번 조사가 류마티스관절염이라는 특정 질환에 대한 조사였지만 그 결과는 여타 질환과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이 의료현장의 말이다. <br/> <br/> 이은영 서울대병원 교수는 “3분 진료 현실이 당장 개선되기는 힘들다. 의사가 환자와 효율적으로 소통하기 위해 환자에게 진료 외에 질환에 대해 맞춤교육을 할 수 있는 교육환경 개선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라며, “류마티스관절염의 경우 개인별로 증상과 정도가 다르다. 때문에 일부 대형병원에서는 자체적으로 비용을 들여 환자별 맞춤교육을 진행하고 있을 뿐 이러한 교육에 지원되는 수가 등은 전무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br/> <br/>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분야도 교육수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치료가이드라인에서 먹는 약보다 흡입치료제를 권고하고 있지만 환자들이 흡입치료제 사용이 미숙해 치료 순응도가 낮고 이로 인해 제대로 된 치료효과를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br/> <br/> 이외에도 의료계에서는 만성질환자의 효과적 관리를 위한 상담 및 교육수가 신설 등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때문에 환자의 치료를 보다 효과적으로 도울 수 있는 교육상담에 대한 정부의 지원책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br/> <br/> 조민규 기자

언론사: 국민일보-4-607.txt

제목: 조현병의 두 얼굴…'초등생 살해 소녀' vs '괜찮아 사랑이야'  
날짜: 20170402  
기자: 태원준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402123944001  
ID: 01100201.20170402123944001  
카테고리: 문화>방송\_연예  
본문: ◇"<span class='quot0'>조현병 환자도 <span class='quot0'>사랑</span>을 할 수 있다</span>" <br/> <br/>2014년 방송된 SBS 드라마 '괜찮아 <span class='quot0'>사랑</span>이야'는 방송작가 노희경씨가 각본을 썼다. 조인성이 '장재열'로, 공효진이 '지해수'로 출연했다. 높은 시청률을 기록하며 많은 관심을 끌었다. <br/> <br/>이 작품을 몇년 새 방영된 드라마 중 최고로 꼽는다면 이유는 그 소재와 메시지 때문일 것이다. 극 중 장재열은 조현병(정신분열증)을 앓고 있는 베스트셀러 작가다. 어린 시절 난폭한 아버지와 지내며 끔찍한 일을 겪었던 트라우마에 '화장실'이 아니면 잠을 이루지 못한다. 지해수는 그런 장재열을 곁에서 보살피는 정신과 의사.  <br/> <br/>두 사람의 <span class='quot0'>사랑</span>이 이뤄지는 평범한 줄거리에 '조현병'이란 색깔을 입히니 우리 TV에서 한 번도 보지 못한 이야기가 됐다. 가급적 멀리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조현병 환자가 이렇게 '멋진 모습'(조인성)일 수도 있으며, 그와의 <span class='quot0'>사랑</span>이 이렇게 유쾌할 수도 있다는 걸 드라마는 조심스럽게 그려냈다.  <br/> <br/>제작진은 드라마 홈페이지에 기획 의도를 적었다.  <br/> <br/>"몸에 대한 우리의 관심은 거의 집착증에 가깝다. 그런데 마음에 대한 관심은 어떠한가? 마음이 감기에 걸리고, 마음이 암에 걸리고, 마음이 당뇨와 고혈압에 걸린다고 한번이라도 생각해 본 적 있는가?" <br/> <br/>"<span class='quot0'>누구나 행복을 원하면서, 행복의 열쇠를 쥐고 있는 마음에 대해선 얼마나 많은 편견을 가지고 방치하고 함부로 대하고 있나?</span>" <br/> <br/>"<span class='quot0'>나만 힘든 게 아니다, 너도 힘들었구나, 나만 외로운 게 아니었구나, 사람이란 게 원래 그렇게 외로운 것이었구나, 죽고 싶은 게 아니라 살고 싶었던 것이구나… 내가 이상한 게 아니라 조금 특별했구나.</span>" <br/> <br/>이 드라마가 방영된 시기를 전후해 여러 전문가가 언론에 글을 기고했다. 하나 같이 "조현병은 결코 불치병이 아니다. 조현병 환자는 사회에서 격리해야 할 범죄자가 아니다. 정신질환도 감기와 같은 질병의 하나로 받아들여야 한다. 그들에겐 배척보다 포용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담았다. <br/> <br/> <br/> <br/>◇"조현병 환자는 살인을 할 수 있다" <br/> <br/> <br/>같은 아파트 단지의 8세 초등생을 유괴해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버린 인천의 16세 소녀가 조현병(정신분열증) 환자로 확인됐다. 그는 최근까지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었다. 경찰은 그의 단독범행으로 결론짓고 이번 주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br/> <br/>경찰이 2015년 이후 이 소녀의 진료기록을 조사한 결과 우울증과 조현병으로 최근까지 정신과 치료를 받았으나 입원한 적은 없다고 밝혔다. 우울증 진단에 치료를 시작했으나 증세가 악화되면서 조현병 판정도 받았다고 한다. <br/> <br/>그는 학교에 다녀야 할 나이였지만 적응하지 못해 중퇴한 상태였다. 경찰에 체포된 직후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말을 되풀이했다. "죽이지 않았다"와 "기억나지 않는다"는 커다란 차이가 있다. 끔찍한 범행을 저지른 용의자가 범행을 부인하는 대신 "기억이 없다"고 말하는 상황은 당황스럽다.  <br/> <br/>우리는 지난해 5월에도 비슷한 당혹감을 겪었다. 서울 강남역 인근 공용화장실에서 20대 여성을 무침히 살해한 김모씨(35)가 조현병 환자로 드러났다. 화장실에 먼저 들어온 남성 7명을 그대로 보내고 여성 피해자를 살해한 까닭에 ‘여성 혐오 범죄’로 규정됐으나, 경찰과 검찰은 정신상태 감정 후 '조현병에 의한 살인'으로 결론지었다. <br/> <br/>김씨는 지난해 1월 정신병원에서 퇴원한 뒤 약물 복용을 중단했고 3월에는 아예 가출해 사실상 집과 사회로부터 방치된 생활을 해 왔다. 법원은 김씨에게 징역 30년에 치료감호와 전자발찌 부착 20년을 선고했다. <br/> <br/>두 사건은 '조현병 환자의 범죄'에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됐다. 정신보건 단체들은 "조현병 등 정신질환자의 범죄율이 0.08%로 일반인의 1.2%에 비해 낮다"는 통계를 인용하며 이런 여론에 반박하지만, 여론의 주목을 끈 끔찍한 범죄는 단 한 건만으로도 불안감을 확산시키곤 한다. <br/> <br/>◇조현병 환자의 "<span class='quot0'>사랑</span>" vs "살인" <br/> <br/> <br/>"<span class='quot0'>조현병 환자도 <span class='quot0'>사랑</span>을 할 수 있다</span>." 드라마 '괜찮아 <span class='quot0'>사랑</span>이야'는 사람들이 조현병을 다시 생각하게 했다. 그들은 '나쁜' 게 아니라 '아픈' 것임을 드라마는 말해줬다. 하지만 강남역 살인, 인천 초등생 살해 사건은 "조현병 환자는 살인을 할 수 있다"는 인식을 퍼뜨리고 있다.  <br/> <br/>조현병을 향한 '공감'과 '공포'. 잘 만든 드라마와 충격적 사건이 던져준 상반된 메시지를 어떻게 다룰 것인지, 우리 사회는 복잡한 숙제를 얻었다.  <br/> <br/>태원준 기자 wjtae@kmib.co.kr

언론사: 국민일보-4-608.txt

제목: “말기암 아버지가 남기신 성경필사 공책과 돋보기 내 믿음의 힘이자 詩의 뿌리”  
날짜: 20170331  
기자: 노희경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331000255002  
ID: 01100201.20170331000255002  
카테고리: 문화>영화  
본문: ‘배가 볼록한 돋보기/ 아버지는 이 확대경으로/ 빛을 모으셨다// 검은 동그라미로 본/ 그 밝은 약속을/ 한 획 한 획 정성들여 공책에 적어/ 자식들에게 주셨다.’ <br/> <br/> 제9회 국민일보 신춘문예 신앙시 공모에서 대상을 받은 류인채(57) 시인의 ‘돋보기’ 중 일부분이다. 하늘나라로 떠난 아버지를 향한 그리움을 잘 표현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br/> <br/> 29일 시상식에 앞서 서울 여의도의 한 커피숍에서 류 시인을 만났다. 작품의 소재가 된 아버지의 돋보기와 낡은 공책 한 권을 보여줬다. 공책 첫 장을 넘기니 정성껏 필사한 마태복음 1장 말씀이 눈에 들어왔다. 2010년 9월 25일부터 써내려갔다고 명시돼 있었다. <br/> <br/> “아버지가 이 돋보기로 성경을 읽으며 필사하셨지요. 우리 여섯 남매에게 이런 공책을 두 권씩 남기고 2011년 12월 28일 하나님의 품에 안기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책은 아버지가 둘째 딸인 류 시인에게 준 마지막 선물이었다. <br/> <br/> 시인에게 아버지는 생명의 근원이요, 시적 영감의 대상이다. 1998년 ‘나는 가시연꽃이 그립다’란 시집을 출간하며 문단 활동을 시작한 그는 2014년 ‘문학청춘’ 신인상을 받았다. 아버지에 대한 여러 편의 시를 썼고 ‘소리의 거처’ ‘거북이의 처세술’ 등 시집도 잇따라 냈다. <br/> <br/> “말기암으로 시한부 인생을 사시던 아버지를 돌아가시기 전까지 2년 정도 모시고 살았습니다. 마침 제가 뒤늦게 박사과정을 밟던 때였지요. 벚꽃을 유난히 좋아하셔서 공부를 마치면 함께 벚꽃 구경 가자고 약속했는데,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 쓸쓸함을 노래한 시가 ‘왕벚꽃이 피면’이다. ‘무덤가 왕벚나무 막 꽃봉오리 열리는데/ 왜 꽃이 피면 슬플까요/ 아직도 당신을 보내지 못한 마음이/ 꽃으로 터질 것만 같아요.’ <br/> <br/> 병중의 아버지를 돌보며 쓴 ‘손’이란 시도 있다. ‘기저귀가 흥건하다/ 재채기는 붉고 노란 분(糞)을 분꽃처럼 피웠다/ 아버지를 안아서 플라스틱 의자에 앉힌다/ 뼈만 남은 몸을 부둥켜안는다….’ <br/> <br/> 경기도 부천광림교회 권사인 류 시인은 집안의 첫 믿음의 씨앗이다. 남편을 전도했고 30년 가까이 이단에 빠져 ‘예수쟁이’라고 자신을 핍박했던 시어머니를 17년 만에 ‘진짜 예수쟁이’로 만들었다. 아버지를 비롯한 친정 식구들도 오랜 기도 끝에 전도했다. <br/> <br/> “뒤늦게 신앙생활을 시작한 아버지가 2005년 뜻하지 않게 뇌진탕으로 혼수상태에 빠진 적이 있습니다. 뇌수술을 받고 깨어나셨지만 기억상실과 치매, 수전증을 앓는 등 후유증이 심했지요. 독한 약에 의지할 뿐 차도가 없었습니다. 그때 목사님께서 아버지에게 성경필사를 권유했지요.” <br/> <br/> 그런데 기적이 일어난 것이다. 성경필사를 하면서 아버지의 기억이 차츰 돌아오고 수전증도 나아진 것이다. 어쩌면 이때부터 신앙시에 대한 관심이 생겼는지 모른다. 류 시인은 “<span class='quot0'>하나님의 자녀로서 일반시를 쓰는 게 부담스러웠다</span>”고 고백했다. 윤동주의 기독교적 시들을 연구하며 석사를 마쳤고 인천대에서 국문학 박사학위도 받았다. 신앙시를 더 잘 써보고 싶어 만학에 도전한 것이다. 윤동주 박목월 박두진 등의 대를 잇고 싶은 소망도 갖게 됐다. <br/> <br/> 그래서 2년 전 처음 국민일보 신춘문예 신앙시에 공모했고 밀알상을 받았다. 그리고 올해 두 번째 도전에서 대상을 받은 것이다. <br/> <br/> “가장 짧은 언어로, 가장 감동적으로 주님을 그린 신앙시를 통해 ‘오직 예수님’이라는 올바른 인생길을 선물하고 싶습니다. 아버지가 남기신 믿음의 돋보기를 보면서 나의 갈 길을 찾은 것처럼 말입니다.” <br/> <br/>글=노희경 기자 hkroh@kmib.co.kr, 사진=강민석 선임기자

언론사: 국민일보-4-609.txt

제목: 자궁근종 비수술 치료 시대 '자궁근종', 칼을 대야 하나?  
날짜: 20170330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330174044001  
ID: 01100201.20170330174044001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여성에게 많이 발생하는 자궁근종/선근종 발생빈도는 매년 증가추세에 있다. 강남여성병원에 따르면, 자궁근종의 경우, 가임기 여성의 20%, 중년여성의 40~50%가 앓고 있는 질환이다. <br/> <br/>일반적으로 물혹(살혹)이라고 불리는 ‘자궁근종(myoma uteri)’은 자궁근육(평활근)에 발생하는, 자궁종양 가운데서도 가장 흔한 양성질환이다. 30~40대에서 주로 발병되어 왔지만 최근 들어서는 2,30대 젊은 여성층에서도 발병률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br/> <br/>자궁근종은 그 위치에 따라 자궁 옆에 매달려 있는 유경성(pedunculated type), 자궁벽, 자궁속, 자궁아래에 붙어 있는 근층성(intramural type)으로 나뉘며, 대부분의 환자에게서 증상이 없는 상태로 나타난다. <br/> <br/>증상이 나타날 경우(환자의 25%), 가장 흔한 증상은 자궁출혈(생리과다. 질출혈), 만성 골반통, 빈뇨, 배뇨곤란, 급성복통, 변비, 장폐색, 불임, 유산 등이 있을 수 있다. <br/> <br/>자궁근종 치료는 초음파를 이용해 혹의 크기, 위치를 체크하고 환자의 나이와 상태를 고려한 치료방향이 정확하게 수립된 이후 시행된다. 혹이 지속적으로 자라고 있는 경우나, 생리과다, 질출혈, 습관성 유산, 암에 대한 가능성이 있을 경우 적극적인 치료가 요구된다. <br/> <br/>자궁근종 치료방법 중의 하나는 ‘하이푸(HIFU)’ 시술이다. 하이푸란 초음파를 자궁 내의 제거할 종양에 집중시켜 종양을 태워 괴사시키는 치료방법이다. 과거에 진행하던 자궁적출 수술과 달리, 마취와 절개가 전혀 필요하지 않은 비수술, 보존적 치료법이다. <br/> <br/>또한 비수술치료로 당일 치료와 퇴원이 가능하며, 최신 y하이푸 치료모드인 ‘Vocal & Tri-Co Mode’는 한 방향에서 열을 가하지 않고 종양의 위치와 크기, 형질에 따라 입체적으로 열 치료 에너지를 보낼 수 있어 여러 형태의 근종을 치료 할 수 있다. <br/> <br/>또한 시술시간도 획기적으로 단축되어 5㎝~6㎝ 정도의 근종을 기준으로 약 15분 내외로 치료할 수 있다. 시술시간이 단축되면 환자에게 열에너지를 가하는 시간이 적어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도 그만큼 낮아진다. <br/> <br/>하지만 모든 자궁근종을 비수술적 시술로 치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최근 거대자궁근종도 하이푸로 치료가 거의 가능하지만 자궁근종의 종류에 따라 복강경이나 최후의 수단으로 적출을 할 경우도 있다. 하이푸 기술 발전으로 인해 적출하는 비중은 낮아지고 있다. <br/> <br/>강남여성병원 성영모 대표원장은 “<span class='quot0'>기존의 자궁적출은 두통이나 소화불량은 물론, 우울증, 여성으로서의 상실감, 영구불임과 같은 정신적인 후유증을 야기해왔다</span>”면서 “<span class='quot0'>하이푸를 이용한 시술은 복강경이나 자궁경 등 칼을 대지 않고도 근종을 제거할 수 있어 환자에게 육체적 정신적 부담을 크게 덜어준다</span>”고 설명했다. <br/> <br/>성 원장은 “<span class='quot0'>자궁근종은 특별한 예방법이 없으므로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 자궁건강 상태를 꾸준히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span>”고 덧붙였다. <br/> <br/>콘텐츠팀 이세연 lovok@kmib.co.kr

언론사: 국민일보-4-610.txt

제목: 오송첨복단지, 유망 바이오 벤처 투자 쇄도  
날짜: 20170330  
기자: 청주=홍성헌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330211855002  
ID: 01100201.20170330211855002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서울에 본사를 둔 유망 바이오 벤처기업들이 충북 청주 오송첨단의료복합산업단지(이하 오송첨복단지)에 연구소와 생산시설을 구축한다. <br/> <br/> 충북도와 청주시는 29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에이비온㈜, ㈜엑셀세라퓨틱스, 록원바이오융합연구재단, 메디퓨처스㈜, ㈜모바일닥터 등 5개 회사와 투자 협약을 체결했다. 이들 기업은 오송첨복단지 내 원형지에 오는 2021년까지 718억원을 투자해 연구소와 생산시설을 건립한다. 치료제 연구 개발 업체인 에이비온, 엑셀세라퓨틱스, 록원바이오융합연구재단은 오송 입주를 계기로 공동 연구 추진을 위한 컨소시엄도 구성했다. <br/> <br/> 표적치료제 효과를 사전에 진단하는 기술을 갖춘 에이비온은 불필요한 항암제 치료를 줄이고 암 치료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표적항암제와 차세대 단백질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다. <br/> <br/> 줄기세포 무혈청 배양기술을 보유한 엑셀세라퓨틱스는 차세대 유전자 치료제 연구개발 기업이며 록원바이오융합연구재단은 동반진단 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비영리 재단이다. 이들 3개 기업이 구성한 에이비온 컨소시엄은 신영기(서울대 교수) 에이비온 대표이사를 주축으로 한 기술 융합을 통해 세계적인 성공 사례를 창출하겠다는 방침이다. <br/> <br/> 메디퓨처스는 국내·외 100여개 병원에 초음파 의료기기와 수술 장비를 공급하는 기업으로, 효소 사용 없는 초음파 줄기세포 분리기를 개발해 상용화했다. 모바일닥터는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모바일 의료서비스 구현을 연구 중인 4차 산업혁명 선도기업이다. <br/> <br/> 오송첨복단지에는 현재 100여개 의료연구개발 기업과 지원기관이 입주해 활발한 연구와 생산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인근의 오송생명과학단지에도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질병관리본부, 보건산업진흥원, 보건복지인력개발원, 국립보건연구원 등 보건의료 6대 국책기관과 70여개의 기업들이 위치하고 있다. <br/> <br/> 충북도 관계자는 “<span class='quot0'>서울과 수도권에서 독보적인 연구역량을 쌓아 온 유망 바이오 벤처기업들이 기술 고도화와 조기 상용화를 목표로 오송첨복단지로 이전하는 추세</span>”이라며 “<span class='quot0'>오송은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바이오의 요람으로 자리 잡고 있다</span>”고 말했다. <br/> <br/>청주=홍성헌 기자 <br/> <br/>adhong@kmib.co.kr

언론사: 국민일보-4-611.txt

제목: 초기증상 미미한 대장암, 예방에 좋은 음식은?  
날짜: 20170329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329140744001  
ID: 01100201.20170329140744001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대장암은 고열량ㆍ고지방 음식을 즐기는 서양인에게 주로 발생하는 암이었지만, 최근엔 국내에서도 그 발병률이 증가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대장암 환자 수는 인구 10만 명당 45명으로, 아시아 평균인 13.7명에 비해 3배 이상 많다. <br/> <br/>대장암은 초기증상이 단순한 소화장애와 비슷하고, 변비나 설사, 빈혈 등 일상생활에서 흔히 겪을 수 있는 증상들이 주를 이룬다. 때문에 초기에 발견하기 힘들고, 병을 키우는 경우가 다반사다. <br/> <br/>따라서 대장암은 예방에 신경 쓰는 것이 중요하다. 기름기가 많은 붉은 육류나 맵고 짠 음식, 고열량 음식 등의 섭취는 줄이도록 한다. 또한 식이섬유 섭취량을 늘리고, 적절한 운동으로 소화 기능과 대변의 배출을 원활하게 해주는 것도 좋다. <br/> <br/>아울러 대장에 좋은 음식 꾸준히 섭취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특히 추천할 만한 식품은 홍삼이다. 홍삼은 국내외 다수 연구논문을 통해 대장에 좋은 음식임을 과학적으로 인정받은 바 있다. <br/> <br/>분당차병원 함기백 교수 연구팀은 홍삼이 소화불량을 일으키는 병균의 일종인 헬리코박터균을 없애 장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연구팀은 헬리코박터균에 감염된 실험 참가자들을 두 그룹으로 나눠 한 그룹에는 항생제만 복용케 하고, 나머지 한 그룹에는 항생제와 홍삼을 함께 복용케 했다. 그 결과, 항생제 그룹은 헬리코박터균이 70% 줄어들었지만, 홍삼을 함께 섭취한 그룹은 헬리코박터균이 85%나 줄어들어 홍삼이 장 건강을 지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br/> <br/>이렇듯 대장에 좋은 음식인 홍삼은 제조 방식에 따라 홍삼을 물에 달이는 물 추출 방식과 홍삼을 통째로 갈아 넣는 전체식 방식으로 나눌 수 있다. 이중 사포닌, 비사포닌, 항산화 성분을 비롯한 홍삼의 유효성분을 고스란히 섭취하기 위해선 ‘전체식’ 제품이 보다 효과적이다. <br/> <br/>전체식은 홍삼을 통째로 갈아 액상화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진다. 기존 물 달임 방식이 수용성 영양분만 담아냈다면, 전체식은 물에 녹지 않는 홍삼의 불용성 성분까지 모두 담아낼 수 있어 유효성분 추출률이 높다. <br/> <br/>이와 관련해 유한대학교 식품영양학과 윤택준 교수는 “<span class='quot0'>면역력을 올려주는 다당체까지 흡수하기 위해선 홍삼을 통째로 갈아 먹는 것이 좋다</span>”고 언급하기도 했다. <br/> <br/>초기증상이 뚜렷치 않은 대장암은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평소 자신의 건강상태를 세심히 살피면서, 홍삼과 같이 항암에 좋은 음식을 꾸준히 챙겨 먹는 것이 대장암 예방법으로 추천받는 이유다. <br/> <br/>▶[단독] 朴 “뇌물 받으려고 대통령 된 줄 아느냐” 조사 받다 흥분해 탈진 <br/>▶검찰 “<span class='quot1'>박 전 대통령,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span>” <br/>▶"버스에 깔린 청년 구하자!" 시민들 힘 합쳐 구조 [영상] <br/>▶'BBK 실소유주는 이명박' 폭로 김경준, 오늘 만기출소 <br/>▶욕먹고 맞고 잘리고… ‘동네북’된 경비원 <br/>▶호남 경선서 2등한 안희정이 SNS에 올린 글 보니 <br/>▶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된다면 첫 식사는?… 구치소 생활 엿보기 <br/>▶"국민께 사죄 안 하면 비리 폭로한다" 국정농단 예언한 박관천의 경고 <br/>▶마티즈 탄 미모의 BJ, 운전 도중 생방송하다 즉사 <br/> <br/>콘텐츠팀 이세연 lovok@kmib.co.kr

언론사: 국민일보-4-612.txt

제목: 삼성서울병원 조주희 교수, “암 치료 후 삶 복귀에도 관심 가져야”  
날짜: 20170329  
기자: 이기수 의학전문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329110944001  
ID: 01100201.20170329110944001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암 치료를 마쳤지만 여전히 심리적 혼란을 겪고 있는 암환자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 치료를 마치고 일상복귀를 준비할 때 새로운 삶의 목표와 희망을 세우는 암 생존자들이 더 행복감을 느낀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br/>삼성서울병원은 암교육센터 조주희( <br/>사진), 강단비 교수 연구팀이 최근 12개월 내 유방암 치료를 마친 환자 283명을 대상으로 주관적 행복감과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영적 측면의 관계를 밝히는 연구를 수행한 결과 이 같이 확인됐다고 29일 밝혔다. <br/> <br/> 이들의 나이는 평균 48.5세였고, 중년 이후 발견된 유방암 때문에 힘든 시간을 겪었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치료 후 삶의 모습은 목표의식에 따라 완전히 달랐다. <br/> 조사결과 자신의 현재 삶에 대해 평가하면서 ‘매우 행복하다’라고 답한 환자는 전체의 14.5%(41명)로 나타났다. 한 단계 아래 그냥 ‘행복하다’고 응답자는 43.8%(124명)였다. 암 치료 후 행복하다고 느끼는 환자수가 절반이상에 이르는 것이다. <br/> 특히 이들 행복감을 느낀 환자가 느끼는 주관적 삶의 질(Quality of Life)은 67.6점으로 그렇지 않은 환자들(49.6점) 보다 18점이나 높게 조사됐다. <br/> 또 행복감을 느끼는 환자들은 신체, 감정, 인지, 사회 기능 등에서 그렇지 않은 환자 보다 더 높은 점수를 보였고, 암 치료 후 환자들이 흔히 겪는 피로, 통증, 불면 등의 증상들 역시 행복하다고 답한 환자들이 그렇지 않은 환자에 비하여 적게 나타났다. <br/> 무엇보다도 행복감을 느끼는 환자들은 미래에 대한 전망에서 큰 차이를 보였다. <br/> 행복한 환자들이 그렇지 않은 환자들에 비해 미래에 대한 확신이 강했고(27.2%대 11.9%), 삶의 목적(22.4%대 9.3%) 또한 분명했다. <br/> 연구팀은 특히 ‘삶의 목적’과 ‘희망’을 다른 인구사회학적 요인들과 떼내어 따러 분석했을 때 이들 요인의 유무에 따라 암 치료 후 행복감을 느끼는 차이가 각각 2배, 4배 가량 차이가 나서 눈길을 끌었다고 전했다. <br/> 조주희 교수는 “<span class='quot0'>일반적으로 암을 진단받게 되면 여러 걱정들과 현실적 어려움으로 삶의 목적이나 희망을 잃기 쉽다</span>”면서 “<span class='quot0'>치료를 마치고 난 뒤에도 이러한 일들이 반복되면서 행복한 환자들에 비해 그렇지 않은 환자들의 더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span>”고 지적했다. <br/> 그러면서 “환자들이 삶에 대한 목표를 가지고 희망을 가질 때 더 행복한 일상복귀가 가능하다는 것이 증명된 만큼 이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br/> 연구결과는 곧 출판될 정신종양학 분야 국제학술지 '사이코온콜로지(Psychooncology) 의 표지논문으로 채택돼 발표될 예정이다. <br/> <br/> <br/>▶[단독] 朴 “뇌물 받으려고 대통령 된 줄 아느냐” 조사 받다 흥분해 탈진 <br/>▶검찰 “<span class='quot1'>박 전 대통령,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span>” <br/>▶"버스에 깔린 청년 구하자!" 시민들 힘 합쳐 구조 [영상] <br/>▶'BBK 실소유주는 이명박' 폭로 김경준, 오늘 만기출소 <br/>▶욕먹고 맞고 잘리고… ‘동네북’된 경비원 <br/>▶호남 경선서 2등한 안희정이 SNS에 올린 글 보니 <br/>▶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된다면 첫 식사는?… 구치소 생활 엿보기 <br/>▶"국민께 사죄 안 하면 비리 폭로한다" 국정농단 예언한 박관천의 경고 <br/>▶마티즈 탄 미모의 BJ, 운전 도중 생방송하다 즉사 <br/> <br/>이기수 의학전문기자 kslee@kmib.co.kr

언론사: 국민일보-4-613.txt

제목: [& And 건강] 생활고에 중병까지… 보험도 못 들어 막막한가요? ‘재난적 의료비’에 SOS  
날짜: 20170328  
기자: 김동우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328050155001  
ID: 01100201.20170328050155001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서울 동대문구에 사는 윤모(57·여)씨는 2015년 4월 혈액암 확진 판정을 받았다. 두 자녀를 둔 그는 남편이 벌어오는 월 150만원으로 버텨왔지만 남편이 병간호를 위해 회사를 그만두며 생활이 더욱 어려워졌다. <br/> <br/> 윤씨는 혈액암 확진 이후 화학치료를 2번 받았다. 희귀질환인 역형성 대세포 림프종이 진행 중이었다. 하는 수 없이 비급여 약제를 사용했고 4개월간 치료비 4525만원이 나왔다. 민간보험을 들지 않아 비용은 고스란히 윤씨의 몫이었다. <br/> <br/> 항암제 중에는 건강보험 지원을 받을 수 없는 비급여 약제가 많다. 신약이 많고 희귀성 질환도 많기 때문이다. 중산층일지라도 높은 항암제 비용을 감당하다 보면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메디컬푸어(Medical Poor)는 대부분 암 등 중증질환에서 발생한다. <br/> <br/> 그나마 다행으로 윤씨는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부담을 안고 있는 저소득층 중증질환자 가구에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인 재난적 의료비 수혜 대상에 포함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000만원의 지원금을 받은 윤씨는 최근 골수 이식을 받고 추가 치료를 위해 항암제를 투여할 예정이다. <br/> <br/> 가계 파탄 방지 위한 재난적 의료비 <br/> <br/> 재난적 의료비는 메디컬푸어 방지를 위한 한시적 보완대책으로 비급여 의료비용 등 본인부담금에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한다. 보건복지부가 정부 추가 예산 300억원을 활용해 2013년 8월부터 시행한 것이 사업의 시초다. <br/> <br/> 2015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할 예정이었으나 제도를 필요로 하는 이들이 많았다.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와 선택진료비·상급병실료 등 비급여 제도가 근본적으로 개선되지 않는 이상 재난적의료비는 존속할 가능성이 크다. <br/> <br/> 2014∼2015년 사업비 600억원과 지난해 사업비 550억원은 정부 복권기금과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금으로 절반씩 마련됐다. 올해 사업비는 525억원으로 정부와 모금회가 177억5000만원씩을 부담하고 건강보험 재정이 170억원을 투입한다. <br/> <br/>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span class='quot0'>10년 넘게 환자 인권운동을 해오면서 가장 피부로 느낄 수 있었던 사업이 재난적 의료비</span>”라며 “<span class='quot0'>550억원을 투자해 의료비 보장률을 10% 이상 올린 정책은 이전에 없었다</span>”고 말했다. <br/> <br/> 그는 “<span class='quot0'>환자에게 시혜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아니라 환자의 기본권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재난적 의료비는 성공을 거뒀다</span>”며 “<span class='quot0'>다만 노인이나 저학력층 등은 재난적 의료비를 모르는 경우가 많다</span>”고 평가했다. <br/> <br/> 재난적 의료비 신청은? <br/> <br/> 경기도 하남에 사는 김모(42)씨는 16년간 만성신부전으로 장기투석을 받느라 정기적인 경제활동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아내의 경제활동으로 생활해 왔지만 출산 후 소득마저 줄어든 상태다. 신장이식과 신장암 치료에 드는 치료비를 감당하기는 더욱 힘겨웠다. <br/> <br/> 김씨는 신장암제거 수술과 신장이식 수술로 3차례 입원해 2000여만원의 치료비가 필요했다. 이후에도 이식거부반응 예방을 위해 평생 면역억제제를 복용하며 지속적인 추적 관찰을 받아야 한다. <br/> <br/> 아내가 신장을 기증해 수술은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가족의 긍정적인 응원 속에 상태는 호전 중이다. 또 공단으로부터 1078만원의 재난적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었다. <br/> <br/> 김씨처럼 환자부담금이 일정 수준 이상 발생한 환자 또는 대리인은 입원 시부터 퇴원 후 60일 이내에 재난적 의료비를 공단에 신청할 수 있다. <br/> <br/> 의료급여 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은 100만원, 기준중위소득 80% 이하는 200만원, 기준중위소득 80∼100%는 연간 소득 대비 30% 이상의 의료비가 발생한 경우 심의위원회에서 심사해 지원 여부가 결정된다. <br/> <br/> 의료비 100만∼500만원 이하 환자는 50%, 500만원 초과∼1000만원 이하 환자는 60%, 1000만원 초과 환자는 70%의 의료비에 대해 재난적 의료비를 지원받는다. 대상 질환은 4대 중증질환인 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질환과 사망 제외 중증화상이다. <br/> <br/> 복지부 보험정책과 신혜경 사무관은 “재난적 의료비는 비급여 혹은 본인 부담이 큰 저소득계층의 의료비 부담을 정부가 지원해서 줄이자는 취지로 마련됐다”며 “의료비로 가계가 파탄 나는 경우가 없도록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br/> <br/> 하반기 특별법 제정 목표 <br/> <br/> 지난해 재난적 의료비를 신청한 저소득층의 의료비 보장률은 지원 전 76.2%에서 지원 후 86.8%로 10.6% 포인트 높아졌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88.4%, 차상위계층은 87.3%로 높은 보장률을 보였다. 복지부와 공단은 재난적 의료비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이 충분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각종 의료협회, 병원 등과 협조해 홍보와 안내를 추진하고 있다. 신 사무관은 “제도 시행 5년차로 요즘은 병원에서 환자에게 재난적 의료비 사업을 소개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br/> <br/> 복지부는 한시적으로 시행되던 재난적 의료비를 내년 정례화하기 위해 지원 대상과 수준, 범위와 재원 마련 방식을 검토 중이다. 하반기 특별법 제정을 목표로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신 사무관은 “4대 중증질환에 지급됐던 재난적 의료비를 고액이 드는 모든 질환으로 확대할 계획”이라며 “의료비 지원 대상도 건강보험료 납부액 하위 50% 수준까지 넓히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br/> <br/> 신 사무관은 “민간 실손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10만명 정도를 지원 대상으로 할 때 예산은 연 1600억∼1700억원이 든다”며 “건강보험 재원과 복권기금, 건강증진기금에서 재정 충당 방안을 협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재난적 의료비 수급 대상자에 건강보험 가입자뿐 아니라 의료급여 수급자나 차상위계층도 많이 포함된다”며 “그분들의 의료비 보장을 위해서라도 건강보험 재정 외의 정부 재정이 추가로 투입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br/> <br/> <br/>■ 벨기에·伊·英 의료 보장성 높은 유럽 국가들도 고액 의료비 관련 특별기금 운영 <br/> <br/> <br/>임승지 건강보험 정책연구원은 지난달 22일 발표한 ‘중증질환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효과 평가 및 제도화 방안’ 보고서에서 2013년 우리나라 의료비 중 가계지출 비율이 35.9%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멕시코(45.2%)에 이어 2번째로 높다고 지적했다. OECD 평균 가계지출 비율은 19.1%다. <br/> <br/> 임 연구원은 2005년부터 꾸준히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폈음에도 2006년 64.5%였던 건강보험 보장률이 2014년 63.2%에 머물렀다고 강조했다. 비급여 진료비의 지속적 상승을 그 이유로 꼽았다. <br/> <br/> 선진국은 비급여 진료에서 발생하는 저소득층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 중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벨기에는 특별연대기금(SSF·Special Solidarity Fund)을 건강보험료와 제약회사 급여의약품 매출액의 1%, 담뱃세 등으로 확보해 1989년부터 운영 중이다. 희귀질환, 복합적이고 장기적 치료를 요구하는 질환, 혁신적인 치료기술, 어린이 만성 중증질환 등 고액의 비급여 의료비는 SSF가 지원토록 건강보험법에 규정됐다. <br/> <br/> 이탈리아는 ‘5% AIFA Fund’를 운영한다. 의약품청(AIFA)은 급여 목록에 없는 고가의 약에 ‘동정적 사용(compassionate use)’ 명목으로 제약회사 판촉비의 5%를 갹출한다. 재정 규모는 연간 약 4000만 유로(500억원)다. <br/> <br/> 영국은 암약재정(CDF·Cancer Drug Fund)을 운영한다.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의 공약으로 2010년 설립된 CDF는 급여에 포함되지 않는 암 관련 의약품 또는 질환이나 증상에 의료비 지원을 하고 있다. 재정은 영국 의료보험기구 예산 중 별도의 고정 예산으로 편성된다. <br/> <br/> 임 연구원은 “<span class='quot1'>의료 보장성이 높은 국가에서도 고액의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특별기금이 운영되고 있다</span>”며 “<span class='quot1'>건강보험의 보편성과 형평성을 고려해 고소득자 기준을 엄격히 적용해서라도 전 국민이 재난적 의료비 지원 혜택을 받도록 할 필요가 있다</span>”고 주장했다. <br/>▶'BBK 실소유주는 이명박' 폭로 김경준, 오늘 만기출소 <br/>▶‘7년차’ 안철수 독오른 연설… "드디어 정치인" (영상) <br/>▶욕먹고 맞고 잘리고… ‘동네북’된 경비원 <br/>▶호남 경선서 2등한 안희정이 SNS에 올린 글 보니 <br/>▶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된다면 첫 식사는?… 구치소 생활 엿보기 <br/>▶"국민께 사죄 안 하면 비리 폭로한다" 국정농단 예언한 박관천의 경고 <br/>▶마티즈 탄 미모의 BJ, 운전 도중 생방송하다 즉사 <br/> <br/> <br/>글=김동우 기자 love@kmib.co.kr, 사진=서영희 기자, 그래픽=전진이 기자

언론사: 국민일보-4-614.txt

제목: 당뇨 있으면 암 사망률 26% 더 높다  
날짜: 20170328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328050057001  
ID: 01100201.20170328050057001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당뇨병이 암에 의한 사망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사실이 국내 의료진이 참여한 대규모 국제 코호트 연구를 통해 밝혀졌다. <br/> <br/>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은 예방의학과 유근영(사진)·강대희 교수 연구팀이 성균관의대 신명희 교수와 공동으로 ‘아시아 코호트 컨소시엄’ 참여자 77만 명을 2005년부터 12년간 추적 관찰한 결과 제2형(후천성) 당뇨병 환자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어떤 종류든 암으로 죽을 위험성이 26%가량 더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27일 밝혔다. <br/> <br/> 아시아 코흐트 컨소시엄은 한국, 일본, 중국, 대만, 인도, 싱가포르, 방글라데시 등 7개국 사람들에게 흔히 나타나는 질병군의 역학관계를 조사, 서양인과 다른 점을 규명하는 다국가 국제 공동연구 사업이다. <br/> <br/> 연구결과 당뇨병으로 인한 암별 사망 위험도는 자궁내막암과 간암이 각각 2.7배, 2배 이상으로 가장 높았다. 이어 갑상선암(99%) 신장암(84%) 유방암(72%) 췌장암(53%) 담도암(41%) 대장직장암(41%) 등의 순서였다. <br/> <br/> 연구팀은 소화기계 암이나 유방암의 진행에 미치는 당뇨의 영향은 아시아인이나 서양인 모두 비슷하다고 평가했다. <br/> <br/> 유근영 교수는 “제2형 당뇨병이 아시아인에게 주요 암의 발병 및 진행에 영향을 미치는 고(高)위험인자라는 사실을 새로이 확인한 셈이다. 아시아 각국은 앞으로 급증하는 암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서라도 당뇨병 환자 줄이기 정책을 개발,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br/> <br/> 연구결과는 당뇨병 관련 국제 학술지 ‘다이아베톨로지아(Diabetologia)’ 최근호에 게재됐다. <br/> <br/>▶'BBK 실소유주는 이명박' 폭로 김경준, 오늘 만기출소 <br/>▶‘7년차’ 안철수 독오른 연설… "드디어 정치인" (영상) <br/>▶욕먹고 맞고 잘리고… ‘동네북’된 경비원 <br/>▶호남 경선서 2등한 안희정이 SNS에 올린 글 보니 <br/>▶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된다면 첫 식사는?… 구치소 생활 엿보기 <br/>▶"국민께 사죄 안 하면 비리 폭로한다" 국정농단 예언한 박관천의 경고 <br/>▶마티즈 탄 미모의 BJ, 운전 도중 생방송하다 즉사 <br/> <br/> <br/>이기수 의학전문기자

언론사: 국민일보-4-615.txt

제목: 고강도 집속 초음파치료기 ‘하이푸 나이프’， 자궁근종·간암·췌장암·유방암 치료에 탁월  
날짜: 20170328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328050055001  
ID: 01100201.20170328050055001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고강도 집속 초음파 치료기 ‘하이푸(HIFU) 나이프’가 자궁근종과 간암뿐만 아니라 췌장암과 유방암을 축소시키고 생존율을 높이는데 기여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br/> <br/> 서울하이케어의원은 김태희 원장이 최근 대한통합암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하이푸 나이프를 이용한 간암과 췌장암, 유방암 치료 사례를 공개해 주목을 받았다고 27일 밝혔다. <br/> <br/> 하이푸 나이프는 ‘하이 인텐시티 포커스드 울트라사운드 나이프’의 약칭이다. 돋보기로 빛 에너지를 모아 종이를 태우듯이 고강도 초음파 열에너지를 한 곳에 집중시켜 칼로 도려내듯이 혹을 태워 없앤다는 뜻이다. <br/> <br/> 하이푸 나이프는 특히 자궁선근증과 간암, 췌장암, 유방암 등의 제거 및 축소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2006년과 2011년 여의도성모병원이 잇따라 시행한 임상연구에서 혈관색전술과 병용할 경우 치료효과가 배가되는 것으로 확인되기도 했다. 혈관색전술은 암세포에 영양을 공급하는 혈관을 막아 암 조직을 괴사시키는 항암 치료법이다. <br/> <br/> 김 원장은 “<span class='quot0'>진단 시 수술이 가능한 경우가 약 20%에 불과하고, 방사선과 항암제 치료에도 반응이 안 좋은 것으로 알려진 간암 극복에 하이푸와 색전술 병행요법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span>”고 강조했다. <br/> <br/>▶'BBK 실소유주는 이명박' 폭로 김경준, 오늘 만기출소 <br/>▶‘7년차’ 안철수 독오른 연설… "드디어 정치인" (영상) <br/>▶욕먹고 맞고 잘리고… ‘동네북’된 경비원 <br/>▶호남 경선서 2등한 안희정이 SNS에 올린 글 보니 <br/>▶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된다면 첫 식사는?… 구치소 생활 엿보기 <br/>▶"국민께 사죄 안 하면 비리 폭로한다" 국정농단 예언한 박관천의 경고 <br/>▶마티즈 탄 미모의 BJ, 운전 도중 생방송하다 즉사 <br/> <br/> <br/>이기수 의학전문기자

언론사: 국민일보-4-616.txt

제목: 이대목동병원, 27일 암 극복 축하 파티 개최  
날짜: 20170327  
기자: 이기수 의학전문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327134244001  
ID: 01100201.20170327134244001  
카테고리: 문화>전시\_공연  
본문: 이대목동병원(병원장 유경하)은 27일 2층 대회의실에서 암 진단 후 5년 이상 된 암 환자들을 초청해 암 극복 축하 파티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br/>사진). <br/> <br/> <br/>행사는 유방암·갑상선암센터 권형주 교수의 사회로 진행됐다. 유경하 이대목동병원장, 백남선 이대여성암병원장, 문병인 유방암·갑상선암센터장, 김광호 위암·대장암협진센터장, 문영철 혈액종양내과 교수 등 의료진과 암환우회 가족 100여 명이 참석했다. <br/> <br/>유경하 이대목동병원장은 이 자리에서 격려사를 통해 “암 치료 과정과 극복까지 환우 여러분이 보여 준 의지는 가족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에너지를 줄 것이라 믿는다. 향후 스스로 ‘내가’ 주체가 되는 인생을 만들어 가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br/> <br/>이어 백남선 이대여성암병원장을 비롯한 의료진과 환우들은 암 극복 축하 기념 케이크 커팅을 했고, 여성암 환우로 구성된 해피바이러스 합창단, 라인댄스 팀, 환우 가족의 축하 공연이 이어졌다. 또한, 손혜경 드라마 헤어 디자이너가 ‘성공적인 사회 복귀 경험’이란 주제로 자신의 암 투병기에 대해 이야기해 참석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br/> <br/> <br/>▶"국민께 사죄 안 하면 비리 폭로한다" 국정농단 예언한 박관천의 경고 <br/>▶마티즈 탄 미모의 BJ, 운전 도중 생방송하다 즉사 <br/>▶‘그날의 단서’ 타각지시기·로그기록 확보해야 <br/>▶“아직 나무는 위험해” 판다 어미의 모성, 새끼의 반항 (영상) <br/>▶이게 현실… 밤에 본 미세먼지는 더 충격적이다 (영상) <br/>▶"탕수육 시켜주겠다" 특검에 이재용 부회장의 대답 <br/>▶질질 끌고가 발로 퍽… 강아지유치원 옥상에서 촬영된 영상 <br/>▶세월호에 뚫린 구멍 ‘천공’이 처음 나타났다 <br/> <br/>이기수 의학전문기자 kslee@kmib.co.kr

언론사: 국민일보-4-617.txt

제목: 대한혈액학회, 혈액암의 新 치료지표 '미세잔존질환' 주요의제로 토론  
날짜: 20170324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324170544001  
ID: 01100201.20170324170544001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지난 18일 세브란스병원에서 개최된 다발골수종연구회 춘계학술대회에서는 다발골수종의 진단, 치료에 관한 최신 동향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그 중 하나가 혈액암 치료 시 치료여부를 나타내는 새로운 지표에 대한 소개였다. <br/> <br/>다발골수종은 골수에서 비정상적인 형질세포가 증식해 나타나는 혈액암으로 주로 고연령에서 나타나는데 특히 고령화 사회가 급속도로 진전되면서 지난 20년간 전체 암 발생은 4배 증가한 반면 다발골수종은 약 30배 증가해 발병율이 가장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br/> <br/>완치개념이 없고 대부분의 환자에서 재발한다. 치료반응을 나타내는 지표로 완전관해(Complete response, CR)라는 개념을 사용하는데 종양이 완전히 소실되었다고 추정되는 상태를 말한다. 종양이 소실되었다고 보는 지표는 전기영동검사법 상에서 이상단백이 검출되지 않는 것이다. 이 검사법은 지난 수십 년 동안 활용되어 온 개념이다. <br/> <br/>그 사이 검사법이 비약적으로 발전되어 보다 검출능력이 뛰어난 중경쇄정량분석법(Heavy-Light Chain Assay), 유전자재배열PCR검사(B-cell/T-cell rearrangement PCR test) 그리고 차세대염기서열분석법(NGS) 등이 등장했다. 미세하게 존재하는 종양세포들을 검출하게 되었고 국제다발골수종학회(IMWG)에서도 이런 검사법으로 미세잔존질환(MRD)이 검출되지 않을 때까지 치료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br/> <br/>이론상으로 미세잔존질환(MRD)의 검출은 전상세포 백만 개 중 종양세포 한 개까지 검출이 가능한 정도는 되어야 한다고 하나 실질적인 측변에서 그런 검사법은 워낙 고가인데다 보험도 되지 않으므로 사용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하여 국제다발골수종학회에서는 보다 간편하고 적용가능한 중경쇄정량분석법을 대리마커(surrogate marker)로서 권고하고 있다. (2016 IMWG MM Guidelines) <br/> <br/>특히,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검사법이 신의료기술 허가를 거쳐 보험에 등재되어 환자치료에 도움을 주게 되었다. 즉, 중경쇄정량분석법과 유전자재배열 PCR검사(B-cell/T-cell rearrangement PCR test) 모두 지난 해 7월 1일부로 보험혜택을 볼 수 있으며 다발골수종 환자의 경우 보험급여의 5%만 부담하면 되므로 부담 없이 활용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고시 제 2014-32호) <br/> <br/>다발골수종 치료모니터링을 전기영동검사법으로 시행하다가 정상으로 환원되는 시점에 안심하지 말고 중경쇄정량분석법으로 다시 확인하여 종양세포가 검출되면 치료를 계속하여 정상이 될 때까지 지속하고 이후에는 유전자재배열 PCR검사를 활용하여 역시 정상이 될 때까지 치료를 계속한다면 낮은 비용으로 효과적인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한다. <br/> <br/>중경쇄정량분석용 Hevylite®시약, 유전자재배열 PCR 검사용 시약 Identiclone® 및 NGS용 시약 Lymphotrack®은 ㈜다우바이오메디카에서 공급 중이다. <br/> <br/>콘텐츠팀 이세연 lovok@kmib.co.kr

언론사: 국민일보-4-618.txt

제목: 서울송도병원, ‘암면역 치료’ 세미나 성황리 개최  
날짜: 20170324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324100044001  
ID: 01100201.20170324100044001  
카테고리: 사회>사회일반  
본문: 서울송도병원 암면역센터가 지난 15일 오후 2시 암환자와 가족, 의료진과 연구진 및 업체 관계자를 대상으로 암면역 세미나를 개최했다. <br/> <br/>서울송도병원 암면역 세미나는 ‘암을 극복하는 생활’이라는 주제로 열렸다. 미국 최초 통합 암 치료기관인 블록센터 (Block Center)의 설립자 키이스 블록(Keith Block)의 동명의 저서를 바탕으로 진행되었으며 암 발생요인, 암면역치료의 개념 및 건강한 라이프스타일과 식습관에 대한 내용에 역점을 두었다. <br/> <br/>이 날 세미나는 ▲암을 극복하는 생활 (이종균 서울송도병원 이사장), ▲암을 극복하는 식이요법’(이가이 서울송도병원 암면역센터 영양팀장)이라는 주제로 개최되었다. <br/> <br/>‘암을 극복하는 생활’ 세미나는 암 발병요인 및 면역체계의 기능, 암면역치료가 암 발생 및 치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유용한 정보가 제공되었으며, ‘암을 극복하는 식이요법’ 에선 건강한 식생활과 암 예방의 상관관계에 대한 내용이 전달되었다. <br/> <br/>이번 세미나는 암의 발생요인과 세포의 특징, 암면역 치료 등의 학술적인 내용은 물론, 암환자 및 암 치유 후의 환자들이 생활 속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정보에 이르는 폭넓은 주제를 다뤄 암환자 및 가족들의 관심을 높였다. 어려운 학술적 정보가 다뤄지는 주제였지만, 쉬운 설명과 간결한 비유로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호응도를 가져올 수 있었다. <br/> <br/>세미나 관계자는 “<span class='quot0'>이번 세미나는 암과 암면역치료에 대한 개념은 물론, 예방 및 치료에 도움이 되는 생활 속 정보에 대한 사람들의 높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던 자리</span>”라고 전하며 “<span class='quot0'>매주 수요일 정기적인 세미나를 개최하여 더 많은 분들과 암면역에 대한 정보를 공유할 예정</span>”이라고 밝혔다. <br/> <br/>암면역 세미나 및 암면역 센터 관련 문의사항은 서울송도병원 암면역센터 홈페이지 및 상담센터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br/> <br/>콘텐츠팀 이세연 lovok@kmib.co.kr

언론사: 국민일보-4-619.txt

제목: 중증질환 아동 치료비 年평균 2400만원 지출  
날짜: 20170324  
기자: 윤성민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324000001001  
ID: 01100201.20170324000001001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태어나 지금까지 63번 수술했어요. 한창 수술할 때는 병원비가 한 달에 5000만원씩 나왔어요.”(식도 관련 희귀질환 아동의 보호자) <br/> <br/> 중증질환을 앓는 아동 가족의 연평균 의료비 지출액이 2467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증질환 아동이 있는 가구 중 의료비를 연간 1000만원 이상 지출하는 가구의 비율은 40%였다. 한국의 대표적 어린이복지기관인 초록우산어린이재단에 의료비 지원을 신청한 200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다. <br/> <br/> 중증질환은 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 질환 등 네 가지 질환과 이에 준하는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환을 대상으로 했다.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아동복지연구소는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어린이 병원비 국가보장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이 같은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br/> <br/> 중증질환 아동 가구의 의료비 부담이 큰 이유는 의료비 중 비급여 항목이 많기 때문이다. 아동복지연구소의 설문조사에서 한 중중질환 아동의 보호자는 “증상이 너무 심하니까 먹는 약으로는 안 되고 척추에다가 바로 약을 넣자고 해서 배에 기계를 심었는데, 한국에 수입된 지 2년밖에 안 된 기계여서 건강보험 적용이 안 돼 기계값만 800만원 들었다”고 말했다. <br/> <br/> 서울대 의과대학 김윤 교수는 중증질환 아동 가구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의학적으로 꼭 필요한 비급여 진료비를 급여 진료비로 전환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 연구에 따르면 4대 중증질환에서 의학적으로 필수적인 비급여 진료비는 2008년과 2014년 사이 약 10% 증가했다. 또한 비급여 진료 사전동의제도 등을 마련해 불필요한 비급여 진료는 줄이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br/> <br/> 김은정 아동복지연구소장은 “<span class='quot0'>다만 초록우산어린이재단에 도움의 손길을 신청한 가구인 만큼 전체 중증질환 아동 가구 평균보다 의료비 부담이 클 가능성은 있다</span>”고 설명했다. <br/> <br/>글=윤성민 기자 woody@kmib.co.kr, 그래픽=박동민 기자

언론사: 국민일보-4-620.txt

제목: 삼성화재， 사망·장해·진단·실손까지 보장하는 통합보험  
날짜: 20170324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324215755001  
ID: 01100201.20170324215755001  
카테고리: 경제>금융\_재테크  
본문: 건강·상해·비용 등 다양한 위험을 하나의 상품으로 보장하는 통합보험은 1인 가구에 제격이라고 할 수 있다. 삼성화재 통합보험 ‘모두모아 건강하게’는 상품 하나로 사망, 장해, 진단비, 실손의료비 등 건강보험 외 손해보험의 고유담보인 배상·화재 위험까지 모든 보장이 가능하다. 15년마다 보장내역 재점검을 통해 유연하게 재무 설계가 가능하고,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br/> <br/> 사망·장해·진단비 등은 한번 가입으로 100세까지 보장 받는다. 15년 동안 보험료 인상 없이 계약유지가 가능하다. 상해 80% 이상 후유장해 또는 질병고도장애(1, 2급) 발생 시 보험료 납입을 면제해 주는 기능도 있다. 보험기간 중 최초 암 진단 확정일로부터 2년이 지나서 새로운 암이 발생하거나 기존의 암이 전이·재발·잔존한 경우 재진단시마다 최대 2000만원의 진단비를 지급하는 등 암 보장을 확대했다. 납입기간 쌓은 적립금을 저축성 보험으로 계약 전환해 만기 또는 해지 시, 매년 또는 매월 분할수령할 수도 있다.

언론사: 국민일보-4-621.txt

제목: 금나노막대 연구로 뇌종양 치료법 개발… 성균관대 약학대 윤유석 교수  
날짜: 20170324  
기자: 김동우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324211755001  
ID: 01100201.20170324211755001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성균관대 약학대 윤유석(사진) 교수는 광견병 바이러스를 모방한 금나노막대로 뇌종양 치료법을 개발했다고 23일 밝혔다. <br/> <br/> 뇌종양은 평균 생존기간이 14.6개월로 짧은 위험한 암이다. 혈액과 뇌 장벽 사이의 치밀한 내피 구조가 약물을 억제해 치료제를 개발하기도 어렵다. <br/> <br/> 광견병 바이러스는 인체 감염 시 뇌척수염을 일으킨다. 총알 또는 막대 같은 생김새가 중추신경계 침투에 유리하기 때문이다. <br/> <br/> 연구팀은 광견병 바이러스와 크기나 모양 등이 유사한 금나노막대를 개발했다. 금나노막대는 성공적으로 혈액과 뇌 장벽을 우회해 뇌종양에 도달했다. 뇌종양에 도달한 금나노막대에 근적외선을 비추면 열을 발산한다. 암세포는 정상세포에 비해 온도 상승 저항력이 낮아 43∼45도 이상에서 사멸한다. 이 원리로 금나노막대는 암세포 표적치료제로 활용될 수 있다. <br/> <br/> 윤 교수는 “<span class='quot0'>인체에 위험하다고 알려진 광견병 바이러스의 특징에 착안해 뇌종양 표적치료법을 만들었다</span>”며 “<span class='quot0'>뇌종양 표적치료제가 실제 임상 적용이 가능하려면 극복해야 할 많은 단계가 남아 있어 연구가 더 필요하다</span>”고 말했다. 연구는 ‘어드밴스드 머테리얼스’ 지난 1월 30일자 온라인판에 게재됐다. <br/> <br/>김동우 기자

언론사: 국민일보-4-622.txt

제목: 위암 발견 76%가 1기… 남성이 배 많아  
날짜: 20170324  
기자: 민태원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324183755001  
ID: 01100201.20170324183755001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국내 위암 환자 10명 가운데 8명은 50∼70대였고, 암을 비교적 일찍 발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검진 확대와 위내시경 진단 수준의 향상 덕분으로 보인다. <br/> <br/>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15년 의료기관 221곳에서 시행된 원발성 위암수술 2만2042건을 대상으로 2차 적정성 평가를 실시한 결과, 위암 발견 시 병기(病期)는 75.7%가 1기에 해당됐다고 23일 밝혔다. 2기는 9.8%로 통상 조기 암을 1∼2기로 보는 점을 감안하면 전체 환자의 85.5%가 치료가 어렵지 않은 초기에 발견되고 있는 셈이다. 3기(11.5%)와 4기(3.0%)의 비중도 여전히 높은 편이다. <br/> <br/> 성별로는 남성(68.7%)이 여성(31.3%)보다 배 이상 많았다. 연령별로는 50∼70대가 78.8%를 차지했다. 남성은 60대(32.7%), 여성은 70대(28.1%)가 가장 많았다. <br/> <br/> 심평원 관계자는 “<span class='quot0'>남성이 아무래도 직장생활하며 맵고 짠 음식 섭취, 스트레스 등 위암 발병 요인이 되는 식생활 습관 노출이 많기 때문</span>”이라고 분석했다. 221개 의료기관 중 위암 수술 평가 대상에 해당되는 114곳에 대한 종합점수 산출 결과 1등급이 86%(98곳)였다. <br/> <br/>민태원 기자 twmin@kmib.co.kr

언론사: 국민일보-4-623.txt

제목: 2형 당뇨병, 암 사망 위험 26% 높인다…자궁내막암 사망 2.7배↑  
날짜: 20170323  
기자: 민태원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323153944001  
ID: 01100201.20170323153944001  
카테고리: 국제>국제일반  
본문: 2형 당뇨병이 암으로 인한 사망 위험을 높인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20대 이후 당뇨 진단 환자의 95% 이상을 차지하는 2형 당뇨병은 비만이나 운동부족 스트레스 등 여러 요인으로 발생한다. <br/> <br/> 서울대 의대 예방의학과 유근영·강대희 교수, 성균관의대 신명희 교수 연구팀은 한국과 중국 대만 인도 싱가포르 방글라데시 등 7개국 77만명을 2005년부터 12년간 추적 관찰한 결과, 2형 당뇨병을 갖고 있으면 모든 종류의 암 사망률이 26% 더 높았다고 23일 밝혔다. <br/> <br/> 질환별로는 자궁내막암 사망 위험이 2.7배, 간암 2.05배, 갑상샘암 1.99배, 신장암 1.84배, 유방암 1.72배, 췌장암 1.53배, 대장암 및 담도암 각 1.41배, 림프종 1.39배, 백혈병 1.30배 높았다. <br/> <br/> 그동안 2형 당뇨병과 암 발생 및 사망 관련성은 서양인 대상 연구가 대부분이었다. 아시아인 대상 대규모 연구는 이번이 처음이다.  <br/> <br/> 유 교수는 "<span class='quot0'>2형 당뇨병은 아시아인에게 중요 암 위험인자라는 사실을 새로 확인했다</span>"면서 "<span class='quot0'>아시아 각국은 최근 급증하는 암 발생 및 사망을 예방하기 위해 생활습관 개선 등 당뇨병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span>"고 강조했다. 이어 "아울러 당뇨병 환자에 대한 선별적 암 검진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br/> <br/> 이번 연구결과는 당뇨병 전문 저널 '다이아비톨로지아' 최신호에 발표됐다. <br/> <br/>민태원 기자 twmin@kmib.co.kr

언론사: 국민일보-4-624.txt

제목: 암요양병원 선택, “환경은 물론 치료 프로그램까지 확인해야”  
날짜: 20170323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323143744001  
ID: 01100201.20170323143744001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과거에는 치료법을 알 수 없어 불치병으로 여겨지던 ‘암’에 대한 인식이 최근 놀랍도록 발전한 현대 의학기술 덕에 생명연장부터 완치까지 가능한 질병으로 변화하고 있다. <br/> <br/>하지만 여전히 암을 치료하는 과정에는 환자 스스로의 강한 의지와 가족 및 주위사람들의 많은 희생이 요구되고 있다. 실제로 가족들이 환자와 매일 함께 시간을 보내며 모든 수발을 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직장을 그만두기에는 치료비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생기게 되며 그렇다고 오랜 기간 시간적인 여유를 마련하기도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br/> <br/>이러한 이유로 최근 치료를 결심한 암 환자들이 스스로를 요양하고, 가족들의 부담을 덜어 주고자 방문하는 곳 중 하나가 바로 암요양병원이다. 암요양병원이란 암환자들의 치료를 위해 전문적 관리와 다양한 치료법을 실시하는 병원으로 보통환자들의 심신을 안정시켜 줄 수 있는 쾌적한 환경에 위치해 있다. <br/> <br/>특히 암요양병원은 암 환자들의 단순 요양이 아니라 전반적인 생활과 집중적인 치료법을 제공하는 곳이다 보니, 병원을 선택할 때 반드시 주변 환경과 병원 시설, 실시되고 있는 치료 프로그램 등을 꼼꼼히 따져봐야 할 필요가 있다. <br/> <br/>때문에 요즘 대부분의 암요양병원들은 보다 전문적이고 다양한 치료방법을 제공하기 위해 양방 면역치료와 한방 면역치료를 통합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추세다. <br/> <br/>실제로 용인에 위치한 신갈백세요양병원은 양방 치료법으로 양약과 주사를 통한 면역 증강, 림프 부종치료, 고주파온열치료, 페인 스크램블을 이용한 통증치료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한방 면역 치료로는 약침과 면역단, 항암탕 등 다양한 방법을 이용하고 있다. <br/> <br/>용인 신갈백세요양병원 김지호 원장은 “<span class='quot0'>수술과 항암화학요법, 방사선 치료 등은 암 세포뿐 아니라 정상 세포까지 파괴시킬 수 있어 부작용에 대한 환자들의 부담이 큰 것이 사실</span>”이라며 “<span class='quot0'>본원의 경우 면역증강, 통증완화, 자연치유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통합치료를 실시, 기존의 의학적 단점을 최소화시킴으로써 환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span>”고 설명했다. <br/> <br/>이어 김 원장은 “<span class='quot0'>좋은 암요양병원을 선택할 때는 자연과 조화롭고 편리한 생활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병원의 입지 및 시설을 살펴봐야 하며, 환자의 체질과 증상에 따라 양∙한방 치료 프로그램이 복합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가에 대한 전문성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span>”고 강조했다. <br/> <br/>▶너무 귀여워서 1만명이 퍼간 당산역 에스컬레이터 벽보 <br/>▶"비용 많이 든다" 김진태 '세월호 인양' 반대 글 맹비난 <br/>▶세월호에 뚫린 구멍 ‘천공’이 처음 나타났다 <br/>▶홍준표 “노무현 정권, 뇌물로 시작해 뇌물로 끝났다” <br/>▶전여옥 “朴 머릿속에 도덕관념 없다…'아모랄' 상태” <br/>▶박 전 대통령 차량행렬을 본 시민의 돌발행동(영상) <br/>▶'임신한 배 갈라 새끼 꺼내는' 네티즌 울린 학대 4가지… 쎈법으로 사라질까 <br/>▶신격호 “난다고래” 일본어 횡설수설… 지팡이 투척까지 <br/> <br/> <br/>콘텐츠팀 이세연 lovok@kmib.co.kr

언론사: 국민일보-4-625.txt

제목: 더성형외과 옥재진 대표원장,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수상  
날짜: 20170323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323103044001  
ID: 01100201.20170323103044001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지난 21일 보건복지부에서 주최하고 국립암센터에서 주관하는 ‘제10회 암예방의 날’ 기념식에서 옥재진 대표원장을 포함해 암예방과 치료에 공로가 큰 인사들이 정부포상을 받았다. <br/> <br/>더성형외과 옥재진 대표원장은 유방암 환우들에게 재건수술 재능기부를 한 공로를 인정 받아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br/> <br/>옥 대표원장은 미용목적의 가슴성형에서 더 나아가 유방암으로 인해 가슴을 절제한 사람들에게 재건수술을 통해 상실한 여성성을 되찾아 주는 재능기부를 꾸준히 진행해 왔다. 2012년 EBS 가족건강프로젝트 ‘유방암 세 자매의 잃어버린 희망 찾기’ 방송을 통해 유방재건술 재능기부를 시작했으며 그 후 2017년 현재까지 매년 꾸준히 재능기부를 실천하고 있다. <br/> <br/>특히 옥 대표원장에게 무료로 유방재건술을 받고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 세 자매는 오늘날까지 더성형외과와 꾸준한 인연을 맺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옥 대표원장이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받는다는 소식을 듣고 축하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기념식에 참석, 자리를 빛냈다는 후문이다. <br/> <br/>옥 대표원장은 “<span class='quot0'>유방재건술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수술을 간절히 원하는 환우들이 많지만 비용적인 부담 때문에 망설이는 이들이 많다</span>”며 “<span class='quot0'>2015년 4월부터 건강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지만 여전히 수 백만 원 이상의 수술비가 소요되는 가운데 양쪽 가슴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진행되는 반대쪽 가슴성형은 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부담감은 여전하다</span>”고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br/> <br/>이어 “이러한 비용문제로 여성성을 상실한 채 살아가는 이들에게 작은 도움이 되고자 시작한 재능기부인데 보건복지부장관 표창까지 받게 돼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며 소감을 밝혔다. <br/> <br/>최근 국립암센터가 실시한 ‘암예방 인식 및 실천 행태 조사’의 통계결과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암예방 인지율은 66.8%, 실천율은 49.9%로 2007년과 비교해 약 10% 이상 상승했다. 반면 신체활동 실천율은 2007년 55.1%보다 감소해 2016년 54%를 기록했다. <br/> <br/>요컨대 암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실천의지는 높지만 실질적으로 암예방을 위해 신체활동을 하는 사람은 줄어든 것이다. 암은 여전히 무서운 질병으로 인식되고 있지만 5년 생존율이 10년 전보다 16.4% 증가한 70.3%에 달한다는 통계에 비춰 암은 장기간 관리를 통해 충분히 치료할 수 있는 질병이라고 할 수 있다. <br/> <br/>특히 유방암의 경우 생존율이 77.5%이며 1기의 경우 5년 생존율이 90% 이상이다. 과거에는 유방을 절제하고 목숨을 구했다는 것에 안도했지만 지금은 유방재건술을 통해 유방암 이전의 삶을 되찾은 사람도 많아졌다. <br/> <br/>이전에는 유방재건술을 하는 비율이 매우 적었지만 최근에는 유방암 환자의 40%가 유방재건술을 시행하고 있다는 통계만 봐도 알 수 있다. 이처럼 유방재건술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수술 횟수가 늘고 있기 때문에 유방재건술 재능기부를 지속적으로 진행해 온 옥 대표원장이 그 공로를 인정 받은 것으로 평가된다. <br/> <br/>한편 더성형외과는 로컬병원으로는 드물게 복부조직 재건, 등조직 재건, 보형물 재건이 모두 가능한 병원으로 알려져 있다. 옥 대표원장은 서울아산병원 재직시절부터 지금까지 수 많은 케이스의 유방재건술을 집도하면서 쌓은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유방재건술 분야의 권위자로 인정 받고 있으며, 현재 서울아산병원 성형외과 외래교수를 역임하고 있다. <br/> <br/>콘텐츠팀 이세연 lovok@kmib.co.kr

언론사: 국민일보-4-626.txt

제목: 만성간경화·에이즈 환자도 8월부터 호스피스 서비스  
날짜: 20170323  
기자: 민태원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323180955002  
ID: 01100201.20170323180955002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오는 8월 4일부터 회생 가능성이 희박한 만성간경화와 후천성면역결핍증(AIDS·에이즈) 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COPD) 환자도 말기 암 환자처럼 호스피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내년 2월부터는 질환과 관계없이 임종 과정의 환자에게 심폐소생술과 인공호흡기착용 혈액투석 항암제투여 등의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게 된다. <br/> <br/> 법에 추상적으로 규정돼 의료현장에서 혼란이 우려됐던 3개 질환별 말기 환자 진단과 임종 과정 판단 기준을 보건 당국이 22일 마련해 공개했다. 보건복지부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연명의료 결정법(일명 웰다잉법)’의 세부내용을 규정한 시행령 및 규칙 제정안을 오는 5월 4일까지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br/> <br/> 에이즈는 우선 ‘자기 돌봄이 불가능한 활동장애 상태(카르노프스키 수행상태지수 50 이하)’여야 한다. 아울러 여러 약제 내성, 중증 뇌병변장애, 에이즈 관련 암 말기, 말기 심부전·호흡부전·간경화 등 4가지 상태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br/> <br/> 만성간경화는 간세포의 70∼80% 이상이 기능을 못하는 C등급의 환자여야 한다. 간신 증후군, 간성뇌증, 정맥류출혈 등 3가지 합병증 중 한 가지 이상 해당하는 경우 말기로 판단한다. <br/> <br/> COPD는 숨이 차서 의자에 앉아 있는 것도 어렵거나 장기간 산소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담당의사 판단으로 수개월 내 사망 예상될 때 말기로 판단한다. 또 장기간 인공호흡기를 껴야 하거나 폐이식이 필요하지만 기준에 못 미치거나 환자가 이식을 거절할 경우 가능하다. <br/> <br/> 연명의료 중단 결정은 담당의사가 환자로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받아 판단하며 환자가 의식이 없거나 판단할 수 없는 상황인 경우에는 의사 2인과 가족 2인 이상의 확인을 거쳐 환자의 의사로 추정키로 했다. <br/> <br/>▶전여옥 “朴 머릿속에 도덕관념 없다…'아모랄' 상태” <br/>▶“문재인 후보의 비뚤어진 태도에 대해” 안희정 페북 상황 <br/>▶8년 전 盧 신문했던 우병우, 박근혜 다음 타자로 檢소환 거론 <br/>▶세월호 시험 인양 '이것'이 관건… 선체 온전히 들어올릴 수 있을까 <br/>▶박근혜 전 대통령 자택 경호관 권총 분실 후 되찾아 <br/>▶박 전 대통령 차량행렬을 본 시민의 돌발행동(영상) <br/>▶가짜 뉴스(?)…2012년 불거졌던 문재인 아들 특채 논란 <br/>▶'임신한 배 갈라 새끼 꺼내는' 네티즌 울린 학대 4가지… 쎈법으로 사라질까 <br/>▶신격호 “난다고래” 일본어 횡설수설… 지팡이 투척까지 <br/> <br/> <br/>민태원 기자 twmin@kmib.co.kr

언론사: 국민일보-4-627.txt

제목: 제10회 아산의학상 시상식， 기초의학 김진수·임상의학 한덕종  
날짜: 20170322  
기자: 민태원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322004655001  
ID: 01100201.20170322004655001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김진수(52) 기초과학연구원(IBS) 유전체교정연구단장과 한덕종(68) 서울아산병원 일반외과 교수가 제10회 아산의학상을 받았다. <br/> <br/> 두 사람은 21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 호텔에서 아산사회복지재단(이사장 정몽준) 주최로 열린 시상식에서 각각 기초의학과 임상의학부문 상을 받았다. <br/> <br/> 김 단장은 유전자의 염기서열 일부를 자르거나 교정할 수 있는 3세대 유전자 가위(크리스퍼-카스9) 기술을 개발했다. 2012년 인간세포의 유전자를 교정하는 데 세계 최초로 성공해 각종 유전질환과 암, 감염병 치료의 토대를 마련했다. <br/> <br/> 한 교수는 1992년 7월 국내 최초로 뇌사자 신장 및 췌장 동시 이식에 성공해 신부전과 당뇨합병증 환자 치료에 새 장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br/> <br/> 만 40세 이하 의과학자에게 주는 젊은의학자상 수상자로는 최정균(40) 카이스트 바이오뇌공학과 교수와 안정민(40) 울산의대 심장내과 교수가 선정됐다. 아산의학상은 각각 7억원, 젊은의학자상은 각각 5000만원의 상금을 받는다. <br/> <br/>민태원 기자 twmin@kmib.co.kr

언론사: 국민일보-4-628.txt

제목: 전이 암세포 생존 매커니즘 세계 첫 규명  
날짜: 20170322  
기자: 민태원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322211556001  
ID: 01100201.20170322211556001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전이되는 암세포가 살아남는 원리를 국내 연구진이 처음으로 밝혀냈다. <br/> <br/> 연세대 치대 육종인 교수팀은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황금숙 박사팀과 공동 연구를 통해 암이 발생해 다른 장기나 조직으로 옮겨가는 과정에서 암세포가 어떻게 생존하고 대사 경로를 바꾸는지에 대한 메커니즘을 규명했다고 21일 밝혔다. <br/> <br/> 전이 암세포는 증식 과정에서의 암세포와 달리 포도당 공급 부족 등 다양한 대사 스트레스를 이겨내고 살아남아야 한다. 이런 전이 암세포의 대사 작용은 그동안 베일에 싸여 있었다. <br/> <br/> 연구팀은 전이 과정에서 암세포가 포도당 공급이 없는 기아 상태를 극복하고 살아남기 위해 특정 단백질을 이용, 대사를 조절한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알아냈다. <br/> <br/> 전이 암세포는 ‘스네일’이라는 단백질을 이용해 대사물질인 ‘PFKP’ 발현을 억제함으로써 암세포의 생존을 유도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연구 결과는 국제 학술지 네이처커뮤니케이션즈 최신호에 발표됐다. <br/> <br/>민태원 기자

언론사: 국민일보-4-629.txt

제목: 녹차 많이 마시면 '대장암 씨앗' 위험 19%↓  
날짜: 20170321  
기자: 민태원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321140644001  
ID: 01100201.20170321140644001  
카테고리: 사회>사회일반  
본문: 녹차 추출물을 많이 섭취하면 대장 용종(폴립)과 대장암 위험을 줄일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br/> 용종(혹)은 향후 암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 '대장암의 씨앗'으로 불린다. <br/> 분당서울대병원 소화기내과 이동호 교수팀과 국내 연구팀은 내시경으로 대장 용종절제 수술을 받은 143명을 대상으로 임상시험한 결과, 녹차추출물 복용군이 복용하지 않은 대조군에 비해 선종 발생률과 재발률에서 모두 감소한 것을 확인했다고 21일 밝혔다. <br/> 연구는 1년간 0.9g의 녹차 추출물 복용군(72명)과 그렇지 않은 대조군(71명)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이들을 대상으로 대장 내시경을 실시한 결과, 선종 발병률은 녹차추출물 복용군에서 23.6%, 대조군에서 42.3%로 나타나 18.7% 더 낮았다. 재발성 선종 발생 건수 또한 복용군에서 대조군보다 감소했다. <br/> 이동호 교수는 "<span class='quot0'>녹차 속 카테킨 성분이 항염증 및 항암 작용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span>"고 말했다.  <br/> 이번 연구결과는 유럽임상영양 대사증후군 공식 학회지 '크리니컬 뉴트리션'에 발표됐다. <br/>  <br/>        <br/> <br/>민태원 기자 twmin@kmib.co.kr

언론사: 국민일보-4-630.txt

제목: 대림성모병원, 1주일간 유방암 예방 캠페인 펼친다  
날짜: 20170321  
기자: 이기수 의학전문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321104944001  
ID: 01100201.20170321104944001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대림성모병원(병원장 김성원)은 21일 암 예방의 날을 맞아 26일까지 1주일간 내원 환자들에게 유방암 바로 알기 소책자를 나눠주고 유방암 예방수칙도 알려주는‘굿바이(Goodbye) 유방암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br/>사진). <br/> <br/> <br/>조사결과 우리나라 여성 10명 중 1명(12.2%)만이 정기적으로 유방자가검진을 실시하고 3명 중 1명(29.3%)은 자가검진을 한번도 해본 적 없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br/> <br/>또한, 유방에 문제가 있으면 어떤 진료과에서 진료를 보아야 하냐는 설문에 응답자의 절반 이상(54%)이 외과가 아닌 산부인과, 흉부외과, 내과 등 다른 진료과를 꼽았다. <br/> <br/>여전히 많은 여성이 유방검진이나 유방에 문제가 발견될 경우 외과를 방문해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점도 개선해야 할 점으로 지적됐다. <br/> <br/>여성이라면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유방 엑스선 촬영 시기 역시 여전히 낮은 인식률을 기록했다. <br/> <br/>설문 참여자의 3명 중 1명 (32%)만이 40세 이상을 꼽았으며 나머지 68%의 여성을 잘못된 연령을 꼽았다. 또한, 유방의 실질이 지방조직에 비해 많이 분포해 유방암 위험도를 높이는 치밀유방에 대한 설문에서도 30%의 응답자가 치밀유방과 유방암의 관련이 없다는 오답을 택해 유방암 예방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이 부족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br/> <br/>김성원 대림성모병원장은 “<span class='quot0'>매년 유방암 환자가 늘어나지만, 유방암에 대한 인식 실태는 여전히 제자리걸음인 점이 안타까워 ‘Goodbye 유방암 캠페인’을 진행하게 됐다</span>”며 “<span class='quot0'>대림성모병원이 유방암 특화 병원으로 자리 잡은 만큼 유방암에 대한 올바른 인식 개선을 위해 앞으로도 여러 활동을 펼칠 계획</span>”이라고 말했다. <br/> <br/>이기수 의학전문기자 kslee@kmib.co.kr

언론사: 국민일보-4-631.txt

제목: [부활의 주를 만난 사람들] 세상의 지식을 좇다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 성경만이 진리 깨달아  
날짜: 20170320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320000356001  
ID: 01100201.20170320000356001  
카테고리: 문화>출판  
본문: 프랑스에서 조형예술학을 전공하며 나의 기존의 사고체계는 완전히 바뀌었다. 이분법적 사고를 해체하고 하나의 절대적인 진리나 사조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예술작품과 철학을 흡수하며, 이것이 내가 찾던 가치와 자유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일상은 늘 공허하기만 했다. 예술도 반대로 바라보면 다 허상 같고, 좋아했던 철학자들의 자살을 보며 인생이란 답이 없고 참 진리도 없다고 생각했다. <br/> <br/> 5년간의 유학생활을 마치고 귀국했다. 바뀐 환경에 가부장적인 아버지의 말은 억압 같아 숨이 막혔고 사회의 시스템과 모든 상황에 적응하지 못해 방황했다. 그러다 속이 너무 쓰려 병원에 갔는데 갑상선 암이었다. 충격을 받은 나는 교회에 다녀야겠다는 생각에 프랑스에서 복음을 전해준 언니에게 연락해 한마음교회에 갔다. <br/> <br/> 교회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표적은 부활’이라는 말을 처음 들었다. 죽음 앞에서 예수를 배신한 제자들의 변화를 통해 나는 왜 예수가 죽고 부활했는지, 왜 부활이라는 표적이어야 했는지 다시 보게 되었다. <br/> <br/> 죽음 앞에서 결국 스승을 부정했던 제자들은 삼일 후 다시 부활한 예수를 만나고 결국 굴복하고 순교의 삶을 살았다. 다 가졌으나 결국 ‘헛되고 헛되다’고 솔로몬이 말한 삶의 본질은 유한성이다. 그런데 죽음을 넘어 다시 살아난 표적은 의심할 수 없는 믿음의 증거가 분명했다. “사람으로 오셔야만 했구나! 부활만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는 증거구나! 예수님이 진짜로 부활하셨구나! 그러면 이분은 정말로 하나님이시구나!”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의 벽을 깨부수고 들어오시는 것 같았다. 그 때 언니는 예수님을 믿지 않은 죄, 내가 주인 된 죄를 회개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음에 주인으로 모셔야 한다고 했다. <br/> <br/> ‘내가 주인 된 죄?’ 나는 자기의 삶에 자신이 주인이 되어 주체적으로 사는 게 왜 죄인지 이해할 수 없었다. 내 강한 의지로 열심히 살면, 하나님께서 ‘애썼다, 수고했다’고 위로해 주실 줄 알았는데, 내가 주인 된 그것이 죄라니 너무 혼란스러웠다. “<span class='quot0'>예수님, 제가 주인 된 것이 그렇게 큰 죄입니까?</span>” 그 때, ‘우리의 주인 되시기 위해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사셨다’는 말씀이 떠올랐다. 충격이었다. <br/> <br/>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고통과 모욕 속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신 이유가 나의 주인 되기 위함이라니, 그 말씀 앞에 나는 마음이 무너져 내렸다. 나는 ‘하나님을 한낱 성인의 수준으로 전락시키고 위안이나 교훈만 주면 된다고 완전히 착각했구나. 창조주 앞에서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외치며 지독히 교만하고 멍청하게 살았구나, 이런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 죄를 다 사하시고 부활하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주셨는데, 끝까지 도전하며 이분을 무시하고 짓밟았구나!’ 나는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이제 다시 제가 주인 되어 살지 않겠습니다. 예수님만이 저의 참 주인이십니다.” 나는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했다. <br/> <br/> 그 후로 모든 가치관이 바뀌었다. 세상에서 배운 학문이 아닌 오직 성경의 말씀만이 내가 해야 할 생각이고 가야 할 길인 진짜 예수쟁이가 되었다. 나는 지금 공립미술관 큐레이터로 일하고 있다. 해외 미술관과 교류를 위해 종종 해외 출장을 간다. 뉴욕에 갔을 때, 한마음교회 지체와 타임스퀘어로 노방전도를 나가 세계 각국에서 모인 수많은 인종들 사이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예수 부활’을 전했다.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내가 사는 이유이자 목적이다. 예수님만이 내 삶의 유일한 가치다.

언론사: 국민일보-4-632.txt

제목: [암과의 동행] 의료계도 4차산업 물결… 대변혁 예고  
날짜: 20170320  
기자: 장윤형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320200555001  
ID: 01100201.20170320200555001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암 진단에 인공지능(AI) 닥터 ‘왓슨’이 도입되고, 퇴원 후 집에서 지속적으로 치료가 필요한 환자를 도와주는 로봇 도우미 ‘몰리’가 등장했다. 또 인간의 소변, 혈액, 타액 등의 유전 정보를 활용해 질병에 필요한 맞춤형 치료를 제시하는 머신 러닝도 선보였다. 이처럼 최근 ‘4차 산업혁명’의 물결이 제조업, IT, 금융 등 전 영역에 화두가 되는 가운데 건강관리, 질병치료 등 ‘보건의료’ 영역에서도 4차 산업혁명의 물결이 일고 있다. <br/> <br/> 클라우스 슈밥은 4차 산업혁명이 앞선 세 번의 산업혁명 이상으로 모든 면에서 강력하고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br/> <br/> 일부에서는 대한민국 양질의 인적 자원, 보건의료 영역에서의 선진적 지위를 활용해 ‘보건산업’ 영역에서의 4차 산업혁명에 적극 대비를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렇다면 보건산업과 관련해 산업혁명의 핵심이 될 기술들은 무엇일까. 보건산업진흥원에 따르면 사물인터넷, 이식기술, 인공지능 등이 앞으로 보건산업을 이끌 핵심 기술들이다. <br/> <br/> 사물인터넷(The internet of and for Things)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로 급부상하고 있다. 2022년이면 약 1조 개의 센서가 인터넷에 연결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보건산업 영역에서는 당뇨와 치매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다. 영국 NHS는 HP와 협력해 당뇨 디지털 코치 사업을 시행 중이다. 또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가정에 IoT기기를 설치해 모니터링하는 시범사업도 진행중이다. 이식 기술도 주요 분야다. 2023년이면 최초의 이식형 모바일 폰이 상업화될 전망이다. 일례로 비만환자의 지방수준을 모니터링하고 ‘배부름’을 느끼는 물질을 생성시키는 삼킬 수 있는 캡슐도 개발 중에 있다. <br/> <br/> 새로운 시각의 인터페이스 기술도 관심을 받고 있다. 구글에서는 구글 글래스를 제조해, 수술 시 환자 정보를 즉각적으로 확인하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 또 스마트폰을 활용해 응급상황 시에 모바일 원력진료, 무료 응급 전화 서비스가 시행될 가능성도 있다. <br/> <br/> 인공지능은 특히 보건의료 영역의 패러다임을 바꿀 기대주로 꼽히고 있다. IBM 왓슨의 암 치료계획 수립 보조는 현재 이미 시행되고 있다. 추후 피부암 등의 진단을 위한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다. <br/> <br/> 그동안은 환자를 간병인이 직접 돌봐야 했다. 이제는 로봇 간호사, 노인 요양보호사 등이 개발돼 노인 돌봄 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 2021년에는 미국에 로봇약사가 등장해, 약을 조제하는 역할도 도맡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3D 프린팅을 활용한 장기 이식도 앞으로 많이 활용될 영역이다. 현재 인체의 뼈조직 대체 및 모의 수술 용도로 다양한 3D 프린팅 기술이 활용되고 있다. 오는 2024년이면 3D 프린팅으로 제작된 간이 이식이 보편화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br/> <br/> 보건산업진흥원 보건산업기획단 정현학 선임연구원은 “4차 산업혁명의 기술적 변화는 현재 보건산업 영역을 규정하는 경계를 허물어 갈 것이다. 의료법, 약사법 등에 따라 산업의 경계가 견고했던 영역에서도 새로운 서비스의 결합 등으로 인해 그동안 인식해온 고정 산업의 경계가 무너질 것이다. 원격 로봇수술 등의 도입으로 인한 경계의 소멸은 헬스케어 영역의 전례없는 확장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 선임연구원은 “이 같은 산업변화로 우리는 그간 겪을 수 없었던 다양한 보건의료산업 변화를 보게 될 것이다. 이에 발맞춘 새로운 규제 시스템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br/> <br/>장윤형 기자 newsroom@kukinews.com

언론사: 국민일보-4-633.txt

제목: [암과의 동행] 만성골수성백혈병 진행 유전자 세계 첫 규명… 14년 연구 참여 김동욱 교수  
날짜: 20170320  
기자: 장윤형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320200155001  
ID: 01100201.20170320200155001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국내 연구진이 세계 최초로 만성골수성백혈병에서 급성기로 진행되는 데 관여하는 유전자를 발견했다. 만성골수성백혈병의 경우 진단 초기에 만성기의 순한 상태가 5∼6년간 지속되다가 표적항암제 치료에 실패하면, 갑자기 백혈병 암세포가 무한 증식해 1년 내에 사망하는 급성기로 변한다. 따라서 만성기에서 급성기로 전환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많은 연구자들이 그동안 급성기로 진행하는 원인을 밝히기 위해 노력했지만, 결정적인 유전자를 찾는데 실패해 왔다. <br/> <br/> 이런 가운데 최근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혈액내과 김동욱(사진)·성균관대학교 생명과학과 김홍태·울산과학기술원 생명과학부 명경재 교수 연구팀이 만성골수성백혈병에서 급성기 전환을 조절할 수 있는 유전자인 ‘코블1(Cobll1)’을 찾는데 성공했다. 세계 최초 성과로 연구 결과는 혈액암 분야 국제학술지 ‘루케미아(Leukemia)’ 인터넷판에 지난 2월 게재됐다. <br/> <br/> 지난 14년 간의 연구를 통해 세계 최초 성과를 도출해 낸 만성골수성백혈병 치료 권위자 김동욱 교수를 만났다. 김 교수는 “처음에는 순하게 시작하던 만성골수성백혈병이 왜 갑자기 급성기로 진행하는지 잘 알려져 있지 않았다. 이 이유를 규명한다면 만성기 환자가 급성기로 진행되는 것을 미리 알고, 원인에 대한 치료제를 개발한다면 급성기로 진행돼 사망하게 될 환자를 구할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다”며 연구 의의를 설명했다. <br/> <br/> 이번 연구의 핵심은 급성기 전환을 조절할 수 있는 ‘코블1’ 유전자를 찾은 것이다. 연구팀은 현재까지 14개의 유전자가 급성기 진행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김 교수는 “가장 많이 증가한 유전자가 코블1”이라며 “이에 주목해 코블1 유전자와 백혈병의 연관성에 대한 기능 연구를 집중적으로 하게 됐다. 이 유전자가 많이 발현된 환자의 세포에서는 글리벡, 타시그나, 스프라이셀, 슈펙트, 보슬립, 이클루시그 등 표적항암제에 전혀 듣지 않으면서 병이 급속히 진행하는 현상을 보인다”고 말했다. 또 코블1의 발현을 인위적으로 낮추는 경우, 표적항암제에 백혈병 세포가 다시 잘 듣는다는 사실도 함께 규명했다. 따라서 코블1 유전자는 백혈병의 진행과 예후를 판단하는 지표가 되며, 동시에 이를 억제하는 치료제 개발의 가능성을 가진 표적이 될 수 있다. <br/> <br/> 연구가 결실을 맺기까지 무려 14년의 시간이 흘렀다. 김 교수는 1992년 혈액내과 임상강사로 처음 백혈병을 연구하기 시작했다. 그는 “당시 카이스트에서 임상의사를 대상으로 분자생물학 실험기법을 가르치는 수업에서 ‘유전자 분석법’을 배우면서 백혈병 중 만성기에서 급성기로 진행해 사망하는 원인을 규명하기로 마음먹었다”고 회고했다. 의사이지만 기초과학연구에 몰두했던 김 교수는 미국 연수를 떠나 분자생물학 실험기법을 익힌 후 한국을 돌아왔다. 2003년 보건복지부 암정복추진연구개발사업 연구과제 지원으로 연구에 본격 착수했다. 이후 3년 전부터 김홍태 교수 등과 공동 연구를 진행했으며, 이번 연구 성과를 가능하게 했던 ‘신의 한 수’였다고 김 교수는 평가했다. <br/> <br/> 김동욱 교수는 “코블1 유전자의 기능 규명으로 만성골수성백혈병의 표적항암제 내성과 급성기 진행에 대한 또 하나의 퍼즐이 풀렸다. 앞으로 획기적인 백혈병 치료법을 제시할 가능성이 더 높아졌고, 이를 다른 백혈병으로 까지 확대하는 후속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br/> <br/> 그는 연구를 계속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교수는 “현재 코블1 단백질을 검출하는 진단 키트를 개발 중인데, 이를 통해 급성기로 진행되는 것을 미리 예측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이 유전자와 관련된 단백질을 억제하는 치료제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며 “치료제 개발에 성공한다면 기존의 표적항암제에 듣지 않아 급성으로 진행해 사망하는 많은 환자들을 다시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교수는 “<span class='quot0'>환자들이 희망을 잃지 않고 현재의 치료에 충실히 임하면 조만간 좋은 소식을 접할 수 있도록 연구팀도 최선을 다할 것</span>”이라고 힘줘 말했다. <br/> <br/>장윤형 기자

언론사: 국민일보-4-634.txt

제목: [암과의 동행] 암 생존율 높아졌는데 병원들 재활치료 소홀… 환자 20∼30%만 경험  
날짜: 20170320  
기자: 전미옥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320200055001  
ID: 01100201.20170320200055001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국민 3명 중 1명이 암에 걸리는 시대, 의료기술 발달로 암은 점차 관리할 수 있는 질환이 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최근(2010∼2014년) 암환자의 5년 생존율은 70.3%에 달하며,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있다. 이처럼 암을 극복해내는 환자들이 늘면서 암환자 재활치료의 중요성도 부각되고 있다. <br/> <br/> 암환자 재활은 암의 진행과 치료과정, 치료 이후에 나타나는 기능저하, 통증 등 신경근골격계 문제를 진단하고 치료해 신체 기능을 유지시키도록 돕는 분야다. 적절한 재활치료를 동반하면 암성통증, 암성피로, 림프부종, 손발저림과 말초신경병증, 삼킴곤란 등 암환자들이 겪는 신체 기능적 문제와 관련해 삶의 질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이로 인해 환자의 요구도가 높다. 김준성 대한암재활학회 회장은 “암 수술, 항암제 투여 등 암치료 과정에서는 영양부족, 우울, 근력약화 등 다양한 증상이 함께 나타난다. 재활치료는 그 중 신체기능에 대한 치료를 담당한다”고 설명했다. 암 재활치료는 ‘적절한 진단’이 중요하다. 김 회장은 “재활치료는 환자상태에 맞춰 적절한 시기에 이뤄지는 것이 효과가 좋다. 암치료 중 문제가 생기면 곧바로 재활의학과와 연계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br/> <br/> 하지만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암 재활치료가 비교적 활발하지 않다. 실제 분당서울대병원 연구팀이 재활의학과 전문의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50% 이상에서 유방암, 뇌종양, 척수종양환자에게 재활치료를 제공한 경험이 있다는 답변이 나왔다. 그러나 응답자 중 80% 이상은 부인암, 대장암, 전립선암환자에게 재활치료를 거의 제공하고 있지 못한다고 답했다. 충북대병원 연구팀 조사에서도 암으로 사망한 환자의 사망시점 1년간 지출한 진료비 내역 중 재활치료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0.7%에 불과했다. <br/> <br/> 전문가들은 이에 대한 문제점으로 ‘진료협진 등 체계화된 재활프로그램’과 ‘재활치료 수가체계의 미비’ 등을 꼽는다. 김준성 회장은 “일본의 경우 하루에 몇 시간은 재활치료 시간을 지정하는 등 암환자에 대한 재활치료 프로그램이 비교적 원활하게 운영된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재활치료에 대한 수가나 여건에 제약이 많다. 환자들의 필요와 요구에 비해 20∼30%의 재활치료만 이뤄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암 종류에 따른 특성과 기능저하에 맞는 의료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br/> <br/> 민성기 대한재활의학과의사회 회장도 “<span class='quot0'>암 재활 요구가 높아지고 있지만 재활수가체계가 미비해 치료에 어려움을 겪는다</span>”고 말했다. 또한 우봉식 대한재활병원협회 회장은 “암치료가 생명을 살리는 것에 중점을 뒀다면 재활의료는 살아난 암생존자들의 삶의 질을 우선으로 다룬다. 암환자들이 완치 후에도 꾸준히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역사회 재활체계를 활성화 해야한다”고 말했다. <br/> <br/>전미옥 기자 romeok@kukinews.com

언론사: 국민일보-4-635.txt

제목: [암과의 동행] “참는 게 답 아닌데”… 암환자 ‘마약성 진통제’ 인식개선 필요  
날짜: 20170320  
기자: 박예슬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320200055002  
ID: 01100201.20170320200055002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암환자들의 통증은 흔하면서도 고통스러운 증상 중 하나다. 통증은 잘 치료하면 80∼90% 이상 호전될 수 있지만, 약물복용 내성이나 중독 등 부작용 우려로 처방을 꺼리는 이들이 많다. 특히 치료약물 중 하나인 ‘마약성 진통제’는 ‘마약’이라는 단어 특성상 거부감까지 일으킨다. 전문가들은 통증을 참지 말고 치료받아야 한다며, 마약성 진통제에 대한 인식개선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br/> <br/> 김병건 인하대병원 마취통증의학과 교수는 “<span class='quot0'>일부 암 환자들이 암 치료에 영향을 받을까봐 통증치료를 안 하고 참으려고 하는데, 통증치료는 암 치료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span>”며 “<span class='quot0'>마약성 진통제는 통증 조절약물이라 암세포 전이 등 암과 관련된 부작용을 일으키지 않을 뿐더러, 사용시 확실히 효과가 좋기 때문에 복용하는 게 권장된다</span>”고 말했다. <br/> <br/> 물론 통증치료에 있어 무조건 마약성 진통제를 사용하는 건 아니다. 약물요법 초기에는 비마약성 진통제를 사용한다. 비마약성 진통제로 큰 효과가 없으면 진통 보조제를 병행해 사용하고, 그래도 통증 조절이 안 되면 마약성 진통제로 넘어가게 된다. 단 이때 내성 문제는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일단 저용량부터 시작하는 것이 권고된다. 김 교수는 “암성 통증환자라면 우선 비마약성 진통제를 드셔보고 호전이 안 되면 의료진과 상의 후에 마약성 진통제를 사용해야 한다”며 “마약성 진통제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다. 약을 바꿨을 때 내성이 생길 수도 있고 안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용량을 계속 조절하면서 복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br/> <br/> 다만 부작용으로 변비가 생길 수는 있다. 마약성 진통제가 장운동을 억제하기 때문. 김 교수는 “어떤 약이든 부작용은 있을 수 있는데, 마약성 진통제는 변비가 가장 대표적인 부작용이다. 경우에 따라 졸리거나 속이 미식거리는 오심, 구토 등도 있을 수 있다”며 “암 치료와 관련한 부작용은 없다”고 덧붙였다. 또한 해외에서 남용으로 인한 사망 사례와 관련 김 교수는 “우리나라의 경우 의료진이 처음부터 마약성 진통제를 쓰거나 용량을 크게 올리진 않기 때문에 크게 우려할 건 아니다. 최근에는 빨아먹는 약도 있고 패치처럼 붙이는 약, 코에 뿌리는 약 등 다양한 종류로 나오기 때문에 통증이 극심할 때는 남용 우려보단 통증 조절부터 빨리 하는 게 먼저”라고 강조했다. <br/> <br/> 따라서 김병건 교수는 마약성 진통제의 용어 변경 등 인식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이름 탓에 부정적인 소지가 있다보니 ‘아편 유사제’로 대체 사용하고 있지만, 이 마저도 ‘아편’이라는 단어 때문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span class='quot0'>현재 통증학회 차원에서도 마약성 진통제 대신 ‘오피오이드 진통제’로 사용하기를 권장하고 있다</span>”며 “<span class='quot0'>용어 변경을 비롯해 암성 통증 진통제에 대한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span>”고 힘주어 말했다. <br/> <br/>박예슬 기자 yes228@kukinews.com

언론사: 국민일보-4-636.txt

제목: [암환자 이야기] 폐암4기 진단… 면역항암제 덕 일상 복귀  
날짜: 20170320  
기자: 장윤형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320195955001  
ID: 01100201.20170320195955001  
카테고리: 문화>문화일반  
본문: 평범한 일상에 암(癌)이라는 예상치 못한 암초가 찾아오면 당황하게 된다. 사망률이 높은 암에 걸렸을 때는 고통이 배가 된다. 폐암은 국내 암 사망률 1위로 약 30분에 1명 꼴로 환자가 사망하고 있다. 폐암은 조기 검진으로 발견하지 못해 보통 3기 이상에서 진단되면 생존율이 다른 암에 비해 매우 낮은 편이다. <br/> <br/> 폐암 4기로 판정받았던 정명수(62·가명)씨 표정은 의외로 평온했다. 암환자라고 믿기지 않을 정도로 건강해 보였다. “처음 폐암 진단 받았을 때 4기였어요. 의사 선생님께서 4기인데, 그것도 아주 악성이라고 말씀했던 때가 떠오릅니다. 청천벽력이 없었지요. 집사람과 큰 딸이 함께 이야기를 들었는데 저보다 더 놀랐을 겁니다.” <br/> <br/> 정씨는 “<span class='quot0'>가족들이 한동안 한숨만 쉬고, 저 역시 잠 못 이룬 밤이 많았다</span>”며 “<span class='quot0'>내가 죽으면 마누라는 혼자 어떻게 살아가지, 나 없다고 딸들이 시집가는데 지장이 있지는 않을까 등 많은 생각이 들었다</span>”고 말했다. 두 딸과 아내를 둔 가장에게 찾아온 암은 감당하기 힘든 고통이었다. 그는 “그동안 내가 몸을 너무 함부로 굴려서 죄를 받는구나. 이것이 인과응보다. 젊었을 때 담배를 하루에 5갑을 핀 적도 있었다”며 “앞으로 살날이 얼마 안 될 텐데, 그 시간만이라도 가족들에게 잘하자. 62세면 기본은 살았다”고 다짐했다. <br/> <br/> 그러던 중 신촌세브란스병원에서 면역항암제 임상시험에 참여할 기회를 얻게 됐다. 지난해 8월부터 면역항암제를 투여한 받은 정씨는 “그 약으로 인해 폐에 있는 암 덩어리가 줄었고 흉막과 부신에 전이됐던 것도 많이 줄었다고 선생님께 들었다. 치료가 잘되는 것도 좋지만, 무엇보다 일상생활에 아무 지장이 없다는 것이 기뻤다”고 설명했다. <br/> <br/> 폐암 치료에는 상당한 고통이 따른다. 항암제 복용 후 탈모와 구토 등 부작용이 나타난다. 하지만 정씨는 현재 직장에 다니며 일상생활을 하고 있다. 그는 “<span class='quot0'>다른 사람들은 공기 좋은 곳에 가서 요양을 한다는데, 나는 직업을 유지하고 있다</span>”고 말했다. <br/> <br/> 정씨는 암환자들에게 암 초기에 발생할 수 있는 징후를 꼭 파악하라고 당부했다. 그는 “작년 4월부터 기침이 수개월간 끊이지 않았고 기관지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 계속 항생제만 먹었다. 도저히 기침이 멈추지 않으니까 작년 8월에 병원을 찾았다. 암이 4개월간 급속도로 진행됐다. 폐암은 그렇게 무섭게 빠른 속도로 퍼져나가는 것 같다”며 초기 증상이 있을 때 반드시 병원을 찾으라고 강조했다 정씨처럼 암치료가 수월한 경우는 다행이다. 많은 폐암 말기 환자들이 생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면역항암제의 경우 1년 약값이 무려 1000만원에 달하지만, 여전히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신약이다. 본인 부담 100%로 항암제를 투여하려면 1년에 1억여원 가량의 돈을 써야한다. 정씨는 “보험이 현실화 됐으면 좋겠다. 다른 폐암 환자들도 모두 힘내고 건강한 모습으로 보면 좋겠다”고 말했다. <br/> <br/> 연세암병원 폐암센터 조병철 교수(종양내과)는 “말기 폐암은 이제 더 이상 두려운 질병이 아니다. 최근 면역항암제 등 좋은 치료제들이 등장해 폐암 말기 10명 중 2명에서도 좋은 반응이 보이고 생존해 나가고 있다”며 환자들이 치료의 희망을 갖기를 당부했다. <br/> <br/>장윤형 기자 newsroom@kukinews.com

언론사: 국민일보-4-637.txt

제목: [암과의 동행] 메디컬푸어, 살고싶은 그들에 ‘선택’ 강요… ‘희망’ 단어는 공허한 메아리  
날짜: 20170320  
기자: 조민규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320195155001  
ID: 01100201.20170320195155001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치료비 때문에 삶을 포기하는 경우를 주위에서 종종 보게 됩니다. 너무 안타깝지만 해줄 수 있는 건 없네요. 저는 어떻게든 살려고 합니다” <br/> <br/> 최근 혁신적인 신약이 개발되며 질병치료에는 효과를 보고 있지만 가격이 고가인 치료제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도 늘고 있다. 이처럼 의료비로 인해 가계부채(家計負債)가 증가하는 가정을 ‘메디컬푸어’(Medical Poor)라고 부른다. 메디컬푸어는 대부분 의료비 부담이 큰 암 등의 중증질환에서 많이 발생한다. <br/> <br/> 신약의 경우 가격이 고가이다 보니 건강보험에서도 무조건적으로 급여를 해주기 어려운 실정이다. 때문에 환자는 본인이 전액을 부담해야 하는데 한달에 수백만원 이상 되는 치료비(약제비 등)는 일반인으로서 감당하기 힘들다. 무엇보다 치료비 부담은 환자로 하여금 스스로 삶의 연장을 포기하게 만들기도 한다. 암 치료를 받는 환자들은 자신보다 가족을, 남겨진 이들에게 부담을 남겨주지 않기 위해 더 살고 싶은 마음을 누르는 것이다. <br/> <br/> 결국 환자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가족들과 더 오래 행복하게 살고자 하는 것이다. 암 치료 결과를 기다리는 환자, 14년간 암치료를 해오는 환자 등을 만나 암 치료의 어려움에 대해 들어봤다. <br/> <br/> ◇내가 넉넉하면 좋겠지만 아들하고 사는데 부담도 되고=이순(67·여, 가명)씨는 2012년 5월 유방암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았다. 개인병원에서 검진을 받았는데 결과가 안 좋아서 큰 병원으로 옮겼다. 방사선치료 30번, 항암치료 4번 등 고통스런 치료를 받았다. 여성으로서 가슴 절제에 따른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다. 그렇지만 치료의 고통보다 더 힘든 것은 치료비 부담이다. 이씨는 “우선은 완치됐는지 여부가 가장 큰 걱정이다. 그 다음은 치료비 걱정이다”라고 밝혔다. 그는 “치료를 위해 주사를 맞았는데 그때는 건강보험적용이 안돼 병원에서는 3년을 맞으라고 했지만 1년만에 중지했다”라며, “처음에는 1주일에 세 번 맞았는데 주사비가 비싸 내가 스스로 횟수를 줄였다. 지금도 그 주사를 맞는 환자들이 많다. 월 40∼50만원 든다. 내가 넉넉하면 좋겠지만 아들하고 사는데 부담도 됐다. <br/> <br/> 검진 받는 것도 걱정된다. 자주 받아야 해서 비용이 적지 않다”라고 말했다. 이어 “저소득층이라 보건소 통해 지원도 받았다. 하지만 일시에 주는 것이 아니라 진료비 영수증을 줄때마다 조금씩 주더라. 한번에 주면 좋겠는데 이렇게 받다보니 같은 돈을 받아도 큰 도움은 안된다”라며, “젊은 분들은 치료비 때문에 생을 포기하겠다고 하면 우리가 혼내기도 한다. 정부에서 암환자 지원을 더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씨는 오는 4월27일 병원에 내원해 암 치료 최종 결과를 확인한다. <br/> <br/> ◇암 치료 14년차, 약값이 비싸서 치료 중단한 분들의 약을 받아 복용하기도= 주선재(74·남, 가명)씨는 2004년 신장암 진단을 받고, 올해로 14년째 암치료를 받고 있다. 살면서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지 않아온 듯 했지만 그에게도 암투병으로 인한 치료비 부담은 적지 않았다. 그는 “암이 재발해 약을 다시 복용했는데 비보험이었다. 의사 말이 비보험이라도 1년 쉬고 다시 약을 복용하면 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말하더라. 이에 약을 처방받고, 치료비를 줄이고자 내가 복용하는 약에 실패하신 분들이 남긴 약도 조달받아 복용하기도 했다. 어차피 처방받은 약은 약국에 돌려줘도 환급이 안되니까. 그렇게 1년을 버텼다”라고 전했다. 주씨가 암 치료로 복용한 약의 1개월 약값은 350만원정도인데 고용량을 복용하면 400만원이 넘는다. 일반 직장인의 월급보다 많다. 그는 “살아야 하고, 효과가 있으니까 (돈이 없으면) 얻어서라도 먹을 수밖에 없다”며 “내가 14년차인데 두 번째는 그렇다 해도 세 번째에 효과가 있다면 보험을 해줘야 하지 않나. 오래 사는데 비합리적이다. 같은 약이라도 효과가 나중에라도 있으면 보험을 해줘야한다”고 강조했다. <br/> <br/> 특히 주씨는 “같이 투병하시던 분이 돌아가셨는데 1000만원짜리 약을 먹었다고 하더라. 투병 중에 그분 말이 ‘가족도 어리고 어차피 해봐야 6개월을 더 사는데 경제적 부담으로 못하겠습니다’라고 말하는데 그런 분들은 너무 안타깝다. 기초수급자는 오히려 지원이 더 많은데 겨우 월급 받아 생활하는 사람 등 어중간한(지원 받지 못하는 경계선에 있는) 사람들이 더 큰 문제다”라고 강조했다. 주씨는 “생명의 시험이라고 해야 하나. 매번 병원에 갈 때마다 시험 치러 가는 것 같다”며 암 투병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br/> <br/> 신장암으로 치료는 받고 있는 한 암환자는 “급여약으로 치료를 할 땐 그래도 보험이 되니 나름 경제활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치료를 지속할 수 있었지만 비급여약은 도저히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한두 번으로 마칠 치료가 아닌 4기 전이암 환자에겐 기약 없는 치료이기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 내겐 희망이 없을 거 같아 무관심하고 싶지 않습니다. 투병을 오래 하다 보니 암환자들을 보면 모두가 가족 같습니다. 우리 가족에게 희망을 주고 싶습니다”며 정부의 지원을 호소했다. 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

언론사: 국민일보-4-638.txt

제목: 한국건강관리협회 채종일 회장 “다양한 건강검진 개발… 질병 조기발견 체제 갖추겠다”  
날짜: 20170320  
기자: 송병기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320194155001  
ID: 01100201.20170320194155001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1964년 창립 이후 국민들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건강관리협회의 문은 항상 열려있습니다.” 취임 1년을 조금 넘긴 한국건강관리협회 채종일 회장은 국민들의 질병 조기진단과 치료를 위해 건강검진, 사회공헌활동, 교육, 건강캠페인 등 다양한 국민건강증진 활동을 펼치는 곳이 건강관리협회라고 강조했다. 채 회장은 “<span class='quot0'>고령사회에 건강하게 오래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질병에 걸리더라도 조기 치료를 통해 잘 관리해야 한다</span>”고 강조했다. <br/> <br/> ◇건강증진 특화 의료기관=건강관리협회(이하 건협)는 1964년 4월 사단법인 한국기생충박멸협회 창립에서 출발했다. 협회 설립 당시 기생충감염률은 80%가 넘었다. 협회는 꾸준한 대국민 기생충퇴치사업을 통해 1990년대 기생충 감염률을 2%대로 낮추는 성과를 냈다. 1982년 한국건강관리협회가 설립됐다. 건강검진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자 1986년 기생충박멸협회와 건협을 통합해 한국건강관리협회로 명칭을 변경했다. 채 회장은 “<span class='quot0'>현재까지 다양한 보건의료 활동을 하면서 건강검진과 건강증진에 특화된 의료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span>”며 “<span class='quot0'>현재 전국 주요 시도에 16개 건강증진의원을 운영하고 있고, 230여명의 의료진과 2500여명의 전문 인력이 국민 건강지킴이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span>”고 강조했다. 채 회장은 “<span class='quot0'>16개 시도지부 건강증진의원(검진센터)은 검진 신뢰도와 고객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첨단 검진장비를 도입하고, 검진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목표</span>”라며 취임 1년의 소감을 전했다. 이와 관련 지난 1∼2월 전국 시도지부 업무보고에서 채종일 회장은 ‘건강수명 연장을 위해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건강 콘텐츠 개발과 실천’을 통해 지역주민 건강증진과 건강사회 만들기에 적극 나서달라고 주문했다. <br/> <br/> ◇질병예방활동, 사회공헌에 중점=건협이 올해 중점을 두는 것은 건강수명 연장과 질병예방활동 강화, 검진 신뢰도 향상, 사회공헌 활동 확대 등이다. 질병예방활동 강화 목표에 대해 채 회장은 “<span class='quot0'>국민들의 기대수명이 늘면서 건강검진과 건강증진에 특화된 건협의 역할이 더욱 커졌다고 생각한다</span>”고 말했다. 이와 관련 건협은 당뇨위험군 집중관리 프로그램 등 건강증진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한다. 또한 건강한 성장 지원 일환으로 초등학생 메디체크 찾아가는 건강증진교실과 집단별·계층별 환경적 특성을 고려한 건강증진활동도 적극 시행한다. 또한 각 지부의 건강검진 품질관리 강화를 통해 검진 신뢰도 향상에도 나선다. 품질관리는 국민의 건강관리와 직결되는 만큼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주력해온 분야이기도 하다. 채 회장은 “<span class='quot0'>꼼꼼한 품질관리로 건강검진 발전방안과 전략을 모색하고, 다양한 건강검진 프로그램도 개발해 질병 조기발견·예방을 위해 노력할 것</span>”이라며 검진 환경도 고객 눈높이에 맞춰 개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br/> <br/> 채종일 회장은 건협의 책임 있는 역할로 나눔실천 등 사회공헌활동을 꼽았다. “의료사각지대에 놓이는 분들이 줄어들 수 있도록 무료건강검진을 더욱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사회 약자를 위한 다양한 자원봉사와 성금 모금으로 나눔을 실천하고, 우리 협회의 경험을 기반으로 해외에서도 나눔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현재 건협은 수단 주혈흡충 및 소외열대질환 퇴치사업, 인도네시아 학생건강증진사업 등을 펼치고 있다. 채 회장은 국외 개발도상국가의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을 더 확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채 회장은 국내 기생충 연구 활성화를 위해서도 건협이 적극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span class='quot0'>기생충병연구소를 활성화하고, 기생충 질환관리의 역사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기생충전시관 개관도 계획중</span>”이라고 말했다. <br/> <br/>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건강검진의 중요성=“한국건강관리협회의 역할은 건강검진과 건강증진에 특화된 의료기관으로서 국민이 건강하게 오래살 수 있도록, 건강증진을 통한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질병의 조기발견 및 예방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채종일 회장은 “건협이 지난해 건강검진을 통해 4168명의 암확진자를 발견해 신속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500여개 협약진료기관으로 연계했다”며 질병 조기 발견과 치료를 위한 건강검진은 필수이자 가장 중요한 건강관리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건협은 기본건강검진과 종합검진 등의 프로그램과 10대 암 건강검진, 심혈관정밀검진, 심뇌혈관정밀검사, 비만관리 건강검진, 노후안심 건강검진, 갱년기 건강검진, 예비부부건강검진, 청소년 건강검진 등 분야별 계층별로 맞춤 검진을 제공한다. 이외에도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 암건진, 생애전환기건강진단, 영유아건강검진도 실시한다. <br/> <br/> 채 회장은 자신의 건강관리 방법으로 규칙적인 생활과 걷기, 그리고 정기 검진을 꼽았다. 그는 “120세 시대 건강하게 오래사는 것이 중요하고, 질병을 예방하거나 조기 발견을 위해 건강검진을 정기적으로 받을 것을 권한다”면서 “건협은 앞으로도 국민의 건강지킴이로 시대에 가장 필요로 하는 보건의료활동을 통해 국민 건강을 지켜나가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당부했다. <br/> <br/>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

언론사: 국민일보-4-639.txt

제목: [원자력병원 암전문의가 전하는 ‘건강톡’] 입에 맞는 짭짤한 음식… 위는 괴롭다  
날짜: 20170320  
기자: 이영수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320193955001  
ID: 01100201.20170320193955001  
카테고리: 문화>생활  
본문: 한국은 위암 발병률이 세계 1위이다. 위암은 식생활,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 흡연, 음주, 가족력 등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한다. 유독 우리나라에 위암이 많은 이유는 식습관과 관련이 있다고 분석된다. 맵고 짠 음식을 선호하고 고기를 불에 직접 구워먹는 습관 등이 위와 같은 소화기관에 영향을 주는 것이다. <br/> <br/> 짜게 먹으면 위암에 걸리게 되나요? <br/> <br/> -“식습관이 위암 발병의 큰 원인입니다. 위암 발생의 대표적인 식습관은 짠 음식과 탄 음식을 자주 먹는 것입니다. 짠 음식을 많이 먹는 사람은 적게 먹는 사람 보다 위암 발병률이 4.5배가량 더 높습니다. 염분이 위 점막을 손상시키고, 상처가 난 점막으로 발암물질이 쉽게 들어와 암 발생 위험을 높이기 때문입니다. 또, 생선이나 고기가 탈 때 발생하는 발암물질인 벤조피렌 등이 위 세포를 변형시켜 암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br/> <br/> 위에 산다는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이 위암을 일으키나요? <br/> <br/>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의 감염도 위암의 주요 발생 원인으로 손꼽힙니다.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은 위의 아래쪽 유문 근처에 서식하는 세균으로 세계보건기구에서 발암인자로 규정하였습니다. 위점막이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에 감염되면 감염된 위에서 대부분 만성 염증반응이 생깁니다. 만성 위염이 있는 사람은 위축성 위염과 장상피화생을 거쳐 위암 전단계인 이형성이 되어 위암으로 악화될 수 있습니다.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은 위암 발생의 위험도를 2.8∼6배 증가시킵니다.” <br/> <br/> 속 쓰림이 지속 된다면 암을 의심해봐야 하나요? <br/> <br/> -“조기 위암은 대부분 특별한 증상이 없어 건강검진에서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궤양을 동반한 조기 위암의 경우에는 속 쓰림 증상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진행성 위암의 경우 상복부의 불쾌감, 팽만감, 소화불량, 식욕부진, 체중 감소, 빈혈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한 위와 십이지장의 경계를 이루는 유문부 폐색에 의한 구토, 출혈에 따른 토혈이나 흑변과 위와 식도가 연결되는 분문부 침범에 따른 음식물을 삼키기 어려운 증상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br/> <br/> 내시경검사로 위암을 알 수 있나요? <br/> <br/> -“위암은 일반적으로 위내시경검사, 상부위장조영술 등으로 진단합니다. 위내시경검사는 증상이 없는 조기 위암을 발견하고 조직검사로 확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내시경으로 위 내부를 직접 관찰하며 종양의 모양과 크기, 위치를 평가하기 때문입니다. 의심되는 부위가 있다면 채취해 조직검사를 합니다. 상부위장조영술은 위암의 수술 시 절제 범위를 결정하는 데 유용한 검사입니다. 조영제를 입으로 투여한 후 여러 번의 X-선 촬영으로 위점막의 변화를 관찰하는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br/> <br/> 위암도 내시경수술· 복강경수술이 가능한가요? <br/> <br/> -“진행성 위암의 경우, 특히 림프절 전이가 의심된다면 개복수술이 표준치료법입니다. 내시경수술은 위를 절제하지 않는 부분적인 수술법으로 위 기능을 보존할 수 있고 상처와 후유증도 없지만, 아주 초기의 조기 위암에만 가능합니다. 복강경수술은 개복수술에 비해 출혈, 상처, 통증이 적어 장, 폐기능 회복이 빠르고 합병증도 적지만 추가비용 소요와 수술시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조기위암과 노인, 폐기능이 약한 분들의 진행성 위암에서 선택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기술의 발전으로 점차 적용대상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br/> <br/> 위암 예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요? <br/> <br/> -“위암의 원인으로 알려진 가공식품, 등을 피하고,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포함한 균형 잡힌 식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흡연자는 위암에 걸릴 확률이 3∼4배나 높다는 점도 기억해야 합니다. 일주일에 4번 이상, 한 번에 4잔(25g) 이상의 음주는 위암 발병률을 3배 이상 높이므로 1주일에 2번 이하, 한 번에 2∼3잔 이하로 제한하는 것이 좋습니다. 생활습관 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이 우선이지만, 건강검진을 정기적으로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위암은 조기 발견하면 간단한 내시경 시술이나 수술로 치료할 수 있으므로 40세 이상이면 최소 2년마다 내시경검사를 받고, 위암 고위험군은 1년 마다 내시경검사를 받도록 합니다. 2월부터 암 등 중증질환자의 진단목적 수면내시경과 전체질환자의 치료목적 수면내시경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이영수 기자 <br/> <br/><도움말 주신분> 유항종(외과)·김연주(소화기내과) 과장

언론사: 국민일보-4-640.txt

제목: [암과의 동행] 면역항암제 등 새로운 치료옵션 등장 폐암치료제 시장 들썩  
날짜: 20170320  
기자: 조민규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320192855001  
ID: 01100201.20170320192855001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폐암치료제 시장이 들썩이고 있다. 폐암치료는 표적항암제의 등장으로 큰 전기를 맞았는데 이후 면역항암제가 비소세포폐암의 2차 치료제로 승인되며 새로운 치료 옵션으로 확대되기도 했다. <br/> <br/> 폐암에는 EGFR, ALK, KRAS 등의 돌연변이형이 있는데 대표적인 표적치료제로는 표피성장인자수용체(epidermal growth factor receptor, EGFR)를 억제해 암세포가 성장을 멈추도록 하는 약물인 이레사와 타쎄바, 지오트립이 있다. EGFR 억제제 1세대인 아스트라제네카 ‘이레사’(Gefitinib)는 아시아인과 비흡연자, 여성에게 효과가 더 있다는 연구결과로 주목받았다. 로슈 ‘타쎄바’(Erlotinib)는 이전 화학요법에 실패한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과 EGFR 활성 변이가 있는 국소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의 1차 치료에 사용된다. <br/> <br/> 2세대 베링거인겔하임 ‘지오트립’(Afatinib)은 EGFR 활성변이가 있는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의 1차치료와 백금기반의 화학요법 투여 중 또는 투여 이후 진행되는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편평조직 비소세포폐암에 적응증을 갖고 있다. 지난해 허가를 받은 3세대 치료제로는 EGFR억제제의 T790M 돌연변이로 인한 내성에 대항하기 위한 아스트라제네카 ‘타그리소’(Osimertinib)와 한미약품 ‘올리타’(Olmutinib)가 있다. 이들 치료제는 이전에 EGFR-TKI로 치료 받은 적이 있는 T790M 변이 양성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환자의 치료에 효능이 있으며, 치료 시작 전에 T790 변이상태를 평가해야 한다. 이들 3세대 치료제들은 현재 비급여로 환자들의 급여요구가 높다. 한달 평균 약값이 1000만원에 달하기 때문이다. <br/> <br/> 이와 관련 환자단체연합회는 “해당 제약사들이 사회공헌 프로그램 형태로 약값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지만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은 여전히 크다. 말기 폐암환자 중 부자이거나 든든한 민간의료보험가입자는 이미 수천만원에서 1억원 이상을 약값으로 지불했을 것”이라며, “반면 가난하거나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말기 폐암환자들은 고가의 비급여 신약치료를 포기해 상당수가 사망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역형성 림프종 인산화효소(Anaplastic lymphoma kinase, ALK)를 저해하는 치료제는 ‘잴코리’, ‘자이카디아’ 등이 있다. 화이자 잴코리(Crizotinib)는 ALK 양성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치료에 사용되는데 2015년 5월1일 급여를 받았고, 노바티스 ‘자이카디아’(Ceritinib)는 이전에 크리조티닙으로 치료 받은 적이 있는 ALK 양성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환자의 치료에 사용되며, 2016년 8월1일 급여를 받았다. 면역항암제로는 PD-1 면역세포 표면 단백질의 저해제인 MSD ‘키트루다’(Pembrolizumab)와 오노약품공업·BMS ‘옵디보’(Nivolumab) 등이 있는데 기존의 항암제보다 부작용이 적고 개선된 치료 효과를 보이며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br/> <br/> 한편 폐암치료제는 국내외에서도 큰 관심을 모이고 있는 분야다. 로슈 ‘알레센사’(alectinib)는 미국 FDA로부터 혁신치료제로 지정받았으며, 최근 EU로부터 시판허가 받아 기대감이 높은 제품이다. ALK 양성 비소세포폐암의 2차 치료에 사용할 수 있다. 아리아드파마슈티컬스 ‘브리가티닙’은 미국 FDA로부터 획기적 치료제 및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받은 바 있으며, 최근에는 신속심사품목으로 지정받았다. 유한양행은 비소세포폐암의 차세대 치료제 연구에 집중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조민규 기자

언론사: 국민일보-4-641.txt

제목: 방학때면 피 마르는 한국의료… 혈액수급 해결책 없나  
날짜: 20170320  
기자: 이영수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320192455001  
ID: 01100201.20170320192455001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매년 의료계에서는 동·하절기 방학 기간이 되면 혈액 부족 사태를 겪는다. 특히 세계적으로 신종 감염병이 발병할 때마다 혈액 수급에 빨간 불이 켜진다. 최근에는 폐기되는 혈액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에만 8만 명이 넘는 현혈자의 혈액을 사용하지도 못한 채 폐기처분된 것으로 조사됐다. 폐기 혈액이 늘면서 혈액 부족 상황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br/> <br/> 이처럼 혈액 수급에 적신호가 켜지는 현상이 매년 반복되고 있지만, 헌혈 참여를 독려하는 수준에서 그치는 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미봉책만 제시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수혈을 최소화할 수 있는 철분 주사요법이 근본적인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br/> <br/> 한국과 달리 미국, 중국 등 선진국에서는 수혈 감소정책을 펼치고 있다. 미국은 지난 5년간 수혈을 40% 가량 줄였으며, 중국도 일찌감치 수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정책에서 감소 정책으로 전환한 지 오래다. 이는 혈액 수급 문제의 해결뿐만 아니라 수혈로 인한 환자의 부작용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다른 사람의 피를 수혈 받는 것은 각기 다른 피 세포가 섞이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장기이식과 다를 게 없다. 또 피를 보관하는 과정에서 적혈구가 변형되기 때문에 수혈로 인한 부작용을 호소하는 사람이 많다. <br/> <br/> 국내 병원에서는 응급수단인 수혈을 습관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 질병관리본부가 제시한 수혈 가이드라인에서도 수술 후 헤모글로빈 농도가 7g/dL 이하에서 수혈할 것을 권장하고 있지만 이를 지키는 병원은 드물다. <br/> <br/> 전문가들은 병원 내 혈액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 대책으로 고용량 철분주사를 활용하는 방법을 꼽고 있다. 이 방법은 내·외과 치료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혈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간염, 에이즈에 감염될 위험이 없고 각종 합병증을 피할 수 있으며, 수술 후 더 빨리 회복될 가능성이 커 입원비 등 치료비를 절약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br/> <br/> 대표적으로 JW중외제약의 ‘페린젝트(사진)’가 있다. 이 제품은 철로써 500mg 함량으로 국내 유일의 고용량 철분주사제다. 하루 최대 1000㎎의 철분을 15분 이내에 투여해 체내에 신속히 보충시킨다. 기존의 정맥철분주사제는 고용량 투여가 어려워 여러 번 병원을 방문해야 하고 1회 투여 시 40분 이상 소요된다. <br/> <br/> 또 암을 비롯해 인공관절, 제왕절개, 심뇌혈관질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1바이알인 500mg가 가장 많이 처방되고 있어 수혈을 최소화하는데 간편하고 접근성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br/> <br/> 실제로 대장절제 수술 이전에 고용량 철분주사제를 투여 받은 환자는 9.9%가 수혈이 필요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38.7%가 수혈을 받았다. 수혈 환자의 약 70%가 대체효과를 거둔 것이다. <br/> <br/> 고용량 정맥 철분주사제는 임산부의 빈혈이나 산모와 태아 건강에도 효과적이다. 최근 여성들의 임신 연령이 노령화되고 다이어트가 일상화되면서 빈혈을 겪는 산모들이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임신 초기 먹는 철분제는 입덧을 더욱 심하게 할 수 있어 꾸준히 섭취하기 어렵다는 게 문제다. 이처럼 경구용 철분제의 섭취가 어려운 임산부나 수술 전후 등 단기간 고용량의 철분 보충이 필요한 환자에겐 정맥주사용 철분제가 권장된다. 특히 주사용 철분제는 자궁근종 등 부인과 질환 수술 전 몸 안의 철의 양을 충분히 늘려주는 빈혈 교정에도 유용하다. <br/> <br/> 한편 무수혈 치료는 미국을 비롯한 20여 국가에서 시행중이며 국내에서는 약 30개 병원에서 운영되고 있다. <br/> <br/>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

언론사: 국민일보-4-642.txt

제목: [암과의 동행] 약값 걱정에… 환자 치료포기 “어느 나라 이야기 인가”  
날짜: 20170320  
기자: 송병기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320190955001  
ID: 01100201.20170320190955001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치료가 시급한 4기 암환자에게는 비급여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공평한거죠. 물리치료 몇 천원은 급여를 해주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저나 남편, 아들도 실비 청구는 안해요. 그런 것들은 얼마든지 부담할 능력이 있잖아요. 하지만 신약은 치료에 몇백만원씩 한두 번이 아니고 꾸준히 가야 하잖아요. 이런 것을 우리나라 상위 1∼2%나 감당할 수 있지 않을까요?" 말기(4기) 폐암환자 보호자의 말이다. <br/> <br/><br/> 최근 비급여 항암제를 사용해야 하는 말기 암환자들의 경제적 부담 증가로 치료를 위해 빛을 내야하는 ‘메디컬푸어(의료빈곤층)’가 늘고 있다. 이에 대해 의료계와 환자단체, 관련 전문가들은 암환자 치료 보장성 강화와 의료빈곤층 증가를 막기 위해 국가 차원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한다. <br/> <br/> 이와 관련 한국암치료보장성확대협력단(이하 암보협)은 현행 5%의 본인부담이 적용되는 암환자 산정특례제도를 탄력적으로 적용해, 본인부담률을 다소 늘리더라도 말기 암환자들이 항암신약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대안을 제시했다. 또한 암보협은 암환자 보장성 강화를 위해 정부·국회·의사·환자·가족·제약사 등 모든 구성원이 참여하는 ‘정책토의 상설기구’를 설립해 정책자문 역할을 맡기는 방안도 제안했다. <br/> <br/> 암보협은 지난 16일 국회 바른정당 박인숙 의원 주최로 열린 ‘암환자 메디컬푸어 어떻게 막을 것인가’ 토론회에서 다양한 암환자 보장성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br/> <br/> 임영혁 한국암치료보장성확대협력단 대표(한국임상암학회 이사장)는 “이번 암치료 보장성 강화 정책 제안서는 환자와 의료진이 함께 발굴하고 정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제안이 정부 정책에 반영돼 OECD 수준의 암치료 환경이 조성된다면, 암환자들이 치료비로 고통 받는 메디컬푸어 문제도 함께 해소 될 것”이라고 밝혔다. <br/> <br/> 특히 암보협은 암환자들이 경제적 이유로 치료를 포기하지 않도록 암치료 보장성 강화를 정부의 주요 정책 목표로 설정해야 한다면서, ▷암 보장성 강화 정책협의체 상설화 ▷암환자 특별지원 재정 마련 ▷항암신약 약가제도 효율성 제고 등의 정책 솔루션을 제안했다. 상설 정책협의체와 관련 김봉석 한국임상암학회 보험위원장(중앙보훈병원 혈액종양내과)은 “2014년 국회 예산정책처도 항암제 접근성 강화를 위해 다학제적 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권고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메디컬푸어로 내몰릴 위기의 말기 암환자에 대한 비급여 신약의 효과적 사용과 이를 통한 경제적 부담완화와 암환자 치료보장성 강화가 절실하다. 이러한 환자와 의사들의 의견 반영을 공론화하고 상설협의체에서 자문 의견을 내고, 건정심에서 급여를 결정하는 방안을 제안한다”고 강조했다. <br/> <br/> 또한 백민환 한국다발성골수종환우회장 등 환우회 대표들은 “한국 암 치료현실은 치료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환자만 치료 받는 상황이다. 이제는 제도의 선진화를 통해 경제적 환경과 상관없이 모든 환자가 제때 치료받을 수 있어야 한다”며 “정부는 환자와 의료진의 목소리를 반영해 발표한 이번 제안을 참고해 암환자들이 치료비로 고통 받지 않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br/> <br/>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

언론사: 국민일보-4-643.txt

제목: 시진핑, 육군 산하 집단군 해체 돌입  
날짜: 20170320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320180055001  
ID: 01100201.20170320180055001  
카테고리: 국제>중국  
본문: 중국이 육군 산하 18개 집단군 가운데 5개 집단군을 해체할 예정이다. 군 부패의 몸통으로 지목돼 낙마한 쉬차이허우와 궈보슝 전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의 권력기반이었던 북부전구 16집단군과 서부전구 47집단군도 폐지 대상에 포함됐다. <br/> <br/>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19일 군 소식통을 인용해 “<span class='quot0'>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쉬차이허우와 궈보슝이 남긴 악영향을 척결하기 위해 16집단군과 47집단군 폐지를 결정했다</span>”며 “<span class='quot0'>시 주석이 올가을 19차 당 대회를 앞두고 지도부 개편 과정에서 자신의 측근을 배치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span>”고 말했다. 쉬차이허우는 부패 수사 도중 2015년 암으로 사망했고, 궈보슝은 지난해 7월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장쩌민 전 국가주석의 측근으로 분류된 이들은 군 내부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왔다. <br/> <br/> 시 주석은 2015년 230만명의 인민해방군 가운데 30만명을 감축하겠다고 선언하고 ‘싸워서 이기는 군대’를 기치로 군 개혁과 현대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육군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재편이 이뤄지고 있다. <br/> <br/> 16·47집단군 외에 중부전구의 20·27집단군과 남부전구의 14집단군도 해체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다만 다른 군 소식통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 한반도 배치를 염두에 두고 북부 16집단군을 해병대나 공수부대로 전환하거나 인근 40집단군과 병합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집단군 개편으로 20만명의 병사가 영향을 받을 수 있지만 일부 로켓군과 해군, 공군 등 다른 부대로 배치될 수 있다. SCMP는 “<span class='quot1'>올해 국방예산 증가율이 역대 최저 수준인 7%에 그쳐 퇴역 장병을 위한 충분한 보상이 어렵기 때문에 병력 감축이 향후 5년 동안 점진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span>”고 전망했다.베이징=맹경환 특파원

언론사: 국민일보-4-644.txt

제목: [안녕? 나사로] 나와 같다면  
날짜: 20170318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318000955001  
ID: 01100201.20170318000955001  
카테고리: 문화>생활  
본문: 최근 취재를 위해 한 뇌병변 장애아동의 집을 찾았다. 주인공은 침대에 누운 채 ㄱ자로 꺾인 손목을 들어 힘겹게 인사를 전했다. 바닷가로 떠난 가족여행에서 사고를 당한 아이는 기적적으로 의식을 찾았지만 혼자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장애를 안은 채 살아가야 했다. 아이의 어머니는 장애인이 된 아들을 위해 삶을 던졌다. 숱한 생사의 갈림길에서 두 사람을 버티게 해준 건 기도였다. 사고 당한 아들을 붙든 채 응급실로 향하는 구급차 안, 몇 시간이 걸릴지 모를 대수술을 앞두고 수술실로 옮겨지는 이동식 침대 위, 갑작스런 발작으로 인해 고통스러워 나뒹굴던 집의 안과 밖 등 모든 곳이 눈물어린 기도 처소였다. <br/> <br/> 두 시간 가까이 머무는 동안 아이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간간이 소리 없이 웃었다. 어머니는 그런 아들에게서 한시도 눈을 떼지 않았다. 헤어지기 전, 아들을 위한 기도를 요청했다. 어머니는 익숙하게 아들의 손을 잡았다. ㄱ자로 꺾인 손목은 끊임없이 진동했다. 아들의 건강과 가정의 평안을 기원하는 기도가 시작됐다. 그때 어머니의 손목이 눈에 들어왔다. 조금 전까지 분명 아무렇지 않았던 손목이 ㄱ자로 꺾여 있었다. 기도를 마친 뒤 혹시 손목이 불편한지 슬며시 물었다. 가슴 먹먹해지는 대답이 돌아왔다. <br/> <br/> “별거 아녜요. 그냥 아들이 ‘자기 손목만 이런가’라고 상처받지 않았으면 해서 손잡고 기도할 땐 이렇게….” <br/> <br/> 언젠가 인터넷에서 봤던 기사와 사진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암에 걸린 친구가 홀로 외로워하지 않도록 다 같이 머리를 깎은 친구들, 휠체어를 타는 지체장애인에게 용기를 주기 위해 저마다 집에서 바퀴 달린 의자를 가져와 농구하는 모습을 보여 준 이웃들. 한 무리의 대머리 소년들이 모여 있는 사진 위엔 ‘이 가운데 몸이 아픈 사람은 있지만 마음이 아픈 사람은 없습니다’란 제목이 붙어 있었다. <br/> <br/> 비장애인과 조금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생각은 장애인이 장애를 받아들이는 첫 관문이다. 언젠가는 통과해야할 아픔의 터널이다. 일상적으로 맞닥뜨리게 되는 불편함은 육체적인 고됨과 정신적 침체로 이어진다. 여기에 일부 비장애인들의 잘못된 시선까지 더해지면 장애인들은 ‘세상에 내가 설 자리가 없다’는 비관을 가질 수밖에 없다. <br/> <br/> 하지만 ‘다른 이들도 나와 같다’는 가정이 생기면 용기가 움튼다. 칠흑같이 어두운 터널 끝에서 희망의 빛을 발견하게 된다. 장애아동의 집을 나서는 순간, 꺾인 손목보다 흰 치아를 드러낸 채 엄마를 향해 지어보이던 미소가 먼저 떠올랐던 이유는 그 아이가 발견한 희망을 엿보았기 때문이다. 어머니의 꺾인 손목이 아들의 마음속에 심어 준 희망이자 용기다. <br/> <br/> 나사로가 죽은 지 4일 만에 베다니에 도착한 예수님은 썩어 냄새가 나는 그를 소생시킴으로써 죽은 자도 능히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셨다(요 11:1∼44). 악한 부자 비유에 등장하는 나사로는 부스럼병(한센병)으로 고통 받으며 부자의 집 대문 앞에서 버려지는 음식으로 연명하다 죽음을 맞았지만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는 복을 받았다(눅 16:19∼31). 나사로는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뜻을 갖고 있다. 사람들이 장애와 비장애를 가르던 인식을 허물고 ‘나와 같음’을 표현할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믿음 때문이 아니었을까. <br/> <br/>최기영 기자

언론사: 국민일보-4-645.txt

제목: [삶의 향기-이지현] 언어 처방전  
날짜: 20170318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318213255002  
ID: 01100201.20170318213255002  
카테고리: 문화>생활  
본문: 암 환자와 그 가족들을 만나는 진료실. 진료차트와 청진기는 없고 차와 쿠키가 준비돼 있다. 환자와 의사는 진료가 아닌 삶의 진솔한 대화를 나눈다. 머리카락이 희끗희끗한 의사는 1시간 정도의 상담을 진행한 뒤 환자의 마음을 울리는 문장을 처방해 준다. 일본 준텐도병원 ‘암 철학 외래’의 풍경이다. <br/> <br/> 이 병원에 ‘암 철학 외래’를 개설한 히노 오키오 교수는 지난 10년간 3000여명의 말기 암 환자를 만났다. 그가 환자들에게 처방한 건 ‘항암제’가 아닌 마음을 울리는 ‘언어 처방전’이었다. 거창한 내용이 아니라 ‘정말 좋은 것은 쓰레기통 안에 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귀한 것은 모두 공짜입니다’ 등의 말이다. 얼핏 들으면 무슨 뜻인지 이해가 잘 가지 않지만 ‘진실은 돈을 많이 들여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누구든지 찾아갈 수 있는 가까운 곳에 있다’는 의미를 곧 깨달을 수 있다. <br/> <br/> 암 환자의 70% 이상이 우울증세를 호소한다. 치료가 가능하고 완치될 수 있다고 해도 대부분 암에 걸렸다는 사실 때문에 살아갈 희망을 잃고 우울한 상태에 빠진다. 증세를 해소하려면 환자의 생각을 긍정적으로 바꿔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언어 처방은 생각의 전환에 효과적이다. 좋은 말을 하고 좋은 말을 들으면 지금보다 훨씬 즐겁게 살 수 있다. <br/> <br/> 인간은 말로 상처를 입지만 위로도 얻는다. 침묵이 오히려 나을 때도 있지만 말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들도 있다. 어떤 말이 삶의 마지막을 위로할 수 있을까. 말이 질병 자체를 치료할 수 없지만 회복의 길을 찾는 힘이 될 수는 있다. 만약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나 스스로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는 ‘언어 처방전’을 만들어보자. 힘이 되는 명언, 성경 구절, 시 등을 활용할 수 있다. 힘들 때마다 그 문장을 되새긴다면 좀 더 편안해질 수 있을 것이다. <br/> <br/> 사람들은 삶이 힘겨울 때 우린 뭔가 비범하고 독특한 해법을 찾곤 한다. 하지만 정작 우리에게 용기를 주는 것은 소박하고 평범한 것들이다. 히노 교수는 자신의 저서 ‘위대한 참견’에서 남은 삶을 받아들이고 나밖에 할 수 없는 일에 투자하라고 제안한다. “<span class='quot0'>자신의 역할을 찾아내고 거기에 온 힘을 쏟는 것, 자신보다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것, 웃는 얼굴로 사람을 대하는 것, 자신의 가족을 소중히 여기는 것, 이 세상을 떠날 때 선물을 남기고 가는 것입니다.</span>” <br/> <br/> 누구나 자신만이 이 땅에 남겨줄 수 있는 선물이 있다. 나만이 할 수 있는 일을 찾는다는 것은 자신의 역할과 사명을 찾는 일일 것이다. 고독한 시간을 통해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과 사명을 찾아야 한다. 그것을 발견한 사람은 외롭지 않을 것이다. <br/> <br/> 사람이 갖고 있는 감성의 힘 가운데 가장 강한 것은 희망이다. 희망은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코 희망을 버리지 말아야 한다. 희망은 꿈을 꾸어야 생긴다. 추위와 강풍이 우리의 삶을 위협한다 해도 감춰진 희망을 찾아낸다면 고난은 끝이 아니다. <br/> <br/> 정신분석학자 빅터 프랭클은 저서 ‘죽음의 수용소’에서 이렇게 말했다. “히틀러의 수용소에서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사람은 체력이 좋았던 사람도 아니고 지능이 뛰어난 사람도 아니었다. 그리고 요령과 수단이 탁월한 사람도 아니었다. 고난 중에서도 그 고난에 담긴 삶의 의미를 깨닫고 고난의 나날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이었다.” <br/> <br/> 샛길이 없는 통로는 없다. 하나님께선 언제나 한 곳은 열어놓으시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노하거나 우울해하지 말라고 하지 않으셨다. 다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말씀하셨다. 바로 예수님께 오라고 말씀하셨다. 마음의 짐을 모두 그리스도께 내려놓으면 새로운 길이 열린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리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요 6:35)고 말씀하셨다. <br/> <br/>이지현 종교기획부 선임기자 jeehl@kmib.co.kr

언론사: 국민일보-4-646.txt

제목: 늘어나는 10대 ADHD, 뇌 기능 향상으로 치료 가능  
날짜: 20170317  
기자: 전재우 선임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317173055002  
ID: 01100201.20170317173055002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ADHD란 발달 수준에서 기대되는 정도를 벗어나 부주의 성과 과잉활동성 및 충동적인 양상을 동반하는 질병으로, 유아기나 소아기에 흔하게 발병한다고 알려져 있으며 최근에는 청소년기에 발견되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다. <br/> <br/>건강보험공단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최근 5년 사이 ADHD환자는 약 12%가량 증가했으며, 그 중 10대 환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무려 70%에 달했다. 더 이상 ADHD를 유아나 소아 시기에 집중적으로 나타나는 질환이라고 보기 어려워진 셈이다. <br/> <br/>ADHD는 당뇨나 암처럼 눈으로 정확히 확인되는 질병이 아닌 탓에 확실한 진단을 한다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는 않다. 특히 10대 환자의 경우 ADHD 증상을 본인 스스로나 주위사람들이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반항장애, 품행장애로 오해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br/> <br/>하지만 아이의 인격이 형성되고 지식을 쌓아가는 시기인 청소년기에 ADHD장애를 인식하지 못하고 치료시기를 놓쳐버린다면 아이는 지속적으로 산만함과 집중력 저하 및 대인관계에 대한 어려움 등 많은 부작용을 겪을 수 있어 주위 사람들의 면밀한 관찰이 필요하다. <br/> <br/>일반적으로 전문가들은 청소년기 학생들에게 나타나는 ADHD의 원인으로 전두엽의 성장이 미숙하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전두엽은 일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감정을 조절하여 반응을 억제하는 등 신체의 직접적인 실행을 관리한다. <br/> <br/>한의학에서는 전두엽의 미성숙으로 인한 청소년기ADHD치료를 위해 뇌의 기능을 향상시키는데 주력하고 있다. 특히 치료 전 환자 전두엽의 기능이 어떻게 상실되었는지 혹은 어떤 기능이 저하되었는지를 면밀히 살펴보고자 체질·발달·주의력·심리 등 복합적인 검사를 실시하고 이를 기반으로 환자의 평가척도를 작성, 개개인에게 맞춤 처방을 내리고 있다. <br/> <br/>휴한의원 목동점 윤성수 원장은 “<span class='quot0'>획일화된 약물치료가 아니라 체질에 맞게 개인에게 꼭 필요한 처방을 내려 ADHD 증상을 치료할 경우 부작용이나 재발의 가능성이 매우 낮은 편</span>”이라며 “<span class='quot0'>실제로 2011년 발표된 논문에 따르면 이러한 방법으로 ADHD를 치료 받은 학생들의 시청각 자료수집 능력 및 집중력이 치료 전보다 눈에 띄게 좋아진 것을 알 수 있다</span>”고 설명했다. <br/> <br/>이어 “청소년기ADHD치료를 위해서는 평소 아이들의 행동을 단순 기분에 따른 것이라고 넘기지 않고, 혹시 뇌 성장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면밀히 관찰하는 부모와 주위사람들의 관심이 중요하다”라고 덧붙였다. <br/> <br/>전재우 기자

언론사: 국민일보-4-647.txt

제목: [최기영 기자의 안녕? 나사로] 나와 같다면  
날짜: 20170317  
기자: 최기영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317153544001  
ID: 01100201.20170317153544001  
카테고리: 문화>생활  
본문: 최근 취재를 위해 한 뇌병변 장애아동의 집을 찾았다. 주인공은 침대에 누운 채 ㄱ자로 꺾인 손목을 들어 힘겹게 인사를 전했다. 바닷가로 떠난 가족여행에서 사고를 당한 아이는 기적적으로 의식을 찾았지만 혼자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장애를 안은 채 살아가야 했다. 아이의 어머니는 장애인이 된 아들을 위해 삶을 던졌다. 숱한 생사의 갈림길에서 두 사람을 버티게 해준 건 기도였다. 사고 당한 아들을 붙든 채 응급실로 향하는 구급차 안, 몇 시간이 걸릴지 모를 대수술을 앞두고 수술실로 옮겨지는 이동식 침대 위, 갑작스런 발작으로 인해 고통스러워 나뒹굴던 집의 안과 밖 등 모든 곳이 눈물어린 기도 처소였다. <br/> <br/> <br/> <br/>두 시간 가까이 머무는 동안 아이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간간이 소리 없이 웃었다. 어머니는 그런 아들에게서 한시도 눈을 떼지 않았다. 헤어지기 전, 아들을 위한 기도를 요청했다. 어머니는 익숙하게 아들의 손을 잡았다. ㄱ자로 꺾인 손목은 끊임없이 진동했다. 아들의 건강과 가정의 평안을 기원하는 기도가 시작됐다. 그때 어머니의 손목이 눈에 들어왔다. 조금 전까지 분명 아무렇지 않았던 손목이 ㄱ자로 꺾여 있었다. 기도를 마친 뒤 혹시 손목이 불편한지 슬며시 물었다. 가슴 먹먹해지는 대답이 돌아왔다. <br/> <br/>“별거 아녜요. 그냥 아들이 ‘자기 손목만 이런가’라고 상처받지 않았으면 해서 손잡고 기도할 땐 이렇게….” <br/> <br/>언젠가 인터넷에서 봤던 기사와 사진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암에 걸린 친구가 홀로 외로워하지 않도록 다 같이 머리를 깎은 친구들, 휠체어를 타는 지체장애인에게 용기를 주기 위해 저마다 집에서 바퀴 달린 의자를 가져와 농구하는 모습을 보여 준 이웃들. 한 무리의 대머리 소년들이 모여 있는 사진 위엔 ‘이 가운데 몸이 아픈 사람은 있지만 마음이 아픈 사람은 없습니다’란 제목이 붙어 있었다. <br/> <br/>비장애인과 조금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생각은 장애인이 장애를 받아들이는 첫 관문이다. 언젠가는 통과해야할 아픔의 터널이다. 일상적으로 맞닥뜨리게 되는 불편함은 육체적인 고됨과 정신적 침체로 이어진다. 여기에 일부 비장애인들의 잘못된 시선까지 더해지면 장애인들은 ‘세상에 내가 설 자리가 없다’는 비관을 가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다른 이들도 나와 같다’는 가정이 생기면 용기가 움튼다. 칠흑같이 어두운 터널 끝에서 희망의 빛을 발견하게 된다. 장애아동의 집을 나서는 순간, 꺾인 손목보다 흰 치아를 드러낸 채 엄마를 향해 지어보이던 미소가 먼저 떠올랐던 이유는 그 아이가 발견한 희망을 엿보았기 때문이다. 어머니의 꺾인 손목이 아들의 마음속에 심어 준 희망이자 용기다. <br/> <br/>나사로가 죽은 지 4일 만에 베다니에 도착한 예수님은 썩어 냄새가 나는 그를 소생시킴으로써 죽은 자도 능히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셨다(요 11:1~44). 악한 부자 비유에 등장하는 나사로는 부스럼병(한센병)으로 고통 받으며 부자의 집 대문 앞에서 버려지는 음식으로 연명하다 죽음을 맞았지만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는 복을 받았다(눅 16:19~31). 나사로는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뜻을 갖고 있다. 사람들이 장애와 비장애를 가르던 인식을 허물고 ‘나와 같음’을 표현할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믿음 때문이 아니었을까. <br/> <br/>최기영 기자

언론사: 국민일보-4-648.txt

제목: [책과 길] 타인 이름으로 살다 죽은 노숙자  
날짜: 20170317  
기자: 손영옥 선임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317000455001  
ID: 01100201.20170317000455001  
카테고리: 문화>출판  
본문: 60대 노숙자가 지하철에서 투신자살했다. 신문의 1단 기사로 처리된 그의 죽음에 현대사의 비극이 관통한다. 노숙자의 본명은 진태. 성은 모른다. 1951년생이지만, 1949년생 송달규라는 이름으로 산다. 그는 어찌하여 자신보다 2년 먼저 태어난 타인의 이름으로 살 수밖에 없었던가. <br/> <br/> 그는 외조부가 살던 남도의 작은 섬마을에서 사생아로 태어났다. 아버지는 당시 좌익척결에 앞장섰던 서북청년단의 우두머리 ‘갈고리’로 짐작될 뿐. <br/> <br/> 청소년기, 출생의 비밀을 안 그는 가출해 광주의 한 세탁소에 몸을 의탁한다. 평온은 잠시. 베트남전 참전 후유증으로 10여년 고깃배를 타며 먼 바다를 떠돌았다. 그 사이 광주에선 군인들에 의해 시민들이 죽는 사건이 터졌다. 그를 자식처럼 돌봤던 세탁소 아저씨도 불운을 겪는다. 고엽제의 고통이 그즈음 찾아왔고 결국 그는 정신장애인 집단수용시설인 기도원 신세를 진다. <br/> <br/> 무려 25년을 보낸 기도원을 스스로 걸어 나온 건 어느 날 TV에서 본 뉴스 때문이다. 세월호 참사와 이어지는 세월호 반대집회. TV에서 그자의 얼굴을 본 것이다. 한 번도 본 적 없지만 그 80대 노인이 ‘갈고리’, 그러니까 자신의 아버지라는 걸 직감한다. 지하철에 뛰어들던 그의 손에는 칼 한 자루가 쥐어 있었다고 CCTV는 증언한다. 생의 마지막 순간, 그는 무엇을 향해 돌진했을까. <br/> <br/> 임철우(63·사진) 작가가 다섯 번째 소설집 ‘연대기, 괴물’(문학과지성사)을 냈다. 대표작 ‘아버지의 땅’(1984) 이후 그에게 붙은 수식어 ‘기억과 죽음에 관한 사유’가 이번 소설집에도 흐른다. <br/> <br/> 김형중 평론가는 임 작가를 한국 현대사의 가장 참혹한 사건들을 현재로 불러 오는 자, ‘기억의 발굴자’라고 칭한다. 표제작이 특히 그러한데 한국전쟁과 베트남전쟁, 광주민주화운동, 세월호 사건 등 현대사 비극의 연대기다. <br/> <br/> 역사적 폭력이 개인의 삶을 망가뜨려가는 과정을 숨 막히도록 잔인하게 그린다. 악몽의 되새김질이야말로 후세대의 책무임을 말하는 작가는 ‘고통의 사제’에 비견되곤 한다. <br/> <br/> ‘흔적’ ‘간이역’ 등 다른 단편들은 역사라는 무거운 갑옷을 내려놓고 죽음 그 자체에 집중하는 경향을 보인다. ‘흔적’의 주인공 71세의 노인에겐 유독 불운이 이어진다. 외환위기로 사업이 망한 외동아들이 자살하고, 아내는 암으로 죽고, 이제 독거노인이 됐다. 쓸쓸하고 어두운 이야기다. 그게 우리가 마주해야 할 생의 또 다른 얼굴임을 작가는 매몰찬 어조로 이야기한다. <br/> <br/>▶아만다 사이프리드, 누드·유사성행위 사진 유출… 엠마 왓슨도 피해 <br/>▶청와대 허현준 행정관 엄마부대 주옥순 지난주 90차례 통화 <br/>▶'고영태 문체부 장관'? 신고가 시급한 문재인 내각 명단 <br/>▶김재규가 바꾼 여고생 이정미의 꿈… “소름돋는 역사” <br/>▶장시호 "박근혜 파면 직후 바로 집에 가지 못한 이유는..." <br/>▶"내 얼굴이 타고 있었다"…기내서 헤드폰 폭발사고 <br/>▶강남구청장이 대통령 자택에 화환을 보낸 기막힌 이유 <br/>▶'박근혜 미용사'가 7시30분 삼성동 사저 들어간 의미(사진) <br/>▶켈리 교수가 전하는 BBC 방송사고 뒷얘기 “아이가 신난 이유는...” <br/> <br/>손영옥 선임기자 yosohn@kmib.co.kr

언론사: 국민일보-4-649.txt

제목: 림프암 환자 응원하는 '드림온' 캠페인 참가자 모집  
날짜: 20170316  
기자: 이기수 의학전문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316100444001  
ID: 01100201.20170316100444001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사)문화예술사회공헌네트워크(ARCON)는 ㈜한국얀센이 후원하는 ‘드림온(Dream-On)’ 제2기 암 환자 꿈 응원 캠페인 참가자를 21일까지 공개 모집한다고 16일 밝혔다( <br/>포스터 참조). <br/> <br/> <br/>드림온은 암과 싸우며 평범한 일상과 멀어질 수 밖에 없었던 환자들이 그동안 잊고 있었던 꿈을 다시 떠올리며, 삶의 의지를 높일 수 있도록 돕는 환자 정서 지원 캠페인이다. <br/> <br/>지난 1기는 난소암 환자 4명의 꿈을 찾아가는 형태로 진행됐으며, 환자들의 이야기는 스토리펀딩을 통해 소개되어 보다 많은 환자 및 일반인에게 꿈을 전했다. 펀딩을 통해 모금된 금액은 프로보노의 일환으로 환자 및 드림온의 이름으로 혈액암협회에 기부, 또 다른 환자를 지원한 바 있다. <br/> <br/>이번 캠페인은 ‘림프종 환자들의 평범한 일상’을 주제로 5월 중 한 날, 환자들이 가족 또는 지인과 함께 특별한 장소에서 야외활동을 경험하는 내용으로 기획됐다. <br/> <br/>캠페인 중 각계 전문가가 함께 참여해 환자들과 소통하고 서로 응원 메시지를 나눌 수 있는 시간도 마련한다. <br/> <br/>현재 또는 과거의 투병 경험에 관계 없이 림프종 환자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환자의 가족 및 지인의 추천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희망자는 21일까지 온라인(http://naver.me/59z3xkZ5)으로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드림온 사무국에서 전화(02-6370-8017)로 접수해준다. <br/> <br/>이기수 의학전문기자 kslee@kmib.co.kr

언론사: 국민일보-4-650.txt

제목: "암세포 집중 공격" 양성자 치료…간암이 25%로 최다  
날짜: 20170315  
기자: 민태원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315114944001  
ID: 01100201.20170315114944001  
카테고리: 사회>사회일반  
본문: 국내 최초로 양성자 치료기를 도입하고 입자 방사선 치료에 매진해온 국립암센터(원장 이강현)가 14일 양성자 치료 10주년을 맞이해 기념행사를 가졌다.  <br/> <br/> 국립암센터는 2007년 3월 국내 최초로 양성자치료를 실시한 이래 현재까지 약 2100여 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총 4만2700여건의 치료를 시행했다. 암종별로 살펴보면 간암이 25%, 전립선암 17%, 소아암 15%, 폐암 14%, 뇌종양 5%, 기타암종 순이다.  <br/> <br/> 국립암센터는 10년간 국내 환자에 최적화된 양성자치료를 시행하기 위해 장단기적 종적 임상연구를 통한 환자치료 결과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새로운 양성자치료법 개발을 위한 임상연구도 활발히 진행해 왔다. <br/> <br/> 양성자 치료는 X-선 등 기존 방사선에 비해 암세포만 집중적으로 공격하고 암 주변 정상조직의 손상을 줄이기 때문에 치료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 하고, 치료 횟수와 기간을 단축하는 장점이 있다.  <br/> <br/> 특히 간암, 초기 폐암, 뇌종양, 소아암에 효과적이고, 종양의 위치상 수술이 불가능한 재발암이나 수술을 받을 경우, 안구와 시력 보존이 힘든 악성 안구종양에도 치료효과가 높다. <br/> <br/> 2007년 당시 처음으로 양성자치료를 받은 최성규(가명)씨는 “10년 전 전립선암 3기 진단을 받고 불안과 실의에 빠져있었는데 양성자치료를 받고 암의 충격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br/> <br/> 이강현 원장은 “<span class='quot0'>2007년에는 양성자치료가 가능한 기관이 전 세계적으로 40여 개에 불과했는데 10년 사이 두 배로 증가할 만큼 양성자치료는 급속도로 성장했다</span>”며 “<span class='quot0'>국내 최초의 양성자치료를 넘어서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최고의 양성자치료를 구현하기 위해 지속적인 발전을 거듭해 나가겠다</span>”고 말했다. <br/> <br/>2015년 의료보험급여 확대 실시된 이후 환자들의 양성자치료비 부담이 많이 낮아졌다. 18세 이하 소아종양, 복부암(간암 포함), 뇌종양, 두경부암(안구종양 포함), 폐암, 방사선치료 부위 재발암 등이 급여 대상으로 인정되어 환자 1인당 평균적인 진료비가 100~800만원 선이다.  <br/> <br/>  <br/> <br/>민태원 기자 twmin@kmib.co.kr

언론사: 국민일보-4-651.txt

제목: [우리고장 대표 가게를 찾아서] 전국 문인들의 ‘든든한 숲, 따뜻한 친정’  
날짜: 20170315  
기자: 전주=글·사진 김용권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315230655001  
ID: 01100201.20170315230655001  
카테고리: 문화>출판  
본문: 30여 년 전 대학생이었을 때 글을 쓰는 선배들을 따라 어느 작은 출판사를 방문하곤 했었다. 전북 전주시 주택가에 있는 작은 공간에는 낯빛과 맘씨 좋은 40대 부부와 직원 몇 명이 원고를 교정보거나, 대지작업을 하거나 혹은 인쇄 일을 하고 있었다. 이후 강산이 세 번 변한 뒤인 지난 8∼9일 찾아간 출판사는 30명이 넘는 사람들이 바삐 움직이는 꽤 큰 공간이 되어 있었다. 책의 향은 훨씬 짙어졌고 인쇄기는 더욱 힘차게 돌았다. 사무실 곳곳엔 지난 47년간 펴내온 책 수천 권이 예쁜 담장을 만들고 있었다. <br/> <br/><br/>신아출판사. 전주 태평동에 자리 잡은 이 공간은 지난 반세기 가까이 전국의 문인들에게 아낌없이 주는 나무이자, 든든하고 따뜻한 숲이었다. <br/> <br/> 신아의 시작은 1970년 ‘신아문예사’란 이름이었다. 서정환(76) 대표 부부가 처음 문을 열 당시는 인쇄소 수준이었다. 1984년 지금의 이름으로 사명을 바꾼 뒤 본격적으로 기획출판을 시작했다. <br/> <br/> 신아가 그동안 세상에 선보인 단행본은 모두 4000여 종에 달한다. 인문학 대중화를 위한 집념의 산물이었다. <br/> <br/> 하지만 탄탄대로만은 아니었다. 메마른 지역 출판 시장의 벽에 넘어지기를 수없이 되풀이 했다. 시골 출판사란 편견도 고전의 이유가 됐다. <br/> <br/> 그래도 좋은 책을 만들겠다는 정신으로 오뚝이처럼 일어섰다. 작가들과의 교류를 넓히고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br/> <br/> 무엇보다도 작가들에게 마음껏 글을 쓸 수 있는 마당을 제공했다. 1985년 무크지 ‘신아문예’를 시작으로 1990년 월간 ‘소년문학’을 창간했다. 현재 정기간행물은 월간 ‘수필과 비평’ ‘좋은 수필’ ‘see’, 격월간 ‘여행작가’, 계간 ‘계간문예’ ‘문예연구’ ‘인간과 문학’ ‘표현’ 등 모두 10종이나 된다. <br/> <br/> 다른 지역 출판사에서는 엄두조차 낼 수 없는 일들이었다. 문인들은 두 손을 들어 환영했다. 단순한 출판사가 아니라 지역 문인이 언제든 기댈 수 있는 친정 같은 공간이었다. <br/> <br/> 작가들을 응원하기 위한 상(賞)도 연달아 제정했다. 1992년 ‘수필과비평문학상’을 비롯 ‘신곡문학상’ ‘백제문학상’ ‘황의순문학상’ 등을 만들었다. 더불어 도서벽지 학교와 군부대·교도소 등에 책을 기증하고, 지갑이 얇은 작가들에게는 무료로 책을 만들어 줬다. <br/> <br/> 자연스레 신아는 문인들이 스스로 찾아오는 사랑방이자, 카페가 되었다. 그 사이 회사 규모도 서울의 웬만한 출판사와 겨룰 만한 몸집이 되었다. <br/> <br/> 이제는 서울이나 부산, 제주 등지에서도 찾아온다. 민용태, 김우종, 황필호 교수 등 익히 이름이 알려진 필자들도 이곳에서 책을 냈다. <br/> <br/> 출판과 인쇄, 유통을 병행해 한 해 매출도 수십억 원으로 늘었다. 하지만 인력이 많고 문학계에 투자를 많이 한 탓에 큰 돈이 모이지 않았다. <br/> <br/> 그래도 전북지역 작가들을 발굴하는 작업에 매진했다. ‘이익상 전집’(5권)과 ‘유엽문학전집’ 등을 펴냈고 ‘전북국악사’ ‘전북희곡론’ 등 돈이 될 것 같지 않은 책도 계속 출간했다. <br/> <br/> “대중과는 거리가 먼 작업들입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었죠. 보람을 느낍니다.” <br/> <br/> 1989년 입사한 이종호(58) 상무는 “책 판매는 다소 어려워 출혈이 있다. 하지만 가치 있는 책을 많이 내려고 노력하자는 게 사장님의 고집스런 철학”이라고 말했다. <br/> <br/> 2015년 신아는 또 다른 도전을 했다. ‘신아문예대학’ 개교다. <br/> <br/> 시와 수필, 소설, 아동문학, 시낭송, 자서전쓰기반 등에 100여 명의 학생이 다니고 있다. 개교식에서 서정환 대표는 “<span class='quot0'>지역 문화의 토양을 보존하면서 새로운 문화의 싹이 돋아날 수 있는 방안은 문학을 중심으로 한 인문학의 복원이라고 생각한다</span>”고 말했다. <br/> <br/> 이 대학 수필창작반에 다니는 한성덕씨는 지난해 12월 31일 자신의 블로그에 이렇게 썼다. <br/> <br/> “(서정환) 사장님은 문학적 토양을 일궈내고 계십니다. 땅을 갈아엎고 거름을 주어 옥토를 만들듯이 말입니다. 충분한 자양분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게 하지요. 찬사와 함께 박수를 보냅니다.” <br/> <br/> 신아는 3년 뒤 창립 50주년을 맞는다. 열정은 여전하지만 어려움도 적지 않다. 책을 읽는 이들은 줄어드는 기미를 보이고 있고 최근엔 송인서적의 부도로 어려움이 배가됐다. 그러나 신아 가족은 오늘도 ‘책’에 파묻혀 묵묵히 일하고 있다. <br/> <br/> 봄눈이 예쁘게 내린 지난 9일 취재를 마치고 나오는데 사무실 한쪽에 적힌 글귀가 눈에 띄었다. “책이 사람을 만든다. 지식의 창, 책을 사랑하는 사람 곁에 신아가 있다.” <br/>서정환(76·사진) 신아출판사 대표는 전북의 ‘문예부흥사’다. 15∼16세기 서유럽의 르네상스를 이끌었던 이탈리아 메디치 가문과 다를 바 없다. 규모는 퍽 다르지만 한결같은 신념으로 지역 문학을 발전시키는 큰 후원자가 되어 왔다. <br/> <br/> “어린 시절 선생님이 건네준 책을 밤새 읽었던 기억이 있어요. 내가 쓴 글을 친구들 앞에서 발표할 때는 가슴이 뛰었지요.” <br/> <br/> 순창에서 태어난 서 대표는 신아일보에서 기자 등으로 일하다 30세 때 같은 이름을 달고 ‘신아문예사’를 창업했다. 그리고 반세기 가까이 문학발전 투자와 문인들 지원을 계속해 왔다. <br/> <br/> 10가지나 되는 잡지를 정기적으로 펴낸 것은 문예잡지 부흥만이 인문학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신념 때문이었다. <br/> <br/> “작가들의 작품을 발표할 곳이 많지 않다는 게 늘 안타까웠어요. 또 좋은 작가를 발굴하고 알찬 책을 내기 위해선 넓은 발표의 장을 먼저 마련해 줘야 한다고 생각했지요.” <br/> <br/> 2년 전 ‘문예대학’을 연 것도 같은 맥락이다. 문학을 중심으로 인접 학문과 문화콘텐츠를 구축하고 문화 예술인을 적극 발굴하고자 하는 뜻이었다. 이 같은 의지와 족적 덕분에 그는 전북애향대상 본상과 장수기업인상을 받았다. 또 수필가로서 전북문학상과 국제펜문학상 등을 수상했다. <br/> <br/> 서 대표가 못내 안타까워하는 것은 인생의 반려자인 부인이 13년 전 암으로 세상을 떠난 일이다.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큰 슬픔 속에서 한 2년을 어찌 생활했는지 모르고 보냈어요.” 그는 2006년 부인의 이름을 딴 ‘황의순문학상’을 제정, 추모하는 한편 작가 발굴도 계속하고 있다. <br/> <br/> 서 대표는 팔순을 바라보고 있지만 미소가 멋진 문학 소년이다. 그는 아직도 꿈이 많다며 ‘완판본(完板本)’ 얘기를 여러 번 했다. “완판본은 조선시대 전주지역에서 발간한 책과 그 판본을 말합니다. 전주가 완판본의 명예를 되찾고 출판문화의 중심이 되도록 여력을 다하겠습니다.” <br/> <br/> 서 대표는 “<span class='quot0'>아무리 인터넷, 스마트폰 시대라고 하지만 책이 없어지지는 않을 것</span>”이라며 “<span class='quot0'>좋은 책 출간과 더불어 머잖아 출판박물관을 꼭 열겠다</span>”고 말했다. <br/> <br/>전주=글·사진 김용권 기자 <br/> <br/>ygkim@kmib.co.kr

언론사: 국민일보-4-652.txt

제목: 죽음 앞두고 ‘남편 공개 구혼’ 암 투병 美 작가 끝내 숨져  
날짜: 20170315  
기자: 김미나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315204955003  
ID: 01100201.20170315204955003  
카테고리: 문화>출판  
본문: 자신이 세상을 떠난 뒤 혼자 남을 남편을 위해 ‘공개 구혼’ 칼럼을 써 화제가 됐던 미국 베스트셀러 동화 작가가 결국 세상을 떠났다. <br/> <br/> 13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시카고 출신 동화작가인 에이미 크라우즈 로즌솔(사진)이 난소암 투병 끝에 51세로 별세했다. <br/> <br/> 로즌솔은 지난 3일 뉴욕타임스에 ‘내 남편과 결혼할래요’란 제목의 칼럼을 썼다. 그는 남편 제이슨 브라이언 로즌솔(51)을 소개하며 “완벽한 아빠이자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기는 특별한 남자”라고 적었다. 또 “멋지고 결단력 있는 여행 동반자를 찾는다면 내 남편이 바로 그런 사람”이라며 “26년간 가장 특별한 남자와 결혼생활을 했고 또 다른 26년을 함께할 줄 알았지만 살날이 며칠 남지 않았다”고 소회를 털어놨다. 애잔한 사연으로 세계를 울린 이 칼럼은 로즌솔이 숨을 거두기 열흘 전 남편에게 바친 마지막 ‘러브레터’가 됐다. <br/> <br/>김미나 기자 mina@kmib.co.kr

언론사: 국민일보-4-653.txt

제목: 日 아베종양내과, 구단 건강세미나서 ‘아베 백스’ 암백신 공개  
날짜: 20170314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314162544001  
ID: 01100201.20170314162544001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일본 아베종양내과가 도코에서 ‘앞으로의 암치료, 인생을 지탱하는 암치료’란 주제 제76회 구단 생애 건강세미나를 개최한다. <br/> <br/>이번 건강세미나에서는 아베종양내과의 아베 히로유키 박사가 '다가(多価) 신(新) 수지상세포 암백신(ABE Vax, 아베 백스)' 치료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br/> <br/>아베종양내과의 아베 히로유키 박사는 암 치료에 면역세포의 중요성을 연구하다 수지상세포에 집중하게 됐다. 치료용 백신 아베 백스는 수지상세포을 통해 면역세포를 활성화시켜 암을 치료하는 면역 암치료의 일종이다. 이 치료제의 제조방법은 일본을 비롯해, 한국과 미국, 유럽연합에 각각 특허 등록이 완료됐다. 특허 내용은 단구 증식제, 단구 증식용 배지, 단구의 제조방법, 수지상세포의 제조방법 및 수지상 세포 백신의 제조 방법이다. <br/> <br/>아베 백스 치료에서는 약 25㎖ 소량 채혈만으로도 암세포를 치료할 만큼의 고 품질 수지상세포 치료제를 만들 수 있었다. <br/> <br/>아베 박사에 따르면 수술, 항암 및 방사선 치료와 같은 표준치료에 비해 ‘신 수지상세포 암백신’ 치료는 부작용이 거의 없었다. 수지상세포가 암 세포만을 골라 제거하도록 유도하기 때문인데, 수지상세포는 암 세포와 싸우는 인체의 T-세포를 자극시키고 훈련시키는 면역세포의 사령관 개념이다. <br/> <br/>아베 박사는 지난 연말 도쿄에서 개최된 제22회 국제개별화의료학회에서 ‘아베 백스’ 치료율 즉, 신 수지상세포 암백신과 활성NK면역세포 치료를 각각 5회를 1싸이클로 치료할 결과를 발표했다. <br/> <br/>결과를 보면, 표준치료의 효과가 없었던 유방암 환자 26명중 11명(42.3%)이 치료효과를 보였으며 효과가 부족했던 나머지 15명도 800일 이상 생존한 것으로 나타났다. <br/> <br/>진행성 폐암 환자는 22명중 15명(68.2%), 대장암 환자 32명중 19명(59.4%), 췌장암 환자 42명중 18명(42.9%)도 치료효과가 나타났다. 역시 수술, 방사선, 항암치료 등 표준치료를 할 수 없는 환자들 대상이다. <br/> <br/>아베 박사는 채혈한 혈액에서 분리한 수지상세포에 최신 암항원을 추가하여 증식, 배양하여 림프절에 피하주사하는 방법으로 암 치료효과를 거두었다고 공개했다. 아베 박사는 기존 수지상세포 백신 치료에서 1~2종의 암 항원을 사용한 것에 반면 평균 5종 이상의 최신 암 항원을 추가로 사용했다. 그만큼 암세포를 공격하는 표식이 많아져 치료효과도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아베 박사의 설명이다. 최신 암항원은 NEW WT1, MUC1, CEA, CEA-4, HSP, MAGE-A3, NY-ES01 등 10여 종이 넘게 허가되어 사용되고 있다. <br/> <br/>아베 백스 치료는 2주에 1번씩 6회 치료를 기본으로 한다. 입원할 필요는 없으며 통원 치료로도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서는 ㈜선진바이오텍(대표 양동근)이 ‘다가 신 수지상세포 암백신(아베 백스)’ 치료와 연구에 공동으로 참여하고 있다. <br/> <br/>콘텐츠팀 이세연 lovok@kmib.co.kr

언론사: 국민일보-4-654.txt

제목: 올 첫 비브리오패혈증균 검출…어패류 익혀 먹어야  
날짜: 20170314  
기자: 민태원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314144844001  
ID: 01100201.20170314144844001  
카테고리: 사회>사회일반  
본문: 올해 처음 비브리오패혈증균이 나왔다.  <br/> <br/> 간질환자나 당뇨병, 알코올중독자, 암, 백혈병, 장기이식 환자 등 고위험군은 치명률이 50%로 안팎으로 어패류 익혀먹기 등 예방 수칙 준수가 필요하다. <br/>  <br/> 질병관리본부는 전남 영광군 법성포구에서 채취한 해수에서 지난 13일 비브리오패혈증균이 분리됐다고 14일 밝혔다. 지난해 보다는 하루 빠르다. <br/> <br/> 비브리오패혈증은 일반적으로 해수 온도가 18도 이상 올라가는 5~6월쯤 첫 환자가 발생해 8~9월 집중 발생한다.  <br/> <br/> 감염되면 발열과 오한 혈압저하 복통 구토 설사 등 증상이 나타난다. 오염된 어패류를 생식하거나 상처난 피부가 오염된 바닷물에 접촉할때 감염되며 사람간 전파는 안된다. <br/>  <br/> 어패류는 영하 5도 이하로 저온 보관하고 85도 이상 가열해 충분히 익혀 먹어야 한다. 질병관리본부는 "<span class='quot0'>어패류는 껍질이 열리고 5분 동안 더 끓이고 증기로 익히는 경우에는 9분 이상 더 요리해야 한다</span>"고 말했다. 피부에 상처가 있는 사람은 바닷물에 접촉하지 않는다. 조리시에는 해수를 사용하지 말고 흐르는 수돗물에 깨끗이 씻어야 한다. 요리한 도마 칼 등은 반드시 소독후 사용한다. 어패류를 다룰 땐 장갑을 낀다. <br/> <br/>▶"이들이 진짜 공무원" 온몸으로 불길 막은 소방대원 영상 <br/>▶웃고 손 흔들고… ‘세리머니형 인간’ 박근혜 심리학 <br/>▶김재규가 바꾼 여고생 이정미의 꿈… “소름돋는 역사” <br/>▶"거실이 추워서… 물이 새서…" 삼성동 사저 표정 <br/>▶삼성동 사저 생중계 최대 수혜자는 바로 이 집이다 <br/>▶박근혜, 삼성은 이제 넌더리?… 사저 채운 LG 의문의 1승 <br/>▶[포착] 충혈된 눈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과 동행한 윤전추 행정관 <br/>▶"페이 쎄게 줘야 할 거 아냐" 친박집회서 포착된 '일당 푸념' (영상) <br/> <br/>민태원 기자 twmin@kmib.co.kr

언론사: 국민일보-4-655.txt

제목: [& And 건강] 어르신, 이래도 짜게 드실래요?  
날짜: 20170314  
기자: 김동우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314205955001  
ID: 01100201.20170314205955001  
카테고리: 사회>사회일반  
본문: “<span class='quot0'>이렇게 밖에서라도 저염식을 먹으니 건강해지는 것 같습니다.</span>” <br/> <br/> 울산시 중구 보건소는 2011년부터 저염식으로 경로식당 무료급식을 하며 어르신들에게 칭찬을 받는 일이 부쩍 늘었다. 매주 금요일마다 국 대신 숭늉을 대접하고 나트륨 배출을 돕는 바나나 등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자 어르신 63명의 평균 혈압은 수축기는 8.8㎜Hg, 이완기는 3.6㎜Hg가 감소했다. 또 고혈압 유소견자는 38명에서 23명으로 줄었다. <br/> <br/> 보건소 이정림 주무관은 “<span class='quot1'>어르신들이 ‘나는 살 만큼 살아서 먹고 싶은 대로 먹고 살겠다’는 말씀을 많이 하는데 더 오래 건강히 살기 위해선 식습관을 반드시 개선해야한다</span>”고 강조했다. <br/> <br/>외식·배달음식 나트륨 함량 높아 <br/> <br/> 경기도 안양시에서 홀로 사는 이모(64)씨는 하루 세끼를 찌개로 해결한다. 한번 요리를 하면 끓이고 또 끓여 밥과 함께 먹는다. 찌개가 바닥을 드러낼 쯤이면 짠맛도 느낄 법하지만 요즘 들어 짠 맛이 잘 안 느껴진다는 그다. <br/> <br/>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해 전국 1656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나트륨 줄이기 소비자 인식조사’에 따르면 나트륨을 줄일 필요성을 인식한다는 응답자는 81.4%였지만 줄이기 위해 노력한다는 이는 44.5%에 그쳤다. 보통이라는 응답은 33.8%다. <br/> <br/> 노력하지 않는다(21.7%)를 선택한 이들은 평소 식습관 및 조리습관이 익숙하다(65.2%)는 이유를 가장 많이 꼽았다. 맛이 덜하다(61.6%), 지속유지가 힘들다(55.7%)가 뒤를 이었다. <br/> <br/> 잦은 외식은 나트륨 과다 섭취를 일으켰다. 시민 69.4%는 외식·배달음식이 짜다고 답했다. 나트륨 섭취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식사형태로는 69.2%가 외식·배달음식을 선택했고, 가정식(20.7%)과 단체급식(10.2%) 순으로 조사됐다. <br/> <br/> 주로 섭취하는 외식으로는 54.9%가 국물류를 선택했다. 33.2%가 면류, 33.0%가 패스트푸드를 골랐다. 모두 나트륨 함량이 높은 음식들이다. 국물을 남김없이 먹는다고 응답한 이는 46.6%로 그렇지 않다는 이(33.7%)보다 높았다. <br/> <br/>나트륨, 40대 남성이 가장 많이 섭취 <br/> <br/> 세계보건기구(WHO)는 2013년 성인 나트륨 섭취 권고량을 하루 2000㎎으로 정했다. 보건복지부가 2015년 정한 권고량도 같다. 소금으로 따지면 5g이다. 시민 53%는 나트륨 권고량을 알지 못했다. <br/> <br/> 식약처는 2015년 국민 하루 평균 나트륨 섭취량이 3889.6㎎이라고 발표했다. 권고량의 2배에 가깝다. 남성은 4619.7㎎, 여성은 3160.2㎎을 섭취했다. <br/> <br/> 직장생활로 외식을 자주 하는 30∼40대가 모두 4500㎎ 이상의 나트륨을 섭취했다. 특히 40대 남성이 5419.6㎎으로 나트륨을 가장 많이 섭취했다. <br/> <br/> 시민 41.4%가 영양표시 중 열량을 관심 있게 읽는다고 답했지만 나트륨을 중요하게 확인한다고 하는 이는 12.6%에 그쳤다. 사망원인 1위인 암, 2위인 심장질환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나트륨이지만 비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열량보다 덜 관심 받는 셈이다. <br/> <br/>고혈압·비만·심장질환 유발 <br/> <br/> 나트륨이 고혈압을 유발한다는 논문은 45년 전에도 쓰였다. 뉴욕주립대 루이스 박사는 1972년 고혈압과 식염 섭취량은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있다고 발표했다. 하버드 공중보건대학 프랑크 박사는 2001년 412명의 참가자에게 저염식과 일반적인 식단을 무작위로 배정해 저염식을 할 경우 일반 식단보다 혈압 강하 효과가 크다는 논문을 발표했다. <br/> <br/> 나트륨이 비만을 일으킨다는 연구는 국내에서 활발하다. 2012년 동국대 일산병원 오상우 교수는 나트륨 섭취가 많은 상위 20%가 하위 20%에 비해 비만 위험도가 7∼18세에서는 1.8배, 성인에게서 1.2배 높아진다는 논문을 썼다. <br/> <br/> 한양대 의대 전대원 교수는 나트륨 섭취가 많을수록 체질량지수와 허리둘레, 내장지방량과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진다는 연구를 2015년 발표했다. 헬싱키 대학 자코 교수는 높은 나트륨 섭취량이 혈압을 포함한 심혈관 질환과 심장질환, 사망률을 높인다는 논문을 2001년 냈다. <br/> <br/>독거노인 나트륨 섭취 대응해야 <br/> <br/>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최근 발행한 “<span class='quot2'>나트륨 섭취 저감화 정책 추진현황 및 향후 과제</span>” 보고서에서 “<span class='quot2'>미각 민감도와 식욕, 씹는 기능과 소화능력이 저하되는 노인은 나트륨 함량이 높은 국물 선호가 높아 나트륨 섭취를 줄이기가 쉽지 않다</span>”고 경고했다. <br/> <br/>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2005년 77만6996명이었던 독거노인이 2015년 137만9066명으로 1.8배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20년 후인 2035년에는 342만9621명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br/> <br/> 2014 국민건강통계는 나트륨 과잉섭취 등으로 발병하는 고혈압이 30대에서 7.3%, 40대에서 17.7%, 50대 32.0%, 60대 48.5%, 70대 이상에는 63.5%로 연령이 증가할수록 급격히 증가한다고 발표했다. <br/> <br/> 보고서 저자인 개발원 국민영양관리TF 김민정 팀장은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span class='quot3'>위암과 심장질환, 고혈압 등 우리나라 주요 사망원인이 모두 나트륨과 직결돼 있다</span>”며 “<span class='quot3'>늘어나는 독거노인의 나트륨 섭취 저감화 사업모델 개발이 시급하다</span>”고 주장했다. <br/> <br/>칼륨 섭취하고 국물은 남겨야 <br/> <br/> 칼륨 섭취는 나트륨 배출을 돕는다. 바나나, 포도 등 과일과 녹황색 채소에는 칼륨이 풍부하다. 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할 때는 “싱겁게 해 달라”고 부탁하는게 좋다. 국·탕·찌개 등을 적게 먹어야 하고 식료품을 살 때 나트륨 함량 확인은 필수다. 소금 대신 천연 향신료를 이용해도 좋다. <br/> <br/> 국은 뜨겁거나 매우면 입맛이 둔해져 간을 짜게 할 가능성이 높다. 국이 식었을 때 간을 하는 게 좋다. 국·탕·면류의 국물 1컵(200㎖)을 덜 먹으면 하루 나트륨 섭취량을 반으로 줄일 수 있다. 반면 국물을 남김없이 다 먹으면 한끼 식사만으로도 하루 권장 나트륨 섭취량을 넘어설 수 있다. <br/> <br/> 식약처 관계자는 “<span class='quot4'>칼륨이 나트륨 배출을 돕는 건 사실이나 칼륨을 섭취한다고 나트륨을 많이 섭취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span>”며 “<span class='quot4'>나트륨 섭취를 줄이는 게 우선이고 소금 대신 후추나 카레가루, 향신료, 버섯가루 등을 이용해 간을 하는 게 좋다</span>”고 말했다. <br/> <br/>식약처, 국수 등 5개 품목 나트륨 비교표시 의무화 <br/> <br/>5월19일부터… 우수 식단 레시피도 보급 <br/> <br/>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5월 19일 나트륨 함량 비교표시제를 시행한다. 예를 들어 120g당 나트륨 함량이 2000㎎인 유탕면의 경우 비교표준값 1730㎎ 대비 나트륨 함량이 116%로 동일·유사 식품 대비 나트륨이 많은 제품임을 보여준다. <br/> <br/>비교표시제 시행 대상은 국수 냉면 유탕면류 햄버거 샌드위치 등 5개 품목이다. 각 품목별로 2015년 국내 매출액 상위 5개 제품의 나트륨 함량 평균값을 비교표준값으로 정했다. 식약처는 “<span class='quot5'>소비자가 나트륨이 적은 제품을 선택하도록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식품업계가 나트륨을 덜 첨가하도록 유도할 수 있을 것</span>”이라고 밝혔다. <br/> <br/>식약처는 나트륨 함량 비교표시제가 시행되는 5월에 맞춰 나트륨·당류 줄이기 연계 체험 캠페인을 열 계획이다. 요리경연대회를 열어 우수 저감 식단을 찾고 그 레시피를 10월 보급할 예정이다. <br/> <br/>12월에는 생애주기 맞춤형 나트륨 줄이기 교육 전달체계를 구축한다. 복지회관 등에 1대1 줄이기 교육 프로그램을 임산부와 노인, 성인을 대상으로 보급한다. 독거노인의 나트륨 섭취를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br/> <br/>이달 중 김치류나 절임 식품류를 제조하는 중소기업 등에 전문가 컨설팅팀을 파견해 나트륨 저감기술을 지원한다. 우수 참여업체를 선정해 홍보함으로써 나트륨 저감 분위기를 유도할 방침이다. <br/> <br/>식약처는 2010년부터 2014년까지 나트륨 섭취량 줄이기 대책에 따라 외래진료와 입원치료 감소, 사망 감소로 인한 근로소득 손실감소 등으로 최대 19조6000억원의 편익이 발생했다고 추정했다. 서울대 경제학부 이철희 교수는 국민 전체가 나트륨 1g을 덜 섭취할 경우 발생하는 연 최대 편익은 8조3798억원이라고 추산했다. <br/> <br/>식약처 관계자는 “<span class='quot4'>나트륨 감소 사업을 시행하고 있지만 시민들의 인식 개선이 우선돼야한다</span>”며 “<span class='quot4'>최근 먹방(먹는 방송)과 쿡방(요리 방송)이 유행하며 맛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삼삼한 요리 경연대회 등 소비자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겠다</span>”고 말했다. <br/> <br/>글=김동우 기자 love@kmib.co.kr, 사진=서영희 기자, 일러스트=이은지 기자

언론사: 국민일보-4-656.txt

제목: 앗, 혈뇨가… 비뇨기계 암 체크 하세요  
날짜: 20170314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314182355001  
ID: 01100201.20170314182355001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핏빛이 감도는 붉은 소변을 보고 왜 그런지 몰라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다. ‘혈뇨’가 아닌가 싶어서다. 실제로 혈뇨는 비뇨기 계통에 뭔가 이상이 생겼다는 신호다. <br/> <br/> 이동현 이대목동병원 비뇨기과 교수는 13일 “<span class='quot0'>혈뇨는 소변을 볼 때 피가 섞여 나오는 증상을 가리키며 특히 40대 이후 중·장년층의 경우 방광암 등 비뇨기암 발생을 알리는 경고등일 수 있다</span>”며 주의를 당부했다. <br/> <br/> 물론 적은 양의 혈뇨가 한 번 있었다고 해서 이상이 있다고 단정할 순 없다. 월경 감염 알레르기 운동 외상 등에 의해 일시적으로 혈뇨가 비칠 수도 있어서다. <br/> <br/> 주의가 필요한 때는 원인 모를 혈뇨가 지속되거나 혈뇨의 양이 비정상적으로 많은 경우다. 이 때는 정확한 원인 규명을 위해 추적 관찰과 정밀검사가 꼭 필요하다. <br/> <br/> 혈뇨는 신장에서 외(外)요도구에 이르는 요로(尿路) 중 어느 한 부분에 출혈성 병변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로 인해 눈으로 색깔 변화를 알아볼 수 있을 정도의 혈뇨를 ‘육안적 혈뇨’, 현미경으로만 확인이 가능한 미세 혈뇨를 ‘현미경적 혈뇨’라고 부른다. <br/> <br/> 어느 경우든 혈뇨가 나타나면 출혈 부위가 정확히 어디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노인에게서 육안적 혈뇨가 있거나 장기간 담배를 즐겨 피워 온 흡연자에게 혈뇨가 비칠 때는 비뇨기계에 생긴 암 때문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하는 것이 권장된다. <br/> <br/> 혈뇨를 일으키는 원인질환은 연령대에 따라 다르다. 예컨대 20세 미만 소아청소년기에는 먼저 방광염 신우신염 등 요로계통의 염증성 질환이나 선천성 질환이 의심된다. 이밖에도 사구체신염이나 유전성 신장염과 같이 콩팥 내부에 생긴 병 때문에 혈뇨가 비칠 수 있다. <br/> <br/> 이 교수는 “<span class='quot1'>소아청소년기에는 암이나 요로결석 때문에 혈뇨가 비치는 경우란 드물다</span>”고 강조했다. <br/> <br/> 20∼30대 청년기에는 요도염이나 방광염과 같은 염증성 질환 못잖게 격렬한 운동이나 심한 충격 등으로 인해 혈뇨가 일어나기 쉽다. 요로결석에 의한 혈뇨도 증가한다. <br/> <br/> 반면에 40∼50대 중·장년기에 비치는 혈뇨는 원인질환으로 방광암, 신장암, 전립선암, 요관암 등 비뇨기암 감별이 필수적이다. 혈뇨 증상으로 방문한 22∼90세 사이 남녀 36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절반에 가까운 176명(48%)이 비뇨기암 진단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보고가 있다. 이들 중 대부분이 40대 이상 중장년층이었다. 암 종류별로는 방광암이 32.7%로 가장 흔했고, 요관암 7.6%, 전립선암 3.5% 신장암 3.5% 순서였다. <br/> <br/> 60대 이후 노년기에는 굳이 전립선암과 같은 암이 아니더라도 노화와 관련이 있는 전립선비대증 때문에 혈뇨가 비칠 수도 있다. 강석호 고려대 안암병원 비뇨기과 교수는 “<span class='quot0'>혈뇨 외에도 소변을 보는 횟수가 빈번해지거나 수면 중 화장실에 가는 야간뇨 횟수가 늘어나면 전립선비대증을 의심해야 한다</span>”고 지적했다. <br/> <br/> 혈뇨를 부르는 비뇨기계 손상을 막으려면 철저한 개인위생 관리를 통한 요로감염 예방과 올바른 생활습관을 갖는 게 중요하다. 평소 6∼8잔 이상의 수분 섭취도 체내 세균을 몸 밖으로 배출시켜 비뇨기계 손상 예방에 도움이 된다. <br/> <br/> 피곤하거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때, 요즘처럼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는 환절기에 무리하지 않고 적당한 휴식을 통해 안정을 취하는 것도 중요하다. 부부관계 직후에는 가급적 배뇨를 하는 습관을 갖는다. 소변을 너무 참는 것은 좋지 않다. 금연 습관을 실천하는 것도 필요하다. <br/> <br/>이기수 의학전문기자

언론사: 국민일보-4-657.txt

제목: '싱겁게 먹고 식사후 바로 눕거나 자지 말라'  
날짜: 20170313  
기자: 민태원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313230044001  
ID: 01100201.20170313230044001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대한암예방학회(회장 성미경 숙명여대 식품영양학과 교수)가 오는 21일 '암 예방의 날'을 맞아 '위암 예방을 위한 건강 수칙'을 마련해 13일 공개했다. <br/> <br/> 2016년 중앙암등록본부 자료에 따르면 위암은 우리나라 전체 암 발생의 13.8%로 2위를 차지할 정도로 다빈도 암이다.  <br/> 남자의 경우 발생률 1위, 여자는 4위에 해당한다. 성미경 회장은 "<span class='quot0'>위암은 특히 우리나라에서 발병률이 높은 암으로 조기 검진 및 올바른 식생활을 통한 예방이 중요하다</span>"고 강조했다.  <br/> 학회는 오는 17일 오후 2시부터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암병원 서암강당에서 '위암 예방과 환자를 위한 건강한 식습관' 주제의 일반인 대상 건강강좌를 개최한다. <br/>  <br/> 다음은 위암 예방을 위한 건강수칙. 지금까지 수행된 역학 및 임상 연구를 바탕으로 구성됐다. <br/> <br/>1. 싱겁게 먹는다 <br/>짠 음식을 많이 섭취하는 사람은 적게 먹는 사람보다 위암 발병 위험이 4.5배 더 높다. 음식 조리시 소금이나 간장을 적게 넣고 가공식품 구입시 영양 표시를 보고 나트륨 함량이 적게 들어간 식품을 선택한다. <br/> <br/>2. 가공 및 훈제식품 섭취를 줄인다 <br/>건조 훈제 염장식품, 방부제 사용 식품에 함유된 아질산염 및 질산염은 장기간 섭취시 위암 발생 위험을 높인다. <br/> <br/>3. 불에 태운 고기 섭취를 줄인다 <br/>숯불구이나 바비큐 같이 고기나 생선을 굽거나 태우면 발암물질이 생성되며 이런 물질 섭취는 위암 발생 위험을 높인다. <br/> <br/>4.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충분히 섭취한다 <br/>항산화 물질이 풍부하게 함유된 신선한 채소와 과일 섭취는 위암 예방에 도움이 된다. 특히 백합과 채소(마늘 파 양파 등)는 위암 예방에 효과적이다. <br/> <br/>5. 알코올 섭취를 줄인다 <br/>하루 3잔(알코올 45g) 이상의 과도한 알코올 섭취는 위 점막에 손상을 주고 위암 발생 위험을 증가시킨다. <br/> <br/>6. 식사 후 바로 눕지 않는다 <br/>식사 후 바로 눕거나 자는 습관은 음식물의 위 배출 시간을 지연시켜 포만감, 더부룩함 등 각종 소화기 증상을 유발할 수 있다. <br/> <br/>7. 개인 접시를 사용한다 <br/>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에 감염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위암에 걸릴 확률이 약 2.8~6배 증가한다. <br/>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은 음식을 같이 먹을 때 타액에 의한 감염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개인 접시를 사용하는 것이 권장된다.   <br/> <br/><위암 수술 환자를 위한 식사 수칙> <br/>위암은 수술후 적응 정도에 따라 식사를 달리하는 것이 좋다. <br/> <br/>1. 수술 1개월 이후 <br/>고춧가루 후추 겨자 등을 첨가한 매운 음식 섭취는 피한다. 찌개 젓갈 장아찌 등 염장 음식의 섭취에 주의한다. 덤핑증후군(식사후 혈당히 급격히 떨어짐) 위험이 있으므로 설탕 꿀 등 단순당을 함유한 음식을 제한한다. 섬유소가 많거나 질긴 음식(잡곡, 억센 채소류) 혹은 말린 음식(오징어 멸치 등)은 피한다. 식사량을 천천히 늘리며 부족시 영양 보충 음료를 권장한다. <br/> <br/>2. 수술 3개월 이후 <br/>단단하고 질긴 음식은 제한한다. 아주 맵거나 짠 음식의 섭취는 피한다. 술 커피 홍차 등 음료는 계속 제한한다. 건강 체중이 유지되도록 열량을 보충해 주며 부족시 영양 보충 음료를 권장한다. 음식을 골고루 섭취해 균형잡힌 영양상태를 유지한다. <br/> <br/>3. 수술 6개월~1년 <br/>적응 정도에 따라 잡곡 등의 섭취가 가능하다. 아주 맵거나 짠 음식의 섭취는 피한다. 술 커피 홍차 등 음료는 계속 제한한다. 규칙적 식사와 운동 습관을 유지한다. <br/> <br/>민태원 기자 twmin@kmib.co.kr

언론사: 국민일보-4-658.txt

제목: [포토] 살아 있는 암꽃게 17% 싸게 팔아요  
날짜: 20170313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313183555003  
ID: 01100201.20170313183555003  
카테고리: 경제>산업\_기업  
본문: 서울 서초구 농협 하나로마트 양재점 직원들이 12일 서해 '활' 암꽃게를 선보이고 있다. 하나로마트 양재점 등은 오는 22일까지 활꽃게 산지 직송전 행사를 진행, 최대 17% 할인 판매한다. <br/><br/>농협유통 제공

언론사: 국민일보-4-659.txt

제목: 국내 최대 규모 의료기기 전시회 ‘키메스2017' 16일 개막  
날짜: 20170310  
기자: 이기수 의학전문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310150644001  
ID: 01100201.20170310150644001  
카테고리: 문화>전시\_공연  
본문: 한국이앤엑스는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등과 함께 오는 16~19일, 4일간 서울 강남구 코엑스(COEX)전시장에서 ‘보다 멋지게 보다 쉽게 보다 건강하게’를 주제로 제33회 국제 의료기기`병원설비전시회 '키메스 2017'을 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포스터 참조). <br/> <br/>키메스 2017에는 국내 579개 의료기기 제조업체를 비롯해 미국 125개사, 중국 154개사, 독일 88개사, 일본 62개사, 대만 58개사, 영국 24개사, 이탈리아 24개사, 스위스 22개사 등 총 41개국 1292개사가 참가해 최첨단 의료기기와 병원설비, 의료정보시스템, 헬스케어·재활기기, 의료관련용품 등 3만여 점을 전시한다. <br/> <br/>특히 최근 세계적으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로봇 의료기기들이 선보인다. 의료의약용 클린멸균 로봇, 인공관절 수술로봇, 보행보조 로봇, 로봇재활 시스템 등 다양한 제품을 만나볼 수 있다. <br/> <br/>또 의료분야의 3D 프린터 기술 및 활용 사례를 공유할 수 있는 세미나가 15차례나 열리고, 여러 암수술에 활용된 3D 프린팅 파트와 병원에서 활용한 내시경 맞춤캡 등 의료분야에 활용된 다양한 3D 프린팅 파트를 직접 보고 상담 받을 수도 있다. <br/> <br/>전시회 기간 중 코엑스 컨퍼런스센터에선 IBM 왓슨헬스의 앤드류 노든 총괄이 “<span class='quot0'>알파고시대, 보건의료산업의 미래는?</span>”이라는 주제로 특별강연을 하는 등 강연회도 줄지어 열린다. <br/> <br/>전시회 개장 시간은 매일 오전10시부터 오후6시까지다. 토, 일요일에도 전시한다. 입장료는 1만원이다. 단 오는 14일까지 키메스 홈페이지(www.kimes.kr)를 방문, 사전등록을 한 이들에겐 무료입장권을 제공한다. <br/> <br/>이기수 의학전문기자 kslee@kmib.co.kr

언론사: 국민일보-4-660.txt

제목: 유방암세포 죽이는 ‘인돌-3-카비놀’, 양배추에 많아  
날짜: 20170310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310104544001  
ID: 01100201.20170310104544001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최근 영국 레스터대학 연구진이 녹색 채소에 함유된 화학물질이 항암제와 병용하는 경우 유방암세포를 사멸시킨다는 것을 발견했다. <br/> <br/>연구진은 해당 물질인 ‘인돌-3-카비놀’이 종양세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실험했다. 매일 인돌-3-카비놀을 암세포에 공급한 결과 항암제와 함께 사용하는 경우 3가지 유형의 유방암세포가 죽는 것을 확인한 것이다. <br/> <br/>인돌-3-카비놀은 십자화과 채소인 브로콜리, 콜리플라워, 케일 등에 들어 있지만 특히 양배추에 다량 함유된 물질이다. 연구진은 인돌-3-카비놀이 암세포의 분자를 변형시키는 능력이 있고 그로 인해 암세포가 항암제에 더욱 취약해지게 만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br/> <br/>이처럼 유방암에 좋은 양배추 효능이 알려지면서 여성들 사이에서 양배추즙 제품이 각광받고 있다. 양배추즙은 브랜드에 따라 성분함량이 달라 양배추즙 효과를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는 두 가지 기준을 참고로 살펴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br/> <br/>일단 양배추즙은 주 재료가 되는 양배추의 품질이 우선이다. 양배추의 재배농법은 양배추즙의 품질을 가늠할 수 있는 기준 중 하나다. 유기농 양배추는 관행 재배방식으로 키운 양배추보다 항산화물질인 파이토케미컬의 함량이 훨씬 풍부하기 때문이다. <br/> <br/>전남대 식품공학과 정항연 연구원은 유기농 작물과 관행 작물의 비교 연구에서 “<span class='quot0'>유기 재배한 딸기가 관행 재배한 딸기보다 항산화 효과가 25% 더 뛰어나다</span>”고 밝혔다. <br/> <br/>아울러 유기농 양배추를 사용하면 농약으로부터 안심할 수 있다. '폴란드 지방사람들의 농약 노출과 그에 따른 태아의 체중 영향(2003)'에 관한 자료에 따르면, 농약에 자주 노출되는 임산부일수록 저체중아를 출산할 가능성이 높았다. <br/> <br/>다음으로 양배추즙의 ‘제조방식’을 확인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대개 양배추즙은 양배추를 물에 달여 농축액을 뽑아내는 ‘물 추출 방식’으로 제조된다. 이러한 방식은 양배추의 영양성분 중 물에 녹아 나오지 않는 성분까지 얻어내기가 어렵다. <br/> <br/>이와 달리 양배추를 통째로 양배추농축액에 갈아 넣는 ‘전체식 방식’의 경우, 물 추출 방식으로 추출하지 못했던 불용성 영양성분을 포함, 양배추의 영양을 최대한 담아낼 수 있다. <br/> <br/>한국기능식품연구원이 물에 달인 양배추즙과 통째 갈아 만든 양배추 분말액의 성분 함량을 비교한 결과 실제로 함량에서 차이가 존재했다. 양배추 분말액의 철, 칼슘, 칼륨, 아연, 식이섬유, 총플라보노이드, 비타민E 등 함량은 양배추즙보다 4.10배에서 최대 36.82배 더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br/> <br/>유방암은 갑상선암과 함께 비교적 예후가 좋은 암으로 간주되곤 한다. 그러나 전이를 잘 일으키고 재발률이 높으며,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생존률이 68%로 떨어져 결코 안심해서는 안 되는 암이다. <br/> <br/>한국유방암학회에 따르면 젊은 여성들의 유방암 발병률이 높아지는 추세다. 30대 여성이라면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고 양배추 등 유방암에 좋은 십자화과 채소를 자주 섭취하며 유방암 예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br/> <br/>콘텐츠팀 이세연 lovok@kmib.co.kr

언론사: 국민일보-4-661.txt

제목: 부산 최고령 가수 등 ‘아름다운 노래’ 재능기부로 여생봉사  
날짜: 20170309  
기자: 부산=윤봉학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309172144001  
ID: 01100201.20170309172144001  
카테고리: 문화>방송\_연예  
본문: “<span class='quot0'>덤으로 살고 있는 여생을 이웃들에게 즐거움을 선물하며 살아갈 겁니다.</span>” <br/>부산지역 현역 최고령 가수인 조아성(77)씨는 9일 부산 중앙동 신창요양병원(병원장 권혁란) 강당에서 할아버지 할머니들에게 아름다운 노래를 선물한 뒤 이 같이 다짐했다. <br/> <br/>부산장애문화연예인연합회(회장 조규봉) 주최로 이날 열린 음악회에는 조씨 외에 부산에서 활동하는 원로 언더가수 10여명이 함께 했다. 한의사가 운영하는 도심형 요양병원인 이 병원에 있는 말기암 환자 등 60여명이 음악회에 참석했다. <br/> <br/>병원 측은 이날 음악회에 참석한 환자들에게 빵과 음료수 등을 선물했다. 권 병원장은 “<span class='quot1'>맛있는 음식을 드시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면 건강이 빨리 회복된다</span>”고 참석자들을 위로했다. <br/> <br/>이들 원로가수들은 7년 전부터 봉사단체를 만들어 부산·경남지역 요양병원와 양로원, 보호시설 등을 찾아다니며 노래로 원생들을 위로·격려하고 있다. 자신들이 가진 재능을 이웃들에게 나누기 위해서 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다양한 악기와 방송 시스템, 의상과 소품 등이 많아 이동시 비용이 많이 든다. <br/> <br/>봉사단을 이끌고 있는 조씨는 배우 겸 가수다. 1963년 동아대 법학과를 졸업한 후 서울로 올라가 영화배우로 사회에 첫발을 디뎠던 조씨는 당시 절정의 인기를 누리던 황해 박노식 도금봉 문정숙 등 톱스타가 대거 출연한 영화 ‘암살자 063’에서 간첩역의 조연을 맡기도 했다. 이후 남석훈 태현실 트위스트 김 강문이씨가 주연을 맡은 영화 ‘메마른 입술’에 출연했지만 제작사가 파산하는 바람에 중도에 촬영을 포기해야 하는 아픔을 맞았다. 그날 이후 조씨는 영화배우의 꿈을 접고 가수로 진로를 바꿨다. <br/> <br/>하지만 가수의 길도 순탄치 않았다. 나이트클럽과 카바레 등 밤무대를 전전하면서 온 힘을 쏟았지만 무명 생활의 연속이었다. 인기 가수가 되겠다는 꿈도 좋지만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히고 말았다. 조씨는 돈부터 벌어야겠다는 생각에 공장을 차리고 전화기 가게도 운영하는 등 생업 전선에 뛰어들었다. 가끔 밤무대에 서기는 했지만 가수의 꿈은 아련한 옛사랑의 그림자처럼 멀어져 갔다. <br/> <br/>그런 그가 연예계로 복귀한 것은 2008년. 직장암 2기 판정을 받은 것이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 68세에 찾아온 암세포. 생사를 넘나드는 수술을 마친 후 밀려오는 외로움에 인생이 덧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br/> <br/>이후 삶은 ‘덤’이라는 생각에 여생을 요양병원과 양로원, 경로당을 찾아가 자선 공연을 하는 봉사활동에 전념키로 한 것이다. 돈벌이를 목적으로 하는 프로 가수가 아니라 오로지 노래가 좋아서 무대에 서는 진짜 가수로 다시 태어났다. 2012년 주위의 도움으로 ‘천년이 가도’를 포함해 8곡이 수록된 음반 ‘메모리즈’를 냈다. 나이 72세의 늦깎이 신인 가수가 탄생한 것이다. <br/> <br/>조씨는 “<span class='quot2'>우리들의 노래를 듣고 즐거워하는 이웃들이 있는 곳에는 어디든지 달려가겠다</span>”고 다짐했다. <br/> <br/>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

언론사: 국민일보-4-662.txt

제목: 통증에 출혈까지…치질수술 미루지 말아야  
날짜: 20170309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309150044002  
ID: 01100201.20170309150044002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항문질환 중 가장 대표적인 질환은 치질이다. 우리나라 전체 수술 건수 중 두 번째를 차지할 만큼 흔한 질환으로 자리 잡았다. 많은 사람들이 치질로 인해 고통 받지만 주위 시선에 대한 부끄러움이나 수술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치료 및 수술을 꺼리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잠깐의 부끄러움이나 두려움 때문에 병을 키운다면 나중에 더 큰 부담을 떠안게 될지 모른다. <br/> <br/>치질의 가장 흔한 증상은 출혈이다. 배변 중 또는 배변 후, 피가 변에 묻거나 변기에 뚝뚝 떨어지는 증상이다. 배변 후 피를 보게 되면 많이 놀라고 당황해하며 병원을 찾게 되는데, 특히 40~50대 이상의 환자들은 암이 아닐까하며 많은 걱정을 하게 된다. <br/> <br/>다행이 병원에서 이런 환자들을 진찰하고 검사하면 95% 이상은 단순치질인 경우가 많다. 이때 1~2기 이하의 초기의 치질은 약물치료, 식생활 개선과 배변습관의 개선과 좌욕만으로 충분하다. 그러나 3, 4도 치질은 보존적 치료만으로는 역부족이라는 것이 전문가의 조언이다. <br/> <br/>안양 연세신통외과 나재웅 원장(외과전문의)은 “3~4도 치질에 대한 보존적 치료는 그 효과가 매우 제한적이다. 출혈, 통증, 부종 등을 일시적으로 완화시킬 뿐 완치는 불가능하다. 때문에 근본적인 치료는 수술을 선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br/> <br/>환자에 상태에 맞게 맞춤 치료가 진행되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항문외과 안양역 연세신통외과 측에 따르면 치질의 정도에 따라 가장 합리적인 치질 치료방법을 찾아야 한다. 치질 수술이 필요한 상태라도 비교적 적은 부담으로 치료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 즉 원데이 치질수술로 하루만에 입원 없는 수술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br/> <br/>어느 정도 이상 치질이 진행된 상태라면 반드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수술 과정에 대한 부담을 던 방법이 있다면 치질 증상을 참으며 방치할 이유는 없을 것이다. 나 원장에 따르면 원데이 치질수술은 치핵 조직을 하나씩 확인하며 진행되는 수술로, 깔끔한 치료와 치질 재발 확률이 극히 낮다. 피부 꼬리 발생이 적어 수술 부위가 깔끔하고, 항문이 좁아지지 않고 수술 후 출혈이 적은 치질 수술 방법을 적용한다는 설명이다. <br/> <br/>치질 수술은 통증에 대한 부담감도 떨칠 수 있다. 최소한의 안전한 마취로 진행되는 치질 수술법이지만 수술 기기 발달로 통증은 적은 편이다. 또 통증 발생은 외과전문의의 숙련도에도 많은 영향을 받는 요소이므로 수술 경험이 많은 의료진을 찾는 것이 유리하다. <br/> <br/>나 원장은 “치질 수술은 물론 온수좌욕, 약물요법, 변완화제, 식이요법 등의 치질 치료 및 증상 완화를 위한 노력은 되도록 이른 시기에 이루어지는 것이 좋다. 치질 증상을 참고 버티기 보다는 자신에게 맞는 치료방법을 찾아 조기에 치질을 극복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br/> <br/>콘텐츠팀 이세연 lovok@kmib.co.kr

언론사: 국민일보-4-663.txt

제목: 16일 암환자 메디컬푸어 방지를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날짜: 20170309  
기자: 이기수 의학전문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309100344001  
ID: 01100201.20170309100344001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한국 암치료 보장성확대 협력단(KCCA)는 박인숙 국회의원(바른정당, 서울 송파 갑)과 함께 16일 오후1시30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4대 중증질환 보장성의 현 주소와 나아갈 방향-암환자 메디컬푸어 어떻게 막을 것인가’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br/> <br/>정경혜 서울아산병원 교수가 우리나라 암 치료 보장성 현황 및 환자 서베이 결과를, 백민환 한국다발성골수종환우회장과 백진형 한국신장암환우회 대표가 각각 암환자 체험사례를 발표한다. <br/> <br/>임영혁 한국 암치료 보장성확대 협력단 대표(한국임상암학회 이사장)는 “암 치료를 위해 빚을 내는 ‘메디컬 푸어’ 문제가 심각하다. 우리국민 3명 중 1명이 암환자가 될 수 있고, 3명 중 1명은 암으로 사망하는 시대에, 암은 우리나라 의료보건 아젠다 1순위”라며 “많은 국민이 직간접적으로 암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받고 있는 만큼, 토론회를 통해 암환자들의 가계 부담이 발생하는 이유를 살펴보고, 이를 경감시킬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이 마련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br/> <br/>이기수 의학전문기자 kslee@kmib.co.kr

언론사: 국민일보-4-664.txt

제목: 파리 동물원 코뿔소 ‘뱅스’ 전기톱 살육사건  
날짜: 20170309  
기자: 권준협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309000357003  
ID: 01100201.20170309000357003  
카테고리: 국제>유럽\_EU  
본문: 멸종위기에 놓인 코뿔소가 초원이나 밀림도 아닌 동물원에서 도륙당했다. 영국 BBC방송은 7일(현지시간) 밀렵꾼들이 전날 밤 프랑스 파리의 투아리 동물원에 사는 4세 흰코뿔소 뱅스(사진)의 머리에 총을 세 발 쏴 죽이고 뿔을 갖고 달아났다고 보도했다. 뿔 한쪽은 톱으로 잘라 가져갔고 다른 쪽은 자르다 말았다. 동물원 관계자들은 유럽을 통틀어 전례 없는 경우라며 충격에 빠졌다. <br/> <br/> 경찰과 동물원 측은 이번 사건을 전문 밀렵꾼의 소행으로 보고 있다. 동물원 측은 “현장 직원 5명이 근무하고 있었고 감시카메라가 작동하고 있었지만 밀렵꾼이 외부 울타리와 내부 철제문을 훼손하고 침투했다”고 밝혔다. 또 “뿔을 자를 목적으로 전기톱을 준비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전형적인 밀렵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br/> <br/> 코뿔소 뿔은 아시아 일부 지역에서 수요가 높아 밀렵꾼의 주요 목표물이 된다. 중국과 베트남 등에서 코뿔소 뿔이 암 치료와 발기부전 등 각종 질병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근거 없는 속설이 떠돌아서다.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코뿔소 뿔은 ㎏당 3만∼4만 유로(약 3600만∼4800만원)에 거래된다. 암시장에서는 더 높은 돈을 받고 팔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br/> <br/> 뱅스는 인간의 계획에 따라 태어나 인간의 탐욕에 의해 죽었다. 2012년 네덜란드에서는 남아프리카공화국과 우간다를 중심으로 2만1000마리 남은 흰코뿔소 멸종을 막기 위한 번식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뱅스는 그때 태어난 코뿔소 250마리 중 한 마리다. 2015년 프랑스로 건너왔지만 코뿔소 평균수명(40세)의 10분의 1밖에 살지 못하고 처참하게 죽었다. <br/> <br/> 프랑스는 지난해 뿔과 상아 거래를 법적으로 금지했다. 세골렌 루아얄 환경장관은 트위터를 통해 “코뿔소 도륙은 불법”이라면서 “<span class='quot0'>프랑스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뿔 거래가 금지돼야 한다</span>”고 강조했다. 수지 엘리스 국제코뿔소재단 사무총장은 “<span class='quot1'>밀렵꾼들이 다른 동물원도 살펴봤을 것</span>”이라며 “<span class='quot1'>동물원에서 코뿔소 안전을 위해 조치를 취해야 한다</span>”고 강조했다. <br/> <br/>▶파리 동물원 코뿔소 ‘뱅스’ 전기톱 살육사건 <br/>▶“CIA, 아이폰·삼성 스마트TV 통해 전방위 도·감청” <br/>▶"태극기가 앞치마냐" 우동 먹다 봉변당한 서석구 변호사 영상 <br/>▶정미홍 전 KBS아나운서 "<span class='quot2'>탄핵 인용된다면 목숨 내놓겠다</span>" <br/>▶"박 대통령, 지독한 거짓말로 책임 회피… 비극의 나라 예견" <br/>▶10대 소녀 2명 넉달 간 523차례 성매매시켜 6800만원 챙긴 일당 중형 <br/>▶“예전부터 해오던 일” 이병기 전 국정원장 보수단체 지원 인정 <br/>▶한국 WBC 1라운드 탈락 수모… 날아간 ‘경우의 수’ <br/> <br/> <br/>권준협 기자 gaon@kmib.co.kr

언론사: 국민일보-4-665.txt

제목: 분당차병원, 역류성식도염 치료 ‘스트레타 시술’ 새로 도입  
날짜: 20170308  
기자: 이기수 의학전문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308112644001  
ID: 01100201.20170308112644001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분당 차병원(원장 김동익)은 소화기내과 조주영( <br/>사진) 교수가 입 속에 내시경을 넣어 역류성식도염을 치료하는 ‘스트레타(Stretta) 시술’을 새로를 도입했다고 8일 밝혔다. <br/> <br/>역류성식도염은 식도와 위 사이의 차단막 역할을 하는 근육의 퇴화와 세포의 약해진 자생력 때문에 발생하는 질환이다. 속쓰림, 트림, 소화불량, 만성 기침, 목의 이물감, 가슴 통증 등 다양한 증상을 유발하고 만성 식도염의 경우 식도암까지 유발할 수 있다. <br/> <br/>대부분은 위산을 억제하는 약물로 증상이 조절되지만 재발이 흔하고 약물 복용에도 증상이 지속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약물치료를 3개월 이상 해도 50% 이하의 효과만 있거나 다양한 약물에도 호전이 없는 경우, 내시경 소견상 심한 역류성식도염과 암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전문의와의 상담을 통해 내시경 수술 또는 외과적 수술을 시행한다. <br/> <br/>스트레타는 입 속에 내시경을 넣어 낮은 주파수의 전기 에너지를 공급해 해당 근육과 세포를 강화시켜 역류성식도염의 다양한 증상을 호전시키는 내과적 시술이다. 절개, 이식수술이 필요 없는 치료법으로 외과적 수술과 달리 목에 흉터가 남지 않지 않는 것이 장점이다. <br/> <br/>조주영 교수는 “<span class='quot0'>국내에서는 최근 서구화된 식습관과 잦은 음주 및 피로 등의 원인으로 역류성식도염을 앓는 사람들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span>”며 “<span class='quot0'>분당 차병원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역류성식도염의 내∙외과적 치료법을 모두 갖추었기 때문에 역류성식도염 환자들의 만족을 극대화 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span>”고 말했다. <br/> <br/>조주영 교수는 새로운 내시경 치료법 개발로 2006년부터 매년 미국 소화기병학회에서 교육비디오상을 수상해오고 있으며, 지난 2011년에는 식도 무이완증의 내시경 치료인 ‘포엠’ 시술을 국내 최초로 도입하여 지금까지 130여명이 넘는 난치성 식도질환 환자들을 성공적으로 치료했다. <br/> <br/>이기수 의학전문기자 kslee@kmib.co.kr

언론사: 국민일보-4-666.txt

제목: 위암 고위험인자도 연령별, 성별에 따라 다르다  
날짜: 20170308  
기자: 이기수 의학전문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308111144001  
ID: 01100201.20170308111144001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일반적으로 위암의 고위험 인자는 장상피화생, 위축성 위염 등의 전암병변과 맵고 짠 음식, 헬리코박터균 감염, 비만, 흡연 등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최근 나이, 성별에 따라 영향을 미치는 위험 인자가 다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주목된다. <br/> <br/>이른바 전암병변이란 정상조직에서 암이 발생하는 과정의 중간 단계로 여겨지는 병변으로 의학적으로 다른 상태보다 암이 발생하기 쉬운 질환이나 병을 가리키는 의학용어다. <br/> <br/>연세대학교 강남세브란스병원은 소화기내과 김지현( <br/>사진), 건강검진센터 체크업 박유미 교수 연구팀이 2008년부터 2013년까지 건강검진을 통해 위내시경 검사를 받은 6만261명을 대상으로 나이, 성별, 암세포 형태별 위암 위험인자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8일 밝혔다. <br/> <br/>연구팀은 위암 75명, 전암병변 11,045명을 병변이 없는 대상자와 비교했다. <br/> <br/>위암 환자만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오로지 장상피화생과 위축성 위염만이 의미 있는 위험 인자인 것이란 분석이 도출됐다. 장상피화생과 위축성 위염은 위암의 대표적인 전암병변이다. <br/> <br/>반면 장상피화생 등 전암병변의 경우엔 나이(40세 이상), 성별(남성), 비만, 당뇨, 식습관(맵고 짠 음식), 헬리코박터균 감염 등 위험인자가 다양한 것으로 분석됐다. <br/> <br/>특히 나이, 성별, 암세포 형태에 따라 세분화해 분석한 결과 40세 미만에서는 성별(남성)을 제외하고 헬리코박터균 감염이 유일한 위험 인자였고 40세 이상에서는 헬리코박터균 감염 및 당뇨와 식습관이 추가적인 위험 인자로 나타났다. <br/> <br/> 또 여성의 경우에는 헬리코박터균 감염과 함께 비만이 위험 인자로 나타났는데, 비만은 여성에게 많은 위암 세포 형태에서도 추가적인 위험 인자로 분석됐다. <br/> <br/>김지현 교수는 “<span class='quot0'>장상피화생 같은 전암병변은 한 번 발생하면 이전 상태로 회복하기 어렵기 때문에 전암병변 발생 전 헬리코박터균, 식생활 습관 등 교정 가능한 위험 인자를 관리해야 한다</span>”면서 “<span class='quot0'>이번 연구는 건강검진 빅데이터의 활용 사례를 보여줬다는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다</span>”라고 말했다. <br/> <br/>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메디신(Medicine)’ 최근호에 게재됐다. <br/> <br/>▶김한솔 추정 셀프카메라 영상… 영어로 "아버지 살해당했다" <br/>▶박영수 특검 부인, 자택 앞 잔혹한 시위에 혼절…외국행도 검토 <br/>▶[태영호 단독 인터뷰] 태영호 전 駐英북한공사 “北, 미사일 4발 발사 국제문제화 노린 것” <br/>▶"태극기가 앞치마냐" 우동 먹다 봉변당한 서석구 변호사 영상 <br/>▶이건희 성매매 의혹 동영상, CJ계열사 직원이 촬영 지시 <br/>▶특전사 갔다 4개월 만에 식물인간 된 아들… 눈물의 호소 <br/>▶"돈세탁 퍼즐이 달라진다" 안민석 의원, 최순실정윤회 결혼 의혹 <br/> <br/>이기수 의학전문기자 kslee@kmib.co.kr

언론사: 국민일보-4-667.txt

제목: “불타버린 자활의 꿈… 재기의 힘 모아 주세요”  
날짜: 20170308  
기자: 인천=최기영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308000057001  
ID: 01100201.20170308000057001  
카테고리: 문화>학술\_문화재  
본문: 꽃샘추위와 함께 불어 닥친 매서운 바람에 재활용센터 입구를 막아 둔 방수포가 힘없이 펄럭이며 요란한 소리를 냈다. 화마가 덮친 지 닷새가 지났지만 센터 안에는 매캐한 냄새가 진동했다. 앙상한 뼈대만 남은 선반엔 손님을 맞이하던 제품들 대신 잿더미가 수북이 쌓여 있었다. <br/> <br/> 6일 찾은 인천 계양구 재활용센터는 지난 1일 밤 누전에 따른 화재로 전소됐다. 2001년 개소 후 지역 내 노숙인들이 자활·자립의 꿈을 펼쳐오던 공간이었다. 16년 동안 450여명의 노숙인들이 이곳을 거쳐 갔다. <br/> <br/> 현장에서 만난 엄진용(30)씨는 “지난주에 상태 좋은 냉장고가 들어와서 열심히 수리까지 마치고 전시해뒀는데 이렇게 됐다”며 바닥에 나뒹굴고 있는 검은 물체를 가리켰다. 근무 5년차인 엄씨에게 재활용센터는 ‘알바생’ 딱지를 떼고 사회인으로서 얻은 첫 일터였다. 그의 삶은 파란만장했다. 중학시절 암으로 세상을 떠난 어머니, 아버지의 사업 실패, 빚더미에 올라 집에서 쫓겨나야 했던 설움 등으로 불우한 학창시절을 보냈다. <br/> <br/> 군 제대 후 단칸방을 전전하던 엄씨는 결국 거리로 내몰렸다. 하지만 지인의 소개로 인천 해인교회(이준모 목사·재활용센터 대표이사)가 운영하는 노숙인쉼터에 발을 담그면서 전환점을 맞았다. 쉼터에서 생활하며 재활용센터 일을 배우게 된 것. 엄씨는 “물건을 옮기는 것부터 운전, 가전제품 수리, 가구 손질, 매장관리 등을 배우면서 ‘나도 사회인으로서 당당히 살아갈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다”고 고백했다. <br/> <br/> 그는 7개월여 만에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지원을 받아 인근 원룸으로 둥지를 옮겼다. 적지만 귀한 급여를 알뜰히 모은 덕분이었다. 센터에서 함께 일하는 5명의 노숙인들을 챙기며 팀장도 맡았다. 최근엔 총신대 평생교육원에서 사회복지학을 공부하며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을 향한 사역을 준비하고 있었다. <br/> <br/> “이제 막 꿈을 향해 도약하려던 참이었는데 꿈을 키워준 공간이 한 순간에 사라져버린 거죠. 불이 나던 날 밤 현장에 도착했는데 다리에 힘이 풀리더군요.” <br/> <br/> 엄씨를 토닥이던 센터장 김영민 목사는 “<span class='quot0'>재활용센터가 그저 물건을 저렴하게 판매하는 곳이 아니라 우리 사회로부터 소외된 이들이 자립하도록 돕는 젖줄 같은 곳이기에 더 마음이 아프다</span>”고 말했다. <br/> <br/> 센터는 화재보험에 가입돼 있지만 상황은 녹록치 않다. 추산 피해액은 5000여만원에 달하지만 얼마를 보상받을지는 손해사정결과에 달려 있어 미지수다. 당장 노숙인 등 8명 직원의 급여를 줄 수 없다는 게 안타깝다. 매달 350만원에 달하는 임대료도 걱정이다. <br/> <br/> 직원들과 매일 아침 예배로 하루를 시작한다는 이준모 목사는 이곳에 세워질 새로운 희망에 대한 기대를 놓지 않았다. <br/> <br/> “국민일보 인터넷뉴스를 통해 화재 소식을 들었다며 전기장판을 보내주겠다는 분도 계시고 작지만 귀한 후원의 손길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노숙인 자립터가 다시 세워지도록 힘을 모아 주세요.”(농협 301-0025-4562-91, 예금주: 내일을여는집·010-8325-7004). <br/> <br/>인천=최기영 기자 ky710@kmib.co.kr, 사진=김보연 인턴기자

언론사: 국민일보-4-668.txt

제목: “내 남편의 아내를 찾습니다” 뉴욕타임스에 남편 배우자 찾는 글 게재  
날짜: 20170308  
기자: 신훈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308210355001  
ID: 01100201.20170308210355001  
카테고리: 문화>출판  
본문: 말기 암으로 죽음의 문턱에 이른 여성 작가가 남편을 위해 남긴 공개 구혼이 애잔한 감동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미국 시카고 출신 동화 작가 에이미 크라우즈 로즌솔(51·사진)은 지난 3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내 남편과 결혼할래요(You May Want to Marry My Husband)’라는 제목의 칼럼을 올렸다. <br/> <br/> 난소암 말기 환자인 로즌솔은 “5주째 제대로 된 음식을 먹지 못했다. 진통제에 취해 의식이 불분명할 때도 있다”며 “내가 세상을 떠난 후 남편이 좋은 사람을 만나길 바라는 마음으로 글을 썼다”고 담담하게 글을 열었다. <br/> <br/> 그녀는 “멋지고 결단력 있는 여행 동반자를 찾고 있다면 내 남편이 바로 그런 사람”이라며 남편 제이슨 브라이언 로즌솔(51)을 소개했다. 로즌솔이 지난 28년간 바라본 제이슨은 두 아들이 종종 옷을 빌려 입을 정도로 세련된 멋쟁이다. 직접 장을 봐서 저녁을 준비하는 로맨티스트다. 음악 감상을 좋아하고 그림을 즐겨 그린다. 로즌솔은 “<span class='quot0'>제이슨은 두 아들과 딸에게 더 없이 완벽한 아빠이자,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기는 특별한 남자</span>”라고 강조했다. <br/> <br/> 로즌솔은 동화책 30여권과 회고록인 ‘일상생활 백과사전’ 등을 펴낸 작가다. 그는 2015년 9월 맹장염으로 응급실을 찾았다가 난소암 판정을 받았다. 막내딸을 대학에 보내고 남편과 제2의 인생을 꿈꾸던 차였다. <br/> <br/> 로즌솔은 “<span class='quot0'>잘 어울릴 만한 누군가가 이 글을 읽고, 남편을 알게 되고, 또 다른 러브스토리를 시작하길 바란다</span>”며 “<span class='quot0'>그 두 사람의 새로운 출발을 위해 칼럼의 마지막 부분을 여백으로 남긴다</span>”고 글을 맺었다. <br/> <br/>신훈 기자

언론사: 국민일보-4-669.txt

제목: 기장군, 수출용 신형 연구로 건설 중단 반발  
날짜: 20170308  
기자: 부산=윤봉학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308181855001  
ID: 01100201.20170308181855001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span class='quot0'>0.2g(지진규모 6.0)로 불안하게 내진설계된 원전은 버젓이 가동시키면서 0.3g(지진규모 7.0)으로 의료용 동위원소를 생산하는 안전한 시설인 수출용 신형 연구로 사업은 왜 중단시키고 있는가?</span>” <br/> <br/> 암 진단 등에 쓰이는 방사성동위원소를 안정적으로 생산하기 위해 미래창조과학부와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가 부산 기장군에 추진 중인 ‘수출용 신형 연구로 건설사업’이 무기한 중단되자 기장군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br/> <br/> 오규석 기장군수는 7일 서울 광화문 원자력안전위원회 건물 앞에서 ‘수출용 신형 연구로 건설허가’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벌였다(사진). 오 군수는 “<span class='quot1'>신형 연구로 건설이 중단될 경우 고리 원전의 가동중단과 신고리 5, 6호기 건설반대에 나서겠다</span>”고 밝혔다. <br/> <br/> 수출용 신형 연구로는 암의 조기 진단과 치료에 사용되는 의료용 방사성동위원소의 대량 생산과 중성자를 이용한 반도체 생산, 비파괴 검사 등 다양한 연구 및 생산을 할 수 있는 소형 연구로를 말한다. <br/> <br/> 정부는 2010년 7월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수출용 신형 연구로 사업’을 공모했고, 기장군이 선정됐다. 기장군은 이 사업과 연계해 동남권 방사선의·과학산단 내 13만㎡에 사업비 3500여억원으로 15㎿급 연구로 1기를 건립하는 사업을 진행 중이다. <br/> <br/> 이 사업은 지난해 9월 경주 지진(규모 5.8) 후 사실상 중단됐다. 원안위가 활성단층의 안전성이 확인되기 전까지 건설허가를 해줄 수 없다고 나온 것이다. <br/> <br/> 원안위 관계자는 “<span class='quot2'>경주 지진 이후 연구로 부지의 안전성을 다시 평가한 뒤 건설허가를 할 계획</span>”이라고 말했다. <br/> <br/>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

언론사: 국민일보-4-670.txt

제목: [로컬 브리핑] 울산대병원, 울산의대 부속병원 전환  
날짜: 20170308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308181455002  
ID: 01100201.20170308181455002  
카테고리: 지역>울산  
본문: 울산시는 교육부가 지난 1일 울산대병원의 울산의대 부속병원 전환을 인가했다고 7일 밝혔다. 울산대병원의 부속병원 전환은 전국에서 12번째다. 현재 울산대병원은 32개 진료과에 940병상을 구비하고 있다. 의료인력은 2192명으로 응급, 암, 외상, 소아 등 특화센터 4곳을 운영 중이며 병상 가동률은 92.4%다. 울산대병원의 울산의대 부속병원 전환에 따라 의대 정원을 현재의 40명에서 100명으로 증원한다.

언론사: 국민일보-4-671.txt

제목: [영화이야기] <112> 암살영화  
날짜: 20170308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308173255001  
ID: 01100201.20170308173255001  
카테고리: 문화>출판  
본문: 김정남 암살사건이 터지고 나서 즉각 떠오른 것은 ‘트로츠키의 암살(1972)’이라는 영화였다. 북한 김씨 3대의 롤 모델인 소련의 독재자 요셉 스탈린이 정적이었던 레온 트로츠키를 암살한 역사적 사건을 다룬 영화다. 스탈린은 혁명동지였으나 권력을 놓고 다퉜던 트로츠키가 해외로 망명했음에도 끝까지 추적해 1940년 멕시코에서 그를 암살했다. <br/> <br/> 그러나 조셉 로지가 만든 영화는 영 신통치 않았다. 캐스팅의 경우 트로츠키역의 리처드 버튼은 그런대로 봐줄 만하다 해도 암살자역의 알랭 들롱은 어울리지 않았다. 들롱은 스타일리시한 암흑가의 암살자로는 멋질지 몰라도 정치적 암살자로는 튄다는 느낌을 주었다. 알다시피 실제 암살자는 생김새건 풍기는 분위기건 아주 평범한 법이다. 그래야 눈에 띄지 않을 테니까. 실제로 본명이 라몬 메르카데르인 스페인 출신의 공산주의자로서 소련 내무인민위원회(NKVD) 요원이었던 트로츠키의 암살자 프랭크 잭슨의 사진을 보면 대단히 평범한 얼굴이었다. <br/> <br/> 그렇다보니 프랑스의 샤를 드골 대통령 암살 음모를 다룬 ‘자칼의 날(1973)’이 생각났다. 명장 프레드 진네만이 만든 이 영화는 클래식 반열에 올라선 프레데릭 포사이스의 원작소설 못지않게 걸작 대접을 받고 있다. 기자 출신답게 디테일 묘사가 일품인 포사이스의 소설을 잘 극화한 것도 그렇거니와 평범한 용모를 지닌 에드워드 폭스를 살인청부업자 자칼로 캐스팅한 것도 성공 이유였다. <br/> <br/>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이 김정남 암살을 두고 ‘권력의 속성’이라면서 김정은과 북한을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해서 구설에 올랐지만 사실 암살은 인간사의 일부다. 영화도 일찍부터 암살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다뤘다. 영화 초기의 기념비적인 작품으로 꼽히는 무성영화 ‘국가의 탄생(D W 그리피스, 1915)’만 해도 링컨 대통령 암살을 극화했다. 이후에도 암살 영화들은 끊이지 않고 나왔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민주화가 이뤄지기 전까지 그 어떤 암살 영화도 상영되지 못했다. <br/> <br/>김상온(프리랜서 영화라이터)

언론사: 국민일보-4-672.txt

제목: [청사초롱-곽금주] 독재자의 딜레마  
날짜: 20170308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308172855001  
ID: 01100201.20170308172855001  
카테고리: 미분류  
본문: 지난 2월, 말레이시아에서 김정남이 살해됐다. 김정은의 지시에 따른 북한의 테러 공작으로 추측되고 있다. 자신의 이복형까지 잔인하게 암살한 것은 아마도 자신의 위치에 대해 엄청난 위협을 느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다. 바로 폭군의 나약함과 불안의 발로라는 것이다. <br/> <br/> 권력을 휘두르며 탄압을 일삼는 독재자는 정상적인 심리상태가 아닌 경우가 많다. 이라크를 집권했던 사담 후세인은 지하 벙커에 머물면서 공포에 떨었다고 한다. 자신의 행방을 알지 못하게 하기 위해 한 장소에 하루 이상 머물지 않았고 식당도 여러 군데를 예약했으며 음식과 물건은 그에게 닿기 전 철저한 사전 검사를 거치게 했다. 덕분에 후세인은 세계에서 가장 비밀스럽고 지나친 보호 속에 있었던 통치자 중 한 명이었으며, 스탈린만큼이나 그에 대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어 왔지만 여전히 그의 삶은 수수께끼로 남아 있다고 한다. 물론 영화이기는 하지만 후세인의 이야기를 다룬 한 작품에서는 후세인이 200명의 이라크 정부 고위층들을 모아놓고 그들 중 반역자가 있다고 주장하며 총으로 쏴 죽이는 장면이 나온다. 고위층들이 뺨을 맞고 굴욕을 당하고 처형당하기 위해 끌려 나갈 때 후세인은 웃거나 미소를 짓는데 바로 편집증적 모습이다. 편집증의 두드러지는 특징은 다른 사람들을 잘 의심하고 믿지 않는 데에 있다. 정확한 근거나 증거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해치거나 이용하거나 속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br/> <br/> 이렇게 폭군들은 불안감과 편집증에 시달리곤 하는데, 심지어 병이 생겼을 때 자신을 반대하는 자들의 폭력과 암살 시도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다. 실제로 암을 진단받았던 베네수엘라 대통령 휴고 차베스는 자신의 암이 미국의 암살 시도 때문이며 어쩌면 미국이 남미에 암을 퍼뜨린 것인지도 모른다고 편집증적 의심을 보이기도 했다. <br/> <br/> 후세인, 히틀러, 김정일의 성격 특성을 연구한 미국의 한 연구에 의하면 독재자의 6가지 증상으로 새디스틱, 반사회성, 편집증, 나르시시즘, 조현증, 분열증을 제시했다. 이 셋은 이 특성을 모두 갖고 있는데 김정일은 히틀러보다는 후세인과 더 많은 성격 특성을 공유하고 있다고 한다. 김정일에게서 높게 나타난 특성은 새디스틱, 편집증, 나르시시즘, 그리고 조현증이었다. 그는 자신이 ‘경애하는 아버지’로 추앙되는 것으로부터 오는 망상과 환상을 가지고 있었다. <br/> <br/> 독재자들이 망상을 가질 때 자신이 신적 존재임을 더욱 부각시키고자 하면서 파국이 일어난다. 모두 나를 지지한다는 환상과 망상, 거기에 자기가 절대적으로 옳다는 나르시시즘에 빠진 그들은 전폭적인 지지와 존경을 요구한다. 자신의 파워에 집착하면서 더욱 더 강한 탄압과 강압적인 통치를 하게 된다. 그 과정에서 자신보다 힘이 약한 자들을 괴롭히는데 전혀 죄책감을 가지지 못하게 된다. 폭력을 가하는 것도 상대의 행동에 대한 너무나 당연한 처벌이라고 정당화하게 되고 심지어 그것을 즐기기까지 하는 새디스틱한 성향까지 보이게 된다. 그러다 보면 지배층과 일반 대중 모두가 그에게 불만을 가지게 되는 것은 불가피하다. 그런데 자신의 지지율이 떨어지는 것에는 민감해 심한 불안감을 느끼게 된다. 결국 악순환으로 독재자들은 주위 사람들이 자신을 해칠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의심을 지속적으로 하게 되고 심지어 자신이 먼저 공격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br/> <br/> 독재를 하면 할수록, 강압통치를 하면 할수록 강한 힘을 필요로 한다. 그런데 그 힘만큼이나 불안감 또한 커지게 된다. 바로 독재자의 딜레마다. 자신의 옳았다는 지지와 과시할 더 큰 힘이 필요한 김정은의 불안이 심각하게 우려되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br/> <br/>곽금주 서울대 심리학과 교수

언론사: 국민일보-4-673.txt

제목: 췌장암에 좋은 음식 ‘양파즙’, 부작용 없이 섭취하려면?  
날짜: 2017030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307141544001  
ID: 01100201.20170307141544001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의학기술의 발달로 암 생존율이 늘었다고 하지만 여전히 췌장암은 난공불락의 암으로 여겨진다. 대한췌담도학회와 한국췌장외과연구회 등의 조사에 따르면 매년 5000명 이상 발생하는 췌장암 환자의 5년 생존율은 겨우 7~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췌장암 환자 15명 중 14명은 사망하는 수준이라 할 수 있다. <br/> <br/>이러한 결과에 대해 전문가들은 “<span class='quot0'>췌장암은 특별한 증상이 없어 조기발견이 어렵다</span>”며 “<span class='quot0'>대부분의 환자들이 손을 쓸 수 없는 3, 4기에 병원을 찾고 있어 생존율이 낮다</span>”고 설명했다. <br/> <br/>흡연자의 경우 비흡연자보다 췌장암에 걸릴 확률이 2~5배가량 높다고 알려져 췌장암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금연해야 한다. 또 과일과 채소 등 식이섬유소의 섭취를 늘리고 췌장암에 좋은 음식 중 하나인 양파를 꾸준히 섭취해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br/> <br/>경남도농업기술원은 경북대, 경상대와의 협력 연구를 통해 양파의 항암 효과를 과학적으로 입증했다. 연구팀은 암을 유발시킨 실험쥐에게 양파 추출물을 투여했다. 그 결과, 양파 추출물 60㎍ 처리 때 39.3%의 암세포 효소 작용 저해 효과가 나타났으며, 복수암시험에서는 양파추출물 50㎍ 처리 때 17%의 수명연장 효과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br/> <br/>천연의 항암제라 할 수 있는 양파는 양파즙으로 섭취하면 쉽고 간단하게 효능을 누릴 수 있다. 단 제품을 구매하기 전, 양파 껍질의 효능까지 모두 담아낸 제품인지 확인하는 것이 좋다. 목포대학교에서 실시한 <양파의 겹별 퀘르세틴 함량> 조사에 따르면 양파는 겉껍질 쪽으로 갈수록 약리성분의 함유량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br/> <br/>시중에 판매되는 양파즙에는 흰 양파즙과 자색양파즙이 있다. 이러한 양파즙은 대부분 흰 양파나 적양파를 물에 달여 진액을 얻는 ‘물 추출 방식’으로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다. 물 추출 방식으로 진액을 추출하면 양파 껍질 등 물에 녹지 않는 영양분을 제대로 추출하기가 어려워진다. <br/> <br/>최근에는 양파 껍질의 효능까지 모두 담아내기 위해 양파를 껍질째 통으로 갈아 사용하는 ‘전체식 양파즙’이 고안되기도 했다. 전체식 양파즙은 양파 껍질이 물에 남지 않도록 양파를 아주 미세한 입자로 통째 갈아내기 때문에 양파가 가지고 있는 모든 약리성분을 가능한 손실 없이 추출해낼 수 있다. <br/> <br/>천연의 항암제인 양파는 부작용 없이 췌장암을 예방할 수 있는 고마운 음식이지만 위장이 약한 사람이라면 주의하는 것이 좋다. 위장이 약한 경우 빈속에 양파즙을 섭취하면 속이 쓰리고 아픈 양파즙 부작용을 겪을 수 있으므로 가능한 식후에 섭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br/> <br/>콘텐츠팀 이세연 lovok@kmib.co.kr

언론사: 국민일보-4-674.txt

제목: [김상온의 영화이야기]<112>암살영화  
날짜: 20170307  
기자: 최희재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307100155001  
ID: 01100201.20170307100155001  
카테고리: 문화>영화  
본문: 김정남 암살사건이 터지고 나서 즉각 떠오른 것은 ‘트로츠키의 암살(The Assassination of Trotsky, 1972)’이라는 영화였다. 북한 김씨 3대의 롤 모델인 소련의 독재자 요셉 스탈린이 최대 정적이었던 레온 트로츠키를 암살한 역사적 사건을 다룬 영화다. 트로츠키는 ‘붉은 군대(Red Army)’를 창설하는 등 러시아혁명에 큰 공을 세웠으나 스탈린 집권 후 권력투쟁에 밀린 끝에 해외로 망명해 이곳저곳을 전전하다 멕시코에 정착한 뒤 1940년 그곳에서 스탈린이 파견한 암살자에 의해 등산용 피켈로 살해당했다. <br/> <br/> 그러나 김정남 살해를 극구 부인하고 있는 김정은, 북한과 달리 스탈린과 소련은 트로츠키 암살이 자신들 짓임을 굳이 숨기려하지 않았다. 스탈린은 1940년 멕시코 경찰에 체포된 암살자에게 레닌훈장을 수여했다. 암살자는 또 1961년 수감생활을 마치고 소련으로 귀환했을 때 소련 영웅 칭호를 받았다. <br/> <br/> 할리우드에서 공산주의 활동과 관련해 블랙리스트에 오른 뒤 유럽으로 피신해 주로 영국에서 활동했던 조셉 로지가 만든 영화는 그러나 영 신통치 않았다. 우선 각본부터가 그랬다. 버나드 울프가 쓴 소설(The Great Prince Died)을 니콜라스 모슬리가 각색한 각본은 얼마나 형편없었던지 당초 로지가 트로츠키역을 제의했던 영국 배우 더크 보가드는 각본을 본 뒤 즉각 배역 제의를 거절했을 정도였다. 결국 로지는 각본을 수정하겠다는 약속을 하고나서 리처드 버튼의 출연 승낙을 받아냈으나 촬영은 각본 수정 없이 진행됐고 그 결과 이 영화는 일부 평론가들에 따르면 ‘사상 최악의 영화’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br/> <br/> 다음은 캐스팅이다. 트로츠키역의 버튼은 그런대로 봐줄만 하다 해도 암살자역의 알랭 들롱은 너무 어울리지 않았다. 들롱은 스타일리시한 암흑가의 암살자로는 멋질지 몰라도 정치적 암살자로는 너무 튄다는 느낌을 주었다. 다 알다시피 실제의 암살자는 생김새건 풍기는 분위기건 아주 평범한 법이다. 그래야 눈에 띄지 않을 테니까. 실제로 본명이 라몬 메르카데르인 스페인 출신의 공산주의자로서 소련 내무인민위원회(NKVD) 요원이었던 트로츠키의 암살자 프랭크 잭슨의 사진을 보면 대단히 평범한 얼굴이었다. 그러나 영화에 나온 들롱은 어디서든 금방 눈에 띄는 미남인데다 시대배경인 1940년대 복장을 했을망정 스타일 역시 패션모델 같았다. <br/> <br/> 그렇다보니 잘 된 암살영화로 비록 결과적으로 미수에 그친 사건을 묘사하기는 했지만 프랑스의 샤를 드골 대통령 암살음모를 다룬 ‘자칼의 날(The Day of the Jackal, 1973)’이 생각났다. 명장 프레드 진네만이 만든 이 영화는 알제리 독립에 반대하는 극렬주의자들에 의한 드골 살해음모를 다루고 있는데 클래식의 반열에 올라선 프레데릭 포사이스의 원작소설 못지않게 걸작 대접을 받는다. 실제로 영화는 비평과 흥행 모두에서 큰 성공을 거뒀다. 기자 출신답게 디테일 묘사가 일품인 포사이스의 소설을 잘 극화한 것도 그렇거니와 평범한 용모를 지닌, 그때까지 무명이었던 에드워드 폭스를 살인청부업자 자칼로 캐스팅한 것도 성공 이유였다. 진네만 감독은 당초 자칼 역으로 로버트 레드포드, 마이클 케인, 잭 니콜슨, 로저 무어 등 쟁쟁한 배우들이 물망에 올랐으나 모두 거부하고 직업적 살인자로 눈에 잘 안 띄는 아주 평범한 장삼이사(張三李四) 같은 인물을 원한 끝에 잘 알려지지 않은 폭스를 캐스팅했다고 한다. 말하자면 들롱과는 대척점에 서있는 배우라고나 할까. <br/> <br/> 정세현 전 통일부장관이 김정남 암살을 두고 ‘권력의 속성’이라고 말해 마치 북한과 김정은을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해서 구설에 올랐지만 사실 암살은 인간사의 일부다. 오죽하면 SF의 대가 필립 K 딕은 ‘태양의 복권(Solar Lottery, 1955)'이라는 소설에서 암살이 하나의 제도로 정착된 사회를 그려냈을까. 딕의 첫 출간작인 이 소설은 세계지도자도, 그를 암살해 제거하는 암살자도 추첨으로 뽑는 사회를 묘사한다. 뽑힌 암살자는 어떻게 해서든 지도자를 암살해야 하고 그럼으로써 누구든 추첨을 통해 다시 새 지도자가 되고 또 암살자가 되는 시스템이다. <br/> <br/> 영화도 일찍부터 암살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다뤘다. 영화 초기의 기념비적인 작품으로 꼽히는 무성영화 ‘국가의 탄생(The Birth of a Nation, D W 그리피스, 1915)’만 해도 링컨 대통령의 암살을 극화해 남북전쟁을 전후한 미국의 사회상을 서사시적으로 묘사했다. 이후에도 암살을 다룬 영화들은 부지기수로 나왔지만 그중 중요한 것들만 추려도 이렇다. <br/> <br/> △라스푸틴과 황후(Rasputin and the Empress, 리처드 볼레슬라프스키, 1932)=제정 러시아 의 최후를 그린 영화. 요승 라스푸틴의 발호와 암살이 주요 요소다. 당시 미국을 주름잡던 배리모어 일가가 캐스트로 총출동해 화제가 됐다. 이 영화의 제작사인 MGM은 라스푸틴 암살을 주도한 펠릭스 유수포프 대공 내외를 잘못 묘사했다고 해서 송사에 휩싸였는데 이로 인해 ‘등장인물들은 모두 가공의 인물임(all persons fictitious disclaimer)’이라는 문구가 할리우드 영화에 정착되는 계기를 만들었다. <br/> <br/> △사형집행인도 죽는다(Hangmen Also Die, 프리츠 랭, 1943)=2차대전 당시 나치독일이 점령한 체코의 총독으로서 ‘프라하의 도살자’라는 별명이 붙여졌던 라인하르트 하이드리히의 암살사건을 느슨하게 극화한 것. 독일의 유명 극작가 브레톨트 브레히트가 할리우드 영화로는 유일하게 각본가로 참여했다. 하이드리히는 하인리히 히믈러에 이어 SS의 2인자이자 홀로코스트의 기획자이기도 했는데 영국에서 공수된 체코 출신 특공대에 의해 암살됐다. 원작전명이 ‘유인원 작전(Operation Anthropoid)’이었던 이 사건은 이외에도 ‘히틀러의 광인(Hitler's Madman, 더글러스 서크, 1943) ‘새벽의 7인(Operation Daybreak, 루이스 길버트, 1975), 안트로포이드(Anthropoid, 션 엘리스, 2016) 등으로 수차례 영화화됐다. <br/> <br/> △줄리어스 시저(Julius Caesar, 1953)=셰익스피어 원작을 조셉 L 맨키위츠가 영화로 만들었다. 말론 브랜도(마크 안토니), 제임스 메이슨(브루투스), 존 길거드(카시우스), 루이스 캘헌(시저) 등 올스타캐스트가 동원됐다. 저 유명한 줄리어스 시저의 암살을 다룬 이 작품은 이외에도 1970년에 찰턴 헤스턴이 마크 안토니로 나온 스튜어트 버지 감독판이 있고(헤스턴은 1950년에 나온 데이빗 브래들리 감독판에서도 마크 안토니역을 맡았었고 존 길거드는 70년판에서는 시저역을 맡았다), 무수히 많은 TV극이 있다. <br/> <br/> △만추리언 캔디데이트(Manchurian Candidate, 존 프랑켄하이머, 1962)=6.25전쟁 때 포로로 잡힌 미군 하사관이 중국 공산당에 의해 세뇌돼 미국으로 귀환한 뒤 최면에 걸린 상태로 대통령 암살을 시도한다는 이야기. 이 영화로 인해 ‘세뇌(brainwashing)’라는 말이 널리 알려졌다. 다소 동양적으로 생긴 할리우드의 대표적 악역배우 헨리 실바가 미국에 침투한 북한요원으로 나와 눈길을 끌었다. <br/> <br/> △베케트(Becket, 피터 글렌빌, 1964)=12세기 말 영국 왕 헨리2세와 그의 절친한 친우였으나 적으로 돌아선 캔터베리 대주교 토머스 베케트 간의 갈등을 그린 중세사극. 교회와 사이가 나빴던 헨리 2세는 캔터베리 대주교 자리에 자신의 절친한 술친구였던 베케트를 앉힌다. 그러나 대주교가 된 베케트는 헨리2세의 기대를 저버리고 교회편으로 돌아선다. 결국 헨리2세는 부하들을 시켜 베케트를 암살한다. 그리고는 그를 성인으로 선포한다. 프랑스 극작가 장 아누이의 희곡을 에드워드 안홀트가 각색해 아카데미 각색상을 받았다. 피터 오툴(헨리2세)과 리처드 버튼(베케트) 두 명우의 치열한 연기대결이 볼만했다. <br/> <br/> 이밖에도 ‘행정명령(Exwcutive Action, 데이빗 밀러, 1963)’ ‘JFK(올리버 스톤, 1991)’ 등 케네디 대통령 암살을 둘러싼 수많은 영화들이 있고, 알도 모로 이탈리아 총리, 올로프 팔메 스웨덴 총리 등 암살당한 현실 정치인들과 관련된 영화들도 나왔다. 물론 가상의 암살영화들도 많이 만들어졌다. ‘패럴렉스 뷰(Parallax View, 앨런 J 파큘라, 1974)’ ‘패트리어트 게임(Patriot Games, 필립 노이스, 1992)’ ‘닉 오브 타임(Nick of Time, 존 배덤, 1995)’ ‘복서(The Boxer, 짐 셰리던, 1997)’ ‘더블 타겟(안트완 푸쿠아, 2007)’ ‘고스트 라이터(The Ghost Writer, 로만 폴란스키, 2010)’ ‘에스코바르: 실낙원(Escovar:Paradise Lost, 안드레아 디 스테파노, 2014)’ 등이다. <br/> <br/>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민주화가 이뤄지기 전까지 그 어떤 암살영화도 상영되지 못했다. 이유야 두 말할 것도 없다. <br/> <br/> ◇사족=‘트로츠키의 살인’에서 알랭 들롱은 대단한 미스캐스트로 이 영화는 들롱의 경력에서 하나의 ‘흑역사’로 기록되지만 조셉 로지 감독은 몇 년후(1976) ‘무슈 클라인(M. Klein)’이라는 영화로 들롱에게 진 빚을 갚았다. 2차대전 중 독일 점령 당시 박해받은 프랑스 유대인들의 이야기인 이 영화에서 들롱은 클라인이라는 같은 이름을 가진 유대인으로 오인당해 수난을 겪는 부유한 미술상으로 출연해 세계적 스타로 명성을 높였다. 이 영화는 프랑스의 아카데미상격인 세자르상 작품상, 감독상을 받았다. <br/> <br/>김상온(프리랜서 영화라이터)

언론사: 국민일보-4-675.txt

제목: [& And 건강] 오늘밤엔 제발 자고 싶은 사람들… 한국인 수면건강 ‘빨간불’  
날짜: 20170307  
기자: 민태원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307050059002  
ID: 01100201.20170307050059002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사람은 인생의 3분의 1을 잠으로 보낸다. 그만큼 일생에 있어 수면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br/> <br/> 잠을 제대로 못 자는 이들이 늘고 있다. 각종 수면장애로 고통받는 환자가 이미 72만명을 넘어섰다. 한국인의 수면 건강에 빨간불이 켜졌다. <br/> <br/> 6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수면장애 진료 환자는 72만1045명으로 집계됐다. 2011년 52만5659명에서 5년 사이 37.2%(19만5386명) 증가했다. <br/> <br/> 수면장애는 단순히 잠을 이루지 못하는 불면증뿐 아니라 충분히 잤는데도 낮에 심하게 졸리는 ‘과다수면증’(기면증 포함), 코골이와 동반돼 잠자는 중 숨이 멈춰 숙면을 취하지 못하는 ‘무호흡증’, 잠들 무렵이면 다리가 쑤시거나 저리는 ‘하지불안증후군’ 등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다양한 질환을 포괄한다. <br/> <br/> 대한수면학회 김성완(경희의료원 이비인후과 교수) 회장은 “<span class='quot0'>이전에는 수면장애를 잘 모르거나 또 심각한 병이라고 생각지 않았지만 인식이 조금씩 높아지면서 환자가 증가하고 있다</span>”고 말했다. <br/> <br/> 수면건강을 해치는 사회적 환경이 늘어난 것도 한몫한다. 직장·가정에서의 스트레스, TV 컴퓨터 스마트폰 등 이른바 ‘빛 공해’, 커피 등 카페인 음료·알코올 섭취, 비만의 증가 - 모두 현대인의 잠을 방해하는 적이다. 삼성서울병원 신경과 홍승봉 교수는 “<span class='quot1'>수면장애는 전 국민의 10∼20%가 앓는 매우 흔한 질환인데도 관련 지식과 정보가 부족해 제대로 된 진단·치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span>”면서 “<span class='quot1'>숨어 있는 환자까지 감안하면 국내 잠재적 수면장애 환자는 공식 집계치의 10배쯤인 700만명에 달할 것</span>”이라고 설명했다. <br/> <br/> 당신에게 밤새 무슨 일이? <br/> <br/> 수면장애는 연령별로 특징적인 면을 보인다. 서울스페셜수면의원이 지난해 내원한 1631명을 분석한 결과 0∼19세 환자(129명)의 48%는 기면증 등 과다수면증으로 진단됐다. 또 20, 30대(609명)의 37%는 수면무호흡증과 하지불안증후군을 앓고 있었다. 40, 50대 남성(323명)의 80%는 수면무호흡증, 여성(236명)의 78%는 불면증을 호소했다. 60대 이상(334명)의 63%는 잠꼬대와 렘수면행동장애로 병원을 찾았다. <br/> <br/> 기면증은 낮에 참을 수 없는 졸음이 쏟아지는 병이다. 수면과 각성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히포크레틴이 뇌에서 제대로 나오지 않아 생긴다. 홍 교수는 “<span class='quot1'>운전이나 대화 중, 또는 길을 걷거나 영화를 보다가 갑자기 잠에 빠져드는 슬립어택(Sleep attack) 증상이 짧으면 수분, 길게는 20∼30분 지속되는 게 특징</span>”이라며 “<span class='quot1'>길을 걷다 전봇대나 차량에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한다</span>”고 말했다. 낮에 심하게 졸린 증상을 병으로 생각지 않고 의사도 주간 졸음증에 대해 잘 물어보지 않기 때문에 진단율이 낮다. <br/> <br/> 하지불안증후군은 양쪽 다리, 특히 종아리 부위에 불편한 느낌(벌레가 기어가는 듯한 스물거림, 옥죄는 느낌, 저릿저릿함 등)으로 가만히 누워 잠자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잠자는 도중 자주 깨게 되고 결국 수면 부족으로 하루 종일 피곤함을 느낄 수밖에 없다. 여성이 남성보다 1.5배 많다. 홍 교수는 “<span class='quot1'>기차나 비행기를 탈 때 발이나 다리를 만지작거리는 사람은 하지불안증후군일 가능성이 크다</span>”고 했다. 하지불안증후군 환자의 80% 이상이 잠자면서 다리를 떨거나 갑작스레 움찔거리는 주기성 사지운동증 증상을 보인다. <br/> <br/> 서울스페셜수면의원 한진규 원장은 “<span class='quot2'>20, 30대 젊은 여성들의 경우 지나친 다이어트와 생리, 임신 등으로 호르몬 변화가 있을 때 하지불안증후군이 나타나며 보통 임신 후반기에 자주 발생한다</span>”고 설명했다. 대다수 환자들은 다리의 불편한 증상으로 괴로워하지만 수십년간 참고 지내기 십상이다. 또 허리 디스크나 혈액순환장애, 근육통 등으로 오진되는 경우도 종종 있다. <br/> <br/> 수면중 주기성 사지운동증은 65세 이상 노인의 30∼40%가 갖고 있다. 잠자면서 자꾸 깬다면 의심해봐야 한다. 1시간에 다섯 번 이상 다리 떨림증이 있을 경우 치료받아야 한다. <br/> <br/> 수면무호흡증은 잠자는 동안 숨이 10초 이상 멈추거나 50% 이상 감소할 때 나타난다. 대개 코골이를 동반한다. 호흡이 조용히 멈추기도 하지만 ‘컥컥’ 소리를 내면서 힘들게 숨쉬거나 ‘푸푸’ 내쉬기도 한다. 본인은 잘 모르는 만큼 배우자 등 가족의 역할이 진단에 매우 중요하다. 환자 자신은 잠에서 깨는 것을 느끼지 못하지만 실제로는 반쯤 깬 상태로 밤을 보내는 것과 마찬가지여서 심한 졸음이나 피로감, 기억력 및 인지 능력 저하를 초래한다. <br/> <br/> 고려대 안산병원 수면장애센터 신철 교수는 “<span class='quot3'>수면무호흡증은 삶의 질을 떨어뜨릴 뿐 아니라 안전사고 위험은 물론 장기적으론 고혈압 심근경색(급사) 뇌졸중 우울증 비만 치매 위험을 높이는 만큼 제때 치료해야 한다</span>”고 설명했다. 50대의 경우 치료받지 않으면 치매 위험이 6배 높아진다는 연구 보고가 있다. 홍승봉 교수는 “<span class='quot1'>수면무호흡증을 방치하면 10년 뒤 사망률에서 30% 차이가 난다</span>”고 설명했다. <br/> <br/> 무조건적 수면제 복용 금물 <br/> <br/> 가장 흔한 수면장애인 불면증은 잠에 들기 어렵거나 중간에 자꾸 깨거나 아침에 너무 일찍 일어나서 생활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다. 이런 상태가 1주일에 세 번 이상 1개월 넘게 지속되면 단기 불면증, 3개월을 넘으면 만성 불면증에 해당된다. 홍 교수는 “<span class='quot1'>수면무호흡증 등 다른 수면장애나 우울증 불안증 집착증 같은 정신질환, 위식도역류 천식 심부전 폐질환 암 등 내과·신경과적 질환, 약물 및 알코올 등에 의해 2차적으로 발생하는 불면증은 원인 질환을 먼저 정확히 진단해 치료해야 한다</span>”고 지적했다. <br/> <br/> 졸피뎀 등 수면제 사용과 관련해 이화여대 목동병원 이향운 수면센터장은 “<span class='quot4'>수면제는 일시적으로 잠을 자게 할 수는 있지만 불면증의 원인이 되는 수면무호흡증을 오히려 크게 악화시킬 수 있고 약물 의존성에 빠져 불면증을 만성화시킬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span>”고 조언했다. 수면제는 간헐적으로 불면증이 매우 심할 때 소량만 복용해야 하며 4주 이상 먹지 않는 것이 좋다. <br/> <br/> 이밖에 꿈속의 내용이 실제 행동으로 나타나는 렘수면행동장애(자다가 갑자기 주먹질이나 발길질 등), 자다가 일어나 걸어다니거나 집밖으로 나가는 등의 행동을 하는 몽유병, 비명과 함께 거친 호흡을 하며 과도한 흥분 상태를 보이는 야경증 등도 수면장애에 해당된다. 가족이나 주변사람이 이 같은 증상을 보인다면 전문가 진단을 통해 정확한 원인을 찾고 치료받는 것이 좋다. <br/> <br/>글=민태원 기자 twmin@kmib.co.kr, 그래픽=안지나 박동민 기자

언론사: 국민일보-4-676.txt

제목: [헬스 파일] 골종양의 진단과 치료  
날짜: 2017030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307050056001  
ID: 01100201.20170307050056001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골종양은 뼈에 생기는 혹이다. 대부분 소아청소년기에 발생한다. 양성 골종양은 골연골증, 섬유성 이형성증, 골 낭종, 동맥류성 골 낭종, 내연골증 등이 있다. <br/> <br/> 반면 악성은 폐암 전립선암 간암 등이 뼈로 옮겨 붙은 골 전이 암이 많고 뼈 자체에서 발생하는 원발 암은 드물다. 골육종과 연골육종이 이에 해당된다. 전체 골종양의 약 20%를 차지한다. 원발성 악성 골종양 환자는 국내에서 연간 400여명 정도 발견된다. 보통 40대 이상 연령층에서 많이 생기는 것이 특징이다. <br/> <br/> 양성 골종양은 재발 위험이 있긴 하지만 다른 부위로 전이를 하지 않고 생명에 영향을 주는 경우도 거의 없다. 대부분 다른 부위의 암이 옮겨 붙은 악성 골종양과 다른 점이다. <br/> <br/> 그래도 골종양이 무서운 이유는 초기 증상이 뚜렷하지 않기 때문이다. 골절을 당했거나 방사선 검사 중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가 많다. 통증이 심한 것도 아니지만 혹이 커져서 빠르게 덩어리를 형성하는 경우가 많다. <br/> <br/> 골종양은 X선 검사로 진단한다. 여기서 이상이 있으면 확진을 위해 자기공명영상진단(MRI)검사가 필요하다. 악성이 의심될 때는 종양의 범위와 전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전신 뼈 주사 검사나 전신PET 검사, 조직검사 등도 받아야 한다. <br/> <br/> 대표적인 양성 골종양인 골연골증은 대부분 10∼25세 성장기에 발견되고, 골 성장이 끝나면 혹도 더 이상 자라지 않게 된다. 운동을 하다 종양 부위를 건드리지 않는 한 평소 자각증상도 없는 편이다. 그러나 종양이 커져 신경을 누르게 되면 저리거나 감각이 마비될 수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종양절제수술 후 재발률은 약 2%로 알려져 있다. 골종양이 잘 생기는 부위는 대퇴골과 같은 장골이나 손가락뼈 같은 곳이다. <br/> <br/> 악성 골종양의 하나인 골육종은 10대 청소년기에 많이 발견된다. 50% 이상이 여자보다는 남자의 무릎관절 주위에서 나타난다. 광범위한 종양절제수술 후 인공관절 동종골이식 자가골이식 등 관절 재건술을 통해 치료한다. 수술 전·후 항암제를 투약하는 화학요법도 필요하다. <br/> <br/> 골종양이 왜 생기는지는 아직까지 정확하게 모른다. 따라서 예방법도 뚜렷하지 않다. 현재로선 종괴(혹 덩어리)가 커지는 등 의심 증상이 있을 때 최대한 빨리 정형외과 전문의를 찾아 악성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br/> <br/>한정수 경희대병원 정형외과 교수, 그래픽=이은지 기자

언론사: 국민일보-4-677.txt

제목: ‘현대무용의 전설’ 다시 만나는 피나 바우쉬  
날짜: 20170306  
기자: 장지영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306000255002  
ID: 01100201.20170306000255002  
카테고리: 문화>전시\_공연  
본문: 피나 바우쉬(1940∼2009). 독일 안무가인 그는 20세기 후반 무용과 연극의 경계를 허문 ‘탄츠테아터’로 현대무용의 문법을 바꿔놓았다. 무용이라는 마이너 장르에도 불구하고 그는 전 세계에 수많은 팬을 거느렸다. 우리나라에도 그동안 여러 차례 내한해 ‘카네이션’ ‘마주르카 포고’ ‘러프 컷’ ‘네페스’ ‘카페 뮐러’ ‘봄의 제전’ ‘풀 문’ 등을 선보였다. <br/> <br/> 그가 지난 2009년 6월 암 진단을 받고 불과 5일 만에 타계하자 전 세계 예술계는 충격에 빠졌다. 그가 이끌던 부퍼탈 무용단은 그의 타계 이후 전세계 공연장들의 초청이 쇄도하고 있다. 그의 작품들이 무용수들에게 질문과 아이디어를 던지고 그들의 생각과 동작을 끌어내는 안무 방식으로 만들어진 만큼 아직은 오리지널 단원들 덕분에 원작이 손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br/> <br/> 24∼27일 LG아트센터에서 선보이는 ‘스위트 맘보’는 그가 사망하기 불과 1년 전인 2008년 초연된 작품이다. 그가 본거지였던 부퍼탈에서 발표한 44편의 공연 중 마지막에서 두 번째 작품이다. <br/> <br/> ‘스위트 맘보’는 10명의 베테랑 무용수들이 출연해 인간과 인간, 남성과 여성간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감정을 그리고 있다. 무용수들은 때로는 무대 위를 달리고, 스스로 물을 끼얹거나 서로 싸우고, 관객에게 말을 거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남녀간의 심리를 묘사한다. <br/> <br/> 이 작품은 ‘도시/국가 시리즈’라 불리는 일련의 작품들 중 인도를 테마로 한 ‘뱀부 블루스’(2007)와 깊은 인연이 있다. 그가 주로 어린 단원들을 이끌고 인도에 가 있는 동안 부퍼탈에 남아있던 베테랑 단원들이 아이디어를 내면서 시작됐기 때문이다. 인도에서 돌아온 그는 크게 기뻐하며 작품을 완성시켰다. 그의 오랜 파트너였던 디자이너 피터 팝스트가 만든 무대 역시 ‘뱀부 블루스’의 세트를 변형한 것이다. <br/> <br/> 무대 위를 채운 하얀 커튼은 물결처럼 흩날리고, 그 위로 독일의 흑백 영화 ‘파란 여우’(1938)가 투사된다. 이를 배경으로 펼쳐지는 솔로와 앙상블의 다양한 움직임은 관객들에게 사랑 절망 열정 외로움 등 다양한 감정을 이끌어낸다. <br/> <br/>장지영 기자

언론사: 국민일보-4-678.txt

제목: 국민일보 이광형 문화전문기자 별세  
날짜: 20170306  
기자: 박지훈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306202555001  
ID: 01100201.20170306202555001  
카테고리: 문화>전시\_공연  
본문: 이광형(사진) 국민일보 부국장 겸 문화전문기자가 4일 오후 암으로 별세했다. 향년 54세. <br/> <br/> 고인은 경남 통영고와 부산대를 나와 1991년 7월 국민일보에 입사했다. 사회부를 거쳐 문화부에서 차장 부장 선임기자를 차례로 역임했다. 2015년부터는 문화 분야의 해박한 지식과 경륜을 인정받아 문화전문기자를 맡았다. 평소 온화한 인품으로 선후배들의 신망이 두터웠다. 유족으로는 부인 조옥란씨와 아들 재석, 딸 재희씨가 있다. 빈소는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으며, 발인은 7일 오전(02-2258-5940). <br/> <br/>박지훈 기자 lucidfall@kmib.co.kr

언론사: 국민일보-4-679.txt

제목: [조민규 기자의 ‘건강백과’] 중증질환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저소득자 위한 한시 조치… 내년 제도화 모색  
날짜: 2017030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306191755002  
ID: 01100201.20170306191755002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최근 ‘중증질환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제도화 방안이 모색되고 있다. 한국은 국민의료비 중 가계지출 비율이 OECD 34개 국가 중 2번째로 높다. 정부는 의료이용의 도덕적 해이를 막고, 보험재정 안정을 위해 본인부담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문제는 같은 금액이어도 소득에 따라 재정 부담은 다르다는 점이다. 진료비 본인부담에 대한 적정보장이 부재한 상태에서 총 진료비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면 소득대비 고액 진료비 부담으로 인해 저소득층일수록 경제적 파탄을 야기할 수 있다. <br/> <br/> 이에 정부는 지난 2013년 8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중증질환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을 진행, 국고(복권기금) 300억원에 민간기금 300억원을 더한 600억원의 재원을 마련했다. 2017년까지 사업이 연장됐으나 2018년에는 제도화를 모색하고 있다. 의료 보장성이 높은 국가에서도 의료보장유형에 관계없이 고가 의료비에 대한 환자의 본인부담경감을 위해 의료보장체계 관리의 주체가 특별기금 및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일부 국가의 경우 제약사로부터 재원을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br/> <br/> 사업의 효과는 어떨까? ‘중증질환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효과평가 및 제도화 방안’(임승지 건강보험정책연구원) 연구에 따르면 2014년 사업대상자 중 본인부담금이 연소득의 40%를 초과하는 가구를 분석한 결과, 사업 전·후 대상 1만6231가구의 68.9%에서 38.3%로 감소했다. 임승지 연구원은 중증질환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의 제도화에 대해 비급여 필수의료서비스에 대한 가이드라인과 관리가 선행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임 연구원은 “<span class='quot0'>그럼에도 정부는 장기간 정밀작업을 요하는 비급여 관리체계가 완성될 때까지 논란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재난적의료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재난적 의료비지원제도(가칭)’를 모색하고 있다</span>”고 설명했다. 향후 제도화를 위해 사회적 논의를 기반으로 지속 가능한 재원조달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건강보험재정 투입+제약회사의 기부 혹은 세금+복권기금 등의 국세+민간기부금 등 매칭 펀드의 다양한 재원조달 방식과 이에 대한 법적 근거의 마련이 필요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br/> <br/> 또 의료안전망의 최후 지원단계로 작동될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암환자 의료비지원사업, 희귀난치성 의료비지원사업, 긴급지원 등과 중복되지 않도록 통합관리시스템 구축과 법적근거가 필요하고, 민간보험인 의료비 보장보험이나 실손보험 중복지원에 대한 검토 및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올해로 마무리되는 사업의 제도화를 담은 정부입법안를 상반기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예고안에는 암이나 희귀질환자 등 고가약제로 어려움을 겪는 환자를 고려해 외래부문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br/> <br/>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

언론사: 국민일보-4-680.txt

제목: [병실에서 온 편지] 투병중인 암환자들에게 희망을 주세요  
날짜: 2017030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306185755001  
ID: 01100201.20170306185755001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최근 출시된 신약인 면역항암제는 건강보험 급여화가 이뤄지지 않아 약을 필요로 하는 환자들의 치료비 부담이 매우 크다. 의료현장에서는 치료비 부담에 메디컬푸어로 전락하는 암환자와 가족들을 위한 국가 차원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방안, 즉 신약의 건강보험급여화가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정부도 최근 일부 면역항암제와 표적항암제의 급여 적정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최대 3000억원 정도의 건강보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쿠키뉴스 전자우편 제보로 온 암환자들의 소망을 '환자에게서 온 편지'를 통해 독자들에게 전한다. 편집자 주 <br/> <br/>살면서 크게 아프지 않고 살 수 있다면 얼마나 큰 복일까요? 저는 열심히 살려고 노력한 것뿐인데 한창 일할 나이에 덜컥 암에 걸렸습니다. 일단 걸린 암을 어찌 하겠습니까? 상황을 받아들이고 수술하고 열심히 관리했습니다. 그런데 1년이 넘어가면서 다시 전이가 됐습니다. 1년 동안 암으로 수차례 개복수술을 해야만 했기에 전이가 됐을을 땐 정말 끔찍하기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또 받아들이고 열심히 항암치료를 받았습니다. 그게 벌써 2년이 넘어가니 이번엔 슬슬 내성이 오나 봅니다. 암 사이즈가 커지고 더 번졌습니다. 다행히 당장은 내성으로 인한 1차 급여약이 중지된 상태는 아니라 감사하지만, 장기간 1차약을 투여 중이라 조만간 내성은 올 거라고 담당교수님은 말씀합니다. <br/> <br/> 그런데 제가 보통의 세포타입이 아닌지라 2차약 중에 임상약이 없어 이제 비급여로 몇 백만원씩 하는 약을 복용해야 한다고 합니다. (건강보험)급여약으로 치료를 할 땐 그래도 보험이 되니 나름 경제활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치료를 지속할 수 있었지만, 비급여 약은 도저히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한두 번으로 마칠 치료가 아닌 4기 전이암 환자에겐 기약 없는 치료이기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이로 인해 대부분의 암환자들이 힘들어 하고 임상약을 찾게 됩니다. 그게 ‘1상 임상약’이라 해도 방법이 없으니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매달립니다. 암환자가 아니고 또 보호자가 아니라면 이런 참담한 심정은 이해하기가 힘들 겁니다. <br/> <br/> 그래서 최근 ‘면역항암제’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또한 저처럼 이미 1차항암을 한 환자는 임상시험 대상에도 해당되지 않고, 2차로라도 맞게 된다면 비급여이기 때문에 비용이 몇 백에서 거의 천만원에 이르는 금액이라 결국 포기해야 하는 거구나 싶어 가슴이 아팠습니다. 면역항암제로 키트루다, 옵디보, 여보이 외에도 최근 비슷한 종류들의 약들이 많이 개발 되고 임상 또한 진행이 되고 있지만, 예후가 좋다 해도 임상결과가 나오기까지는 하루하루가 마지막 날 일수도 있는 암환자들에게는 너무나 긴 시간입니다. 또 면역항암제가 급여화가 되기까진 또 얼마나 숱한 시간이 지나야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다행히 폐암이나 흑색종 환자들은 급여화가 진행되는 듯해서 마음을 다스리고 있지만 그 외 승인된 암종이 아닌 암환자들에겐 더더욱 힘에 겨운 시간들입니다. <br/> <br/> 면역항암제의 급여화가 빠르게 진행됨이 최우선이고 급여화가 되면서 암환자들이 지금보다 더 많은 치료효과를 보고, 다양한 또 다른 암종에도 승인이 순차적으로 이뤄져 암으로 육체적 고통을 받는 것도 힘겨운 환자와 보호자들이 경제적인 이유로 정신적인 고통까지 받는 힘든 상황이 줄어야 합니다. 지금 당장 희망이 없을 것 같아 무관심하고 싶지 않습니다. 투병을 오래 하다 보니 암환자들을 보면 모두가 가족 같습니다. 우리 가족에게 희망을 주고 싶습니다. 면역항암제의 급여화를 촉구합니다. 우리 암환우들에게 희망을 보태주세요.

언론사: 국민일보-4-681.txt

제목: 아파 서럽고 돈 못버는데… 상병수당제가 대안이다  
날짜: 20170306  
기자: 장윤형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306185355001  
ID: 01100201.20170306185355001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갑작스러운 질병으로 인해 일을 할 수 없을 때, 소득 감소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많다. 이를 위해 건강보험료 재정을 활용해 ‘상병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br/> <br/> 현재까지는 일을 하다가 질병과 상해를 입으면 산재보험 신청 후, 승인을 받은 재해노동자에게 산재보험에서 소득보전 차원으로 휴업급여를 평균 임금의 70%로 제공한다. 문제는 업무와 무관하게 질병이 발생했을 경우, 일정 기간 휴업을 해도 소득을 보전받을 수 있는 보장제도가 없다는 점이다. 암이나 중증 질환이 발생해 장기 치료를 받는 경우 실질소득이 줄어 가계가 파탄에 이를 가능성이 높아진다. <br/> <br/> 이에 대해 임준 가천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국회 양승조 보건복지위원장과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주최로 최근 열린 ‘우리나라 상병수당제도 도입방안’ 제6회 환자포럼에서 “<span class='quot0'>업무 상 질병으로 인해 산재보험을 받는 경우 외에도, 질병으로 일을 할 수 없게된 저임금자나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 자영업자를 위한 소득보전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span>”며 “<span class='quot0'>소득손실을 보전하는 상병수당제도를 도입해야 한다</span>”고 주장했다. <br/> <br/>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는 의료비 지급에 초점이 맞춰진 사회보험제도로서의 역할을 충실하게 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업무를 하다가 중증의 암이 발병해도 직업과의 관련성을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가 빈번하다. 비정규직, 자영업자 등이 아파서 일을 하지 못하게 되면 소득이 상실돼 가정 형편은 더욱 어려워질 수 밖에 없다. <br/> <br/> 독일, 영국, 프랑스, 일본 등은 질병이 발생해 노동을 할 수 없게 되면 사회보험제도 하에서 상병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정형준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실행위원은 “독일의 경우 임금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일본도 피보험자가 노동을 할 수 없는 경우 최고 1년 6개월 한도 내에서 상병수당을 지급한다”며 “우리도 질병으로 인한 소득감소를 보전할 수 있는 상병수당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br/> <br/> OECD 34개 회원국 중 공적 상병수당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국가는 미국,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이에 국민들은 민간의료보험에 의존한다. 2013년 전체 가구 중 77%가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하고 있으며, 가구당 월 평균 보험료가 28만8000원(종신, 연금보험 특약 포함)이다. 같은 해 직장 가입자들이 국민건강보험에 내는 세대별 본인 부담 보험료 평균 9만3000원의 3배 수준을 부담하는 셈이다. <br/> <br/> 우리나라에도 상병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다. 지난 2013년 국회에서 개정한 국민건강보험법 제50조 조항에는 대통령령으로 상병수당을 부가급여로 실시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대통령령에는 상병수당 지급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며, 정부에서도 예산 부담을 이유로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br/> <br/> 이를 위해 현재 건강보험료 재정 20조원 흑자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했다. 임준 교수는 “<span class='quot1'>2015년 총 입원일수 5176만 여일을 전제로 2017년 노동부 발표 평균임금의 70%를 소득손실로 인정할 경우 1년에 최대 2조8225억원 정도의 상병수당 재정이 투입될 것</span>”이라고 추정했다. 정형준 위원도 “건강보험 흑자를 의료비에만 투입할 것이 아니라, 상병수당 도입을 위해서도 쓸 수 있어야 한다. 평균 2∼3조원 정도의 재정이 질병으로 일을 못하는 국민들을 위해 사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br/> <br/>장윤형 기자 newsroom@kukinews.com

언론사: 국민일보-4-682.txt

제목: 이광형 국민일보 문화전문기자 별세  
날짜: 20170305  
기자: 박지훈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305111144001  
ID: 01100201.20170305111144001  
카테고리: 문화>요리\_여행  
본문: 이광형 국민일보 부국장 겸 문화전문기자가 4일 오후 암으로 별세했다. 향년 54세. <br/> <br/>고인은 경남 통영고와 부산대를 나와 1991년 7월 국민일보에 입사했다. 교열부 사회부를 거친 뒤 93년부터 문화부에서 차장 부장 선임기자를 차례로 역임했다. 2015년부터는 문화 분야의 해박한 지식과 경륜을 인정받아 문화전문기자를 맡았다. 평소 온화한 인품으로 선후배들의 신망이 두터웠다. <br/> <br/>유족으로는 부인 조옥란씨와 아들 재석, 딸 재희씨가 있다. 장례식장은 서울 강남성모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으며, 발인은 7일 오전(02-2258-5940). <br/> <br/>박지훈 기자 lucidfall@kmib.co.kr

언론사: 국민일보-4-683.txt

제목: [이사야 기자의 부교역자 대나무숲] 미혼이라는 이름의 족쇄  
날짜: 20170304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304000255001  
ID: 01100201.20170304000255001  
카테고리: 문화>종교  
본문: “매일이 명절 같다.” 최근 만난 K목사(33)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그는 서울 A교회의 교구담당 부목사다. K목사는 20∼30대가 명절 때마다 가장 듣기 싫은 말 중 하나로 꼽는 ‘결혼은 언제 하느냐’는 질문을 수시로 듣는다. 담임목사를 비롯해 교회 성도들이 돌아가며 한 번씩만 물어도 족히 1000번 가까이 된다. 반복적으로 물으니 실제로는 그 이상이다. 하지만 그 관심을 단순한 오지랖으로 치부하기는 곤란하다. <br/> <br/> “<span class='quot0'>아직 결혼을 못했는데 전임교역자로 써주고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지.</span>” 자조 섞인 K목사의 말은 불안한 심리를 고스란히 보여줬다. ‘결혼 못하면 교회를 떠나야 하지 않느냐’ ‘올해가 마지노선이다’ 등 동료 부교역자들이 농담처럼 하는 염려 아닌 염려는 그를 더 초조하게 만든다. 당장 결혼할 사람을 찾기도, 다른 임지를 찾기도 어려운 게 현실이다. <br/> <br/> 다른 직종에 비해 목회자는 결혼 여부가 안정적인 자리를 얻는 데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전임교역자가 되려면 결혼은 필수’라는 암묵적 불문율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국내 교단 중 ‘결혼을 하지 않은 사람은 전임교역자가 될 수 없다’는 법이나 규정이 있는 곳은 드물다. 기독교한국침례회가 기혼자(선교사나 군목 파송 등은 예외)에게만 목사안수를 주는 게 눈에 띄는 정도다. 그럼에도 대다수 교회가 전임교역자를 뽑을 때 기혼자를 선호한다. 그 근거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당부(딤3:2)를 들곤 한다. 바울은 영적 리더인 감독의 조건으로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고 신중한 사람’을 꼽았다. 한 교단의 총회 관계자는 “<span class='quot1'>목회자는 왜곡된 결혼관이 팽배한 시대에 모범적인 가정생활을 꾸려나가며 성도들에게 본을 보여야 할 의무가 있다</span>”고 말했다. <br/> <br/> 타당한 이유이지만 악용될 수도 있다. 경기도 수원 B교회에서 청년부를 담당했던 L목사(31)는 최근 교육부장인 장로로부터 “<span class='quot2'>부서 사역을 그만 두고 다른 임지를 알아보라</span>”는 이야기를 들었다. 미혼인 그가 여성 청년들과 있는 모습이 덕이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목사가 여성 청년들과 사적으로 만나고 다닌다’는 소문이 교회에서 돌았던 것. <br/> <br/> L목사는 “여성 청년 두 명이 각각 직장과 가정에서 힘든 일을 겪어 상담을 요청했고, 교회 근처 카페에서 만나 이야기를 듣고 기도해 준 것이 전부다. 청년들이 증명해 줄 수 있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러나 “목사님이 결혼을 안 해서 그런 것이니 어쩌겠느냐. 더 이상 말이 안 나오게 그만둬 달라”는 대답만 돌아왔다. L목사는 “<span class='quot2'>성도들과의 부적절한 관계로 세간의 주목을 받은 목회자들 중 상당수가 기혼자인 사실은 어떻게 설명해야 하느냐</span>”며 헛웃음을 보였다. <br/> <br/> 이들 목회자 중에는 불안정한 경제여건 때문에 결혼을 하지 못한 이들이 많다. L목사는 대학원 학자금 대출을 아직 갚지 못했고 K목사는 암 투병 중인 아버지의 병원비를 대느라 허덕이고 있다. <br/> <br/> 3포세대(연애, 결혼, 출산 포기)에서 출발해 인간관계와 희망 등 포기할 것이 너무 많아 특정수를 지정하지 않은 N포세대까지 등장한 지 오래다. 교회가 이들을 품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그러나 미혼을 이유로 고용불안에 떨고 있는 목회자들은 그들을 돌볼 여력이 없다. 오히려 스스로 N포세대가 되지 않을까 두려워할 뿐이다. 현실을 외면한 채 ‘본을 보이라’고만 강조하며 미혼인 목회자들을 벼랑으로 모는 교회의 모습이 오히려 덕이 안 되는 것은 아닐까. 이사야 기자 Isaiah@kmib.co.kr

언론사: 국민일보-4-684.txt

제목: 눈물겨운 흙수저 사연과 함께…이재명 흙수저후원회 후원금 10억원 돌파  
날짜: 20170303  
기자: 성남=강희청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303233544001  
ID: 01100201.20170303233544001  
카테고리: 문화>문화일반  
본문: #사례1 <br/>올해 31세 입니다. 20대 후반부터 자영업에 뛰어들어 치열하게 살아오다 계속되는 불경기에 결국 망하고 빚만 잔뜩 남았네요. 3만3550원밖에는 못하지만 제겐 일주일치 식대 입니다. 여유만 되었더라면...  <br/> <br/> <br/>#사례2 <br/>2007년에 탈북한 한 아이의 엄마입니다. 아끼고 아낀 돈 50만원을 후원합니다. 이제 고등학교에 막 들어가려고 하는 딸의 앞날을 위해 이재명시장님의 원칙과 소신을 응원합니다.  <br/> <br/>#사례3 <br/>죽기 전에 좋은 일 한다는 생각으로 후원했습니다. 저는 암말기 시한부 인생입니다. 돈도 조금 모이고 사랑하는 사람도 만나고 나 같은 놈도 이제 행복하게 살 수 있나 할 때 생에 처음 받아본 건강검진에서 암말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저 같은 흙수저들은 사회에서 평범한 삶을 살기가 정말 힘듭니다. 정치에 관심도 없었고 정치인을 믿어 본적도 없지만 이재명 시장님은 한번 믿어보고 싶네요. <br/> <br/> 이재명 흙수저후원회는 이같은 흙수저의 눈물겨운 사연과 함께 3일 후원금이 10억원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br/> <br/> 흙수저후원회는 “후원자는 빚쟁이, 새터민, 말기 암 환자, 통장 잔고가 1만3000원뿐이라 미안하다는 후원자, 점심값 커피값 아껴서 후원한 사람, 마이너스 통장인데도 난생 처음 정치인에게 후원한 사람 등 아주 다양한 흙수저가 동참하고 있다”며 “기적과 이변은 한 번 시작하면 쉽게 멈추지 않는다”고 말했다. <br/> <br/> 흙수저후원회 관계자는 “<span class='quot0'>이재명후보의 지지율도 무수저와 흙수저들의 지원에 힘입어 바닥을 찍고 반등하며 계속 오르고 있다</span>”며 “<span class='quot0'>이재명은 다수 약자들의 힘으로 반드시 민주당 경선에서 이기고 제대로 정권을 바꿔서 흙수저들의 꿈을 실현할 것</span>”이라고 밝혔다. <br/> <br/>성남=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

언론사: 국민일보-4-685.txt

제목: [이사야 기자의 부교역자 대나무숲] 미혼이라는 이름의 족쇄  
날짜: 20170303  
기자: 이사야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303165244001  
ID: 01100201.20170303165244001  
카테고리: 문화>종교  
본문: “매일이 명절 같다.”  <br/> <br/>최근 만난 K(33) 목사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그는 서울 A교회의 교구담당 부목사다. K목사는 20~30대가 명절 때마다 가장 듣기 싫은 말 중 하나로 꼽는 ‘결혼은 언제 하느냐’는 질문을 수시로 듣는다. 담임목사를 비롯해 교회 성도들이 돌아가며 한 번씩만 물어도 족히 1000번 가까이 된다. 반복적으로 물으니 실제로는 그 이상이다. 하지만 그 관심을 단순한 오지랖으로 치부하기는 곤란하다. <br/> <br/> <br/> <br/>“<span class='quot0'>아직 결혼을 못했는데 전임교역자로 써주고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지.</span>”  <br/> <br/>자조 섞인 K목사의 말은 불안한 심리를 고스란히 보여줬다. ‘결혼 못하면 교회를 떠나야 하지 않느냐’ ‘올해가 마지노선이다’ 등 동료 부교역자들이 농담처럼 하는 염려 아닌 염려는 그를 더 초조하게 만든다. 당장 결혼할 사람을 찾기도, 다른 임지를 찾기도 어려운 게 현실이다. <br/> <br/>다른 직종에 비해 목회자는 결혼 여부가 안정적인 자리를 얻는 데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전임교역자가 되려면 결혼은 필수’라는 암묵적 불문율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국내 교단 중 ‘결혼을 하지 않은 사람은 전임교역자가 될 수 없다’는 법이나 규정이 있는 곳은 드물다. 기독교한국침례회가 기혼자(선교사나 군목 파송 등은 예외)에게만 목사안수를 주는 게 눈에 띄는 정도다. <br/> <br/>그럼에도 대다수 교회가 전임교역자를 뽑을 때 기혼자를 선호한다. 그 근거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당부(딤3:2)를 들곤 한다. 바울은 영적 리더인 감독의 조건으로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고 신중한 사람’을 꼽았다. 한 교단의 총회 관계자는 “<span class='quot1'>목회자는 왜곡된 결혼관이 팽배한 시대에 모범적인 가정생활을 꾸려나가며 성도들에게 본을 보여야 할 의무가 있다</span>”고 말했다. <br/> <br/>타당한 이유이지만 악용될 수도 있다. 경기도 수원 B교회에서 청년부를 담당했던 L(31) 목사는 최근 교육부장인 장로로부터 “<span class='quot2'>부서 사역을 그만 두고 다른 임지를 알아보라</span>”는 이야기를 들었다. 미혼인 그가 여성 청년들과 있는 모습이 덕이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목사가 여성 청년들과 사적으로 만나고 다닌다’는 소문이 교회에서 돌았던 것. <br/> <br/>L목사는 “여성 청년 두 명이 각각 직장과 가정에서 힘든 일을 겪어 상담을 요청했고, 교회 근처 카페에서 만나 이야기를 듣고 기도해 준 것이 전부다. 청년들이 증명해 줄 수 있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러나 “목사님이 결혼을 안 해서 그런 것이니 어쩌겠느냐. 더 이상 말이 안 나오게 그만둬 달라”는 대답만 돌아왔다. L목사는 “<span class='quot3'>성도들과의 부적절한 관계로 세간의 주목을 받은 목회자들 중 상당수가 기혼자인 사실은 어떻게 설명해야 하느냐</span>”며 헛웃음을 보였다. <br/> <br/>이들 목회자 중에는 불안정한 경제여건 때문에 결혼을 하지 못한 이들이 많다. L목사는 대학원 학자금 대출을 아직 갚지 못했고 K목사는 암 투병 중인 아버지의 병원비를 대느라 허덕이고 있다. <br/> <br/>3포세대(연애, 결혼, 출산 포기)에서 출발해 인간관계와 희망 등 포기할 것이 너무 많아 특정수를 지정하지 않은 N포세대까지 등장한 지 오래다. 교회가 이들을 품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그러나 미혼을 이유로 고용불안에 떨고 있는 목회자들은 그들을 돌볼 여력이 없다. 오히려 스스로 N포세대가 되지 않을까 두려워할 뿐이다. 현실을 외면한 채 ‘본을 보이라’고만 강조하며 미혼인 목회자들을 벼랑으로 모는 교회의 모습이 오히려 덕이 안 되는 것은 아닐까. <br/> <br/>이사야 기자

언론사: 국민일보-4-686.txt

제목: 배우 민욱 암 투병 끝 별세  
날짜: 20170303  
기자: 권남영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303000059001  
ID: 01100201.20170303000059001  
카테고리: 문화>방송\_연예  
본문: 배우 민욱(본명 민우기·사진)이 암 투병 끝에 2일 별세했다. 향년 70세. 고인은 2년 전 두경부암 판정을 받고 투병해 오다 일주일 전쯤 병세가 악화돼 끝내 세상을 떠났다. <br/> <br/> 1969년 KBS 8기 공채 탤런트로 연기자 생활을 시작한 고인은 ‘춘향전’ ‘토지’ ‘용의 눈물’ ‘태조 왕건’ ‘왕과 비’ ‘무인시대’ ‘제5공화국’ 등 다수의 드라마에서 선 굵은 연기를 펼쳤다. ‘부자의 탄생’ ‘결혼해주세요’ 등 현대극에서도 활약했다. 고인의 빈소는 서울 용산구 순천향대병원 장례식장 VIP실에 마련됐다. 발인은 4일 오전 7시40분, 장지는 서울추모공원이다. <br/> <br/>권남영 기자

언론사: 국민일보-4-687.txt

제목: [로컬 브리핑] 단양군보건소, 경로당 찾아가 건강 체크  
날짜: 20170303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303205955001  
ID: 01100201.20170303205955001  
카테고리: 지역>경남  
본문: 충북 단양군보건소는 오는 12월까지 지역 노인들의 건강을 위해 찾아가는 100세 건강경로당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보건소는 매주 화·목요일 경로당을 방문해 노년기 구강관리 교육, 치매예방체조, 영양사업, 국가 암 검진사업 홍보활동 등을 전개한다. 또 3∼4월 황사예방, 6월 구강관리, 7∼8월 폭염대비, 9∼10월 가을철 전염병관리, 11∼12월 고혈압·당뇨관리 등 테마별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언론사: 국민일보-4-688.txt

제목: [서서 보는 뉴스] 말레이, 북한과 비자면제협정 6일부터 파기  
날짜: 20170302  
기자: 고승욱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302174644001  
ID: 01100201.20170302174644001  
카테고리: 정치>북한  
본문: 말레이시아 정부가 북한과의 비자면제협정을 오는 6일부터 파기합니다. 말레이에서는 단교를 불사하겠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하지만 말레이 검찰은 북한 국적 용의자 이정철을 북한에 돌려보내기로 했습니다. <br/>▶김정남 암살 핵심 이정철 北 추방 <br/> <br/> <br/>검찰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힘겨운 일전을 다시 벌입니다. 개인 비위의혹이 불거질 때 우 전 수석이 검찰 핵심간부들과 연락한 정황이 포착되면서 성역 없는 수사가 가능하겠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br/>▶檢, 禹와 또 ‘힘겨운 일전’… 이번엔 수사 제대로 될까 <br/> <br/> <br/>친박단체 ‘태극기 행동본부’ 회원 수십여명이 2일 국회 경내로 차를 몰고 들어가 기습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들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 반대와 국회 해산을 주장하며 국회 경비원과 승강이를 벌였습니다. <br/>▶“빨갱이 나라 물려줄 수 없다”… 군복 입은 친박단체 국회서 기습 시위 <br/> <br/> <br/>탤런트 민욱(본명 민우기)이 암 투병 끝에 2일 70세로 별세했습니다. 1969년 데뷔해 안방극장을 누빈 연기파 배우입니다. <br/>▶배우 민욱, 1년여 암 투병끝에 70세로 별세 <br/> <br/>고승욱 기자 swko@kmib.co.kr

언론사: 국민일보-4-689.txt

제목: ‘암 집단 발생 미스테리’ 익산 장점마을에 무슨 일이...  
날짜: 20170302  
기자: 전주=김용권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302163755001  
ID: 01100201.20170302163755001  
카테고리: 사회>환경  
본문: 10여년 새 주민 10명 중 2명 정도가 암으로 숨지거나 투병 중인 전북 익산시 함라면 장점마을에 대해 정밀조사가 실시된다. <br/> <br/> 전북도는 장점마을의 토양과 지하수·대기 등 환경실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환경부에 건강영향조사를 청원하거나 역학조사를 의뢰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도는 익산시와 함께 3일 환경부를 방문해 이 문제를 협의할 예정이다. <br/> <br/> 45가구 80여명이 모여 살던 장점마을에선 2004년부터 11명이 폐암과 췌장암, 위암, 담낭암 등에 걸려 숨졌다고 주민들은 주장하고 있다. 또 4명이 현재 암으로 투병 중이다. <br/> <br/> 주민들은 2000년대 초 마을 인근에 비료공장이 들어서면서 암 발병이 늘었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상수도 공급이 되지 않아 지하수를 마시고 있는 상황에서 비료공장에서 흘러든 오염된 지하수가 암을 발병시켰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비료공장이 암을 유발시키는 원인인지는 정확히 파악되지 않았다. <br/> <br/> 앞서 전북도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달 해당 비료공장과 인근에서 수질과 토양검사, 대기오염도 검사를 했다. 도는 악취에 대해 개선 권고를 내린데 이어 대기와 토양에 대한 추가 검사를 의뢰했다. 도 관계자는 “<span class='quot0'>환경적 영향이 아닌 것으로 판명될 경우 질병관리본부에 역학조사 의뢰를 검토하겠다</span>”고 말했다. <br/> <br/>전주=김용권 기자 ygkim@kmib.co.kr

언론사: 국민일보-4-690.txt

제목: 부산대병원, 영남권 최초 차세대 유전체 기반검사 인프라 구축  
날짜: 20170302  
기자: 부산=윤봉학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302152544001  
ID: 01100201.20170302152544001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부산대병원(병원장 이창훈)은 ㈜테라젠이텍스(대표 고진업)와 업무협약을 체결, 영남권 최초로 지역기반 ‘차세대 염기서열분석기반(NGS) 유전체 검사 및 연구 인프라’를 구축했다고 2일 밝혔다. <br/>협약 내용은 부산대병원과 테라젠이텍스가 연구시설과 장비 등의 공동 활용을 통한 유전체 분석 기반 정밀의료 서비스 제공과 공동연구과제 발굴 및 신규 임상서비스 개발을 위한 연구협력 등이다. <br/> <br/>협약에 이어 ‘NGS 기반 정밀의학의 새로운 시대’라는 주제로 전 서울대병원 옥찬영 교수의 특강과 부산대병원 김영금(병리과), 신경화(진단검사의학과) 교수의 NGS 패널에 대한 소개 등 워크숍이 진행됐다. <br/> <br/>차세대 염기서열분석기반(NGS)검사란 지금까지의 유전체 검사인 기존 단일 유전자 검사와 달리 한 번에 수십~수백개의 유전자를 하나의 패널로 구성해 유전자 분석을 하는 검사이다. <br/> <br/>유전자 검사의 한 예로 미국의 영화배우 안젤리나 졸리는 유방암으로 사망한 가족력이 있어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자신의 유전체를 예방적 목적으로 검사했다. 그녀는 유방암 및 난소암의 유전자 변이를 발견하고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유방을 절제하고 치료를 받은 사례가 있다. <br/> <br/>NGS 유전자 패널검사 서비스로 전이된 난치성 암환자의 유전체 변이 분석을 통해 질환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br/> <br/>특히 부산대병원에서는 전국 최초로 도입한 인공지능 왓 슨헬스 지노믹스를 이용해 더욱 정확한 진료정보를 얻을 수 있다. <br/> <br/>유전체정보, 진료, 임상정보, 생활습관 정보를 통합분석해 환자 특성에 맞는 적합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정밀의료를 통해 의료진은 여러 가지 정보를 고려해 정확하게 진료하고 개별환자에게 가장 알맞은 치료법을 선택하여 제공할 수 있다. <br/> <br/>또한 각자의 유전정보를 분석해 질병을 일으키는 유전정보를 갖고 있는지를 파악, 질병의 발생위험도를 예측하는데 정확성을 크게 높일 수 있다. <br/> <br/>부산대병원은 NGS 패널검사 실시기관 승인 신청과 분석을 위한 기기를 도입했고, 1일부터 건강보험으로 적용되는 차세대 염기서열분석기반(NGS) 유전자 패널검사 서비스를 4월부터 진행할 예정이다. <br/> <br/>암 질환이나 희귀질환을 검사하기 위해 2만5000여개의 모든 유전자를 검사하기에는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 따라서 암 종별, 희귀질환별 반드시 포함하는 필수유전자를 포함하여 유전자 패널을 구성해 나눠 검사 비용을 책정한다. <br/> <br/>검사비용은 건강보험공단의 조건부 선별급여로 입원·외래 불문하고 환자본인부담률 50%이며, 1회 검사 당 50만~70만원으로 환자 부담액이 획기적으로 줄어들게 된다. <br/> <br/>부산대병원은 지난해부터 의생명연구원 산하 정밀의료센터 구축, 서울삼성병원 유전체센터와 MOU체결, IBM 왓슨헬스 도입, 암과 질환 유전체 기반 연구지원사업을 통해 지속적으로 정밀의료를 구현하기 위한 병원 인프라를 구축해오고 있다. <br/> <br/>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

언론사: 국민일보-4-691.txt

제목: 배우 민욱, 1년여 암 투병끝에 별세…향년 70세  
날짜: 20170302  
기자: 박효진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302104044001  
ID: 01100201.20170302104044001  
카테고리: 문화>방송\_연예  
본문: 탤런트 민욱(본명 민우기)이 암 투병 끝에 2일 별세했다. 향년 70세. <br/> <br/>민욱은 1년 전 두경부암을 선고받고 투병 생활을 하다 세상을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br/> <br/>고인의 빈소는 서울 한남동 순천향병원 장례식장 VIP실에 마련됐다. 발인은 3월4일 오전 7시40분으로 예정돼 있다.  <br/> <br/>고인은 1969년 KBS 8기 공채 탤런트로 데뷔했다. 그동안 KBS 2TV '남자는 외로워', KBS 1TV '하늘바라기', '제국의 아침', '무인시대', '금쪽같은 내새끼', KBS 2TV '조광조' 등에 출연해 열연을 펼쳤다. <br/> <br/>2010년 작품인 드라마 '결혼해주세요'가 고인의 유작이 됐다. <br/> <br/>박효진 기자 imhere@kmib.co.kr

언론사: 국민일보-4-692.txt

제목: 건강한 학교생활, 면역력 유지·강화에 달렸다  
날짜: 20170302  
기자: 이기수 의학전문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302094844001  
ID: 01100201.20170302094844001  
카테고리: 사회>여성  
본문: 어린 아이가 초등학교에 처음 입학을 하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문제로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 공동체생활을 하면서 각종 감염병에 노출될 위험도 높아진다.  <br/> <br/>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면역력을 키워야 한다. 면역력이 강해야 학교생활도 건강하게 보낼 수 있다. 각종 병원균으로부터 우리 몸을 지켜주는 면역력은 무엇이며 면역력을 키우기 위한 방법에는 어떤 게 있는지 동탄성심병원 신선희( <br/>사진) 교수의 도움말로 알아봤다. <br/> <br/> <br/>규칙적인 생활리듬을 유지하라 <br/>면역력은 이물질이나 세균, 바이러스와 같은 각종 병원균에 대응하는 힘을 말한다. 몸 안에서 자체적으로 생성되며 면역력이 강해지면 병원균에 노출되더라도 영향을 덜 받는다. 면역력이 떨어지면 감기에 자주 걸리고 눈이나 입에 염증이 잘 생긴다. 배탈이나 설사가 잦은 것도 면역력이 약해졌다는 증거다. <br/> <br/>아직 입학을 하지 않았거나 방학기간 불규칙적인 생활을 해온 아이들은 입학이나 새학기의 시작으로 생활리듬에 큰 변화를 갖게 된다. 생활리듬이 깨지면 면역력이 떨어져 크고 작은 질병에 시달리는 원인이 된다. 따라서 새학기가 시작되면 규칙적인 생활습관을 기르는 것이 필요하다. <br/> <br/>얼마만큼 자느냐와 수면패턴도 중요하다. 8시간 정도로 충분히 자되 면역력을 높여주는 호르몬 멜라토닌이 대거 분비되는 밤 11시부터 새벽 3시까지는 깊은 잠을 자도록 한다. 잠을 자는 동안에는 몸의 긴장이 풀어져 면역세포 중 하나인 헬퍼 T세포와 NK세포 기능이 활발해진다. 깊은 잠을 잘수록 면역 호르몬 분비가 많아지는 만큼 10시 이전에는 잠을 청하는 것이 좋다. <br/> <br/>학업 스트레스를 줄여라 <br/>지나친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다. 스트레스가 우울증, 불안장애와 같은 정신과적 질환의 원인이 되는 것은 물론 심혈관계질환과 감염성질환, 암, 자가면역질환에까지도 영향을 미친다. 면역력도 마찬가지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에 적응하고자 우리 몸이 반응을 일으키는데 여기에 시상하부와 뇌하수체, 부신축, 자율신경계 외에도 면역계까지 관여한다. <br/> <br/>특히 오늘날 아이들은 어려서부터 각종 학업 스트레스에 시달린다. 어린이집, 유치원에서부터 각종 학원에 다니며 또래와의 경쟁에서 살아남기를 강요당한다. 입학하면 그러한 경향이 더 심해진다. 다녀야 하는 학원의 개수는 늘고 아이들이 받는 스트레스 강도 역시 커진다. 면역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다. <br/> <br/>따라서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스트레스를 최대한 받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자주 웃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작은 습관을 변화시켜야 한다.  <br/> <br/>우선 햇빛을 충분히 쐬고 친구들과 뛰어놀면서 긴장을 풀어야 한다. 컴퓨터게임은 가급적 자제하도록 지도한다. 스트레스를 푼다고 컴퓨터 게임을 오래 하면 오히려 게임을 하는 과정에서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다. 또 학기 초부터 아이에게 좋은 성적을 강요하기 보다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고 또래와 빨리 친해질 수 있도록 부담을 주지 말아야 한다. <br/> <br/>손을 깨끗이 씻는다 <br/>유치원이나 학교를 다니며 집단생활을 하게 되면 각종 감염병에 걸릴 위험이 높아진다. 독감, 호흡기질환, 눈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손씻기다.  <br/> <br/>신선희 교수는 “<span class='quot0'>신체 중 가장 많이 사용하는 손을 통해 세균이 주로 침투하므로 손만 제대로 씻어도 감염질환의 70% 정도는 예방할 수 있다</span>”고 말했다. <br/> <br/>따라서 △돈을 만진 후 △애완동물과 놀고 난 후 △콘택트렌즈를 빼기 전과 착용하기 전 △코를 풀거나 기침, 재채기를 한 후 △식사 준비 또는 음식을 먹기 전 △날음식 또는 식품, 육류를 만진 후 △상처를 만지기 전후 △외출 후에는 반드시 손을 씻어야 한다. <br/> <br/>아침을 꼭 챙겨먹고, 골고루 섭취한다 <br/>영양소가 풍부한 음식은 면역력을 강화하고 감염과 질병, 알레르기에 대항하는 힘을 길러준다. 면역기관이 제 기능을 발휘하도록 하는 비타민C와 항바이러스 물질인 비타민A, 백혈구 활동을 돕는 비타민B, 항체 생산을 활발하게 하는 비타민E, 식세포의 활동을 돕고 항체를 생산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미네랄이 대표적이다. <br/> <br/>아침식사를 안 할 경우 공복상태가 길어져 뇌로 에너지 공급이 안 되어 무기력해지며 머리가 무겁고 집중력이 저하되는 등 학습의욕이 떨어지므로 꼭 아침을 먹는데, 적당한 양의 단백질식품과 함께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한 채소나 과일을 섭취하면 학습능력의 향상뿐 아니라 면역력을 강화할 수 있다. <br/> <br/>#팁: 면역력 강화에 도움이 되는 식품 4가지 <br/>⑴버섯 <br/>버섯에는 약리작용을 하는 성분이 대거 함유돼 있다. 그중에서도 글루칸(glucan)은 인체의 면역력을 증진시키고 활성산소를 제거해 항산화작용을 할 뿐 아니라 정상적인 세포조직의 면역기능을 활성화시켜 암세포의 증식과 재발을 막는다. <br/> <br/>⑵현미와 잡곡 <br/>현미를 비롯해 수수, 보리, 율무, 기장, 메밀과 같은 잡곡에는 몸의 저항력을 키워 암을 예방해주는 효과가 있다. 특히 현미에 함유된 아라비녹실란 성분은 면역증강 작용을 해 암과 B형 간염과 같은 질환 치료에 많이 활용된다. 잡곡에 많은 섬유질 역시 발암물질과 중금속, 콜레스테롤을 배설시켜 각종 질병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 <br/> <br/>⑶녹황색 야채 <br/>섬유질과 각종 비타민이 풍부하게 들어있는 야채는 우리 몸의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해준다. 특히 야채는 섬유질과 비타민A, B, C 외에도 칼슘과 칼륨, 인, 철분, 망간과 같은 무기질을 많이 함유하고 있어 유해물질을 분해하고 배출하는 효과가 탁월하다. <br/> <br/>⑷발효식품 <br/>대표적인 발효 식품으로는 김치와 된장, 청국장, 간장이 있다. 이중에서도 밥상에 빠지지 않고 올라오는 김치는 살균작용을 하는 마늘과 고추, 생강, 대파를 사용해 만들기 때문에 몸속 유해균의 활동을 억제시킨다. 콩으로 만든 된장과 청국장도 항암식품의 선두주자일 만큼 우리 몸에 좋다. 콩의 발효물질이 혈관에 쌓인 혈액 찌꺼기를 분해해 혈액을 맑게 할 뿐 아니라 재래식 된장은 백혈구의 양을 늘리는 효과까지 가지고 있다. 간장 역시 핵산 성분이 면역기능을 개선시켜준다. <br/> <br/>이기수 의학전문기자 kslee@kmib.co.kr

언론사: 국민일보-4-693.txt

제목: [인사] 고용노동부 外  
날짜: 2017030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301215455002  
ID: 01100201.20170301215455002  
카테고리: IT\_과학>IT\_과학일반  
본문: ◆고용노동부◎승진<부이사관>△노동정책실 노사관계지원과장 양정열△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장 정성균△〃 강원지청장 이도영◎전보<과장급>△고용정책총괄과(직제개편) 정경훈△미래고용분석과(〃) 양현수△고용서비스기반과장 박광일 <br/> <br/>◆통일부<과장급>△장관정책보좌관 김창현△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화천분소장 배윤수△정세분석국 정치군사분석과장 김종우△교류협력국 개발지원협력과장 김훈아△남북협력지구발전기획단 기획총괄과장 소봉석△남북회담본부 회담지원과장 배충남△통일교육원 교육총괄과장 여상기△〃 교육연수과장 이혜옥△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관리후생과장 김명상△〃 교육기획팀장 신재표△〃 교육훈련팀장 이종희△남북출입사무소 경의선운영과장 이경△〃 동해선운영과장 우계근△한반도통일미래센터 관리과장 유재윤 <br/> <br/>◆국방부<과장급>△전력자원관리관실 군수관리관실 군수품수명주기관리장 문희영△감사관실 국방민원상담센터장 정현호 <br/> <br/>◆해양수산부<국장급>◎승진△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박신철◎전보△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방태진<과장급>△어업정책과장 윤분도△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김태석△해양보전과장 장묘인△수산자원정책과장 조일환 <br/> <br/>◆환경부<과장급>△환경정책관실 통합허가제도과장 이영석△금강유역환경청 유역관리국장 장이재△원주지방환경청 기획평가국장 정영대△대구지방환경청 기획평가국장 최동호 <br/> <br/>◆통계청<일반직고위공무원>◎임용△통계교육원장 임병권<과장급>◎전보△운영지원과장 송성헌△통계정책과장 서운주△통계조정과장 서경숙△통계서비스기획과장 류제정△경제총조사과장 이명호△소득통계개발과장 김대유△농어업통계과장 홍병석△농어업동향과장 김진△조사기획과장 김대호△지역통계총괄과장 박진우△교육기획과장 최정수△경인청 사회조사과장 조경호△〃 서울사무소장 하봉채△동북청 조사지원과장 유상종△〃 지역통계과장 유영호△〃 경제조사과장 윤종호△〃 사회조사과장 원정연△〃 농어업조사과장 최인범△〃 춘천사무소장 김응하△〃 안동사무소장 유상길△호남청 조사지원과장 임철규△〃 지역통계과장 송금영△〃 농어업조사과장 박순찬△〃 전주사무소장 김원태△〃 제주사무소장 홍성희△동남청 조사지원과장 유호준 <br/> <br/>◆중소기업청<서기관>◎승진△소상공인정책국 소상공인지원과 김길상△경영판로국 해외시장과 진수웅 <br/> <br/>◆산림청<과장급>△정보통계담당관 신재희△수목원조성사업단 시설과장 이광호 <br/> <br/>◆한국광해관리공단◎승진<1급>△지역진흥실장 최재익△영남지사 광해사업팀장 임영철<2급>△정보관리팀장 김정아△총무팀장 강대문△사업기획팀장 정영국△지반광미사업팀장 심재천◎전보△기획조정처장 현정석△경영지원처장 김봉섭△사업기획처장 이상창△석연탄지원처장 홍인기△광해기술원장 조정구△기술연구센터장 이상환△글로벌협력센터장 김태혁△분석센터장 심연식△기술협력기획팀장 이진수△경인지사 사업관리팀장 안소영△호남지사 사업관리팀장 김성수 <br/> <br/>◆한국전기연구원◎보직 임명△차세대전력망연구본부장 윤재영 <br/> <br/>◆한국교육개발원△경영지원국장 고경숙△기획조정본부 예산기획실장 장인식△경영지원국 총무실장 윤인철△〃 인사실장 이현주△〃 재무회계실장 임승호△〃 청사운영실장 성한규△〃 감사실장 김우종△기관이전후속지원특임단장 지기섭 <br/> <br/>◆전자부품연구원△정보통신미디어연구본부장 이규복 <br/> <br/>◆사회보장정보원<상임이사>△기획이사 정채용△정보이사 김진성 <br/> <br/>◆국립암센터<부장급>△이행성연구부장 김용연△융합기술연구부장 이상진△임상의학연구부장 김호진△암생물학연구부장 이창헌△암역학예방연구부장 최일주<과장급>△암중개연구과장 및 유세포분석실장 공선영△생체표지자연구과장 직무대리 서호경△비교생명의학연구과장 〃 윤경실△분자영상연구과장 및 동물분자영상실장 김석기△면역치료연구과장 및 현미경영상실장 박은정△혁신의료기술연구과장 손대경△입자치료연구과장 김상수△정밀의료연구과장 장희진△신표적탐색연구과장 직무대리 김선신△호발암연구과장 류근원△희귀난치암연구과장 직무대리 최성원△암발생전이연구과장 〃 김경태△암미세환경연구과장 〃 배영기△암역학연구과장 김미경△바이오메트릭스연구과장 직무대리 및 의학통계분석실장 주정남△암환자헬스케어연구과장 직무대리 정소연△임상유전체분석실장 홍동완 △암생존자지원과장 직무대리 양형국 <br/> <br/>◆한양대◇서울캠퍼스△입학처장 정재찬◇ERICA(에리카)캠퍼스△예체능대학장 권태원 <br/> <br/>◆부산대△생활환경대학장 김희화△예술대학장 박은화△의학전문대학원장 이준우△치의학전문대학원장 조봉혜 <br/> <br/>◆단국대△천안부총장 김수복△산학부총장 어진우△정보·지식대학원장 김오영△음악대학 학장 홍성은△예술대학 학장 윤영덕△국제대학장 송동섭△천안캠퍼스 입학처장 김종규△천안캠퍼스 학생처장 이일석△천안캠퍼스 생활관 관장 이정배△산학협력단부단장 서상철△대외협력처 부처장 방장식 <br/> <br/>◆동국대◇서울캠퍼스◎법인파견△의료원 일산행정처장 김재선◎전보△남산학사 겸 고양학사 관장 허광도△미래캠퍼스개발추진본부 중·후문일대개발추진단장 신기훈 <br/> <br/>◆한성대△기획처장 윤경준△총무처장 조자연△상상력인재학부 학장 서은경△국방과학대학원장 구형회△행정대학원장 전주상△IPP사업단장 및 교육혁신원장 겸 교무처장 조세홍△벤처창업지원센터장 및 산학협력단 부단장 김상현△미래경영연구원장 홍용식△창업지원단장 홍정완△국제교류원장 및 언어교육센터장 김승천△IPP사업단 부단장 장명희

언론사: 국민일보-4-694.txt

제목: 당뇨치료제 메트포민, 소화기암 환자 재발위험 낮추는 효과 있다  
날짜: 20170228  
기자: 이기수 의학전문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228103844001  
ID: 01100201.20170228103844001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당뇨병 치료제 ‘메트포민’이 간암, 췌장암, 결장암, 직장암 등 소화기 암 환자의 재발 위험을 낮추고 생존율을 높이는데 기여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메트포민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널리 사용되는 당뇨치료제다. <br/> <br/>한국원자력의학원(원장 최창운) 방사선종양학과 김미숙( <br/>사진) 박사와 한국보건의료원연구 고민정 박사 연구팀이 중앙암등록자료와 건강보험청구자료, 통계청 사망원인자료 등 전 국민 대상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당뇨병이 있는 각종 소화기 암 환자의 메트포민 사용여부에 따른 암 사망률 및 재발률을 비교 조사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28일 밝혔다. <br/> <br/>연구팀은 먼저 2005년부터 2011년까지 암 절제 수술을 받은 간암, 췌장암, 결장암, 직장암 환자 중 메트포민을 복용 중인 환자를 추리고, 재발률과 생존률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 분석했다. <br/>  <br/>그 결과 간암 환자 5494명 중 당뇨병을 동반한 간 751명의 사망률은 메트포민을 사용한 경우 36.6%, 사용하지 않은 경우 56.9%였다. 재발률은 메트포민을 사용한 경우 41.3%, 사용하지 않은 경우 66.8%였다. <br/> <br/>또 췌장암 환자 1919명 중 당뇨병을 동반한 췌장암 환자 764명의 수술 후 사망률은 메트포민을 사용한 경우 72.5%, 사용하지 않은 경우 81.6%였다. <br/> <br/>결장암 환자 2만6410명 중 당뇨병을 동반한 4503명의 경우엔 수술 후 사망률이 메트포민 사용자 12.8%, 비사용자 26.9%로 배 이상 차이를 보였다. 재발률은 메트포민을 사용한 경우 11.3%, 사용하지 않은 경우 17.6%고 각각 조사됐다. <br/> <br/>이 같은 경향은 직장암 환자들도 비슷했다. 직장암 수술 환자 5494명 중 당뇨병 동반자 751명의 사망률도 메트포민을 사용한 경우 14.6%, 사용하지 않은 경우 24.2%로 나타났다. 재발률은 메트포민을 사용한 경우 19.6%, 사용하지 않은 경우 30.8%였다. <br/> <br/>김미숙 박사는 “<span class='quot0'>당뇨 환자들이 많이 복용하는 메트포민은 값도 싸서 향후 간암, 췌장암, 결장암, 직장암 등 소화기암 환자의 재발 억제용 항암제로서 쓰임새가 더 확장될 것으로 기대된다</span>”고 말했다. <br/> <br/>연구 결과는 국제 학술지 ‘캔서 리서치 앤 트리트먼트(Cancer Research and Treatment)’와 ‘온코타깃(Oncotarget)’ 최근호에 게재됐다. <br/> <br/>이기수 의학전문기자 kslee@kmib.co.kr

언론사: 국민일보-4-695.txt

제목: [명의&인의를 찾아서-(102) 고려대구로병원 재활의학과] 체계적 재활+상처 보듬는 전인치료  
날짜: 20170228  
기자: 이기수 의학전문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228191455001  
ID: 01100201.20170228191455001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수술을 치료의 마지막 단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나면 치료가 끝났다고 생각해서다. 하지만 이 같은 생각은 큰 오산이다. 소홀히 하면 안 될 게 있기 때문이다. 바로 치료 후 몸 관리다. <br/> <br/> 수술 직후 몸 상태는 나쁘지 않은 환자였는데 기대했던 것보다 회복 속도가 느리거나 갑자기 예상치 못한 증상 악화로 치료를 다시 받아야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대개 수술 후 몸 관리를 잘못한 게 원인이다. <br/> <br/> 재활치료란 급·만성 통증의 보존적 치료, 수술 후 회복력 향상 및 합병증 최소화, 외상 후 일상생활로 복귀 촉진, 남은 장애 극복 등 다양한 목적을 위해 시행되는 의료행위를 말한다. 보통 물리치료 운동치료 작업치료 인지치료, 언어치료 등으로 나뉜다. 환자 개개인의 상태에 따라 치료 목표와 치료 방법이 달라진다. <br/> <br/> 고려대구로병원 재활의학과는 정확한 예후(豫後·병세의 진행 경과)예측 검사를 통해 환자별로 개인맞춤치료 계획을 세우고 관련 과(科) 교수진의 소견을 바탕으로 전문적인 재활치료를 실시해 눈길이 가는 곳이다. <br/> <br/> 현재 근·골격계 환자들을 위한 척추·어깨·족부 통증클리닉, 뇌성마비 환자들을 위한 발달장애클리닉, 뇌혈관질환자들을 위한 뇌졸중클리닉, 암 환자를 위한 암 재활클리닉 등 전문클리닉을 운영하고 있다. 의료진은 윤준식 교수(재활의학과장)를 선두로 김우섭, 양승남, 박동윤, 강석 교수 등으로 구성돼 있다. <br/> <br/>개인별 특화, 환자 중심 치료 눈길 <br/> <br/> 윤준식 교수는 관절염, 허리 디스크, 어깨 통증 등 근·골격계 재활치료에 권위를 인정받고 있다. 우리나라 최초로 ‘근·골격계 초음파 유도 시술’을 도입, 모든 근·골격질환 치료에 초음파가 널리 사용되는 길을 개척했다. 이 시술은 몸속 근육과 골격의 이상을 초음파 영상으로 살펴보면서, 소염제 등 치료용 약물을 안전하게 주입하는 치료법이다. <br/> <br/> 윤 교수는 특히 어깨 통증의 진단과 치료에 초음파를 적극 활용해 관심을 끌고 있다. 목디스크, 허리디스크 등 척추 질환으로 인한 목과 허리 통증, 팔다리 저림증도 수술하지 않고 간단한 주사나 카테터(도관)시술로 해결해줘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br/> <br/> 재활치료의 중요한 목적은 환자의 통증을 완화하고 불편함이 없이 빠른 일상생활 복귀를 돕는 것이다. 윤 교수는 이를 위해 물리치료, 전기치료, 도수치료 및 가느다란 카테터를 이용한 중재 시술 등 기존의 치료법만을 고집하지 않는다. 더 효과가 좋은 신의료기술을 찾아 끊임없이 연구, 노력하고 있다는 게 주위의 평가다. <br/> <br/>3D동작분석 시스템 이용 과학적 치료 <br/> <br/> 환자 중심 진료와 늘 깨어 연구하는 재활의학, 이것이 바로 고려대구로병원 재활의학과가 추구하는 기본 정신이자 목표이다. 이를 대변하는 곳이 ‘동작분석센터’다. 이른바 3D동작분석을 통해 재활치료가 필요한 환자의 보행 및 움직임을 과학적으로 분석, 치료효과를 극대화시켜주는 곳이다. <br/> <br/> 이곳서 보행훈련과 스포츠재활을 담당하는 김우섭 교수는 “3D동작분석을 하면 근·골격 및 신경계 질환에서 나타나는 보행 및 운동기능 제한을 시각화, 수치화함으로써 적절한 목표 설정과 치료효과를 평가하는데 도움이 된다. 뿐만 아니라 정형외과와 신경과 쪽에서 의뢰받은 환자들의 운동기능 진단 및 치료 효과 평가에도 유용하다”고 설명했다. <br/> <br/> 김 교수는 뇌졸중 후유장애, 하지절단, 척수손상, 족부(足部)변형 환자의 보행기능 개선 및 근·골격 통증 완화를 위한 운동기능 재활치료, 열전기치료, 도수치료, 전기자극 치료, 보조기 사용 훈련 등에 3D동작분석을 다각도로 적용해 효과를 보고 있다. <br/> <br/>정신적 상처까지 보듬는 전인치료 구현 <br/> <br/> 재활의학은 뇌성마비 환자에게도 필수적이다. 성장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발달장애를 최소화하고,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유지하는데 꼭 필요하다. 재활치료를 통해 뇌성마비 아동의 성장을 촉진시키고 인지와 언어기능을 향상시키며, 관절 움직임 제한 및 근·골격 합병증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br/> <br/> 이들을 위한 발달장애클리닉과 뇌졸중클리닉을 동시에 담당하는 양승남 교수는 “<span class='quot0'>뇌성마비 환자들에게 자립심과 자존감을 고취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 재활치료</span>”라고 강조했다. <br/> <br/> 뇌졸중 후유증 등으로 반신마비를 갖게 된 성인의 경우도 마찬가지. 뇌의 일부분이 손상된 뇌졸중, 외상성 뇌손상, 뇌종양 환자들도 체계적인 재활치료를 통해 운동기능 장애, 감각 이상, 사지마비, 인지장애, 언어장애, 삼킴 장애 등과 같은 후유증을 극복할 수 있게 된다. <br/> <br/> 도수치료실, 작업치료실, 언어치료실, 소아재활치료실 등은 이를 실현하기 위한 공간이다. 양 교수는 일대일(1:1) 집중치료 프로그램을 통해 각 환자를 이해하고 신체 손상은 물론 정신적 상처까지 보듬어주는 전인치료를 위해 매진하고 있다. <br/> <br/>타과 교수들과도 긴밀한 협진 체제 구축 <br/> <br/> 고려대구로병원은 진단 및 치료 효과를 높이기 위해 여러 진료과 교수들이 협력하는 다학제 협진 체제가 공고하기로 유명하다. 재활의학과 역시 예외가 아니다. 교수진과 물리·작업·운동·언어치료사, 간호사로 이루어진 재활치료팀은 환자에게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정형외과 신경과 소아청소년과 종양내과 등 각과 의료진과 주기적으로 협진 회의를 갖는다. <br/> <br/> 특히 암 재활클리닉을 이끄는 박동윤 교수는 “<span class='quot1'>암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재활 치료는 암 환자들의 통증을 완화시키고 암 진단 후 시작된 우울증이나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데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날로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span>”고 강조했다. <br/> <br/> 유방암 수술 후 발생하는 림프부종 해결에도 재활치료가 필요하다. 림프부종은 팔이 심하게 붓는 증상이다. 림프마사지를 통해 이를 예방하고 개선해주는 치료가 암 재활클리닉에서 이뤄진다. <br/> <br/> 한편 강석 교수는 의공학과와 융합연구를 통해 척수손상 환자들의 신경인성 방광으로 인한 배뇨장애 관리에 이로운 자동배뇨시스템과 뇌신경손상 환자들의 상지(팔)경직 해결에 도움을 주는 로봇 운동 치료기를 각각 개발, 상용화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또 퇴행성 근·골격 질환 치료에 효과가 있는 신약개발연구도 주도하고 있다. <br/> <br/>이기수 의학전문기자 kslee@kmib.co.kr

언론사: 국민일보-4-696.txt

제목: [헬스 파일] 출산 경험 없는 여성 ‘난소암 요주의’  
날짜: 20170228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228191155001  
ID: 01100201.20170228191155001  
카테고리: 사회>여성  
본문: 난소암은 결혼을 하지 않는 올드미스와 결혼을 하더라도 자녀를 갖지 않는 딩크족(Double Income, No Kids) 여성과 관련이 많아 더더욱 주의가 필요한 암이다. <br/> <br/> 난소암은 사망률이 47% 이상에 이르는 여성 암이다. 흔히 소리 없는 살인자로 통하는 간암이나 췌장암, 폐암 못잖게 치명적이다. 발암 초기 자각증상이 거의 없고 효과적인 진단법도 없어서 조기 발견이 쉽지 않아서다. 이상 증상을 느껴 병원을 찾았을 때는 70%가 3기 이상 진행된 상태다. <br/> <br/> 보고에 의하면 난소암의 10%는 유전적 가족력이 발견된다. 특히 BRCA유전자 돌연변이가 있는 여성은 정상 유전체를 가진 여성들보다 난소암에 걸릴 위험도가 10배 이상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본인이나 가족이 유방암 또는 자궁내막암을 경험한 경우도 마찬가지다. 유방암이 생기면 난소암이 생길 가능성이 2배가량 높아지고, 난소암이 있으면 유방암이 생길 가능성이 3∼4배 높아진다. <br/> <br/> 그러나 대부분의 난소암은 이런 가족력과 별 상관이 없다. 고령, 출산 경험이 없거나 첫 출산을 30세 이후에 늦게 한 여성, 초경이 빠르거나 폐경이 늦은 여성, 불임 여성 등이 고(高)위험군으로 꼽힐 뿐이다. <br/> <br/> 영국 옥스퍼드대학 암 역학연구실 자료에 따르면 자녀를 하나 둔 여성은 자녀를 한 명도 출산한 적이 없는 여성에 비해 난소암 위험이 20% 정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출산횟수가 한 번이면 출산경험이 전혀 없는 여성보다 약 10%, 출산횟수가 3번이면 50%나 난소암 발병 위험이 줄어든다는 보고도 있다. <br/> <br/> 그런가 하면 출산 후 모유수유를 하는 것도 배란 횟수를 줄여 난소암 발생 위험을 낮춘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이는 임신뿐만 아니라 모유 수유가 배란을 지연시켜 난소의 여성호르몬 에스트로겐 노출 기회를 줄여주기 때문이다. <br/> <br/> 따라서 난소암을 피하려면 고위험군에 들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특히 가임기 여성의 경우 경구피임약 복용을 통해 배란을 억제하거나 6개월에 한번씩 초음파검사와 혈액검사(종양 표지자 CA125 수치 측정)를 통해 암의 싹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 <br/> <br/>글=이은주 중앙대병원 산부인과교수, 삽화=공희정 기자

언론사: 국민일보-4-697.txt

제목: ‘필그림 수양관’ 세워 은퇴 목사·선교사 섬긴다  
날짜: 2017022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227000855002  
ID: 01100201.20170227000855002  
카테고리: 문화>종교  
본문: 강원도 삼척 큰빛교회 김성태(49) 목사는 주목받는 차세대 목회자다. 16년 전 단 두 명의 교인과 함께 전도의 불씨를 살려 1500명으로 부흥시키며 이 지역 최대교회로 만들었다. 단순히 수적 성장만이 아니다. 안을 살펴보면 체계적인 양육시스템을 통해 내적 성장을 이룬 결과라는데 주목하게 된다. <br/> <br/> 김 목사는 25일 국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span class='quot0'>인구 7만의 삼척은 이동과 유입이 잦고 연간 300여명의 신생아가 태어나는 저출산의 도시로 교회 부흥이 잘 되지 않을 것 같은 지역</span>”이라며 “<span class='quot0'>하지만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말씀에 순종했더니 여기까지 온 것 같다</span>”고 말했다. <br/> <br/> 목회 초기, 그에게 잊을 수 없는 사연이 있다. 술독에 빠진 한 사람이 교회를 찾았다. 하지만 바쁘다며 만나지 않았고 그 사람은 거리에서 방황하다 사망하고 말았다. 한 영혼을 돌보지 못한 자책감이 컸다. 그것이 그의 목회 전환점이 됐다. “눈물로 회개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사람은 만나자, 초심을 잃지 말자고 다짐했습니다.” <br/> <br/> 이후 그는 늘 이웃과 함께한다. 교인의 이름을 달달 외웠다. 몸이 불편한 교인의 병실을 지키며 하얗게 밤을 샜다. 학비가 없는 학생에겐 주머닛돈을 털었다. 나태한 교인을 하나님 말씀으로 엄히 꾸짖고 때론 부둥켜안고 통곡했다. <br/> <br/> 김 목사의 이런 헌신적인 모습에 교인들의 나눔 동참이 이어졌다. 교인들은 독거노인이나 장애인시설을 찾아 봉사활동을 벌이고 있다. 교인 중 한명이 암으로 쓰러졌을 때 교인 100명이 모여 철야기도회를 열었다. 여성교인들은 매주 집밥이 그리운 대학생들에게 따뜻한 밥을 지어주고 있다. <br/> <br/> 큰빛교회는 새 교회당을 건축하기 위해 모은 헌금을 필리핀 교회 개척에 썼다. “<span class='quot1'>너희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span>”는 예수님의 지상명령에 따라 복음을 전하는 것이 기독교인의 권리이자 의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br/> <br/> 최근 숙식동 17개와 예배당, 산책로 등을 갖춘 ‘필그림 수양관’을 개관했다. 마땅한 거처가 없는 해외선교사와 은퇴·원로목사에게 장·단기 숙식을 정성껏 제공하기 위해서다. <br/> <br/> 교회 비전은 ‘선교하며 일꾼을 기르는 교회’이다. 24시간 문을 개방하고 있기 때문에 갈 곳 없고 지친 이들이 마음 편히 쉬는 일도 종종 발견할 수 있다. <br/> <br/> 김 목사가 최근 펴낸 ‘교회의 심장이 다시 뛴다’(물맷돌)는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전도와 양육을 키워드로, 20여년 목회를 정리했다. 이 책은 순수함을 잃어가는 한국교회에 교회의 본질은 무엇인지, 바람직한 목회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br/> <br/> 김 목사는 이밖에 다니엘스쿨 필리핀 교육법인(GLDC)을 설립, 이사장으로 섬기고 있다. 감리교속회연구원과 웨슬리휄로우 상임이사, 월드휴먼브리지 삼척본부 대표를 지냈고 저서로 ‘불신자들도 찾아오는 교회’ 등이 있다. <br/> <br/>유영대 기자 ydyoo@kmib.co.kr

언론사: 국민일보-4-698.txt

제목: 두 명 교인을 1500명으로… 삼척 큰빛교회 김성태 목사  
날짜: 20170226  
기자: 유영대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226114244001  
ID: 01100201.20170226114244001  
카테고리: 지역>강원  
본문: 강원도 삼척 큰빛교회 김성태(49)목사는 주목받는 차세대 목회자다.  <br/> <br/>16년 전 단 두 명의 교인과 함께 전도의 불씨를 살려 1500명으로 부흥시키며 이 지역 최대교회로 만들었다.  <br/> <br/>단순히 수적 성장만이 아니다. 안을 살펴보면 체계적인 양육시스템을 통해 내적 성장을 이룬 결과라는데 주목하게 된다. <br/> <br/> <br/> <br/>김 목사는 25일 국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span class='quot0'>인구 7만의 삼척은 이동과 유입이 잦고 연간 300여명의 신생아가 태어나는 저출산의 도시로 교회 부흥이 잘 되지 않을 것 같은 지역</span>”이라며 “<span class='quot0'>하지만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말씀에 순종했더니 여기까지 온 것 같다</span>”고 말했다. <br/> <br/>목회 초기, 그에게 잊을 수 없는 사연이 있다. 술독에 빠진 한 사람이 교회를 찾았다. 하지만 바쁘다며 만나지 않았고 그 사람은 거리에서 방황하다 사망하고 말았다. 한 영혼을 돌보지 못한 자책감이 컸다. 그것이 그의 목회 전환점이 됐다.  <br/> <br/>“눈물로 회개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사람은 만나자, 초심을 잃지 말자고 다짐했습니다.” <br/> <br/>이후 그는 늘 이웃과 함께한다. 교인의 이름을 달달 외웠다. 몸이 불편한 교인의 병실을 지키며 하얗게 밤을 샜다. 학비가 없는 학생에겐 주머닛돈을 털었다. 나태한 교인을 하나님 말씀으로 엄히 꾸짖고 때론 부둥켜안고 통곡했다. <br/> <br/> <br/> <br/>김 목사의 이런 헌신적인 모습에 교인들의 나눔 동참이 이어졌다. 교인들은 독거노인이나 장애인시설을 찾아 봉사활동을 벌이고 있다. 교인 중 한명이 암으로 쓰러졌을 때 교인 100명이 모여 철야기도회를 열었다. 여성교인들은 매주 집 밥이 그리운 대학생들에게 따뜻한 밥을 지어주고 있다. <br/> <br/>큰빛교회는 새 교회당을 건축하기 위해 모은 헌금을 필리핀 교회 개척에 썼다. “<span class='quot1'>너희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span>”는 예수님의 지상명령에 따라 복음을 전하는 것이 기독교인의 권리이자 의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br/> <br/>최근 숙식동 17개와 예배당, 산책로 등을 갖춘 ‘필그림 수양관’을 개관했다. 마땅한 거처가 없는 해외선교사와 은퇴·원로목사에게 장·단기 숙식을 정성껏 제공하기 위해서다. <br/> <br/>교회 비전은 ‘선교하며 일꾼을 기르는 교회’이다. 24시간 문을 개방하고 있기 때문에 갈 곳 없고 지친 이들이 마음 편히 쉬는 일도 종종 발견할 수 있다. <br/> <br/> <br/>김 목사가 최근 펴낸 ‘교회의 심장이 다시 뛴다’(물맷돌)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다. 전도와 양육을 키워드로, 20여년 목회를 정리했다. 이 책은 순수함을 잃어가는 한국교회에 교회의 본질은 무엇인지, 바람직한 목회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br/> <br/>김 목사는 이밖에 다니엘스쿨 필리핀 교육법인(GLDC)을 설립, 이사장으로 섬기고 있다. 감리교속회연구원과 웨슬리휄로우 상임이사, 월드휴먼브리지 삼척본부 대표를 지냈고 저서로 ‘불신자들도 찾아오는 교회’ 등이 있다. <br/> <br/>유영대 기자 ydyoo@kmib.co.kr

언론사: 국민일보-4-699.txt

제목: 올바른 당뇨 관리법, 식생활습관 조절하고 프로바이오틱 유산균 챙겨야  
날짜: 20170224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224172544001  
ID: 01100201.20170224172544001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최근 식생활의 서구화로 현대인의 지방 섭취가 늘어난 반면 운동량은 점차 줄어들면서, 후천적 요인이 큰 제2형 당뇨병의 발생이 증가하고 있다. 당뇨병은 한국인 주요 사망원인 1~3위에 해당하는 암, 심·뇌혈관 질환과 가장 밀접하게 관련된 원인 질환으로, 평생 잘 관리해야만 건강을 유지하고 다른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다. <br/> <br/>당뇨병은 대표적인 생활습관병인 만큼 증상 완화 및 예방을 위해선 식생활습관 개선이 중요하다. 당분 함유량이 높은 빵, 아이스크림, 사탕 등은 혈당 수치를 급격하게 올릴 수 있으므로 가능한 섭취를 줄이고, 포화지방이 많은 가공육이나 튀긴 음식도 피해야 한다. 대신 섬유소가 풍부한 식사를 하는 것이 좋으며 매일 30분 정도 꾸준히 운동을 해주는 것도 도움이 된다. <br/> <br/>또한 작년 '유럽 영양학회지'에 게재된 한 연구논문에 따르면,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을 복용하는 것도 당뇨병 개선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br/> <br/>말레이시아 셀랑고르 대학교 영양학과 피로우지(Firouzi) 교수팀은 30~70세의 제2형 당뇨병 환자 136명을 두 그룹으로 나눠 한 그룹에는 프로바이오틱스를, 나머지 한 그룹에는 위약을 12주 동안 투여했다. 그 결과 대조군의 경우 공복 인슐린 수치가 1.8 μU/mL 증가한 반면 프로바이오틱 유산균 그룹은 2.9 μU/mL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br/> <br/>따라서 당뇨병 환자의 경우 식생활습관 조절과 더불어 프로바이오틱 유산균을 복용해 혈당 관리에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이때 보다 건강한 섭취를 위해선 인체에 유해한 화학첨가물이 일절 들어가지 않은 무첨가 유산균을 고를 것을 권장한다. <br/> <br/>시판되는 대부분의 프로바이오틱 유산균에는 식품의 맛과 향을 살리는 합성착향료·감미료와 생산 편의를 위해 사용되는 보존료의 일종인 이산화규소, 스테아린산마그네슘 등이 흔히 쓰인다. 이들 첨가물의 경우 장기간 복합적으로 섭취 시 인체에 어떤 부작용이 나타날지 알려진 바 없으므로 되도록 섭취하지 않는 것이 안전하다. <br/> <br/>이에 최근 첨가물을 넣지 않은 건강한 유산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대표적인 무첨가 유산균 브랜드로는 ㈜프로스랩이 있다. <br/> <br/>프로스랩의 전 제품은 합성감미료·합성착향료·합성보존료 등의 화학성분이 일절 들어가지 않는 100% 순수 유산균으로, 유해성 걱정 없이 안심하고 섭취할 수 있다. <br/> <br/>또한 ‘이노바 쉴드’라는 자체 코팅기술을 적용해 유산균이 장까지 살아서 도달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이노바 쉴드는 동결 건조된 유산균을 지질과 칼슘으로 감싼 후 그 위를 다시 소화효소로 덮은 구조로, 균들의 장내 생존율을 높인 것은 물론 소화효소 첨가로 인해 소화력도 상승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br/> <br/>프로스랩 관계자는 “<span class='quot0'>한국인의 체질에 딱 맞는 김치유산균 ‘락토바실러스 플란타룸(CLP0611)’을 주요 균주로 활용하고 있다는 것도 특장점</span>”이라며 “<span class='quot0'>김치유산균은 동물성 수입 유산균에 비해 내산성·내담즙성이 강해, 서양인보다 긴 한국인의 장에서도 우수한 생존력을 발휘할 수 있다</span>”고 전했다. <br/> <br/>콘텐츠팀 이세연 lovok@kmib.co.kr

언론사: 국민일보-4-700.txt

제목: '위내시경 vs 위장 촬영술'…암 발견 어떤게 더 나을까?  
날짜: 20170224  
기자: 민태원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224135844001  
ID: 01100201.20170224135844001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위내시경 vs 위장조영 촬영술'  <br/>어느 것이 위암을 더 잘 찾아내고 암 사망률을 낮출까. 최근 여러 연구에서 위내시경 검사가 위암 발견율은 물론 사망률 감소에도 더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br/> <br/> 우리나라는 2년 주기로 40세 이상 남녀에게 위암 검진을 제공하고 있다. 대상자는 위내시경 또는 위장조영 촬영술 중 한 가지를 택해 검사받을 수 있다. 국가암검진 사업이 처음 도입된 2002년에는 위내시경을 택한 수검자들을 31%에 불과했다. 하지만 2011년에는 73%까지 늘었다. <br/>  <br/> 국립암센터는 2004년부터 2009년까지 위암을 진단받은 1658만 여명을 추적 조사했다. 그 결과 위내시경 검사를 받았던 환자는 약 47% 위암 사망률 감소가 있었지만 위장조영 촬영술을 받았던 환자는 감소가 거의 없었다.  <br/> 특히 정기적으로 위내시경 검사를 받을수록 사망률 감소 폭이 컸다(1회 실시: 37%, 2회 실시 68%, 3회 이상 실시 : 74% 사망률 감소). <br/> <br/> 차재명 강동경희대병원 소화기내과 교수는 24일 “<span class='quot0'>국가암검진 사업 초기에는 두 검사 모두 위암을 진단하는데 정확할 것이라 기대했었지만, 최근 국립암센터에서 발표한 연구결과는 그렇지 않았다</span>”며 “<span class='quot0'>연구 결과에 따르면 위장조영 촬영술의 위암 발견율이 36.7%에 그쳤던 반면, 위내시경은 69%로 약 두 배에 가까운 차이를 보였다</span>”고 말했다. <br/> <br/> 이어 “하지만 위내시경은 숙련된 의사에게 받아야 안전하고 정확한 검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조기위암을 놓치지 않을 수 있다. 그리고 비수면이 힘들었다면 시간을 조금 더 할애해 수면내시경(진정내시경)으로 받을 것을 권장한다”고 덧붙였다. <br/> <br/>민태원 기자 twmin@kmib.co.kr

언론사: 국민일보-4-701.txt

제목: 교보생명, 보장↑ 보험료↓… 중대질병 평생 보장  
날짜: 20170224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224183555002  
ID: 01100201.20170224183555002  
카테고리: 경제>금융\_재테크  
본문: 교보생명의 ‘교보프리미어CI보험’은 보장은 늘리면서 보험료를 대폭 낮췄다. 교보프리미어CI보험은 사망 보장은 물론 암, 뇌졸중, 급성심근경색 등 중대한 질병(CI)과 중증치매 등 장기 간병이 필요한 경우를 평생 보장해준다. 보장 범위가 기존 상품보다 넓어졌다. 중증세균성수막염, 루게릭병, 다발경화증 등을 새롭게 CI에 추가했다. 기존에 보장을 받지 못했던 갑상선암도 예후가 안 좋으면 중대 갑상선암으로 분류해 보상 범위에 포함시켰다. 기존 CI보험의 보장공백을 최소화하는 소액보장도 확대했다. 뇌출혈, 뇌경색증 같이 CI 이전 단계 질환이나 CI와 연관성이 높은 중증질환 9종도 최대 1000만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또한 보험료를 내렸다. 해지환급금을 미리 확정된 예정이율로 보증해주지 않는 대신 공시이율로 적립해 보험료를 10∼20% 낮췄다. 이 상품은 만 15세부터 60세까지 가입할 수 있다. 1억원이상 가입하면 금액에 따라 2.5∼3.5%의 보험료 할인혜택을 받는다.

언론사: 국민일보-4-702.txt

제목: “고기 많이 먹으면 대장암 씨앗 선종 키운다”  
날짜: 20170222  
기자: 이기수 의학전문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222145744001  
ID: 01100201.20170222145744001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포화지방을 많이 섭취하면 대장암의 씨앗인 선종 발생 위험이 1.7배나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br/> <br/> 서울대학교병원은 강남센터 소화기내과 김영선(사진), 가정의학과 오승원 교수 연구팀이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은 2604명의 우리나라 성인을 대상으로 식생활을 분석하여 지방 섭취와 대장 용종 간의 관련성에 대해 연구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22일 밝혔다. <br/> <br/> 대장 선종은 대장에 생기는 혹인 대장 용종 중에서 암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는 조직 소견을 가진 용종으로, 흔히 대장암의 씨앗으로 통한다. <br/> <br/> 연구 결과 섭취하는 지방의 종류를 나누었을 때 포화지방을 많이 섭취하는 남성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대장 선종 발생의 위험성이 1.7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대상을 포화지방 섭취량에 따라 5개 군으로 나누었을 때 가장 낮은 섭취군과 가장 높은 섭취군을 비교한 결과다. <br/> <br/> 반면 지방의 종류를 나누지 않고 분석했을 때는 유의한 관련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단순히 지방을 얼마나 섭취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종류의 지방을 섭취하느냐가 더 중요한 문제라는 뜻이다. <br/> <br/> 김영선 교수는 “<span class='quot0'>서양 사람들에 비해 지방 섭취 총량이 적은 한국인의 경우에도 포화지방을 과하게 섭취한다면 대장암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음이 확인됐다</span>”고 말했다. <br/> <br/> 연구결과는 국제 학술지 ‘메디신(Medicine)’ 최근호에 게재됐다. <br/> <br/>▶[영상] 심석희, 억울한 노메달… 中 판커신에 무릎 잡히고 실격 <br/>▶[단독] 현대차, 車에 ‘가전용 반도체’ 오작동 원인 가능성 <br/>▶김한솔, 얼굴 가린채 극비 입국…병원 영안실서 시신 확인 <br/>▶[대선주자 검증 리포트-문재인] 변호사 시절 아파트 사전분양 받았다 <br/>▶손석희 집요한 질문에 안희정 "제 말이 어렵습니까?" (영상) <br/>▶우병우 '법대 후배' 오민석 판사, 15시간 고심 끝 '기각' <br/>▶"씻지 않고 잔다"며 어머니 때려 숨지게 한 30대 아들 <br/>▶전여옥 "요즘 청와대는 따뜻한 봄" 의미심장한 글 <br/>▶"갑자기 달려들어, 장난 아니다"… 김정남 암살 CCTV 영상 공개 <br/> <br/>이기수 의학전문기자 kslee@kmib.co.kr

언론사: 국민일보-4-703.txt

제목: 고지방 다이어트? 무턱대고 지방섭취 늘리다간 대장암 화(禍) 부른다  
날짜: 20170222  
기자: 민태원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222120644001  
ID: 01100201.20170222120644001  
카테고리: 사회>사회일반  
본문: 포화 지방을 많이 섭취하는 것이 대장암의 씨앗인 선종 발생의 위험을 1.7배 높인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br/>  <br/>서울대병원 강남센터 소화기내과 김영선 교수, 가정의학과 오승원 교수,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김지현 전문의 연구팀은 대장 내시경 검사를 받은 성인 2604명을 대상으로 식생활을 분석해 지방 섭취와 대장 용종간의 관련성에 대해 연구했다. <br/> <br/> 그 결과, 섭취하는 지방의 종류를 나누었을 때 포화지방을 많이 섭취하는 남성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대장 선종 발생 위험성이 1.7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22일 밝혔다. <br/> <br/> 연구대상을 포화지방 섭취량에 따라 5개군으로 나누었을 때 가장 낮은 섭취군과 가장 높은 섭취군을 비교한 결과다. 반면 지방의 종류를 나누지 않고 분석했을 때는 유의한 관련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단순히 지방을 얼마나 섭취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종류의 지방을 섭취하느냐가 더 중요한 문제라는 뜻이다. <br/> <br/> 국내 암 통계에 따르면 대장암은 우리나라에서 3번째로 많이 발생하고 있다. 다른 암들에 비해 발생률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그 원인으로는 식습관의 변화가 첫 번째로 꼽힌다.  <br/> 전통적인 한국 식단의 경우 지방이 차지하는 비율이 서구 식단에 비해 낮지만 최근 식습관이 서구화되면서 한국인의 지방 섭취량이 꾸준히 늘고 있는 추세다. <br/> <br/> 대장 선종은 대장에 생기는 혹인 대장 용종 중에서 암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는 조직 소견을 가진 용종으로 대장암의 씨앗이라고도 알려져 있다. <br/> <br/> 김영선 교수는 “<span class='quot0'>서양 사람들에 비해 지방 섭취 총량이 적은 한국인의 경우에도 포화지방을 과하게 섭취한다면 대장암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음이 확인됐다</span>”고 말했다. <br/> <br/> 또 오승원 교수는 “<span class='quot1'>최근 고지방 다이어트가 유행하고 있는데, 단기적인 체중 감량의 효과는 있을 수 있지만 무턱대고 지방 섭취를 늘리는 것은 장기적으로 대장암이나 심혈관질환 등의 위험을 높일 수 있다</span>”고 말하고 “<span class='quot1'>특히 대장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에 좋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 포화지방을 과하게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span>”고 강조했다. <br/> <br/> 연구결과는 국제 학술지인 ‘Medicine’ 최근호에 게재됐다. <br/> <br/>▶[영상] 심석희, 억울한 노메달… 中 판커신에 무릎 잡히고 실격 <br/>▶[단독] 현대차, 車에 ‘가전용 반도체’ 오작동 원인 가능성 <br/>▶김한솔, 얼굴 가린채 극비 입국…병원 영안실서 시신 확인 <br/>▶[대선주자 검증 리포트-문재인] 변호사 시절 아파트 사전분양 받았다 <br/>▶손석희 집요한 질문에 안희정 "제 말이 어렵습니까?" (영상) <br/>▶우병우 '법대 후배' 오민석 판사, 15시간 고심 끝 '기각' <br/>▶"씻지 않고 잔다"며 어머니 때려 숨지게 한 30대 아들 <br/>▶전여옥 "요즘 청와대는 따뜻한 봄" 의미심장한 글 <br/>▶"갑자기 달려들어, 장난 아니다"… 김정남 암살 CCTV 영상 공개 <br/> <br/>민태원 기자 twmin@kmib.co.kr

언론사: 국민일보-4-704.txt

제목: 중증질환자·저소득층 경제파탄 막는다  
날짜: 20170222  
기자: 민태원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222212155002  
ID: 01100201.20170222212155002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만성 콩팥병을 앓아온 이모(58·여)씨는 지난해 2월 콩팥(신장) 이식을 받았다. 하지만 두 달간 입원 및 수술비로 나온 2140여만원을 당장 감당키 어려웠다. 100만원 남짓한 월급으로 고령의 모친과 실직한 남편, 자녀를 부양하던 터라 엄청난 의료비는 재난이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건강보험공단 문을 두드렸다. 이씨는 ‘중증질환 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 기준에 해당됐고 두 차례에 걸쳐 절반가량인 1068만여원을 지원받아 가계 파탄 위기를 넘겼다. <br/> <br/>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이 과도한 의료비로 신음하는 중증 질환자와 저소득층의 짐을 덜어주고 있다. 정부는 내년부터 모든 고액 입원 질환자로 대상을 확대해 제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br/> <br/> 현재는 특정 질환(암 심·뇌혈관 희귀난치병 등 4대 중증질환 및 중증 화상)과 특정 소득계층(의료급여, 차상위, 중위소득 120% 이하)에 한시적으로 시행 중이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비를 포함해 본인 부담 의료비의 50%가량을 지원하며 횟수 제한 없이 최대 2000만원까지 가능하다. <br/> <br/>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 임승지 박사는 21일 공개한 연구보고서에서 2013년 8월∼2015년 3만9252명 대상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이 건강보험 확대에도 비급여 의료의 지속적 증가로 해결이 어려운 고비용 의료 부담 사각지대 해소에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연구진이 2014년 지원자 1만6231명을 분석한 결과 중증질환 보장률이 사업 전 73.2%에서 사업 후 82.2%로 9% 포인트 늘었다. 연간 지원 대상자는 전체 중증 질환자(445만명)의 0.4%에 불과하지만 중증질환 보장률 증가에 영향을 미쳤음을 보여준다. <br/> <br/> 의료비 부담률은 사업 전 연소득의 101.2%(연간 소득보다 많이 부담)에서 사업 후 절반 수준인 53.5%로 뚝 떨어졌다. 본인 부담금이 연소득의 40%를 넘는 재난적 의료비 경험 가구 비율도 68.9%에서 38.3%로 30.6% 포인트(4967가구) 줄었다. 임 박사는 “<span class='quot0'>하지만 가구원 수가 많은 고소득 건보가입자는 지원 대상에 포함되고 가구원 수가 적은 저소득 건보 가입자는 제외되는 등 현행 중위소득 기준은 논란의 여지가 있고 특정질환 불형평성 문제도 제기돼 개선이 필요하다</span>”고 설명했다. <br/> <br/> 이에 따라 ‘중위소득 120% 이하’ 기준을 보편적 취지에 맞게 전 국민에게 적용하고 지원 대상도 중증질환뿐 아니라 모든 고액 입원 질환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지원 자격도 정액 기준에서 의료급여 차상위 계층은 입원(요양병원 제외) 건당 본인부담금 100만원 초과 시 지원, 건보 가입자는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화 적용하는 방안이 대책으로 제시됐다. 전 국민 대상 전체 고액 입원 질환으로 넓히면 의료급여, 차상위, 건보가입자 등 16만2832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2836억원의 재정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산됐다. <br/> <br/> 복지부 이창준 보험정책과장은 “건강보험 재정 일부, 제약사 기부금, 복권기금, 건강증진기금 등을 활용한 다양한 재원 마련 방식을 검토 중이다. 건강보험 소득 하위 50%부터 단계 지원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면서 “하반기 특별법 제정을 목표로 3월쯤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br/> <br/>▶[영상] 심석희, 억울한 노메달… 中 판커신에 무릎 잡히고 실격 <br/>▶[단독] 현대차, 車에 ‘가전용 반도체’ 오작동 원인 가능성 <br/>▶김한솔, 얼굴 가린채 극비 입국…병원 영안실서 시신 확인 <br/>▶[대선주자 검증 리포트-문재인] 변호사 시절 아파트 사전분양 받았다 <br/>▶손석희 집요한 질문에 안희정 "제 말이 어렵습니까?" (영상) <br/>▶우병우 '법대 후배' 오민석 판사, 15시간 고심 끝 '기각' <br/>▶"씻지 않고 잔다"며 어머니 때려 숨지게 한 30대 아들 <br/>▶전여옥 "요즘 청와대는 따뜻한 봄" 의미심장한 글 <br/>▶"갑자기 달려들어, 장난 아니다"… 김정남 암살 CCTV 영상 공개 <br/> <br/>민태원 기자 twmin@kmib.co.kr, 그래픽=전진이 기자

언론사: 국민일보-4-705.txt

제목: 갑상선암 조기진단은 갑상선 초음파와 세침흡인검사로 확진  
날짜: 2017022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221133444001  
ID: 01100201.20170221133444001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갑상선암이 2000년대에 들어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2005년부터 유방암을 제치고 여성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암이 되었다. 엄정화, 변정수, 오윤아 등 우리가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여자연예인들이 갑상선암으로 인해 수술을 받았다는 사실을 방송과 기사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기도 하다. <br/> <br/>갑상선은 목 앞부분에 나비 모양으로 자리잡은 기관으로 우리 몸에 필요한 갑상선호르몬을 만들어 낸다. 갑상선호르몬은 인체의 대사과정에 관여하며 우리 몸 전체 기관들이 갑상선호르몬의 영향을 받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갑상선암은 통증과 같은 증상이 없기 때문에 검사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다행인 것은 갑상선암은 암 중에서도 예후가 좋은 암으로 조기에 발견한다면 대부분 완치될 정도로 완치율이 높다. 하지만 갑상선암도 명백한 암이기 때문에 안심할 수만은 없다. 갑상선암 역시 다른 암과 마찬가지로 암이 다른 곳으로 전이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기진단을 통해 조기에 치료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갑상선암의 선별검사는 갑상선 초음파 검사이고, 확진은 세침흡인검사를 통해 이루어진다. 이 검사는 가느다란 주사기 바늘을 이용하여 갑상선 결절에서 세포들을 흡인해 현미경으로 암세포를 확인함으로써 갑상선암을 진단하는 방법이다. <br/> <br/>갑상선암이 주로 발생하는 환자군의 경우 주의가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갑상선암 환자는 남성과 여성의 비율이 1:5나 1:6 정도로 여성 환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다. 또, 가족력의 영향을 받는 질환으로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환자 10명 중 1명가량은 가족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갑상선 유두암에서만 나타나는 특이한 유전자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유전자가 60~80%의 확률로 발견된다. 가족력이 있는 사람들의 경우 평소 초음파 검사를 통한 조기진단이 매우 중요할 것이다. <br/> <br/>일산 연세청담항외과에서는 갑상선 초음파과 세침흡인검사를 통해 갑상선암 조기진단을 하고 있다. 갑상선 초음파 검사로 혹이 있는지 검사한 후 혹이 발견되었다면 그 혹이 암은 아닌지 세침흡인검사를 통해 확진할 수 있다. <br/> <br/>정기적인 검진을 통해서 병을 조기진단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발병하기 전에 예방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갑상선암은 서구화한 식습관과 음주, 흡연 스트레스 등이 영향을 끼친다고 알려져 있으므로 건강한 식생활습관을 통해 스스로 건강을 지키는 노력을 해야한다. <br/> <br/>콘텐츠팀 이세연 lovok@kmib.co.kr

언론사: 국민일보-4-706.txt

제목: [& And 건강] ‘페이스 오브’도 멀잖았다  
날짜: 20170221  
기자: 민태원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221050055001  
ID: 01100201.20170221050055001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이미지를 크게 보려면 국민일보 홈페이지에서 여기를 클릭 <br/> <br/>하세요 <br/> <br/>1년 6개월 전 사고로 왼쪽 팔을 잃고 장애의 고통을 겪어온 32세 남성이 40대 남성 뇌사자로부터 새 팔을 얻었다. 대구 W병원과 영남대병원 의료진은 두 사람의 팔 혈관과 근육 뼈 신경을 정교하게 연결하는 데 성공했다. 수술 20여일을 넘긴 환자는 손가락을 조금씩 움직이는 등 건강을 회복하고 있다. 다만 염려했던 초기 (급성)면역거부 반응이 나타나 최종 성공 여부는 더 지켜봐야 한다는 게 의료진 설명이다. <br/> <br/> 지난 2일 국내에서 최초의 팔 이식 수술이 이뤄지면서 현행 장기 이식법상 이식 대상 장기에 포함돼 있지않은 수부(손·팔·어깨), 안면(얼굴) 등 ‘복합조직 이식’에 대한 관심이 높다. <br/> <br/> 이번 팔 이식으로 우리나라도 늦었지만 고난도 기술이 요구되는 팔 이식 가능 국가로서 면모를 갖추게 됐다. 비슷한 처지의 팔·손 결손 환자들이 평생 장애의 굴레에서 벗어날 희망의 신호탄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를 계기로 복합조직 이식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이 뒷받침되면 국내 첫 안면 이식도 2∼3년내 가능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br/> <br/> “<span class='quot0'>팔 이식, 3∼6개월 지켜봐야</span>” <br/> <br/> 대구 달서구에 사는 라모(51)씨는 첫 팔 이식을 안타까운 심정으로 지켜봤다. 라씨는 2년전 직장에서 금속 프레스 작업 도중 오른쪽 다섯손가락을 포함해 손 절반이 잘리는 사고를 당했다. 뭔가를 잡거나 들지 못하고 지퍼를 올릴 수도 없는 등 생활의 불편은 물론 주변의 시선도 감수해야 했다. 그러다 치료받던 W병원으로부터 팔 이식 제안을 받았다. 수지접합 전문인 W병원은 팔 이식 대기자가 200여명에 달한다. “<span class='quot0'>수술해도 평생 면역 억제약을 먹어야 하고 잘못되면 붙인 팔을 다시 떼내야 한다</span>”는 얘기를 들었지만 손 없는 불편한 삶에서 벗어나고픈 마음에 대기자로 등록했다. <br/> <br/> 지난 1일 저녁 병원으로부터 “유가족이 팔 기증에 동의한 뇌사자가 나왔다. 나이 혈액형 신체 크기 등이 맞는데 이식 수술 의향이 있느냐”는 전화 한통을 받았다. 라씨는 “그날밤 한숨도 자지 못했다. 남의 팔이긴 해도 내 것처럼 쓸 수 있다고 하니…”라고 말했다. 하지만 다음날 더 적합한 수혜자(32세 남성)를 찾았다는 병원 측 연락을 받고 좌절했다. 라씨는 “또 기회가 올지 모르겠지만 희망을 버리지 않고 있다”고 했다. <br/> <br/> 라씨처럼 각종 사고와 재해, 화상 등으로 상지절단 장애를 입은 사람들이 잠재적인 팔·손 이식 대상이다. 두 팔을 손목 이상 부위에서 잃거나(1급), 두 손의 모든 손가락을 잃거나 한팔을 팔꿈치 이상 부위에서 잃은(2급) 이들이다. 보건복지부 통계포털에 따르면 2010년 기준 1·2급 상지절단 장애 등록자는 7375명이며 이후 더 증가했을 수 있다. <br/> <br/> 다만 실제 이식 받는 조건은 좀 더 제한적일 수 있다. 기본적으로 뇌사 기증자와 나이대가 비슷하고 성별, 혈액형, 팔의 좌우 위치가 일치해야 한다. 또 너무 어리거나 고령이 아닌 18∼65세가 우선 대상이다. 평생 면역 억제제를 먹어야 하는 만큼 정신적으로 강한 의지를 가져야 한다. <br/> <br/> 팔·손 이식은 간 신장 등 단일 장기와 달리 뼈 신경 혈관 근육 피부 힘줄 같은 여러 조직을 복합적으로 연결해야 한다. 수술에는 수부외과, 정형·성형외과 등 10여개 진료과가 참여해 10시간 이상 진행된다. 1998년 프랑스에서 팔 이식이 처음 성공한 이후 지금까지 전세계 20여개 병원에서 100건 이상 이뤄졌다. 수술 성공의 관건은 급·만성 면역 거부 반응(피부괴사, 감염, 암·당뇨병 발병 등)의 극복에 달려 있는데, 성공률은 90% 이상인 걸로 학계에 보고되고 있다. <br/> <br/> 대한수부외과학회 팔이식 위원장인 은석찬 분당서울대병원 교수는 20일 “<span class='quot1'>수술 후 급성 면역 거부반응은 몇달 간격으로 나타나며 이때 면역 억제제의 용량 조절을 통해 극복 가능하다</span>”면서 “<span class='quot1'>이런 과정을 거치며 어느 정도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면 성공으로 본다</span>”면서 “<span class='quot1'>대개 3∼6개월 지나면 알 수 있다</span>”고 말했다. 면역 거부 반응은 10년이 지나서 발생하기도 한다. <br/> <br/> 은 교수는 “<span class='quot2'>팔을 이식받으면 신발 끈을 묶거나 음식을 먹는 등 웬만한 일상생활을 할 수 있다</span>”면서 “<span class='quot2'>일부 사용되는 의수(인공팔·손)는 너무 무겁고 비싼 데다 아직은 기능 면에서 실제 이식된 팔을 따라가지 못한다</span>”고 했다. <br/> <br/> 안면 이식도 곧 가능 <br/> <br/> 안면 이식은 팔·손 이식보다 훨씬 더 어렵다. 게다가 수부의 경우 면역거부 반응이 생기면 붙인 팔을 떼내면 그만이지만 얼굴의 경우 생명과 직결될 수 있다. <br/> <br/> 실제 2005년 개에게 물리는 사고를 당한 프랑스 여성은 세계 최초의 안면(피부 입술 코 턱) 이식을 받은 뒤 10여년간 ‘제2의 삶’을 살았지만 지난해 면역거부 반응으로 사망했다. 안면 이식은 얼굴 일부 혹은 전면(머리부터 턱까지)을 포함해 지금까지 전세계에서 30여명에게 이뤄졌다. 대상자는 동물 공격이나 총상 외상 화상 희귀유전병 등으로 얼굴이 망가진 이들이다. <br/> <br/> 미국은 전쟁으로 얼굴 총상을 입은 군인의 안면 이식을 위해 대학병원에 연간 500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뇌사자의 얼굴 기증을 받는 ‘제2인생 프로젝트(second life project)’를 진행하고 있기도 하다. <br/> <br/> 국내에서 안면 이식이 이뤄진다면 1∼3급 안면 장애인이 대상이 될 수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2015년 말 기준 1급(안면부 중복 장애), 2급(안면 90% 이상 변형 혹은 60% 변형 및 코 형태 3분의 2 이상 없음), 3급(안면 75% 이상 변형 혹은 50% 이상 변형 및 코 3분의 2 이상 없음) 안면장애 등록 인원은 1422명에 달한다. <br/> <br/> 서울대병원 성형외과 최태현 교수는 “<span class='quot3'>우리나라는 신경섬유종이나 동·정맥 기형 등 얼굴이 망가지는 희귀 질환자들이 대상이 될 수 있을 것</span>”이라면서 “<span class='quot3'>실제 몇년전 10대 후반의 신경섬유종 환자에게 안면 이식을 권유했지만 평생 면역억제제를 먹어야 하는 부담감에 결국 고사했다</span>”고 말했다. <br/> <br/>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성형외과 홍종원 교수는 2010년과 14년 두차례 국내 최초의 ‘안면 이식’을 보건당국에 신의료기술로 신청했지만 불발됐다. 해외 수술 사례가 많지 않은 데다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홍 교수는 “안면 이식은 의학 기술이나 면역 억제 치료 측면에서 이미 완성단계에 와 있다. 법·제도적 개선만 따라주면 이르면 2∼3년내에도 가능하다”고 내다봤다. <br/> <br/> 의료계 일각에선 건강상 위험과 경제적 부담을 감수하면서까지 수술을 권유해야 하는지에 문제 제기가 있다. 또 다른 사람의 외모로 살아야 하는데 따르는 정체성 혼란이나 윤리적 문제도 넘어야 할 과제다. <br/> <br/>▶‘월급 흉년’ ‘세수 풍년’…‘13월 폭탄’ 연말정산 올해도 부글부글 <br/>▶'세월호, 잘죽었다' 어제 대구스타디움 지하도 상황 <br/>▶김평우 전 변협회장 “왜 변론 막냐” 헌재서 고성 <br/>▶“김정남, 2011년 부친 장례식 참석 위해 평양에 갔다 신변 위협 공포 느껴 황급히 빠져나와” <br/>▶"갑자기 달려들어, 2.3초만에"… 김정남 암살 CCTV 영상 공개 <br/>▶진격의 안희정 중도·보수층 지지 흡수… 문재인 8.6%P 차 추격 <br/>▶"2년째 폐암 투병 중이었다" 국민배우 김지영 향년 79세로 별세 <br/>▶김민희 30초짜리 베를린 인터뷰가 또다른 논란이다 <br/> <br/> <br/>민태원 기자 twmin@kmib.co.kr, 그래픽=안지나 기자

언론사: 국민일보-4-707.txt

제목: “우울감 심하면 스트레스 대처 심장능력 약해져”  
날짜: 20170220  
기자: 이기수 의학전문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220111844001  
ID: 01100201.20170220111844001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수술을 앞둔 환자의 스트레스는 마취 직전 최고조에 달하고, 우울감이 심한 경우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심장 기능의 이상까지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br/> <br/>삼성서울병원 마취통증의학과 김명희( <br/>사진) 교수 연구팀은 2013년 당시 간암 수술을 받을 예정이었던 환자 41명을 대상으로 전향적 연구를 진행하여 환자의 우울감이 심박변이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를 규명하는데 성공했다고 20일 밝혔다. <br/> <br/>심박변이도는 신체활동이나 외부자극에 등에 대처하기 위한 우리 몸의 반응 중 하나로, 심장박동이 빨라지거나 느려지는 변화 정도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심박변이도는 변화폭이 크고 불규칙한 게 정상이다. <br/> <br/>연구팀은 심박변이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최소화한 뒤 비슷한 조건을 가진 환자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했다. <br/> <br/>간암 진단 전까지 다른 질병을 앓거나 정신과적 병력이 없었고, 성별과 연령별 차이를 보정하기 위하여 40세 이상 70세 이하 남성 환자만을 택해 심박변이도를 측정했다. <br/> <br/>또 측정시간과 자세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아침 첫 수술을 받는 환자만을 대상으로 하였고, 반듯이 누워있는 상태에서 심박변이도를 재도록 했다. <br/> <br/>측정은 수술하기 전날(T1)과 수술실에서 마취하기 직전(T2), 마취 후 10 ~ 15분이 지났을 때(T3) 등 세 차례에 나눠 진행됐다. <br/> <br/>연구팀에 따르면, 환자들의 스트레스가 가장 극심한 순간은 수술을 받기 바로 직전, 즉 마취를 기다리는 순간인 것으로 나타났다. <br/> <br/>이 시기 환자의 심박변이도는 수술 전날에 비하여 고주파 성분은 하락하고, 저주파 성분은 상승하는 양상을 보였다. <br/> <br/>환자의 불안감과 긴장감이 고조되면서 저주파 성분과 관련 깊은 교감신경은 활성화된 반면, 부교감신경이 억제되며 고주파 성분의 수치가 저하된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마취 이후 진정세를 보이며 마취 전날과 엇비슷한 수준으로 회복됐다. <br/> <br/>뿐만 아니라 마취 직전 환자들의 심박수와 혈압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승세를 나타내 환자들의 스트레스 등 심리적 불안이 가중된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br/> <br/> <br/><도표> 우울감이 높았던 환자 그룹(a)은 낮은 환자 그룹(b)과 달리 모든 측정시점에서 심박변이도의 유의미한 변화가 관찰되지 않았다. 그만큼 우울감이 높은 환자의 경우 스트레스에 대한 심장의 대응 능력이 저하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br/>반면에 이러한 우리 몸의 자연스러운 반응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있다. <br/> <br/>연구팀이 수술 전 환자들의 우울감을 검사(Self-Rating Depression Scale)한 결과, 우울감 척도가 낮았던 환자들(B그룹, 19명)과 달리 우울감이 높았던 환자(A그룹, 22명)들은 수술 전 날과 마취 직전, 마취 이후 측정한 심박변이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br/> <br/>이러한 환자들의 경우 수술과 같이 극단적 상황에서 심장의 대처능력이 떨어진다는 의미로, 심한 경우 수술 중 합병증 발생률이나 사망률을 높이는 위험인자로 작용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br/> <br/>김명희 교수는 “<span class='quot0'>암수술처럼 큰 수술을 앞둔 환자는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데 우울감이 심한 경우 자율신경계 기능부전으로 심장의 대처능력마저 저하될 수 있다</span>”면서 “<span class='quot0'>의료진들이 수술 전 환자의 마음건강까지 살펴야 하는 이유를 알 수 있는 대목</span>”이라고 전했다. <br/> <br/>연구결과는 마취과학 분야 국제 학술지 ‘저널 오브 클리니컬 애너스쎄시아(Journal of Clinical Anesthesia)’ 최근호에 게재됐다. <br/> <br/>▶“김정남, 2011년 부친 장례식 참석 위해 평양에 갔다 신변 위협 황급히 빠져나와” <br/>▶진격의 안희정 중도·보수층 지지 흡수… 문재인 8.6%P 차 추격 <br/>▶"2년째 폐암 투병 중이었다" 국민배우 김지영 향년 79세로 별세 <br/>▶김민희 30초짜리 베를린 인터뷰가 또다른 논란이다 <br/>▶김진태 태극기 vs 김제동 촛불 '춘천 맞불집회' <br/>▶박사모 '9가지 만행' 폭로한 식당 사장 "정신병 걸릴 듯" <br/>▶이규혁 “김동성과 장시호 남녀관계” 증언… 김동성 “막 나불대는구나” <br/> <br/>이기수 의학전문기자 kslee@kmib.co.kr

언론사: 국민일보-4-708.txt

제목: 도봉구 ‘암 건강대학’ 운영  
날짜: 20170220  
기자: 김남중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220211955002  
ID: 01100201.20170220211955002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서울 도봉구보건소가 3월 8일∼29일 4주간 매수 수요일 오전 10시 보건소 7층 대강당에서 ‘암 바로알기 2017년 암 건강대학’을 운영한다. 수강인원은 선착순 70명이다. 5대암(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과 기타암(갑상선암, 폐암, 비뇨기계암 등)에 대한 전반적 이해와 최신정보는 물론 암 관련 식이요법 등을 알려줄 계획이다. 한일병원 소속 전문 의료진 9명이 강의한다. 전 과정 이수 시 마지막 주에 신장초음파 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 <br/> <br/>김남중 기자 njkim@kmib.co.kr

언론사: 국민일보-4-709.txt

제목: [원자력병원 암전문의가 전하는 ‘건강톡’] 자궁경부암 백신접종땐 예방률 70%  
날짜: 20170220  
기자: 이영수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220204455001  
ID: 01100201.20170220204455001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자궁경부암은 자궁의 입구인 자궁경부에 발생하는 악성종양이다.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의하면 2015년 5만5000명 등 매년 5만 명 이상이 자궁경부암으로 진료를 받았다. 진료인원의 대부분은 30세 이상이지만, 30세 미만도 매년 약 2000명 이상으로 나타나 전 연령에서 주의가 필요하다. <br/> <br/> 자궁경부암은 바이러스 때문에 걸릴 수 있나요 <br/> <br/> -“자궁경부암은 인유두종 바이러스 감염이 발병의 가장 큰 원인입니다. 인유두종 바이러스는 성관계를 통해 전파되며, 일찍 성관계를 시작한 경우, 여러 사람과 성관계를 가진 경우 등에서 발병률이 증가합니다. 이외에도 흡연, 인체면역결핍 바이러스 감염, 장기간 경구 피임약 복용 등도 자궁경부암 발병의 원인이 됩니다. 인유두종 바이러스는 감염되더라도 70∼80%에서 자체면역으로 자연소멸하며, 수년간 감염상태가 지속될 경우에만 자궁경부암을 일으키게 됩니다.” <br/> <br/> 생리 때가 아닌데도 피가 비치는데 자궁경부암일까요? <br/> <br/> -“자궁경부암의 주요 증상은 질 출혈, 분비물 증가 등이 있습니다. 생리와 상관없는 출혈은 자궁경부암의 가장 중요한 증상이며, 특히 성관계 후 질출혈은 자궁경부암의 특징적인 증상입니다. 병이 진행되면 악취가 나는 분비물, 소변에 피가 섞여 나오는 혈뇨 등이 있을 수 있으며, 암이 자궁경부뿐만 아니라 주위 장기에 번지면서 허리가 아프거나 다리로 통증이 퍼져 나갈 수도 있습니다.” <br/> <br/> 자궁경부암의 진단은 어떻게 하나요? <br/> <br/>-“자궁경부 세포검사와 인유두종 바이러스검사 등 선별검사를 시행해 이상이 있는 경우 조직검사를 시행합니다. 조직검사에서 암이 확진되면 암의 진행정도를 확인하기 위해 복부 및 골반의 자기공명영상촬영, 컴퓨터단층촬영, 양전자방출단층촬영 등으로 병기검사를 시행합니다. 또한, 자궁경부에 인접한 방광과 직장의 전이여부 확인을 위해 방광경 및 직장경검사를 시행합니다.” <br/> <br/> <br/> <br/> 수술로 자궁경부암은 완치되나요? <br/> <br/> -“자궁경부암 1∼2기 초기는 수술이 원칙이고 완치율도 80% 이상입니다. 전이가 있는 2기 말기 이상도 동시화학방사선요법으로 완치가 가능합니다. 수술 후 재발위험도 평가는 치료방향을 설정하여 재발율을 낮추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양한 임상연구가 진행되고 있는데, 최근 원자력병원 연구팀이 참여한 자궁경부암 재발위험도 예측 연구결과는 기존 보다 높은 예측율로 국제 암진료 가이드라인에 인용되었습니다. 또한 재발위험도가 중간위험군일 경우에도 고위험군처럼 방사선치료와 항암치료를 병행하는 임상연구가 미국 국립보건원의 지원으로 원자력병원 주도 하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임상연구의 기준이 도입될 경우 완치율이 현재 75%에서 90% 이상으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합니다.” <br/> <br/> 자궁경부암 검진은 생리주기 중 언제 받는 게 좋은가요? <br/> <br/> -“특별한 증상이 없더라도 성경험이 있는 모든 여성은 2년에 한 번 씩 자궁경부암 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자궁경부암 검진은 생리기간을 피해 생리 시작일로부터 7∼20일 사이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생리기간이 아닌데 출혈 등 이상 증상이 있다면 즉시 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최소한 검사 이틀 전부터는 성관계, 탐폰사용, 질 세척, 질 내 피임약 등을 피합니다. 자궁경부세포검사를 할 때 혈액이나 정액 등 기타 이물질이 섞이면 정확한 검사를 할 수 없습니다.” <br/> <br/> 예방백신을 맞으면 자궁경부암 예방이 가능한가요? <br/> <br/> -“자궁경부암은 성 접촉으로 인유두종 바이러스에 노출되기 전 백신을 맞으면 예방률이 70%에 달합니다. 그러나 백신이 모든 유형의 바이러스 질환을 예방하지 못하므로 접종을 했더라도 지속적인 정기검진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작년부터 만 12세 여아 대상 자궁경부암 국가예방접종사업을 실시하고, 자궁경부암 검진 시작 연령도 만 20세로 낮췄습니다. 조기검진과 예방접종은 건강을 유지하는 첫걸음입니다. 방학을 맞아 자녀와 함께 병원을 방문해 검진과 예방접종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 <br/> <br/> <br/> <br/><도움말: 원자력병원 자궁암·난소암센터 김문홍·김법종(산부인과)>

언론사: 국민일보-4-710.txt

제목: [암과의 동행] 방광암 치료제 ‘티쎈트릭’ 가세… 면역항암제 시장 3파전 돌입  
날짜: 20170220  
기자: 조민규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220204255001  
ID: 01100201.20170220204255001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키트루다’와 ‘옵디보’가 양분하던 국내 면역항암제 시장에 ‘티쎈트릭’이 가세하며 경쟁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다만 키트루다와 옵디보가 비소세포폐암의 2차 치료에 중점을 둔 반면, 티쎈트릭은 요로상피암(방광암) 2차 치료제로 허가를 받아 본격적인 시장경쟁은 적응증 확대에 따라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암 치료는 신체의 면역체계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데 암세포의 경우 정상적인 면역반응을 억제하거나, 회피하는 기전을 통해 증식하기 때문이다. 면역항암제는 암세포 표면에 PD-L1이라는 단백질이 면역세포인 T세포의 PD-1 수용체에 붙어 암세포에 면역작용을 하는 면역세포를 무력화시키는 것을 막아 치료하는 기전이다. 면역항암제는 현재 보험급여를 받지 못해 연간 6000만원 이상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다. <br/> <br/> ◇한국오노약품공업·한국BMS ‘옵디보’, 폭 넓은 치료 옵션을 제공하는 면역항암제=옵디보(성분명: 니볼루맙)는 미국 FDA로부터 2014년 12월 흑색종 허가 후 총 비소세포폐암(편평 및 비편평), 신세포암, 호지킨림프종, 두경부암, 방광암 등 6개의 암종에 적응증을 획득했다. 또 흑색종을 제외한 5개 암종에 대해서 ‘획기적 치료제’로 지정된 후 ‘신속승인’을 획득하기도 했다. 국내에서는 2015년 3월 수술이 불가능하거나 전이성인 악성 흑색종 2차 치료, 2016년 4월 PD-L1 발현 여부와 관계없이 사용 가능한 비소세포폐암 2차 치료 및 수술이 불가능하거나 전이성인 악성 흑색종 1차 치료에 동시 허가를 받았다. 임상연구에 따르면 옵디보는 PD-L1 발현 여부와 관계없이 비소세포폐암 환자의 생존율을 개선했고, 편평/비편평 비소세포폐암 모두에서 우수한 치료효과를 입증했다. <br/> <br/> 특히 지난 1월 ASCO에서 PD-L1 발현 여부와 상관없이 이전에 치료 받은 적이 있는 진행성 위암 환자들 중 표준 치료제로 쓸 수 없거나 반응이 없어서 치료방법이 없는 환자를 대상으로 한국·일본·대만에서 진행한 위암 3상 연구결과를 발표해 주목받기도 했다. <br/> <br/> ◇한국MSD ‘키트루다’, 효과 예측 기준 있는 면역항암제=키트루다(성분명: 펨브롤리주맙)는 2016년 10월 미국 FDA에서 진행성 비소세포폐암 1차 치료제로 승인을 받으며 항 PD-1 면역항암제로 새로운 치료 패러다임을 제시했다. <br/> <br/> 국내에서는 2015년 3월 수술이 불가능하거나 전이성인 흑생종의 2차 치료로 허가를 받았고, 지난해 4월에는 진행성 비소세포폐암 2차 치료와 수술이 불가능하거나 전이성인 흑색종의 1차 치료로 허가받았다. 특히 키트루다는 PD-L1(암 세포에서 나오는 단백질의 한 종류) 발현율을 통해 가장 적합한 환자를 선별할 수 있는데 이를 위한 동반진단기기도 함께 허가를 받았다. 다양한 임상 연구를 통해 비소세포폐암 환자 중 PD-L1 발현율이 50% 이상인 환자에서 항암화학요법대비 무진행 생존기간, 전체 생존기간, 삶의 질, 부작용 등을 개선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최근 미국 FDA는 PD-L1≥50%인 비소세포폐암 환자의 1차 치료제로 승인했고, 비소세포폐암 2차 치료제로는 PD-L1을 기준으로 1% 이상까지 확대했다. 적응증 확대에도 본격 나서고 있는데 키트루다는 최근 미국 FDA에 방광암 1, 2차 치료에 대한 허가자료를 제출했고, 간암·유방암 등 30여개 암 종에서 약 400건의 글로벌 임상연구를 진행 중에 있다. <br/> <br/> ◇한국로슈 ‘티쎈트릭’, 방광암 적응증 허가받은 면역항암제=티쎈트릭(성분명: 아테졸리주맙)은 미국 FDA와 동일하게 지난 1월 방광암(요로상피암) 2차 치료제로 국내 허가를 받았다. 적응증은 국소진행성 또는 전이성 요로상피암환자로서 백금기반 화학요법제 치료 도중 또는 이후에 질병이 진행하거나, 백금기반의 수술전보조요법 또는 수술후 보조요법 치료 12개월 이내에 질병이 진행한 경우이다. 특징은 방광암 최초의 항 PD-L1 면역항암제로 면역세포 또는 암세포의 PD-1/PD-l1 경로를 표적으로 해 T세포가 종양세포를 효과적으로 발견하고 공격할 수 있도록 돕는다. <br/> <br/> 현재 전이성 요로상피암 2차 치료 이상의 환자를 대상으로 3상 연구를 진행 중이고, 2017년 하반기에 시스플라틴을 쓸 수 없는 전이성 요로상피암 1차 치료와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2차 치료에 대한 적응증 확대에 나설 예정이다. 시판까지는 3∼4개월여가 더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방광암에 대해서는 타사 제품들이 적응증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쟁력이 있다는 분석이다. <br/> <br/> 한편 국내 제약사들도 면역항암제에는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유한양행은 미국의 신약개발 전문회사와 합작사를 설립해 면역항암제 개발에 나서고 있고, 동아에스티는 지난해 면역항암제 후보물질을 미국 애브비에 기술수출 했다. 또 신라젠은 면역항암제 ‘펙사벡’의 2020년 시장출시를 위해 국내외 임상을 진행 중으로 알려졌다. <br/> <br/>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

언론사: 국민일보-4-711.txt

제목: [암과의 동행] 금연치료 의료기관 금전 인센티브 검토… 올 참여자 40만명 예상  
날짜: 20170220  
기자: 조민규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220203555001  
ID: 01100201.20170220203555001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정부가 병·의원을 통해 진행하는 금연치료 지원사업이 도입된 지 2년여가 지난 현재 월평균 약 3만여명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금연치료 지원사업 참여자는 35만8000여명으로 월 평균 2만9892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병·의원 금연치료가 도입된 2015년에는 22만8792명(2월∼12월)이 참여했는데 월평균은 2만799명이었다. 2016년 기준 월별로 금연치료 참여자 현황을 보면 1월이 3만8176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12월 3만5061명 ▲3월 3만2884명 ▲2월 3만1411명 순으로 나타났다. 가장 참여자가 적은 달은 휴가가 시작되는 7월(2만4994명)로 1월에 비해 약 35% 감소했다. 2016년 금연치료 이수자는 9월말 기준 38.8%로 나타났는데, 참여자 중 이수자 비율은 남성이 여성에 비해 약 4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br/> <br/><br/>국민건강보험공단은 금연치료 지원사업은 사업 초기 복잡한 절차와 서비스 미흡으로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정부는 문제로 지적됐던 본인부담 경감, 전산시스템 간소화, 의료진 교육 등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의료인의 전문적인 금연치료를 제공 및 의료기관의 참여도 향상을 위해 지난 1월부터 온라인 교육을 진행했는데 지난 2월9일까지 580명이 이수했다. <br/> <br/> 오프라인에서는 2015년 4월부터 2016년까지 2만1078명의 의료인 교육을 이수했고, 의료기관은 2016년 12월까지 1만1745개소가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의료기관의 전산프로그램과 병의원 처방전달시스템의 이원화 지적에 따라 최근 의료기관의 전산프로그램과 병의원 처방전달시스템(OCS) 연계프로그램 개발을 완료해 현재 일부 병원에 적용했다. <br/> <br/> 이와 함께 지난해 11월 동시진료 수가를 단독진료 수가로 상향 조정해 최초 상담료 1만5000원에서 2만2830원으로, 유지상담료는 9000원에서 1만4290원으로 인상했다. 이외에도 금연치료의 활성화를 위해 금연치료 협력 우수기관 인증 명단을 공개하기 위한 프로그램도 개발 중이다. 2015년 참여자 등록건수 및 이수 건수를 고려해 243개 기관을 선정했고, 이들 우수기관에게는 2월중에 비금전적 인센티브로 협력 우수기관 현판 또는 인증패를 제공할 예정이다. <br/> <br/> 건보공단은 금연치료 지원사업 참여자가 금연치료 의약품을 인터넷 중고매장에 판매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월 2회 모니터일 후 게시자에게 유선안내(약사법 위반으로 처벌)해 자진 삭제를 요청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br/> <br/> 건보공단 급여보장실 관계자는 “올해 참여자는 40만명 이상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해 9월 기준으로 이수자율은 38.8%로 2015년 20.5%에 비해 증가했다. 2016년 최종 이수율은 3개월이 지나야 명확히 나온다”라고 밝혔다. 특히 의료기관 인센티브와 관련해 그는 “시행 초기 금전적·비금전적 인센티브 모두 검토했는데 추진협의체에서 우선적으로 비금전적 인센티브를 적용하자는 의견이 있었다. 다만 처음 금전적 인센티브도 검토키로 했기 때문에 추후에 논의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br/> <br/> 한편 보건복지부 국가 금연지원서비스 현황에 따르면 보건소 금연클리닉의 경우 2014년 45만3371명(월평균 3만7781명), 2015년 59만7755명(월평균 4만9813명)으로 나타났다. 또 학교 밖 청소년과 대학생, 여성감정노동자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찾아가는 금연지원서비스’에는 2015년(5∼12월 1만3975명) 월평균 1747명, 2016년(1∼3월 3218명) 월평균 1073명이 참여했다. ‘금연캠프’에는 2015년 7월부터 2016년 3월까지 6606명이 참여했다. 조민규 기자

언론사: 국민일보-4-712.txt

제목: [암과의 동행] 담배 하나 빼어물려니 “어라… 경고 그림이 사라지네”  
날짜: 20170220  
기자: 조민규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220203455001  
ID: 01100201.20170220203455001  
카테고리: 문화>문화일반  
본문: "<span class='quot0'>담배를 처음 샀을 때는 경고그림이 부담스러워 담배케이스를 구매했는데 막상 경고그림이 있는 담뱃갑에서 담배를 꺼낼 때는 경고그림이 보이지 않아 (흡연)부담이 덜하네요</span>" <br/> <br/> 보건당국이 금연을 위해 비가격정책으로 강하게 추진해온 담뱃갑 경고그림이 실제적으로는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담배케이스, 진열대의 경고그림 가리기 등 도입 초기에 우려됐던 담뱃갑 경고그림 무력화 시도도 현실화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br/> <br/>지난 명절이후 대부분 담배들이 경고그림을 부착해 판매에 들어갔다. 하지만 경고그림이 부착된 담배들을 본 소비자들의 반응은 예상보다 불편함에 대한 호소가 적었다. 정부가 시안을 통해 보여줬던 위험성이나 경각심을 느끼기에는 경고그림의 크기가 작아 어렵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다. <br/> <br/> 특히 담뱃갑 경고그림의 위치가 도입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경고그림이 도입된 담뱃갑은 담배를 꺼낼 때 경고그림이 사라진다. 편법이라고 하기는 어렵지만(정부가 정한 규정에는 적합) 담배제조사들이 담뱃갑 앞면의 경고그림을 상단에 부착해 담뱃갑을 열면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일부 흡연자는 경고그림을 가리기 위해 포스트잇으로 경고그림을 가리기도 했다. 30대 남성 흡연자 김모씨는 “<span class='quot1'>조금 불편하기는 하지만 예상보다 경고그림의 내용이 잘 보이지 않아 크게 신경 쓰지는 않는다</span>”라는 반응을 보였다. <br/> <br/> 또 불티나게 팔리는 담배케이스도 경고그림을 무용지물로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비흡연자인 30대 김모씨는 “흡연자들에게는 경고그림이 상관없을지 모르지만 (비흡연자인) 나로서는 경고그림을 보기 싫어 담배를 피울 생각이 들지 않는다. 굳이 경고그림까지 가리면서 담배를 피우려는 사람까지 막기는 힘들 것이다”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와 관련 일부에서는 ‘30% 면적만으로는 경고그림의 효과를 크게 얻기 어렵다며 담뱃갑 전체에 인쇄해 확연히 보이도록 해야 한다’ ‘경고그림을 무력화 하려는 시도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 등 효과적인 경고그림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br/> <br/> 보건복지부 역시 경고그림 도입 초기에 이 같은 논란을 예상한 듯 대응책을 제시했다. 우선 건강증진법 개정을 추진해 2017년 하반기부터 판매점이 담배 진열시 경고그림을 고의로 가리는 행위를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또 경고그림 도입 효과평가를 거쳐 면적확대 등 추가방안을 2018년 이후 검토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br/> <br/>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관계자는 “제도가 시행된 지 얼마 안돼 (크기 변경 등은) 여론이나 소비자 반응의 추이를 봐야 할 것 같다. 경고그림이 담뱃갑 앞, 뒷면에 있는데 앞의 경고그림은 담뱃갑을 열 때 안보이기는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단보다는 상단에 있는 것이 가시성의 효과가 있다”라며 “열면 안보이지만 매 순간 보일 수는 없다. 경고그림이 하단으로 간다고 해도 담배를 잡을 때 손에 가려지지 않나”라고 말했다. 이어 “경고문구는 잘 읽지 않지만 경고그림은 클수록 효과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아직 경고그림이 부착된 담배가 다 깔리지 않았다. 그럼에도 ‘경고그림을 왜 넣었냐’ 등의 항의성 민원전화가 많다. 그런 점에서 효과가 있는 것 같다”며 “경고그림의 크기 변경은 논의를 통해 시행령의 조정으로 가능하다. 다만 법에 ‘30% 이상’으로 돼 있기 때문에 크기를 줄이는 것은 안 된다”고 덧붙였다. <br/> <br/> 담뱃갑 경고그림의 도입은 2002년부터 논의돼 2015년 6월 법안이 통과되며 확정됐다. 1986년 담뱃갑에 경고문구가 표기된 지 30년 만의 성과다. 다만 담배제조사들의 생산라인 변경 등을 감안해 법안 적용을 유예, 지난해 12월23일 공장에서 반출되는 담배부터 경고그림 표기가 의무화됐다. 이로 인해 실질적으로는 지난 설 명절이후 판매점 진열대에서 경고그림을 확인할 수 있었다. <br/> <br/>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르면 담뱃갑 앞뒷면의 30% 이상을 경고그림으로 채워야 한다. 소비자에게 흡연의 해로움을 정확히 전달한다는 목적이다. 또 10개의 경고그림을 최종 확정했고, 하위법령을 제·개정을 통해 상단표시, 24개월 주기 교체 등의 표기 방법을 규정했다. 보건복지부는 경고그림 도입에 대해 흡연에 대한 경각심을 일으키며, 담배제품의 매력도를 떨어뜨리는 효과가 있음이 여러 연구를 통해 입증됐고, 경고그림을 도입한 주요 국가들의 흡연율이 평균 4.2% 감소됐다고 강조했다. <br/> <br/>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

언론사: 국민일보-4-713.txt

제목: “이 답답한 마스크 벗겨주세요”  
날짜: 20170220  
기자: 장윤형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220180655001  
ID: 01100201.20170220180655001  
카테고리: 사회>환경  
본문: 계절을 가리지 않고 발생하는 고농도 미세먼지로 뿌옇게 하늘이 뒤덮여 있어 호흡기 질환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이 늘고 있다. 시민들은 “언제쯤 미세먼지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느냐”고 호소하고 있다. 겨울철 난방기구의 잦은 사용과 중국발 스모그 등의 영향으로 독성이 강해진 미세먼지로 인해 국민 건강에 빨간불이 켜졌다. 그럼에도 여전히 뚜렷한 대책은 나오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미세먼지는 지름이 10㎛(마이크로미터)보다 작고, 2.5㎛보다 큰 입자로, 주로 도로변이나 산업단지 등에서 발생한다. 초미세먼지는 지름이 2.5㎛ 이하로 담배 연기나 연료의 연소시에 생성된다. <br/> <br/> 미세먼지는 세계보건기구(WHO)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이다. 최근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오염문제는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지만 미세먼지 저감정책들이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가 미세먼지 환경기준을 지나치게 완화된 수준으로 설정했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있다. 우리나라 미세먼지(PM2.5)에 대한 환경기준은 연 평균25㎍/㎥ 이하, 일 평균 50㎍/㎥ 이하다. 이는 WHO 권고기준인 연 평균10㎍/㎥ 이하, 일 평균 25㎍/㎥ 이하 보다 2배 정도 완화된 수준이다. 이와 관련 국민의당 신용현 의원은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를 통해 미세먼지 등에 관한 환경기준을 WHO 정한 국제적 기준에 맞추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br/> <br/> 국내 미세먼지 오염의 약 50%가 중국발이며 나머지는 국내 자체 오염물질 때문이다. 대기오염 개선대책이 나오지 않으면 오는 2024년에는 국내에서 사망자가 약 2∼3만 여명이 달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중국에서도 미세먼지로 인한 사망자가 속출하고 있다. 매년 약 100여만 명이 호흡기 질환으로 사망한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베이징시 등도 대책 마련에 고심 중이다. <br/> <br/> 미세먼지로 인한 사망률 증가도 여러 연구를 통해 확인됐다. 실제 중국 질병통제예방센터와 푸단대 등의 공동 연구진은 중국 내 272개 도시에서 대규모 조사를 벌인 결과, 미세먼지의 농도 증가와 사망률 사이의 연계성을 찾을 수 있었다고 밝힌 바 있다. 연구에 따르면 미세먼지 농도가 10㎍/㎥ 증가할 때마다 사망률이 0.22%씩 올라가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특히 호흡기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은 0.29%, 만성폐쇄성폐질환(COPD)으로 인한 사망률은 0.38%씩 증가했다. <br/> <br/>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면서 각종 호흡기 질환 뿐 아니라 폐암 발생 비율도 증가세다. 전문가들은 “<span class='quot0'>흡연보다 무서운 것이 ‘대기오염’이 될 것</span>”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이처럼 미세먼지나 초미세먼지가 폐나 호흡기 등 인체 깊숙이 침투하면 기관지염이나 천식 등 각종 질병을 유발하고 나아가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폐암 등으로 인해 사망에 이를 수 있다. 최근에는 미세먼지가 뇌졸중 위험 뿐 아니라 치매나 각종 심혈관질환 발생 가능성을 높인다는 연구결과도 발표됐다. 김석찬 서울성모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span class='quot1'>최근 WHO 뿐 아니라 유럽 등의 각종 연구결과에서도 초미세먼지가 폐암 뿐 아니라 각종 암 발병률을 높인다는 연구가 계속해서 발표되고 있다</span>”며 “<span class='quot1'>미세먼지가 증가하면 천식이나 기관지염,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앓는 호흡기질환 환자들이 급성 악화로 응급실에 내원하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으며, 나아가 65세 이상 환자들에서는 미세먼지 등으로 호흡기가 악화돼 사망하는 비율도 늘고 있어 건강에 각별한 유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span>”고 당부했다. <br/> <br/> 그렇다면 미세먼지가 발생할 시에는,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을까. 최근 환경부와 각 지자체에서도 미세먼지 대응 매뉴얼을 발표했다.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시간대에는 가급적 환기를 자제하고, 실내 공기질을 높이기 위해 물청소 등을 하는 것이 좋다. 외출 후에는 반드시 손과 얼굴, 발 등을 깨끗이 씻고 물을 충분히 마셔 노폐물을 배출시켜야 한다.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날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끼고 외출하는 것이 좋다. 특히 면역력이 약한 노년층은 호흡기질환에 쉽게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호흡기를 청결하게 유지해야 한다. <br/> <br/>장윤형 기자

언론사: 국민일보-4-714.txt

제목: 난소암, 출산경험 없으면 발병위험 높아져  
날짜: 20170220  
기자: 전미옥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220175055001  
ID: 01100201.20170220175055001  
카테고리: 사회>여성  
본문: 여성암 중 사망률 1위를 차지하는 난소암은 초기 자각증상이 거의 없고, 효과적인 진단법도 없어 조기 발견이 어려운 암으로 손꼽힌다. 이 가운데 난소암의 주요 원인이 ‘배란 횟수’와 관련된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특히 출산경험이 없는 여성에게서 난소암이 발생률이 높다는 결과도 있어 관심을 모은다. <br/> <br/> 영국 옥스퍼드대학 암역학연구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자녀를 하나 둔 여성은 자녀를 출산하지 않은 여성에 비해 난소암 위험이 20% 낮고, 자녀를 더 낳을 때마다 난소암 위험은 8%씩 더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연구에서도 출산횟수가 한 번이면 난소암 위험은 전혀 출산하지 않는 여성에 비해 약 10%, 출산횟수가 3번이면 50%나 줄어드는 것으로 확인됐다. 즉, 임산과 출산이 배란을 멈추게 해 난소암 위험을 낮추는 것이다. <br/> <br/> 난소암 발병원인 중 90%이상이 ‘쉼 없는 배란’ 때문인 것으로 지목되며, 약 10%는 유전적 요인인 것으로 꼽힌다. BRCA 유전자 돌연변이를 가진 여성은 정상 유전자 서열을 가진 여성보다 난소암에 걸릴 확률이 10배 이상 높다. 이은주 중앙대학교병원 산부인과 교수는 “여성이 배란을 할 때 난소가 난자를 배출하는 과정에서 난소의 표면층이 터지게 된다. 이 때 터진 곳을 수리하기 위해 세포분열을 하는 과정에서 암으로 이어질 수 있는 DNA 손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난소암 위험이 커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최근 결혼하지 않는 여성과 출산하지 않는 여성의 증가로 배란을 많이 하는 가임기 때 임신, 출산으로 인한 배란 횟수가 줄어들지 않아 난소암 발병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br/> <br/> 난소암은 초기 자각증상이 거의 없기 때문에 환자의 70%가 3기 이상 진행된 상태에서 병원을 찾는 경우가 빈번하다. 이 때문에 사망률도 매우 높다. 이 교수는 “<span class='quot0'>환자들을 만나보면 소화가 안 된다거나 배에 복수가 차서 병원을 찾았다가 우연히 난소암 진단을 받는 이들이 많다</span>”며 “<span class='quot0'>이처럼 조기발견이 무척 어렵기 때문에 고위험군 환자들은 예방적 처치를 통해 암 발병을 차단하는 방법을 택한다</span>”고 말했다. 난소암의 고위험군은 고령, 출산 경험이 없거나 첫 출산을 30세 이후에 늦게 한 여성, 초경이 빠르거나 폐경이 늦은 여성 및 불임이 있는 경우 등이다. 이 중 유전자 검사를 통해 BRCA 유전자 돌연변이가 있을 경우 환자 일생을 기준으로 난소암이 발생할 확률이 27∼44%로 높다. 이에 의료진들은 예방적 처치로 월경이 끊어질 때까지 경구피임약을 복용하게 하거나 난소난관절제술을 받는 방법을 권고한다. <br/> <br/> 또한 이 교수는 “<span class='quot0'>고위험군에 해당하는 여성들은 경구피임약 복용을 통해 배란을 억제하거나 6개월에 한 번씩 정기적인 초음파검사와 혈액검사(CA125 종양표지마커 측정)를 통한 검진을 통해 조기발견 및 예방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span>”며 “<span class='quot0'>유전성 난소암의 발병 위험이 높은 여성은 예방적 난소난관절제술을 통해 유전성 난소암 발생위험을 96%까지 낮출 수 있다</span>”고 말했다. 이어 이 교수는 “<span class='quot0'>절제술을 하게 되면 이른 폐경을 맞게 되는 것으로 폐경 시 오는 증상이 나타나지만 호르몬 치료 등으로 관리가 가능하다.</span>”라고 강조했다. <br/> <br/>▶구속 이재용 1400원짜리 식사… 구치소 생활 견딜까 <br/>▶이규혁 “김동성과 장시호 남녀관계” 증언… 김동성 “막 나불대는구나” <br/>▶그알싶 국정원 '빨간 마티즈'는 대선 개입 연결고리? <br/>▶"김제동, 내 집 앞에서 촛불시위 계획" 심기 불편한 김진태 <br/>▶손연재 은퇴 심경 글 "끝나서 너무 행복… 조금의 후회도 남지 않는다" <br/>▶이정희 “초등 교과서에 내 이름 실릴 뻔… 섬뜩했다” <br/>▶KAL기 폭파범 김현희 “<span class='quot1'>김정남 살해, 동남아 여성 고용한 청부살인</span>” <br/>▶이재용 구속되자 보수단체가 구치소 앞에서 한 일 <br/> <br/>전미옥 기자 romeok@kukinews.com

언론사: 국민일보-4-715.txt

제목: 왜 10대에 자궁경부암 예방접종 강조할까?  
날짜: 20170220  
기자: 박예슬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220174955001  
ID: 01100201.20170220174955001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자궁경부암은 자궁 입구(경부)에 발생하는 암이다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감염이 주원인으로, 주로 성관계를 통해 감염된다. 자궁경부암은 여성에서 생기는 전체 암 발생 순위 7위, 사망률 9위로, 한해 약 3600여명의 신규 환자가 발생한다. 특히 최근 자궁경부암은 20∼30대 연령층에서 많이 발생해 주의가 필요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15년 기준 20대 전체 암환자 1만8513명 중 자궁경부암 환자는 11.9%(2194명)였고, 30대의 경우 전체 암환자 7만5459명 중 14.9%(1만 1253명)에 달했다. 현재 정부에서는 만 12세 여성 청소년을 대상으로 자궁경부암 예방 백신 2회 무료접종을 실시하고 있다. <br/> <br/>올해 2004∼2005년생(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하며, 작년에 1차 접종한 2003년생의 경우 올해 2차 무료접종이 가능하다. 그러나 해당 나이를 지난 경우에는 무료지원이 되지 않기 때문에 백신을 맞으려면 전액 본인이 부담(1회 접종당 15∼18만원)해야 한다. 또 만 12세가 지나면 충분한 면역 효과를 얻기 위해 접종 횟수도 3회로 늘어난다. 이렇다보니 자칫 접종시기를 놓쳐 백신접종을 안 받은 채로 지내는 경우도 있다. 일각에서는 청소년 시기가 지나면 백신을 맞아도 효과가 없다는 의견도 나온다. 왜 청소년 시기에 접종받아야 하며, 일정 시기가 지나면 정말 백신 효과가 없는 것일까? <br/> <br/> 이에 대해 주웅 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교수는 청소년 시기에 예방접종을 권고하는 이유는 이 시기에 항체생성반응이 뛰어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주 교수는 “원래 자궁경부암 예방접종은 3차까지 맞는 주사로 개발됐지만, 해외 연구결과 청소년 시기에는 2차만 맞아도 똑같은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왔다. 9∼14세 아이들의 경우 항체생성반응이 뛰어나, 2번만 맞아도 3번 맞은 효과로 항체가 잘 생성된다”고 말했다. <br/> <br/> 청소년기 이후 접종과 관련 주 교수는 “14세 미만으로는 2번만 맞아도 백신 효과가 있지만, 그 이상의 경우에는 3번을 맞아야 제대로 효과를 볼 수 있다. 26세까지는 그 효과가 동일하지만 30∼40대로 갈수록 항체형성 능력이 떨어지게 된다”며 “따라서 30∼40대는 접종 횟수를 늘린다고 해도 항체 생성율이 100%까지 높진 않다. 또 청소년층에 비해 앞으로 바이러스에 감염될 횟수도 많지 않다보니 필수적으로 접종을 권하진 않고 있다. 개인적인 선택에 따라 원하는 경우엔 맞으면 된다”고 덧붙였다.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만 20세 이상 여성에게 2년마다 자궁경부암 무료검진표를 발급하고 있다. 올해는 홀수년도 출생자가 무료검사 대상이다. <br/> <br/> 접종 기준과 관련 정부에서는 효과 시기와 예산 문제를 꼽는다. 공인식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관리과장은 “너무 어리거나 나이가 많으면 항체생성이 잘 안 된다. 외국의 경우도 국가 지원 연령을 12세로 두고 있다. 작년 예방접종전문위원회가 최적 연령을 정할 때 면역보호항체가 생기는 시기, 성접촉 등 문화적으로 그 시기에 맞는 수용가능성 등을 고려해서 12세로 결정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br/> <br/> 이어 그는 “접종 기준을 확대하는 방안은 공감한다. 하지만 작년에 막 시작한 사업이다 보니 아직까지 이 부분은 비용적인 부담이 있다. 올해는 예방접종 대상자 중 안 맞은 아이들을 확인하고 지원하는 방안에 초점을 맞출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br/> <br/>▶구속 이재용 1400원짜리 식사… 구치소 생활 견딜까 <br/>▶이규혁 “김동성과 장시호 남녀관계” 증언… 김동성 “막 나불대는구나” <br/>▶그알싶 국정원 '빨간 마티즈'는 대선 개입 연결고리? <br/>▶"김제동, 내 집 앞에서 촛불시위 계획" 심기 불편한 김진태 <br/>▶손연재 은퇴 심경 글 "끝나서 너무 행복… 조금의 후회도 남지 않는다" <br/>▶이정희 “초등 교과서에 내 이름 실릴 뻔… 섬뜩했다” <br/>▶KAL기 폭파범 김현희 “<span class='quot0'>김정남 살해, 동남아 여성 고용한 청부살인</span>” <br/>▶이재용 구속되자 보수단체가 구치소 앞에서 한 일 <br/> <br/>박예슬 기자 yes228@kukinews.com

언론사: 국민일보-4-716.txt

제목: “MRI검사 급여화로 간암 수검률 높이자”  
날짜: 20170220  
기자: 장윤형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220174855001  
ID: 01100201.20170220174855001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국내 주요 암 중 간암에 의한 사망이 전체 2위(폐암 1위)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조기 검진을 통한 빠른 진단이 잘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암은 1인당 치료비가 평균 6000∼7000만원인 것을 감안하면, 암 조기 발견율을 높여 막대한 암치료비로 인한 고통을 줄여야 한다는 의견이다. 특히 간암은 경제적으로 활발한 활동을 하는 40대 이상 남성에서 많이 발생해 사회경제적 손실이 크다. <br/> <br/> 대한간암학회(회장 성진실·세브란스병원 방사선종양학과 교수)는 1년에 2번, 2가지 검사를 정기적으로 받아 간암을 조기에 진단하자는 의미로 매년 2월2일을 ‘간암의 날’로 정하고, 간경변이 간암으로 발병되는 것을 막기 위해 조기 검진율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br/> <br/> 간경변증으로 진행되면 간암으로 발병할 확률이 더 높다. 만성B형 또는 C형 간염 환자 5명 중 1명은 20년에 걸쳐서 최대 40%까지 간경변증으로 진행되며, 간경변증이 오래 지속되면 간암으로 발전할 확률도 높아지는데 연간 약 5∼7% 간암으로 발전한다. 간암 진행을 막기 위해서는 간염 백신접종과 함께 금주와 운동 등의 건강한 생활습관 유지가 필수다. 그럼에도 간경화로 진행됐다면 간암으로 악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주기적인 검진이 필수다. 그러나 지난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만 40세 이상 남녀를 대상으로 한 국가간암검진 수검률은 30∼40%로 낮은 상황이다. 간암은 1기에 발견하면 생존율이 50%에 이르지만, 말기로 갈수록 생존율은 급격히 떨어진다. 따라서 간경변 환자라면 간암 감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현재 만 40세 이상 간암 고위험군 환자라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공하는 간암 감시 검사(초음파 검사·혈청 알파 태아 단백검사)를 1년에 2번씩 받을 수 있다. <br/> <br/> 문제는 초음파 검사로 발견되지 않는 간암도 있다는 점이다. 의학계는 정밀 검사를 위한 MRI 급여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임영석 서울아산병원 소화기내과 교수(대한간암학회 간암등록사업위원장)는 “간암 감시 검사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수검률을 획기적으로 높여야 한다. 문제는 현재 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초음파로는 발견되지 않는 암들이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br/> <br/> 임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간암 발생 위험이 높은 간경화 환자에게 기존 초음파가 아닌 MRI로 주기적인 검사를 실시할 경우 간암 조기 발견률이 최대 3배 높았다. <br/> <br/> 실제 서울아산병원 소화기내과·영상의학과 공동 연구팀이 2011년 11월부터 2014년 8월까지 고위험 간경화 환자군 407명을 대상으로 MRI와 간 초음파 검사를 6개월 간격으로 실시한 결과, MRI 검사와 초음파 검사의 간암 조기 발견율이 각각 86%(43명)와 27.9%(37명)였다. 고위험군 환자에서 MRI 검사가 간암판정 여부를 약 3배 더 높게 발견한 것이다. 임 교수는 “<span class='quot0'>초음파 검사는 초음파 투과 정도 차이만으로 암을 찾아내기 때문에 화면이 마치 흑백사진과 같아 간경화가 심한 경우에는 찾기 힘들었다</span>”며 “<span class='quot0'>간세포 특이 조영증강제를 이용한 MRI 검사로 고위험군 환자를 관찰한다면 간암을 조기 발견해 완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span>”고 말했다. 따라서 임 교수는 고위험군 환자를 위한 ‘MRI’ 급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그는 “<span class='quot0'>초음파에 비해 MRI 비용이 비싸지만 조기 진단으로 암으로 진행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span>”며 “<span class='quot0'>치료를 위한 사회경제적 비용까지도 낮춰 오히려 고위험군 환자의 부담이 줄어들 것</span>”이라고 전망했다. <br/> <br/>▶구속 이재용 1400원짜리 식사… 구치소 생활 견딜까 <br/>▶이규혁 “김동성과 장시호 남녀관계” 증언… 김동성 “막 나불대는구나” <br/>▶그알싶 국정원 '빨간 마티즈'는 대선 개입 연결고리? <br/>▶"김제동, 내 집 앞에서 촛불시위 계획" 심기 불편한 김진태 <br/>▶손연재 은퇴 심경 글 "끝나서 너무 행복… 조금의 후회도 남지 않는다" <br/>▶이정희 “초등 교과서에 내 이름 실릴 뻔… 섬뜩했다” <br/>▶KAL기 폭파범 김현희 “<span class='quot1'>김정남 살해, 동남아 여성 고용한 청부살인</span>” <br/>▶이재용 구속되자 보수단체가 구치소 앞에서 한 일 <br/> <br/>장윤형 기자

언론사: 국민일보-4-717.txt

제목: [건강 나침반] 만성 B형간염 치료 ‘빨리’보다 ‘제대로’  
날짜: 20170220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220174855002  
ID: 01100201.20170220174855002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지난해 일부 의료기관에서 C형간염 집단감염 사태가 발생하면서 주사 치료 및 감염 관리에 경고등이 켜졌다. C형간염의 위험성은 질환 그 자체 보다 간암으로의 발전 가능성에 있다. C형간염을 방치할 경우 궁극적으로 30∼40%는 간경변증 및 간암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 더 중요하게 봐야 할 간암 원인 질환은 바로 B형간염이다. <br/> <br/> 대한간학회 조사에 따르면 국내 간암 환자의 10∼15% 정도가 만성 C형간염과 관련이 있고, 70%는 만성 B형간염이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B형간염은 혈액과 체액을 통해 감염되는 바이러스 질환이다. 국내 전체 인구의 약 3∼4%가 현재 감염돼 있어, 누구나 언제든 간염 바이러스에 노출될 수 있다. 가장 흔한 감염 경로로는 어머니와 신생아 사이의 수직감염, 성관계를 통한 감염과 B형간염 바이러스에 감염된 혈액에 손상된 피부나 점막이 노출되는 경우 등이다. <br/> <br/> 해마다 2만여명이 간 질환으로 사망하는데, 그 중 만성 B형간염이 차지하는 비율은 50∼70%나 된다. 하지만 그 위험성에 비해 국민들의 인식은 매우 낮은 상황이다. 더러는 B형간염 환자 본인조차 감염 여부를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다 어느 날 갑자기 간암 진단을 받는 경우도 있다. 무엇보다 국내 만성B형간염 환자의 약 70%가 40대 이상의 중·장년층이고, 40∼50대의 암 사망 원인 1위가 간암인 것을 고려한다면 간암으로 인한 사망률을 낮추는 열쇠는 바로 올바른 B형간염 관리다. 특히 한국인 B형간염 환자 대다수가 감염된 바이러스 유형은 간경변증으로의 진행이 빠르고, 간암 발생 위험도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 만큼 B형간염 환자라면 B형간염에 대해 제대로 알고 적극적인 관리와 치료를 시작해야 한다. <br/> <br/> B형간염 치료의 핵심은 ‘빨리’ 보다는 ‘제대로’에 있다. 완치가 가능한 C형간염과 달리 B형간염은 현재로서는 완치 가능한 치료제가 없다. 따라서 지속적인 관리가 절실하며 평생 치료를 받아야 될 수도 있는 만큼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간경변증 및 간암으로의 진행을 막는 것이 필요하다. 환자가 임의로 약물 치료를 중단하면, B형간염이 악화될 가능성이 높고 효과적인 항바이러스제를 복용하더라도 연간 완치율은 0.3%로 매우 낮기 때문에 완치가 가능한 후속 약물이 나오기 전까지는 장기간 지속적으로 복용해야 한다. 현재 국내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항바이러스제로는 엔테카비어와 테노포비어가 있으며, 전문의의 진단과 처방하에 장기간 안전성 등을 고려해 치료받아야 한다. <br/> <br/> 만성 B형간염 환자라면 금연, 금주 등의 생활습관 관리와 함께 균형 있는 영양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자칫 고영양 상태가 되면 지방간, 당뇨병 등을 일으켜 오히려 간손상이 더 심화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또한 만성 B형간염 환자라고 해서 모든 활동을 중단하고 무조건 쉬기 보다는 적당한 활동을 유지하는 것이 좋다. 무엇보다 정기적으로 병원을 방문해 만성 간염 상태를 체크해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br/> <br/> 간경변증이 있거나 B형 또는 C형 바이러스 간염 환자는 간암 발생 고위험군에 속하기 때문에 6개월에 한 번 정기적으로 초음파 검사 등을 받는 것이 좋다. 다행히 만 40세 이상 간암 고위험군 대상자라면 1년에 2번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공하는 2가지 검사(간 초음파검사·혈청 알파 태아 단백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최근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간암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대한간암학회가 매년 2월 2일을 간암의 날로 제정하고, 간암 조기 진단 및 적극적인 치료의 중요성을 알려나가고 있다. <br/> <br/> 인하대병원에서도 간암 발생률을 낮추기 위해 만성 간질환 환자들에게 국가 검진에 대한 안내를 하고 검진 일정을 잡을 수 있도록 해 적극적으로 국가검진프로그램을 활용하고 있다. 현재 신약이 활발히 개발되고 있지만 완치 혜택을 누리기 전까지는 B형간염을 제대로 관리하고 꾸준히 치료 받는 것만이 간경변증과 간암으로의 연결고리를 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br/> <br/> <br/>▶구속 이재용 1400원짜리 식사… 구치소 생활 견딜까 <br/>▶이규혁 “김동성과 장시호 남녀관계” 증언… 김동성 “막 나불대는구나” <br/>▶그알싶 국정원 '빨간 마티즈'는 대선 개입 연결고리? <br/>▶"김제동, 내 집 앞에서 촛불시위 계획" 심기 불편한 김진태 <br/>▶손연재 은퇴 심경 글 "끝나서 너무 행복… 조금의 후회도 남지 않는다" <br/>▶이정희 “초등 교과서에 내 이름 실릴 뻔… 섬뜩했다” <br/>▶KAL기 폭파범 김현희 “<span class='quot0'>김정남 살해, 동남아 여성 고용한 청부살인</span>” <br/>▶이재용 구속되자 보수단체가 구치소 앞에서 한 일

언론사: 국민일보-4-718.txt

제목: “20조 건보흑자 항암신약 투입을”  
날짜: 20170220  
기자: 송병기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220173355001  
ID: 01100201.20170220173355001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최근 한국암치료보장성확대협력단(이하 KCCA)은 ‘암 보장성 현황 점검 치 선제적 강화방안 모색’ 보고서를 통해 20조원 가량의 건강보험재정을 활용해 암과 희귀난치성질환 신약의 급여를 확대하고, 현재 적용대상 약제가 제한적인 경제성평가 특례제도 등 약가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대안을 제시했다. 실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4년 건강보험공단의 항암제 지출 비용은 연간 8231억원이고, 비급여 지출 비용은 약 2110억원에 달했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와 비교해 의약품 총 지출액 중 항암제 지출 비중이 9%로 다른 국가 평균이 19%인 점을 감안할 때 낮은 수치라는 것이다. 따라서 20조원에 달하는 건강보험재정 흑자분을 항암신약 등에 투자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br/> <br/> 또한 희귀암 치료제에 대해 경제성평가 자료를 생략하는 경제성평가 특례제도와 위험분담제의 대상 약제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필요하다는 의견과 암환자에 대한 특별 재정지원 방안도 필요하는 의견을 제시했다. KCCA는 항암제를 포함한 별도의 치료제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목적으로 중산층 이하의 국민들이 메디컬 푸어가 되는 상황을 막을 수 있는 특별기금 조성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밝혔다. 특별기금 조성 방안으로 재난적의료비 중 비급여 약제비에 해당하는 재원과 건강증진기금 중 건강보험 가입자지원비에 해당하는 재원(전체 건강증진기금 사업비 중 약 60%) 등을 꼽았다. 이와 함께 암환자에게 일괄 적용되는 5% 본인부담률을 암 병기와 환자의 경제적 수준을 고려해 완전경감에서 20%까지 구간을 두는 재원 재분배 방안도 제시했다. <br/> <br/> 이에 대해 김봉석 한국임상암학회 보험위원장(중앙보훈병원 혈액종양내과)은 “비축된 건강보험 재정 흑자분의 활용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 또 암환자 특별 지원과 관련 여전히 메디컬 푸어는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만큼 특별지원 제도를 연장하는 것이 좋다”고 주장했다. <br/> <br/> 특히 항암제가 건강보험에 등재(환자들의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 것)되는 과정인 ‘항암제 급여결정 과정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항암제 급여결정 과정 개선이 중요하다. 건강보험 급여 등재 여부를 최종 결정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 급여 여부가 상정되기 이전 단계에 상설협의체를 설립하는 것이 개선의 한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이 제시한 상설협의체는 신약 항암제 보험급여와 관련된 환자와 시민단체, 의사와 학계, 국회, 정부기관 등 이해관계자들이 급여 여부의 심도 있는 논의를 가능하도록 하는 자문기구 성격을 갖는다. 김 위원장은 “<span class='quot0'>지난 2014년 국회 예산정책처도 항암제 접근성 강화를 위해 다학제적 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권고한 바 있다</span>”고 덧붙였다. <br/> <br/> 김봉석 위원장은 “<span class='quot1'>암환자 보장성 강화를 위해서는 메디컬 푸어로 지적되는 4기 암환자에 대한 효과적인 비급여 신약의 사용과 이를 통한 경제적 부담완화</span>”라며 “<span class='quot1'>환자(단체)의 의견 반영을 공론화하고 다학제적 논의(상설협의체)에서 자문 의견을 내고, 건정심에서는 급여를 결정하는 방안을 제안한다</span>”고 강조했다. <br/> <br/>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

언론사: 국민일보-4-719.txt

제목: [김진홍 칼럼] 왕이 된 庶子, 왕이 못된 長子  
날짜: 20170220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220173255001  
ID: 01100201.20170220173255001  
카테고리: 정치>북한  
본문: 김정남 피살 사건은 북한이 ‘김씨 왕조’ 통치하에 있다는 사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서자(庶子) 출신으로 김일성-김정일에 이어 왕좌에 오른 김정은이, 왕이 되지 못한 장남(長男)이자 이복형인 김정남을 살해한 사건으로 요약할 수 있기 때문이다. 조선시대 27명의 세자(世子) 가운데 12명이 왕이 되지 못한 채 살해되거나 병사한 사실(史實)이 연상된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왕위를 튼튼히 하기 위해 타국까지 공작원을 보내 형을 독살하는 정권이 있다니 참으로 한심하고 불안하다. <br/> <br/> 김정남은 어릴 적부터 외롭고 고달팠다. 어머니 성혜림의 ‘성분’ 때문이었다. 그녀는 김일성종합대학 연구사 이평과 19세 때 결혼해 딸을 낳고, 유명배우가 됐다. 당시 ‘세자’였던 김정일은 5세 연상이자 유부녀인 그녀에게 반해 강제 이혼시킨 뒤 1970년 동거를 시작했고, 이듬해 김정남이 태어났다. 그러나 김정일은 김일성 지시에 따라 74년 노동당 간부의 딸인 김영숙과 결혼했고, 76년쯤부터는 만수대예술단 무용수인 고영희(고용희로도 알려짐)와 동거에 들어갔다. 성혜림은 김정남마저 잘못될 걸 우려한 나머지 불면증 등 온갖 병에 시달리다 80년대 초 치료차 모스크바로 갔고, 그곳에서 2002년 숨을 거둔다. 지금도 모스크바 서쪽 트로예쿠롭스코예 공동묘지에 묻혀 있다. 김정남의 존재 자체가 북한 내에서 거의 알려지지 않은 이유도 여기에 있다. <br/> <br/> 김정남은 80년 스위스 제네바로 유학을 떠났고 모스크바의 프랑스 학교에도 다녔으나 귀국한 뒤엔 다시 통제된 환경에서 살아야 했다. 특히 김정일과 고영희 사이에서 두 아들(김정철 김정은)이 태어나자 김정일의 관심은 그들에게 집중됐다. 게다가 이모인 성혜랑의 미국 망명사건(96년)이 터져 급기야 중국과 마카오 등지를 떠돌며 사실상 해외망명 생활을 시작하기에 이른다. 김정은이 2011년 ‘왕위’에 오른 뒤에는 암살 위협을 느끼며 하루하루를 보내야 했다. 2012년 그는 ‘김정은 세자 저하’에게 서신을 보내 “<span class='quot0'>저와 제 가족에 대한 응징 명령을 취소하기 바란다</span>”고 애원하기도 했다. 하지만 김정은은 김정남 암살이라는 ‘스탠딩 오더’를 거둬들이지 않았고, 김정남은 어머니와 마찬가지로 이국에서 불귀의 객이 됐다. <br/> <br/> 김정은 성정으로 볼 때 김정남이 끝이 아닐 것 같다. 그는 2013년 고모부 장성택을 공개 처형했다. 고모인 김경희는 행방이 묘연한 상태다. 김정일의 첫 번째 공식 부인인 김영숙이 낳은 두 딸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베일에 가려져 있고, 김정일의 네 번째 여인으로 한때 권력을 행사했던 김옥은 가족과 함께 숙청된 것으로 전해졌다. 지금으로선 김정남의 아들이자 김씨 일가의 사실상 장손인 김한솔이 가장 위태로워 보인다. <br/> <br/> 김정은이 광폭해진 데는 편집광적 성격에다가 현재의 그를 있게 한 어머니 고영희에 대한 우상화 실패도 한 요인이 아닐까 싶다. 김정은 체제가 들어선 직후 북한은 암으로 2004년 숨진 고영희를 ‘평양 어머님’으로 부르며 우상화 작업을 추진한 적이 있다. 하지만 요즘은 지지부진하다. 그녀의 이력과 성분 탓이다. 고영희는 일본 오사카에서 태어나 1960년 북한으로 넘어간 이른바 ‘째포’이며, ‘기쁨조’로 불리는 만수대예술단 무용수로 활동했다. 더욱이 아버지 고경택은 일제강점기 일본 육군성이 관할하는 군복공장 간부로 일했다. 동생 고영숙은 2001년 미국으로 망명했다. 김씨 일가가 자랑해온 ‘백두혈통’과는 거리가 너무 멀다. <br/> <br/> 집권 6년차로 접어든 김정은이 어떤 행동을 할지 예측하기 어렵다. 하지만 그의 말로(末路)는 참담할 것이다. 무자비한 폭군들이 대부분 그랬던 것처럼. <br/> <br/> <br/>▶구속 이재용 1400원짜리 식사… 구치소 생활 견딜까 <br/>▶이규혁 “김동성과 장시호 남녀관계” 증언… 김동성 “막 나불대는구나” <br/>▶그알싶 국정원 '빨간 마티즈'는 대선 개입 연결고리? <br/>▶"김제동, 내 집 앞에서 촛불시위 계획" 심기 불편한 김진태 <br/>▶손연재 은퇴 심경 글 "끝나서 너무 행복… 조금의 후회도 남지 않는다" <br/>▶이정희 “초등 교과서에 내 이름 실릴 뻔… 섬뜩했다” <br/>▶KAL기 폭파범 김현희 “<span class='quot1'>김정남 살해, 동남아 여성 고용한 청부살인</span>” <br/>▶이재용 구속되자 보수단체가 구치소 앞에서 한 일 <br/> <br/>김진홍 논설실장 jhkim@kmib.co.kr

언론사: 국민일보-4-720.txt

제목: [삶의 향기-박재찬] 기도해 드릴까요  
날짜: 20170218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218180555002  
ID: 01100201.20170218180555002  
카테고리: 사회>사회일반  
본문: 이승만 목사(1931∼2015) 이야기다. 1950년 12월 3일 눈이 펑펑 내리는 날이었다. 열아홉 살의 승만은 평양 보통강 근처 서성리 집에서 어머니와 네 명의 여동생을 눈앞에 두고서 발길이 좀처럼 떨어지지 않았다. <br/> <br/> 중공군이 넘어오기 시작하자 승만의 어머니 김송희 여사가 장·차남인 승만과 그의 동생 승규를 남쪽으로 피신시키려는 참이었다. 하지만 승만은 아버지를 하늘나라로 떠나보낸 지 두 달도 채 되지 않아 여자들만 놔두고 떠나는 게 장남의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했다. 그때 그가 용기를 내 이별을 선택할 수 있었던 건 어머니의 한마디 덕분이었다. <br/> <br/> “기도 속에서 만나자꾸나. 우리는 서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지 않으냐.” <br/> <br/> 승만 형제는 그날 이후로 어머니를 만나지 못했다. 하지만 “기도 속에서 만나자”며 어머니가 유언처럼 남긴 한마디는 평생 그를 따라다녔고, ‘기도 속에서 만나자’는 제목의 자서전까지 남겼다. 한평생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을 달래고 위로를 받으며 소망을 잃지 않을 수 있었던 그의 버팀목은 분명 기도였을 것이다. <br/> <br/> “기도해 드릴까요” “기도 좀 해줘” “기도해 줘서 고마워” …. 크리스천들은 기도의 힘을 믿기에 이런 대화가 지극히 자연스럽다. 기도의 영역이 이젠 교회 울타리를 넘는 것일까. <br/> <br/> 3년여 전부터 세브란스병원은 ‘기도로 함께하는 의사 프로젝트’를 펼치고 있다. 환자와 수술을 담당하는 의료진이 수술 대기실에 들어서면 원목실 교역자가 그들을 위해 기도한다. 또 마취나 수술 전에 환자가 요청만 하면 종교와 관계없이 미리 준비한 기도문으로 기도해준다. <br/> <br/> 흥미로운 건 “기도해 드릴까요”라는 제안을 거절하는 이가 거의 없다는 것이다. 오히려 기도받고 나서는 안도감을 느끼거나 편안한 마음을 지닐 수 있었다는 고백이 많다고 한다. 크리스천들이 믿는 기도의 능력이 아니더라도 ‘당신이 아픔에서 놓이도록 마음을 모으겠다’는 표현만으로도 환자는 힘을 얻는 것이다. <br/> <br/> 병을 앓거나 신앙이 없는 이들이라면 김의신(76) 박사 얘기에 귀가 솔깃할지도 모른다. 세계 최고의 암 전문병원인 미국 텍사스주립대 MD앤더슨 암센터에서 30년 넘게 몸담은 그는 ‘기도의 힘’을 믿는다. <br/> <br/> 몇 년 전 만난 김 박사는 이런 불평을 토로한 적이 있다. “여러 언론들과 만나서 신앙이나 기도 얘기를 아무리 많이 해도 기사에는 다 빠지더라. 국민일보에는 실릴 수 있나.” 그와 대화하는 가운데 가장 기억에 남았던 단어는 ‘기도’ ‘기적’이었다. <br/> <br/> 일반적으로 남을 위한 기도로 일컬어지는 중보기도의 힘은 강력했다. 200∼500명 정도 되는 교회 내 중보기도팀원들이 같은 교회에 다니는 암 환자를 위해 6개월에서 1년간 기도를 하게 했다. 암 환자 본인은 모르게 진행했는데, 중보기도를 받은 암 환자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치료 효과가 월등히 높았다. <br/> <br/> 교회 성가대원(찬양대원)이 일반인보다 면역세포가 1000배나 많았다는 조사 결과도 그는 언급했다. 보통 ‘곡조를 붙인 기도’를 찬양이라고 부르는 점을 감안하면 이 역시 기도의 힘으로 설명이 가능한 부분이다. <br/> <br/> 다음달 2일 열리는 제49회 대한민국국가조찬기도회가 역대 초유의 일을 준비 중이다. 탄핵심판 때문에 현직 대통령이 불참하는 기도회에 국내외 한인 크리스천들이 각자 처소에서 함께 기도하는 순서를 마련 중이다. 한날한시에 공동기도문을 함께 낭독하며 나라를 위해 마음을 모은다는 것이다. 국가조찬기도회장인 채의숭 장로가 매일 저녁 두세 시간씩 북한산 등산로를 오르내리며 기도로 준비한 일이라고 하니 범상치 않다. 그 또한 기도의 기적을 숱하게 체험한 신앙인이기 때문이다. <br/> <br/> 올해 조찬기도회가 대통령 없이 치러진다고 폄훼하는 이들도 있을 것이다. 그런 한편으로는 매년 ‘용비어천가’를 부르다 구설에 오르내렸던 조찬기도회가 진정한 권위를 찾는 계기가 될 수도 있겠다 싶다. 기도의 힘이 세 보이기 때문이다. 박재찬 종교부 차장 jeep@kmib.co.kr

언론사: 국민일보-4-721.txt

제목: [책속의 컷] 암수술 앞두고도 해맑던 천재 과학자  
날짜: 20170217  
기자: 박지훈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217050355001  
ID: 01100201.20170217050355001  
카테고리: 국제>국제일반  
본문: 한 물리학자가 했던 표현을 그대로 빌리자면, 리처드 파인만(1918∼1988)은 ‘반은 천재고 반은 얼간이’였다. 알버트 아인슈타인(1879∼1955)과 함께 20세기를 대표하는 과학자로 통하지만 그의 평소 언행은 ‘보통’이 아니었다. 언제나 유머러스했고 비범했으며 엉뚱하기 그지없었다. <br/> <br/> 여동생 조안 파인만은 오빠가 암으로 세상을 떠나던 순간을 회상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혼수상태에서 벗어나 잠시 눈을 뜨더니 말했어요. ‘죽는다는 건 지겨운 일이야.’ 그러고는 다시 혼수상태에 빠졌죠. 이런 유머 감각은 조금 오싹하기도 하지만, 그게 오빠가 한 마지막 말이었죠.” <br/> <br/> 저자는 영국의 다큐멘터리 제작자로 과거 파인만과 파인만의 가족 친구 과학자 등을 인터뷰했다. 책은 저자가 당시 벌인 취재의 내용을 한 권에 묶은 것이다. 낭만적이고 호기심이 많았던 한 천재 과학자의 생애를 생생한 사진과 각종 자료를 통해 엿볼 수 있다. <br/> <br/> 사진은 1981년 1월 미국 바하캘리포니아 한 해변가에서 포즈를 취한 파인만의 모습이다. 그는 1978년 처음 암 선고를 받았는데, 이 사진을 찍을 당시 대수술을 기다리고 있었다고 한다. <br/> <br/>박지훈 기자

언론사: 국민일보-4-722.txt

제목: 교회의 심장이 다시 뛴다  
날짜: 20170216  
기자: 유영대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216224344001  
ID: 01100201.20170216224344001  
카테고리: 문화>출판  
본문: 저자 김성태 목사는 큰빛교회 담임목사이다. 다니엘스쿨 필리핀 교육법인(GLDC) 이사장 / 감리교 속회 연구원 상임이사이다. <br/> <br/>협성대 신학과와 감신대 선교대학원, 리버티 신학대학원 목회학 박사(D.Min) 과정을 마쳤다. <br/> <br/>저서로 '불신자들도 찾아오는 교회' 가 있다. 이금주 사모와 두 자녀(단비, 영찬)와 주님을 열심히 섬기고 있다. <br/> <br/> <br/>보도자료 <br/> <br/>짙은 밤바다의 어둠을 가르고 붉은 태양이 떠오른다. 하나님의 창조 이야기를 품은 태양은 어느새 바닷가 언덕을 내달리다 높이 솟은 십자가에 장엄하고 찬란한 빛을 선사한다. 십자가 아래 감동과 행복의 공동체를 이룬 큰빛교회가 있다. <br/> <br/>단 두 명의 교인으로 시작 하여 16년이 지난 지금 1,500명으로 성장했다. <br/> <br/>안을 드려다 보면 단순히 숫적 성장이 아니라 체계적인이고 다중적인 양육 시스템을 통하여 성도들의 내적 성장을 이룬 외적 결과라는데 주목하게 된다. <br/> <br/>큰빛교회 성도들은 섬김 받는 행복과 섬기는 행복을 알고 있다. 그 행복의 크고 작은 이야기는 김성태(큰빛교회 담임)목사의 설교로 재생산 되고 확대 되어 성도들의 가슴에 뿌려주고 그들은 또다시 감동하여 울고 웃는다. <br/> <br/>성도들 삶의 주변만 성성이는 목회자의 어중간한 모습을 벗어 버리고 김목사는 과감히 그들의 삶의 중심으로 들어가 함께 춤추고 탄식한다. 몸이 불편한 성도들의 병실을 지키며 하얀 밤을 지세고 정이 그리운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고 때로는 말씀으로 엄히 꾸짖고 때론 부둥켜안고 통곡한다. <br/> <br/>그렇게 가라 엎어진 심령 위로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고 삼척의 황무지는 푸르름이 가득한 옥토로 변해가고 있다. 이들의 이야기는 목회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하고 <br/> <br/>이루고 싶은 교회공동체의 열망을 샘솟게 한다. 살아 있는 교회의 참 모습을 보고 싶다면 이 책을 주목하여 보라. <br/> <br/>1. 이 책의 컨셉 <br/>양육의 혁신이 온다! <br/>전도는 중요하다. 하지만 양육은 백 배 더 중요하다. 아이만 낳으면 책임을 다한 것이 아니듯 전도만 하면 책임을 다한 것이 아니다. 그 책임을 다하는 큰빛교회의 양육 지침서! 한 영혼을 지극히 사랑한 김성태 목사의 사랑의 양육 이야기! 2017년 교회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할 양육의 혁신! <br/> <br/>'전도가 최고다' 라는 생각보다 <br/>‘양육이 최고다’ 라는 새로운 생각을 제시한다. <br/>김성태 목사가 들려주는 세상을 향한 따뜻한 사랑의 이야기! <br/> <br/>“목사가 물러서면 그 영혼 죽는 것이고 <br/>목사가 포기하지 않으면 그 영혼 사는것이다” <br/> <br/>"교회의 심장이 다시 뛴다“ ... <br/> <br/>2. 책 소개 <br/>‘눈물 나도록 따사로움, 눈물 나도록 행복함, 눈물 나도록 감사함, 눈물 나도록 뜨거움! 매주가 부흥회 같고 설교 때마다 나를 울고 웃기신다 ’ 큰빛교회 성도들의 말이다. 16년전 단 두명의 성도에서 1500명으로 부흥시킨 한국교회의 차세대 목회자이다. <br/> <br/>하지만 과정은 있었다. 어느날 한 이웃이 영혼이 갈급하여 찾아왔지만 바쁜것을 이유로 돌보지 못했을 때 결국 안타까운 운명을 맞이한다. 그것이 그의 목회와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된다. 한 영혼을 돌보지 못했던 자책이,숫자가 목표였던 인생이 바뀌게 된다. <br/> <br/>그때부터 ‘숫자는 참사다’ 라고 할 정도로 ‘단 한명의 우리영혼’ 을 인생 최고의 목표로 삼고 있다. 모든 성도들의 이름을 외우고 화장실 청소를 하고 밥먹을 때도 전도대상자 가게를 일부러 찾아가는 목사다. <br/> <br/>성도 한 명이 아프면 밤새 잠 못자고 기도하고 아파하는 목사! 학비가 없어 고통당하는 학생에게 사비를 털어 내주는 목사! 나태한 성도를 과감히 꾸짖어 경책하는 목사! 자신의 삶은 제로인 목사! 양육이 백 배 더 중요하다고 외치는 목사! 어쩌면 이 시대 목사의 표상인지도 모른다. <br/> <br/>이런 결과는 성도를 저절로 충성하게 하고 100% 순종하게 만든다. 한 성도가 암에 걸려 쓰러졌을때 그날 밤 100명의 성도가 모여 밤새 철야 기도회를 연다. 서울대 출신의 집사가 교회청소를 한다. 여성도들은 매주 집밥이 그리운 대학생들에게 따뜻한 밥을 대접한다. <br/> <br/>성도가 한 가족 같다. 한국교회 양육의 롤모델 같은 교회다. ‘양육하는 교회는 망하지 않는다’ 를 몸소 실천하는 큰빛교회는 한국교회의 새로운 목회방향임에 과언이 아니다. 이 글은 바로 그런 내용이다. 전도 물론 중요하다. 하지만 양육은 정말 더 중요하다. <br/> <br/>양육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삶이 고스란히 담긴 이 책은 본질을 잃고있는 한국교회에게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 목회가 무엇인지를 명쾌하게 제시할 것이며 교회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할 것이다. <br/> <br/>‘눈물 나도록 따사로움, 눈물 나도록 행복함, 눈물 나도록 감사함, 눈물 나도록 뜨거움! 을 회복하는 한국교회를 소망한다. <br/> <br/>3. 목차 <br/>Step 1. 난 왜 교회 밖으로 행군하는가? <br/>난 교회 밖으로 행군한다 / 세상에 이런일이 / 큰빛교회 폭파시켜 버릴꺼야! / 단 한명의 우리 성도 / 삼척에 큰 불이 나다 / 전도는 묵직해야 한다 / 목사님!간증이 없어요 / 그도 내가 사랑하는 영혼이다 / 전도대상자는 정해져 있지 않다 / 불리한 조건은 소음일 뿐이다 / 홈플러스와의 전쟁(?) / 순간이동(?)버스 / 숫자가 낳은 참사 / 힘들어도 예수 믿어요 / 삼척의 영적 내비게이션 / 푯대를 향하다 <br/> <br/>Step 2. 전도하려면 이렇게 하라 ; 큰빛교회 전도 이야기 <br/>전도는 간단, 명료히 /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 신행일치\_ 네 얼굴이 전도지다 ,신행일치의 전도자\_ 한경직 목사 <br/>내 것을 주라\_ 주는 전도 / 생활전도 사용설명서\_ 전도는 가까운 곳부터, 전도의 최전선, 교회도 빅데이터를 활용하라, 진짜로 봉사해라 <br/>땅밟기 기도는 중요하다/ 제2의 전도터닝 포인트\_ 캠퍼스 전도, 캠퍼스 전도의 불길이 번지다 <br/>이삭줍기 전도 / 이삭은 이삭을 낳고 / 영혼구원 양동작전\_ 중보기도의 위력, 차세대 전도자를 후원하라, 준하네 가족, 전도엔 나이가 없다 <br/>교회문을 열어라\_ 세상과 교회의 연결고리 1- 영어캠프, 2.문화행사 <br/> <br/>Step 3. 왜 지금 양육이 중요한가? <br/>큰빛교회법을 따르시오 / 무늬만 크리스천이었습니다 / 새가족은 내 가족이다 / 봉사보다 양육먼저/ 우리 교회 자랑거리를 적어 주세요 / 예배를 리허설하다 <br/>바나바는 교회의 얼굴이다 / 누가 바나바가 되나? / 까칠남과 양육남의 한판대결 <br/> <br/>Step 4. 양육전쟁\_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 <br/>본격적 양육이 시작되다 / 기도도 양육이다 / 양육 때 무엇을 해야 할까? <br/>제대로된 신앙, 어디까지 해봤니? / 믿음의 기도는 산도 옮긴다 / <br/>확신반 이야기1\_잰틀맨 성도, 심집사 / 확신반 이야기2\_양육의 화룡점정 / 확신반 이야기3\_ 조폭 아저씨 <br/>큰빛교회 아버지 양육이야기1\_주차 봉사팀 단합대회 풍경 / 큰빛교회 아버지 양육이야기2\_왜 남자성도가 많을까? / <br/>큰빛교회 아버지 양육이야기3\_아빠가 달라졌어요 <br/>큰빛교회 어머니 양육이야기1\_ 집 밥 한끼 해줄게요 / 큰빛교회 어머니 양육이야기2\_집밥의 힘 / 큰빛교회 어머니 양육이야기3\_어머니 기도회 <br/>큰빛교회 청소년 양육이야기1\_ 승현이를 도웁시다 / 큰빛교회 청소년 양육이야기2\_비전으로 양육하라 <br/> <br/>Step 5. 양육의 결과들 : 기적, 성숙, 순종, 간증들 <br/>공정 봉사 / 답안지에 적힌 최주현 권사 /원칙은 원칙대로 / 믿음의 유산 <br/>양육의 열매들과 만나다1\_ 징검다리 성도/ 양육의 열매들과 만나다2\_ 당장 중보기보팀을 소집하세요 / <br/>양육의 최고봉\_성숙 / 시스템보다 사랑이다 / 성숙함으로 지역사회를 섬겨라 / 순종은 멋진 일이다 <br/>/ 간증을 양육하라 / 요람에서 무덤까지 양육하라 / 청소년 양육은 가족구원도 이룬다 / 초대교회 벤치마킹 / 지역사회를 품은 교회 <br/> <br/>4. 출판사 <br/>물맷돌 <br/>연락처: 서울시 중랑구 209-20 <br/>대표: 010-9194-3215(최남철) <br/> <br/>유영대 기자 ydyoo@kmib.co.kr

언론사: 국민일보-4-723.txt

제목: 가톨릭관동대국제성모병원, 맞춤형 암치유병원 오픈  
날짜: 20170216  
기자: 이기수 의학전문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216171744001  
ID: 01100201.20170216171744001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가톨릭관동대학교 국제성모병원은 16일 암 치료에 새로운 진료 모델을 제시할 맞춤형 암치유병원을 새로 오픈했다고 밝혔다( <br/>사진). <br/> <br/> <br/>맞춤형 암치유병원이란 정밀의료를 바탕으로 한 환자 개인맞춤 치료를 통해 치료 효과를 극대화해 암환자의 생존율을 높여줄 뿐만 아니라 암 치료 이후 삶의 질 향상에도 초점을 맞춰 행복지수를 높여주는 병원을 말한다. <br/> <br/>국제성모병원 측은 기존의 암 치료가 항암제를 투여한 후 환자의 반응에 따라 치료 계획을 수립하는 질병 중심의 경험적 치료였다면, 맞춤형 암치유병원은 환자 중심의 분석적 치료 시스템을 지향한다고 설명했다.  <br/> <br/>이를 위해 국제성모병원에서는 유전체 추출 및 분석의 정밀성을 토대로 차세대 DNA 검사법을 활용하여 환자의 유전적 특징, 선천적 혹은 후천적인 성향과 암세포의 특성까지 고려한 치료 방침을 세워 시행할 계획이다. 즉, 환자 개인에게 가장 적합한 표적항암제를 선택해 최적화된 정밀의료를 제공하겠다는 포석이다. <br/> <br/>정철운 국제성모병원 맞춤형 암치유병원장(외과 교수)는 “<span class='quot0'>유전체 분석을 통하여 환자 맞춤 표적항암제를 선택함으로써 항암제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span>”고 강조했다. <br/> <br/>국제성모병원 맞춤형 암치유병원은 이와 함께 유전체분석센터, 혈액암센터, 고형암센터, 중재적 시술 및 방사선치료센터, 다학제협진진료실 등 특화 센터를 같은 공간에 배치한 환자 중심의 원스톱 서비스를 구현할 방침이다. <br/> <br/>특히 다학제 협진(외과, 혈액종양내과, 영상의학과, 방사선종양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등)을 통해 최적의 암 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며, 암 간호 전문인력이 기본 간호를 포함한 전문간호서비스를 24시간 제공해 환자와 보호자의 간병 부담을 줄여줄 예정. <br/> <br/>이와 함께 암환자 전문 교육기관인 암치유 교육센터와 연계하여 암환자들이 치료 후 사회나 가정에 복귀할 경우에도 적극적으로 자신의 몸 건강을 관리할 수 있도록 전문 교육도 실시한다. <br/> <br/>정 원장은 “<span class='quot1'>암 수술이나 치료 후 환자들은 재발에 대해 걱정으로 검증되지 않은 정보에 쉽게 현혹되기 쉽다</span>”며 “<span class='quot1'>그렇기 때문에 암 치료의 범위를 적극적으로 확장해, 암 치료 후 환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준비했다</span>”고 말했다. <br/> <br/>이기수 의학전문기자 kslee@kmib.co.kr

언론사: 국민일보-4-724.txt

제목: 와카야마 의대, 췌장암 치료 위해 면역세포 치료백신 ‘박셀’ 도입  
날짜: 2017021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216090044001  
ID: 01100201.20170216090044001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2016년말 기준, 1만800건의 임상 및 치료실적을 쌓아온 세렌클리닉 그룹병원이 암 치료를 위한 고품질의 수지상세포 백신 ‘박셀’을 안정적인 세포배양기술과 노하우에 의해 제작해 암환자에게 제공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br/> <br/>일본 와카야마 의과대학도 췌장암을 치료하기 위해 수지상세포 백신 ‘박셀’을 도입키로 결정하고, 세렌클리닉 그룹의 모기업 ㈜테라의 자회사인 ㈜테라파마와 지난해 12월 7일 제휴계약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br/> <br/>㈜테라파마 관계자는 “<span class='quot0'>와카야마 의과대학 의료팀은 수지상세포(DC) 백신 Vaccell을 췌장암 환자에 대해 우선적으로 실시하고, 성과에 따라 순차적으로 다른 암에 대해서도 적용할 계획인 것으로 안다</span>”고 전했다. <br/> <br/>그동안 세렌클리닉 그룹병원을 필두로 모기업 ㈜테라는 암 환자에게 최적화된 고품질의 수지상세포 백신을 제공하기 위해 여러 대학병원과 연계해 끊임없이 연구와 임상을 거듭해 왔으며, 임상연구에 관한 결과를 암 관련 학회에 발표키도 하고 세계의 유수한 의·과학 잡지에 게재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br/> <br/>테라 관계자는 “<span class='quot1'>‘박셀’은 일본 자스닥 상장기업인 ㈜테라의 우수한 기술력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제작되는 암환자에게 최적화된 고품질의 수지상세포 백신</span>”이라며 “<span class='quot1'>대학병원 등의 여러 의료기관에서 다양한 임상연구가 시행됐고 그 연구결과를 통해 과학적인 근거가 제시되고 있다는 게 장점</span>”이라고 밝혔다. <br/> <br/>한편, ㈜세렌코리아(대표 송상한)은 지금까지 암 관련 학회나 의·과학 잡지에 발표됐던 박셀에 대한 대표적인 연구논문의 요약 부분을 발췌해 연구논문집으로 제작했으며, 회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논문집을 무료로 전달하고 있다. <br/> <br/>콘텐츠팀 이세연 lovok@kmib.co.kr

언론사: 국민일보-4-725.txt

제목: [포토]'입학을 축하드립니다'  
날짜: 20170215  
기자: 윤성호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215150844001  
ID: 01100201.20170215150844001  
카테고리: 사회>사회일반  
본문: 숙명여자대학교 신입생들이 15일 서울 잠실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입학식 및 숙명가족환영회에서 축하공연을 관람하며 즐거워하고 있다. <br/> <br/> <br/>▶김정남 "피할 곳 없다 살려달라" 김정은에 편지 <br/>▶김정남 살해 용의자 '짧은 치마' 여성 CCTV 포착 (영상) <br/>▶김정남도 ‘이것’에 당했나… 北이 암살에 쓰는 독극물 <br/>▶“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도 127회 통화… 총 590회” <br/>▶“장시호의 폭로는 계속된다” 형광펜까지 동원된 자필 진술서 <br/>▶“돌아온 언니의 뒤태” 이효리 근황 사진 화제 <br/>▶[단독] 최순실, 고영태 부모 찾아가 ‘호빠 다니는 쓰레기’ 협박 지시 <br/>▶“아들 돌봐주는 말기 암 엄마 때문에 변심” 장시호 옥중 인터뷰 <br/>▶“다짜고짜 서두원과 잤냐고 물었다” 맥심, 송가연 인터뷰 추가 공개 <br/> <br/> <br/>윤성호 기자 cybercoc@kmib.co.kr

언론사: 국민일보-4-726.txt

제목: [포토]'오늘의 주인공'  
날짜: 20170215  
기자: 윤성호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215150744001  
ID: 01100201.20170215150744001  
카테고리: 사회>사회일반  
본문: 숙명여자대학교 신입생들이 15일 서울 잠실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입학식 및 숙명가족환영회에서 축하공연을 관람하며 즐거워하고 있다. <br/> <br/>▶김정남 "피할 곳 없다 살려달라" 김정은에 편지 <br/>▶김정남 살해 용의자 '짧은 치마' 여성 CCTV 포착 (영상) <br/>▶김정남도 ‘이것’에 당했나… 北이 암살에 쓰는 독극물 <br/>▶“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도 127회 통화… 총 590회” <br/>▶“장시호의 폭로는 계속된다” 형광펜까지 동원된 자필 진술서 <br/>▶“돌아온 언니의 뒤태” 이효리 근황 사진 화제 <br/>▶[단독] 최순실, 고영태 부모 찾아가 ‘호빠 다니는 쓰레기’ 협박 지시 <br/>▶“아들 돌봐주는 말기 암 엄마 때문에 변심” 장시호 옥중 인터뷰 <br/>▶“다짜고짜 서두원과 잤냐고 물었다” 맥심, 송가연 인터뷰 추가 공개 <br/> <br/> <br/>윤성호 기자 cybercoc@kmib.co.kr

언론사: 국민일보-4-727.txt

제목: [포토]'입학을 축하드립니다'  
날짜: 20170215  
기자: 윤성호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215150744002  
ID: 01100201.20170215150744002  
카테고리: 사회>사회일반  
본문: 숙명여자대학교 신입생들이 15일 서울 잠실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입학식 및 숙명가족환영회에서 축하공연을 관람하며 즐거워하고 있다. <br/> <br/>▶김정남 "피할 곳 없다 살려달라" 김정은에 편지 <br/>▶김정남 살해 용의자 '짧은 치마' 여성 CCTV 포착 (영상) <br/>▶김정남도 ‘이것’에 당했나… 北이 암살에 쓰는 독극물 <br/>▶“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도 127회 통화… 총 590회” <br/>▶“장시호의 폭로는 계속된다” 형광펜까지 동원된 자필 진술서 <br/>▶“돌아온 언니의 뒤태” 이효리 근황 사진 화제 <br/>▶[단독] 최순실, 고영태 부모 찾아가 ‘호빠 다니는 쓰레기’ 협박 지시 <br/>▶“아들 돌봐주는 말기 암 엄마 때문에 변심” 장시호 옥중 인터뷰 <br/>▶“다짜고짜 서두원과 잤냐고 물었다” 맥심, 송가연 인터뷰 추가 공개 <br/> <br/>윤성호 기자 cybercoc@kmib.co.kr

언론사: 국민일보-4-728.txt

제목: 김정남 피살에 ‘비상’… 경찰, 태영호 등 탈북인사 경호 강화  
날짜: 20170215  
기자: 김철오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215145544001  
ID: 01100201.20170215145544001  
카테고리: 국제>아시아  
본문: 우리 경찰이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의 사망으로 태영호 전 영국주재 북한대사관 공사 등 탈북인사의 신변 경호를 강화했다. <br/> <br/> 경찰청은 15일 “<span class='quot0'>국내에서 거주 중인 주요 탈북인사들에 대해 신변보호팀을 추가 배치하고 주거지의 방범 순찰을 강화하고 있다</span>”며 “<span class='quot0'>신변에 위협이 우려되는 인사들의 거주지를 옮기는 등 보호 방안을 추가로 마련할 방침</span>”이라고 밝혔다. <br/> <br/> 경찰은 주요 탈북인사를 ‘가·나·다’ 3등급으로 나눠 관리하고 있다. 관할 경찰서 보안과 소속 경찰관 2명 이상이 24시간 밀착 경호하는 ‘가급’ 탈북인사는 수십명이다. 태 전 공사와 1991년 망명해 국가정보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원에 재직하는 고영환 부원장 등이다. <br/> <br/> 김정남은 지난 13일 말레이시아 콸라룸푸르공항에서 여성 간첩 2명의 암살로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용의자는 김정남을 살해한 뒤 택시를 탑승하고 도주한 것으로 전해졌다. 말레이시아 경찰은 북한 측의 소행으로 보고 있다. <br/> <br/> 김정남은 2011년 11월 사망한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이 첫 번째 부인 성혜림 사이에서 얻은 장남이다. 김정은이 북한에서 정권을 잡은 뒤 프랑스 파리,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등 해외를 전전했다. <br/> <br/>▶김정남 "피할 곳 없다 살려달라" 김정은에 편지 <br/>▶김정남 살해 용의자 '짧은 치마' 여성 CCTV 포착 (영상) <br/>▶김정남도 ‘이것’에 당했나… 北이 암살에 쓰는 독극물 <br/>▶“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도 127회 통화… 총 590회” <br/>▶“장시호의 폭로는 계속된다” 형광펜까지 동원된 자필 진술서 <br/>▶“돌아온 언니의 뒤태” 이효리 근황 사진 화제 <br/>▶[단독] 최순실, 고영태 부모 찾아가 ‘호빠 다니는 쓰레기’ 협박 지시 <br/>▶“아들 돌봐주는 말기 암 엄마 때문에 변심” 장시호 옥중 인터뷰 <br/>▶“다짜고짜 서두원과 잤냐고 물었다” 맥심, 송가연 인터뷰 추가 공개 <br/> <br/>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

언론사: 국민일보-4-729.txt

제목: ‘한센인 강제 단종·낙태 수술’ 국가 배상 인정…대법, 첫 판단  
날짜: 20170215  
기자: 뉴시스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215144844001  
ID: 01100201.20170215144844001  
카테고리: 사회>사건\_사고  
본문: 국가가 강제로 정관정제(단종) 수술과 임신중절(낙태) 수술을 시킨 한센인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br/> <br/>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15일 강모(81)씨 등 19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br/> <br/>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에 소속된 의사가 한센인에게 시행한 정관절제 수술과 임신중절 수술은 신체에 직접적인 침해를 가하는 의료행위”라며 “이같은 침해행위가 정당한 공권력 행사로 인정받으려면 법률에 명시적인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br/> <br/>이어 “강씨 등에게 시행된 수술은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법한 공권력 행사”라며 “국가는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br/> <br/>국립소록도병원을 비롯해 부산, 전북 익산의 시설에서 격리치료를 받던 강씨 등 19명은 1955~1977년 강제로 단종이나 낙태 수술을 받았다. <br/> <br/>2007년 10월 한센인피해사건법이 제정됐고 진상규명위원회가 구성됐다. 강씨 등은 국가로부터 강제로 단종, 낙태 수술을 받았다는 이유로 위원회로부터 피해자로 인정받아 2013년 8월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br/> <br/>▶김정남 "피할 곳 없다 살려달라" 김정은에 편지 <br/>▶김정남 살해 용의자 '짧은 치마' 여성 CCTV 포착 (영상) <br/>▶김정남도 ‘이것’에 당했나… 北이 암살에 쓰는 독극물 <br/>▶“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도 127회 통화… 총 590회” <br/>▶“장시호의 폭로는 계속된다” 형광펜까지 동원된 자필 진술서 <br/>▶“돌아온 언니의 뒤태” 이효리 근황 사진 화제 <br/>▶[단독] 최순실, 고영태 부모 찾아가 ‘호빠 다니는 쓰레기’ 협박 지시 <br/>▶“아들 돌봐주는 말기 암 엄마 때문에 변심” 장시호 옥중 인터뷰 <br/>▶“다짜고짜 서두원과 잤냐고 물었다” 맥심, 송가연 인터뷰 추가 공개 <br/> <br/>뉴시스

언론사: 국민일보-4-730.txt

제목: ‘선거법 위반’ 최명길 의원 벌금 200만원… 당선무효형  
날짜: 20170215  
기자: 뉴시스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215143844001  
ID: 01100201.20170215143844001  
카테고리: 사회>사회일반  
본문: 4·13 총선을 앞두고 선거운동 대가로 금품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최명길(56·서울 송파구을) 의원이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br/> <br/> <br/>무죄를 주장했던 최 의원은 판결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의 뜻을 밝혔다. <br/> <br/>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상윤)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최 의원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br/> <br/>재판부는 “최 의원은 선거사무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사람에게 돈을 주고 선거 홍보물을 작성해 SNS에 올리게 했다”며 “SNS를 통한 선거운동은 전파성이 높아서 선거의 영향력이 크므로 더욱 엄하게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br/> <br/>최 의원은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선출직 정치인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한다. <br/> <br/>최 의원은 20대 국회의원 선거운동 기간인 지난해 3월 30일 선거사무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이모(48)씨에게 온라인 선거운동을 부탁한 뒤 200만원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r/> <br/>▶[김정남 독침 피살] 김정은 권력유지 걸림돌로 생각해 제거 <br/>▶[김정남 독침 피살] ‘볼펜 독침’ 소지 정찰총국 요원 추정 <br/>▶[김정남 독침 피살] 해외 언론에 “삼촌은 독재자”… 김한솔 행방 묘연 <br/>▶“장시호의 폭로는 계속된다” 형광펜까지 동원된 자필 진술서 <br/>▶“돌아온 언니의 뒤태” 이효리 근황 사진 화제 <br/>▶“아직 이혼 못했지만…” 유퉁, 33세 연하 몽골여성과 8번째 결혼 <br/>▶[단독] 최순실, 고영태 부모 찾아가 ‘호빠 다니는 쓰레기’ 협박 지시 <br/>▶“아들 돌봐주는 말기 암 엄마 때문에 변심” 장시호 옥중 인터뷰 <br/>▶“다짜고짜 서두원과 잤냐고 물었다” 맥심, 송가연 인터뷰 추가 공개 <br/> <br/>뉴시스

언론사: 국민일보-4-731.txt

제목: 김정남 피살에 20년전 '이한영 암살' 재조명  
날짜: 20170215  
기자: 박효진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215143444001  
ID: 01100201.20170215143444001  
카테고리: 정치>북한  
본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이복형인 김정남이 말레이시아에서 피살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그의 이종사촌 이한영씨가 살해된 사건이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br/> <br/>이 씨는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전처이자 김정남의 어머니인 성혜림의 조카로 1982년 우리나라로 망명한 뒤 방송국 PD로 일하는 등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있었다. <br/> <br/> <br/> <br/>하지만 1996년 '대동강 로열패밀리 서울 잠행 14년'이라는 책을 출간하고 언론에 출연해 북한 최고 권력층의 실상을 폭로하면서 북한 당국의 표적이 된 뒤 1997년 2월 분당 자신의 자택에서 북한 공작원의 총격을 받고 열흘 만에 숨졌다. <br/> <br/>당시 현장에는 북한제 권총에서 사용되는 탄피가 발견됐고 이 씨는 의식을 잃기 전 간첩이라는 말을 내뱉었다는 증언이 나오기도 했다. <br/> <br/> <br/> <br/>당시 수사당국은 전단지 100만 장을 뿌려가며 범인을 추적했지만 범인 검거에는 실패했다.  <br/> <br/>이 씨의 이야기는 배우 강동원·송강호가 주연을 맡은 영화 '의형제'의 모티브가 된 것으로도 알려져 있다. <br/> <br/>이 씨의 회고에 따르면 ‘김정남은 어린 시절 상당히 권위적이고 제멋대로인 성격’이었다고 알려졌다. <br/> <br/>황장엽 전 북한 노동당 비서도 1997년 망명 이후 살해 위협에 시달렸다. 협박 편지나 도끼가 달린 소포를 받기도 했고 그를 암살하기 위해 침투한 북한 공작원 2명이 탈북자로 위장해 입국하려다 적발되기도 했다. 2010년 10월 서울 논현동 자택에서 심장마비로 사망했을 때도 피살 가능성이 제기됐다. <br/> <br/>이처럼 해외에 거주하는 주요 탈북 인사들을 암살하기 위한 북한의 시도가 끊이질 않았다.최근에는 북한이 직접 공작원을 보내기보다는 돈으로 다른 사람을 사주해 암살하는 방식을 선호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br/> <br/>한편, 김정남은 13일(현지시간) 말레이시아에서 피살됐다. 그는 지난 2001년 위조 여권으로 일본 입국을 시도하다 체포, 추방돼 마카오와 중국 등지를 옮겨 다니며 해외 생활을 해 왔다. <br/> <br/>▶[김정남 독침 피살] 김정은 권력유지 걸림돌로 생각해 제거 <br/>▶[김정남 독침 피살] ‘볼펜 독침’ 소지 정찰총국 요원 추정 <br/>▶[김정남 독침 피살] 해외 언론에 “삼촌은 독재자”… 김한솔 행방 묘연 <br/>▶“장시호의 폭로는 계속된다” 형광펜까지 동원된 자필 진술서 <br/>▶“돌아온 언니의 뒤태” 이효리 근황 사진 화제 <br/>▶“아직 이혼 못했지만…” 유퉁, 33세 연하 몽골여성과 8번째 결혼 <br/>▶[단독] 최순실, 고영태 부모 찾아가 ‘호빠 다니는 쓰레기’ 협박 지시 <br/>▶“아들 돌봐주는 말기 암 엄마 때문에 변심” 장시호 옥중 인터뷰 <br/>▶“다짜고짜 서두원과 잤냐고 물었다” 맥심, 송가연 인터뷰 추가 공개 <br/> <br/>박효진 기자 imhere@kmib.co.kr

언론사: 국민일보-4-732.txt

제목: 1970년대 강남개발시대…사진집으로 발간  
날짜: 20170215  
기자: 라동철 선임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215141747001  
ID: 01100201.20170215141747001  
카테고리: 문화>생활  
본문: 서울 강남개발이 한창이던 1970년대 중·후반의 모습이 담긴 사진집이 발간됐다. 서울역사박물관은 ‘서울시정사진총서Ⅶ, 가자! 강남으로, 1974~78 ①’를 간행했다고 15일 밝혔다. <br/> <br/>서울역사박물관은 1957년부터 1995년까지의 서울시정 사진기록 원본 58만여 컷을 서울시로부터 이관 받아 시대·주제별로 정리하고 그 중 대표적인 사진들을 선별해 2010년부터 ‘서울시정사진기록총서’로 발간하고 있다. <br/> <br/>이번에 발간되는 서울시정사진총서Ⅶ에는 1974~78년 서울시정 사진 중 강남·잠실·송파 등 한강 이남지역 개발, 지하철2호선 및 교량 건설 장면 등 260여점의 사진이 수록돼 있다. <br/>  <br/>강남의 빈 땅에 사람들이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하는 모습과 한강이남 지역이 새롭게 변모하고 강남·북이 연결되는 과정을 생생하게 살펴 볼 수 있다. <br/> <br/> <br/>1975년에는 강남구가 성동구에서 독립했고 같은 해 잠실개발계획이 발표됐다. 1974년에서 78년 사이 도심, 영동, 영등포를 중심으로 한 3핵 도시구상이 부상하면서 지하철 2호선이 강남과 강북을 연결하는 순환선으로 개편됐다. 남산3호터널, 한강교량과 도로건설로 인해 강남·북을 연결하는 도시기반시설이 확보됐다. <br/>1973년 입주가 시작된 반포주공아파트는 강남에 건설된 최초의 대단지 아파트였다. 77년에는 반포주공 2, 3단지 아파트가 착공했다. 1973년 도산 안창호 선생의 애국과 자주독립 정신을 기리기 위해 도산공원이 조성됐다. <br/> <br/>1975년에는 고속버스업계 9개 회사가 공동으로 출자해 설립한 강남종합버스터미널이 1차 준공돼 이듬해 개장됐다. 1978년에는 남산3호터널이 준공돼 도심에서 강남고속버스터미널까지의 진입시간을 단축시켰다. <br/> <br/>서울시정사진총서Ⅶ은 서울시청 시민청 내 서울책방(02-739-7033)에서 구할 수 있다. 가격은 3만원. <br/> <br/>▶[김정남 독침 피살] 김정은 권력유지 걸림돌로 생각해 제거 <br/>▶[김정남 독침 피살] ‘볼펜 독침’ 소지 정찰총국 요원 추정 <br/>▶[김정남 독침 피살] 해외 언론에 “삼촌은 독재자”… 김한솔 행방 묘연 <br/>▶“장시호의 폭로는 계속된다” 형광펜까지 동원된 자필 진술서 <br/>▶“돌아온 언니의 뒤태” 이효리 근황 사진 화제 <br/>▶“아직 이혼 못했지만…” 유퉁, 33세 연하 몽골여성과 8번째 결혼 <br/>▶[단독] 최순실, 고영태 부모 찾아가 ‘호빠 다니는 쓰레기’ 협박 지시 <br/>▶“아들 돌봐주는 말기 암 엄마 때문에 변심” 장시호 옥중 인터뷰 <br/>▶“다짜고짜 서두원과 잤냐고 물었다” 맥심, 송가연 인터뷰 추가 공개 <br/> <br/> <br/>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

언론사: 국민일보-4-733.txt

제목: 자전거 경사로 폭 좁힌다…시각장애인 안전·편의 확보  
날짜: 20170215  
기자: 라동철 선임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215120044001  
ID: 01100201.20170215120044001  
카테고리: 국제>국제일반  
본문: 정부가 시각장애인이 계단 손잡이를 이용할 때 발에 걸려 불편을 초래했던 지하철 계단의 자전거 경사로의 폭을 좁히기로 했다. 행정자치부는 시각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보행안전 및 편의성 확보를 골자로 하는 ‘자전거 이용시설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16일부터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br/> <br/>규칙 개정은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가 지하철 계단에 설치된 자전거 경사로로 인해 시각장애인들의 안전사고가 우려된다며 시설기준 개정을 건의한 데 따른 것이다. <br/> <br/>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지하철 역사 등의 계단에 설치되는 자전거 경사로 중심과 벽면 사이의 최소간격이 0.35m에서 0.2m로 축소된다. <br/> 시각장애인이 사전에 자전거 경사로가 시작되는 지점을 인지할 수 있도록 계단 및 경사로 전면에 점자블록이 설치된다. 자전거 경사로의 끝부분은 돌출되지 않도록 했다. <br/> <br/>엘리베이터 등 자전거를 이동시킬 수 있는 수단이 설치돼 있는 경우에는 자전거 경사로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신설했다. <br/> <br/>심덕섭 행자부 지방행정실장은 “<span class='quot0'>이번 규칙 개정이 교통약자의 안전한 보행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span>”고 말했다. <br/> <br/>▶[김정남 독침 피살] 김정은 권력유지 걸림돌로 생각해 제거 <br/>▶[김정남 독침 피살] ‘볼펜 독침’ 소지 정찰총국 요원 추정 <br/>▶[김정남 독침 피살] 해외 언론에 “삼촌은 독재자”… 김한솔 행방 묘연 <br/>▶“장시호의 폭로는 계속된다” 형광펜까지 동원된 자필 진술서 <br/>▶“돌아온 언니의 뒤태” 이효리 근황 사진 화제 <br/>▶“아직 이혼 못했지만…” 유퉁, 33세 연하 몽골여성과 8번째 결혼 <br/>▶[단독] 최순실, 고영태 부모 찾아가 ‘호빠 다니는 쓰레기’ 협박 지시 <br/>▶“아들 돌봐주는 말기 암 엄마 때문에 변심” 장시호 옥중 인터뷰 <br/>▶“다짜고짜 서두원과 잤냐고 물었다” 맥심, 송가연 인터뷰 추가 공개 <br/> <br/>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

언론사: 국민일보-4-734.txt

제목: 재외국민 4만6832명, 여자가 46%가량 많아  
날짜: 20170215  
기자: 라동철 선임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215120044002  
ID: 01100201.20170215120044002  
카테고리: 사회>사회일반  
본문: 지난 1월말 현재 재외국민 주민등록자 수는 4만6800여명으로 서울에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br/>행정자치부는 1월말 현재 우리나라 주민등록 인구는 5170만4332명으로 2016년 말에 비해 8116명(0.02%) 증가했다고 15일 밝혔다. <br/> <br/>주민등록 인구는 거주자가 5119만5526명(99.02%), 거주불명자가 46만1974명(0.89%), 재외국민이 4만6832명(0.09%)이다. <br/> 주민등록 세대수는 2131만2864세대이며 세대당 인구는 2.43명이다. <br/> <br/>지난달과 비교할 때 경기(1만1840명), 세종(1891명), 인천(940명) 등 9개 시·도의 인구는 늘어난 반면 부산(-1750명), 경북(-1595명), 강원(-1594명), 전남(-1534명), 전북(-1493명) 등 8개 시·도는 감소했다. <br/> <br/>재외국민은 서울이 1만9564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1만3265명), 부산(2626명), 인천(2226명), 대구(1121명) 등이 뒤를 이었다. 성별로는 남자 1만9051명, 여자 2만7781명이다. 연령별로는 50대가 1만2597명(26.9%)로 가장 많고 60대 9252명(19.8%), 40대 9195명(19.6%), 30대 5031명(10.7%)이다. 만19세 미만도 1834명(3.9%)이었다. <br/> <br/>재외국민은 해외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영주귀국 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이다. 정부는 재외국민이 국내에서 금융 거래 및 행정업무 처리 시 겪는 불편함을 해소하고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소속감을 높여주기 위해 2015년 1월 22일부터 재외국민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br/> <br/>지난 1월 한 달 동안 전국의 출생신고는 3만862명으로 경기(8135명), 서울(5525명), 경남(2086명) 등에서 많았다.  사망신고는 2만4136명으로 역시 경기(4809명), 서울(3590명), 경남(1816명) 등에서 많았다. <br/> <br/>출생신고가 많은 시·군·구는 경기 수원(840명), 경남 창원(663명), 경기 성남(638명)·용인(620명)·고양(616명) 등이다. <br/> <br/>▶[김정남 독침 피살] 김정은 권력유지 걸림돌로 생각해 제거 <br/>▶[김정남 독침 피살] ‘볼펜 독침’ 소지 정찰총국 요원 추정 <br/>▶[김정남 독침 피살] 해외 언론에 “삼촌은 독재자”… 김한솔 행방 묘연 <br/>▶“장시호의 폭로는 계속된다” 형광펜까지 동원된 자필 진술서 <br/>▶“돌아온 언니의 뒤태” 이효리 근황 사진 화제 <br/>▶“아직 이혼 못했지만…” 유퉁, 33세 연하 몽골여성과 8번째 결혼 <br/>▶[단독] 최순실, 고영태 부모 찾아가 ‘호빠 다니는 쓰레기’ 협박 지시 <br/>▶“아들 돌봐주는 말기 암 엄마 때문에 변심” 장시호 옥중 인터뷰 <br/>▶“다짜고짜 서두원과 잤냐고 물었다” 맥심, 송가연 인터뷰 추가 공개 <br/> <br/>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

언론사: 국민일보-4-735.txt

제목: 정부부처 공무원 22%, 지난해 유연근무제 활용…증가 추세  
날짜: 20170215  
기자: 라동철 선임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215120044003  
ID: 01100201.20170215120044003  
카테고리: 사회>사회일반  
본문: 정부부처 공무원들의 유연근무제 활용이 해마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정부 부처 공무원 5명에 1명꼴로는 유연근무제를 활용했으며 유형은 시차출퇴근형이 가장 많았다. <br/> <br/>인사혁신처는 지난해 45개 정부 부처에서 유연근무제도를 이용한 공무원은 3만7301명이며 이용률은 22.0%라고 15일 밝혔다. <br/> <br/>이는 2015년(2만7257명, 18.9%)에 비해 1만44명(36.8%) 늘어난 수치다. <br/> <br/>유형별로는 하루 8시간 근무하지만 출퇴근시간을 자율 조정하는 ‘시차출퇴근형’이 2만8033명(75%)으로 가장 많았다. 주 5일(40시간)을 근무하지만 1일 근무시간은 4~12시간 범위 내에서 조정하는 ‘근무시간선택형’은 5329명(14%), 1일 근무시간을 10~12시간으로 늘리는 대신 주 3.5~4일(40시간) 근무하는 ‘집약근무형’은 366명(1%)이 이용했다. <br/> <br/>부처별로는 인사혁신처(72.3%), 행정자치부(64.6%), 교육부(63.7%), 국민안전처(56.2%), 문화체육관광부(54.1%) 등의 이용률이 높았다. <br/> <br/>인사처는 스마트워크센터 활용과 개인별 맞춤형 유연근무제 이용을 권장하고 있으며 교육부는 유연근무제 직위 발굴과 ‘재택근무 체험의 달’을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br/> <br/>유연근무제 활성화를 위해 개선해야 할 점으로는 ‘상사나 동료의 부정적 인식’(27.7%), ‘간부급의 솔선수범’(16.9%), 신청방법변경 등 제도개선(13.3%)을 꼽았다. <br/> <br/>박제국 인사처 차장은 “<span class='quot0'>보다 많은 공무원이 유연근무제를 이용해 개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업무 능률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공무원의 근무여건을 개선할 계획</span>”이라고 말했다 <br/> <br/>인사처는 공직사회에 유연근무제를 확산·정착시키기 위해 간부급 이상의 유연근무 이용을 장려하고 각 부처의 유연근무제 활성화 노력 등을 평가에 반영하고 있다. <br/> <br/>인사처에 따르면 최근 52개 중앙부처 공무원을 대상으로 2016년 유연근무제 이용현황을 조사·분석한 결과, 응답자(5만5486명)의 74.4%가 ‘삶의 질 향상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 66.9%는 ‘업무성과와 생산성 제고에 효과가 있다’고 답했다. 55.2%는 ‘유연근무가 초과근무 감축에 효과가 있다’, 54.8%는 ‘유연근무제에 전반적으로 만족한다’고 답했다. <br/> <br/>▶[김정남 독침 피살] 김정은 권력유지 걸림돌로 생각해 제거 <br/>▶[김정남 독침 피살] ‘볼펜 독침’ 소지 정찰총국 요원 추정 <br/>▶[김정남 독침 피살] 해외 언론에 “삼촌은 독재자”… 김한솔 행방 묘연 <br/>▶“장시호의 폭로는 계속된다” 형광펜까지 동원된 자필 진술서 <br/>▶“돌아온 언니의 뒤태” 이효리 근황 사진 화제 <br/>▶“아직 이혼 못했지만…” 유퉁, 33세 연하 몽골여성과 8번째 결혼 <br/>▶[단독] 최순실, 고영태 부모 찾아가 ‘호빠 다니는 쓰레기’ 협박 지시 <br/>▶“아들 돌봐주는 말기 암 엄마 때문에 변심” 장시호 옥중 인터뷰 <br/>▶“다짜고짜 서두원과 잤냐고 물었다” 맥심, 송가연 인터뷰 추가 공개 <br/> <br/>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

언론사: 국민일보-4-736.txt

제목: 김정남도 ‘이것’에 당했나… 北이 암살에 쓰는 독극물  
날짜: 20170215  
기자: 박상은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215113044001  
ID: 01100201.20170215113044001  
카테고리: 정치>북한  
본문: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장남이자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이복형인 김정남(46)이 공항 한복판에서 피살되면서 과거 북한 공작원이 사용했던 독극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br/> <br/>김정남은 13일 오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공항 내에서 피살됐다. 김정남 사망 이후 국내외에서 언론 보도가 쏟아지고 있지만 정확한 피살 과정과 사인은 밝혀지지 않았다. 사건 직후에는 독침이 사용됐다고 전해졌고 15일에는 독액 스프레이로 피살됐다는 현지 보도가 나왔다. <br/> <br/>북한이 암살에 주로 사용하는 독극물은 브롬화네오스티그민이라는 맹독으로 알려져 있다. 부교감신경흥분제인 이 물질은 10㎎만 투여해도 호흡이 정지되고 심장마비로 즉시 사망할 정도로 강력하다. <br/> <br/>2011년 10월 대북전단을 살포한 보수단체 대표를 살해하려다 구속된 간첩 안모씨는 북한 정찰총국에서 받은 독침과 독총 등을 소지하고 있었다. 당시 공개된 볼펜 모양의 독침과 손전등형 독총에는 브롬화네오스티그민이 사용됐다. <br/> <br/>2011년 8월 중국 단둥에서 피살된 고(故) 김창환 선교사의 혈액에서도 브롬화네오스티그민이 검출됐다. 김 선교사는 평소 탈북자와 북한 어린이를 돕고 김정일 체제 비난 문건을 북한에 밀반입했던 인물이다. <br/> <br/>한편 말레이시아 현지 매체인 더스타는 북한 대사관에서 김정남의 시신을 인도해 달라는 요청이 왔고 부검을 마친 뒤 인도될 것이라고 전했다. 말레이시아 경찰이 김정남을 피살한 여성들을 추적 중이지만 이들의 신원과 행적을 파악하는 건 쉽지 않을 전망이다. <br/> <br/>▶[김정남 독침 피살] 김정은 권력유지 걸림돌로 생각해 제거 <br/>▶[김정남 독침 피살] ‘볼펜 독침’ 소지 정찰총국 요원 추정 <br/>▶[김정남 독침 피살] 해외 언론에 “삼촌은 독재자”… 김한솔 행방 묘연 <br/>▶“장시호의 폭로는 계속된다” 형광펜까지 동원된 자필 진술서 <br/>▶“돌아온 언니의 뒤태” 이효리 근황 사진 화제 <br/>▶“아직 이혼 못했지만…” 유퉁, 33세 연하 몽골여성과 8번째 결혼 <br/>▶[단독] 최순실, 고영태 부모 찾아가 ‘호빠 다니는 쓰레기’ 협박 지시 <br/>▶“아들 돌봐주는 말기 암 엄마 때문에 변심” 장시호 옥중 인터뷰 <br/>▶“다짜고짜 서두원과 잤냐고 물었다” 맥심, 송가연 인터뷰 추가 공개 <br/> <br/>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

언론사: 국민일보-4-737.txt

제목: 김진 “인명진 위원장과 텔레파시 통한 듯… ‘깜짝 놀랄 후보’ 모르겠다”  
날짜: 20170215  
기자: 정승훈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215105644001  
ID: 01100201.20170215105644001  
카테고리: 정치>청와대  
본문: 15일 자유한국당 입당과 동시에 대선 출마를 선언할 예정인 김진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이 “<span class='quot0'>보수세력의 대안이 없어 내가 나섰다</span>”며 출마 이유를 밝혔다. <br/> <br/>김 전 위원은 이날 오전 SBS라디오 ‘박진호의 시사전망대’에 출연해 “<span class='quot1'>반기문 전 총장이 좌절한 뒤 감히 내가 나서야 겠다고 결심했다</span>”며 “<span class='quot1'>지난 총선에서 보수 정권이 참패하는 것을 보고 정말 정권이 넘어갈 수 있음을 걱정하기 시작했다</span>”고 이 같이 말했다. <br/> <br/>김 전 위원은 “<span class='quot1'>인명진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의 ‘깜짝 놀릴 후보가 나올 것’이란 발언과 출마가 관련 있는 것이냐</span>”라고 묻는 사회자의 질문에 “<span class='quot1'>어떤 인물을 구체적으로 염두에 두셨는지는 모르겠다</span>”면서도 “텔레파시가 통한 것 같다”고 말했다. <br/> <br/>자유한국당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 그는 “<span class='quot1'>바른정당 세력이 느꼈을 분노와 좌절감을 100% 이해하지만 새로운 정당을 만들 명분은 되지 않는다</span>”며 “<span class='quot1'>자유한국당이 공화당-민자당-신한국당-한나라당-새누리당이라는 보수의 명맥을 이어오고 있는 정당</span>”이라 설명했다. <br/> <br/>박 대통령에 대해 김 전 위원은 “대통령도 피해자일 수 있다”며 “<span class='quot1'>최순실의 의도와 계획을 몰랐다면 대통령도 그런 부분에서는 피해자 아니냐</span>”고 반문했다. <br/> <br/>▶[김정남 독침 피살] 김정은 권력유지 걸림돌로 생각해 제거 <br/>▶[김정남 독침 피살] ‘볼펜 독침’ 소지 정찰총국 요원 추정 <br/>▶[김정남 독침 피살] 해외 언론에 “삼촌은 독재자”… 김한솔 행방 묘연 <br/>▶“장시호의 폭로는 계속된다” 형광펜까지 동원된 자필 진술서 <br/>▶“돌아온 언니의 뒤태” 이효리 근황 사진 화제 <br/>▶“아직 이혼 못했지만…” 유퉁, 33세 연하 몽골여성과 8번째 결혼 <br/>▶[단독] 최순실, 고영태 부모 찾아가 ‘호빠 다니는 쓰레기’ 협박 지시 <br/>▶“아들 돌봐주는 말기 암 엄마 때문에 변심” 장시호 옥중 인터뷰 <br/>▶“다짜고짜 서두원과 잤냐고 물었다” 맥심, 송가연 인터뷰 추가 공개 <br/> <br/>정승훈 기자 shjung@kmib.co.kr

언론사: 국민일보-4-738.txt

제목: 김정남 아들 김한솔, 13세 때 능숙했던 해킹의 정황  
날짜: 20170215  
기자: 김철오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215105644002  
ID: 01100201.20170215105644002  
카테고리: IT\_과학>인터넷\_SNS  
본문: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조카이자 말레이시아에서 살해된 것으로 알려진 김정남의 22세 아들 김한솔은 10대 시절 컴퓨터와 인터넷을 능수능란하게 다뤘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br/> <br/> 여러 정황을 종합하면 소셜네트워크서비스 트위터와 동영상 공유사이트 유튜브를 활용했고, 세 컷짜리 만화를 그려 웹툰 사이트 스트립제너레이터닷컴에 올리는 등 보통의 10대들과 다르지 않게 인터넷을 기반으로 활동했다. <br/> <br/> 불과 13세 때 해킹을 능숙하게 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정황도 있었다. 미국 동영상 사이트 메타카페(www.metacafe.com)에서 김한솔의 것으로 추정되는 아이디 ‘kimhs616’은 2008년 2월 1일 시스템 최적화 프로그램 ‘어슬로직스 부트스피드 V3(Auslogics Boostspeed V3)’ 정품을 해킹해 무료로 사용하는 방법을 상세하게 소개한 동영상이 게재됐다. <br/> <br/> 동영상에는 다운로드 경로, 설치 과정, 정품 인증 때 입력할 코드 등 해킹 방법이 상세하게 소개됐다. 동영상에 육성을 남기지 않고 컴퓨터 메모장 프로그램에 영문 설명을 작성하며 해킹 방법을 알려주는 치밀함도 보였다. <br/> <br/> 한국 미국 일본 등에서 10대 청소년들이 컴퓨터 활용 능력을 과시하기 위해 정품 소프트웨어 해킹 방법을 공개적으로 유포하는 경우가 자주 발견되는 만큼 이 동영상도 같은 이유로 제작된 것으로 추정됐다. <br/> <br/> 김한솔은 컴퓨터와 인터넷을 능숙하게 사용하는 점, 인터넷상에서 같은 아이디를 사용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동영상을 게재한 아이디 ‘kimhs616’과 동일 인물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br/> <br/> 15일 현재 이 사이트에서 같은 아이디의 동영상은 모두 삭제됐다. 개인 페이지에 미국 프로레슬링 단체 WWE 로고를 사용한 프로필 사진만 남았다. 트위터 역시 같은 아이디의 이용자는 다른 이름을 사용하고 있었다. <br/> <br/> 김한솔은 아버지 김정남의 암살로 추정되는 죽음으로 신변 위협을 받고 있다. 현재 그의 행방은 묘연하다. <br/> <br/> 김정남은 전날 말레이시아 콸라룸푸르공항에서 여성 간첩 2명의 독침 암살로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용의자는 김정남을 살해한 뒤 택시를 탑승하고 도주한 것으로 전해졌다. 말레이시아 경찰은 북한 측의 소행으로 보고 있다. <br/> <br/> 김정남은 2011년 11월 사망한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이 첫 번째 부인 성혜림 사이에서 얻은 장남이다. 김정은이 북한에서 정권을 잡은 뒤 프랑스 파리,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등 해외를 전전했다. <br/> <br/>▶[김정남 독침 피살] 김정은 권력유지 걸림돌로 생각해 제거 <br/>▶[김정남 독침 피살] ‘볼펜 독침’ 소지 정찰총국 요원 추정 <br/>▶[김정남 독침 피살] 해외 언론에 “삼촌은 독재자”… 김한솔 행방 묘연 <br/>▶“장시호의 폭로는 계속된다” 형광펜까지 동원된 자필 진술서 <br/>▶“돌아온 언니의 뒤태” 이효리 근황 사진 화제 <br/>▶“아직 이혼 못했지만…” 유퉁, 33세 연하 몽골여성과 8번째 결혼 <br/>▶[단독] 최순실, 고영태 부모 찾아가 ‘호빠 다니는 쓰레기’ 협박 지시 <br/>▶“아들 돌봐주는 말기 암 엄마 때문에 변심” 장시호 옥중 인터뷰 <br/>▶“다짜고짜 서두원과 잤냐고 물었다” 맥심, 송가연 인터뷰 추가 공개 <br/> <br/>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

언론사: 국민일보-4-739.txt

제목: 스마트폰 재미에 빠진 노년층 '목·눈·손 건강 경고등'  
날짜: 20170215  
기자: 민태원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215100244001  
ID: 01100201.20170215100244001  
카테고리: IT\_과학>IT\_과학일반  
본문: 노년층의 스마트폰 사용이 늘면서 생활의 편리함이 커졌지만 관절 통증 등 건강에 경고등이 켜지고 있다.  <br/> <br/>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이 발표한 ‘2016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에 따르면 60대 이상 2143명 대상 스마트폰 사용 과의존 위험군이 11.7%(약 25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60대 이상 100명 중 12명이 스마트폰 중독 위험 증상을 보이는 셈이다. <br/>  <br/> 노년층은 노안이나 미세한 손 떨림 때문에 오조작 등 사용에 어려움이 있어 짧은 시간 사용해도 피로감을 더 많이 느낄 수 있다. 무엇보다 과사용하면 노화로 인해 관절 통증이 쉽게 생기는 반면 회복은 더뎌 관절 건강에도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br/> <br/> 노년층은 시력문제로 스마트폰 화면을 보려고 고개를 자주 내밀게 되는데 목을 내민 자세를 장기간 유지할 경우, 흔히 목디스크라고 하는 경추추간판탈출증이 발생할 수 있다.  <br/> 인천힘찬병원 김형건 원장(정형외과 전문의)은 15일 "<span class='quot0'>젊은 사람에 비해 디스크의 퇴행성 변화가 진행된 만큼 조금만 무리를 해도 통증이 생기고 질환으로 발전하기도 쉽다</span>"면서 "<span class='quot0'>주변 근육이나 인대가 약한 목은 외부 자극에 취약한 만큼 구부러진 자세를 피해야 한다</span>"고 말했다. <br/>  <br/> 경추추간판탈출증은 경추 사이에 쿠션 역할을 하는 추간판(디스크)의 수핵이 밖으로 밀려 나와 신경을 눌러 통증이 생긴다. 목에 위치한 7개의 뼈 사이로 8쌍의 신경이 지나가는데, 아래쪽 4쌍은 목뼈를 빠져나가 어깨와 팔, 손가락으로 간다. 디스크가 돌출되면 이 신경 줄기를 자극하게 되는데, 팔과 손가락에 저림 증상이 나타난다.  <br/> 목디스크가 진행되면 목과 어깨 부위의 통증 악화는 물론 심한 경우 팔, 손끝을 움직이지 못하거나 마비가 올 수 있다. <br/>  <br/> 목디스크 예방의 시작은 바른 자세다. 정면을 바라보며 귀가 어깨와 일직선이 되는 자세가 가장 안정적이므로 스마트폰을 사용하더라도 이런 자세를 유지하면 피로감을 덜 수 있다. 또 누워서 스마트폰을 할 때는 높은 베개보다 목을 받칠 수 있는 낮은 베개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또 고개를 숙여 어깨 앞으로 내밀거나, 턱을 치켜들어 목이 젖혀진 등의 자세를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br/>  <br/> 노년층 스마트폰 사용은 눈 건강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 노안은 눈물샘의 기능이 떨어져 있는 상태로 스마트폰 사용 시간에 비례해 안구건조증의 증상도 느끼기 쉽다. 심할 경우 수정체가 혼탁해져 시력이 흐려지는 질환인 백내장으로 번질 수 있어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 <br/> 김모(81)씨는 자녀들과 메시지를 주고받고 손주 영상을 보는 재미에 스마트폰을 손에 들고 살았다. 가끔 손의 통증은 있었으나 혈액순환 장애가 생긴줄 알았다. 그런데 점차 욱신거리는 통증과 함께 손에 힘이 빠져 자주 스마트폰을 떨어뜨리게 되자 이상을 느꼈다. 일상생활이 불편해진 김씨는 병원에 내원하여 수근관증후군(손목터널증후군)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br/>  <br/> 김씨처럼 스마트폰 사용으로 손 저림을 느끼는 경우가 늘고 있다. 나이가 들거나 손목을 많이 쓰면 수근관을 덮고 있는 인대가 두꺼워지는데 이 때문에 수근관이 좁아지면서 신경을 압박해 손 저림이 나타나게 된다. 처음에는 주로 저림 증상이 나타나다가 심해지면 엄지손가락 근육이 위축되고 마비 증세가 나타나 손가락을 본인 의지대로 움직이지 못하게 된다. <br/>  <br/> 김형건 원장은 “<span class='quot0'>수근관증후군은 새끼손가락을 제외한 엄지, 검지, 중지와 약지 절반에 저림 증상이 나타나고 감각이 무뎌지는 질환</span>”이라며 “<span class='quot0'>초기에 손저림이 일시적이고 경미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병원을 방문하는 경우가 적고, 상당수가 운동기능 장애가 나타났을 때 수근관을 넓혀주는 수술적인 치료를 받는 경우가 많다</span>”고 설명했다. <br/> 통증이 있어도 혈액순환 장애라 대수롭지 않게 넘기기 쉬운 수근관증후군은 손목의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동작이 주요 원인이다. 때문에 평소에 손목 스트레칭을 하거나 손목을 보호는 습관을 통해 예방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다. 노화로 손목 관절이 약화된 노년층은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 손목과 손가락을 이완시켜 무리를 줄이는 것이 좋다. 스마트폰을 사용하면서 10분 간격으로 손목을 돌리거나 손을 터는 동작이 도움이 된다. <br/> <br/>▶[김정남 독침 피살] 김정은 권력유지 걸림돌로 생각해 제거 <br/>▶[김정남 독침 피살] ‘볼펜 독침’ 소지 정찰총국 요원 추정 <br/>▶[김정남 독침 피살] 해외 언론에 “삼촌은 독재자”… 김한솔 행방 묘연 <br/>▶“장시호의 폭로는 계속된다” 형광펜까지 동원된 자필 진술서 <br/>▶“돌아온 언니의 뒤태” 이효리 근황 사진 화제 <br/>▶“아직 이혼 못했지만…” 유퉁, 33세 연하 몽골여성과 8번째 결혼 <br/>▶[단독] 최순실, 고영태 부모 찾아가 ‘호빠 다니는 쓰레기’ 협박 지시 <br/>▶“아들 돌봐주는 말기 암 엄마 때문에 변심” 장시호 옥중 인터뷰 <br/>▶“다짜고짜 서두원과 잤냐고 물었다” 맥심, 송가연 인터뷰 추가 공개 <br/> <br/>민태원 기자 twmin@kmib.co.kr

언론사: 국민일보-4-740.txt

제목: 5만원권 지폐 위조해 사용한 10대 덜미  
날짜: 20170215  
기자: 대구=최일영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215093744001  
ID: 01100201.20170215093744001  
카테고리: 사회>사건\_사고  
본문: 대구 동부경찰서는 컬러복합기를 사용해 5만원권 지폐 1장을 위조한 혐의(통화위조 등)로 A씨(18·여)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br/> <br/>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9일 밤 10시50분쯤 자신의 집에서 5만원권 지폐를 컬러복합기에 올려놓고 지폐의 앞·뒤면을 각각 복사한 후 서로 붙이는 방법으로 지폐 1장를 위조한 뒤 거주지 인근 동구 시장 내 B씨(67·여)가 운영하는 과일상회에서 사과를 사고 거스름돈 3만8000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br/> <br/> 당시 B씨는 사과를 판매하고 받은 지폐가 보통의 지폐보다 두꺼워 “돈이 왜 이래요”라고 물었는데 A는 “세탁기에 넣어서 (물에 젖어)그래요”라고 변명했다. <br/> <br/> 경찰 관계자는 “<span class='quot0'>A씨는 인터넷 검색 중 5만원권 지폐를 위조할 수 있다는 글을 보고 생활비로 사용하기 위해 위조했다고 진술했다</span>”고 밝혔다. <br/> <br/>▶[김정남 독침 피살] 김정은 권력유지 걸림돌로 생각해 제거 <br/>▶[김정남 독침 피살] ‘볼펜 독침’ 소지 정찰총국 요원 추정 <br/>▶[김정남 독침 피살] 해외 언론에 “삼촌은 독재자”… 김한솔 행방 묘연 <br/>▶“장시호의 폭로는 계속된다” 형광펜까지 동원된 자필 진술서 <br/>▶“돌아온 언니의 뒤태” 이효리 근황 사진 화제 <br/>▶“아직 이혼 못했지만…” 유퉁, 33세 연하 몽골여성과 8번째 결혼 <br/>▶[단독] 최순실, 고영태 부모 찾아가 ‘호빠 다니는 쓰레기’ 협박 지시 <br/>▶“아들 돌봐주는 말기 암 엄마 때문에 변심” 장시호 옥중 인터뷰 <br/>▶“다짜고짜 서두원과 잤냐고 물었다” 맥심, 송가연 인터뷰 추가 공개 <br/> <br/> <br/>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

언론사: 국민일보-4-741.txt

제목: 약간의 음주 후 잡는 운전대, 사망사고 부른다  
날짜: 20170215  
기자: 한장희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215093044001  
ID: 01100201.20170215093044001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운전자의 혈중알코올 농도가 0.09% 이하일 때 음주운전 사고 사망자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br/> <br/>도로교통공단은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음주 교통사고 통계를 분석한 결과 운전자의 혈중알코올 농도가 0.05~0.09%인 상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사망자수가 601명으로 전체 음주사고 사망자(1902명)의 32%에 달했다고 15일 밝혔다. 교통사고 발생대비 사망률도 0.1~0.19%보다 0.05~0.09% 구간이 더 높았다. <br/> <br/>알코올농도 0.09%는 현행 단속기준인 0.05%보다는 높지만 운전면허 취소 기준인 0.1%보다는 낮은 수치다. 이는 술을 많이 마시고 운전할수록 교통사고 피해가 커질 것이라는 통념과 배치되는 것이다. <br/>  <br/>공단은 음주 후 자신의 운전 실력을 과신하고 평상시처럼 운전하는 것이 사고로 이어지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공단 측은 “<span class='quot0'>대수롭지 않은 것으로 생각한 음주가 사고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통계로 입증됐다</span>”고 말했다. <br/> <br/>음주운전 사고에는 숙취운전도 한 몫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통상 술을 마신 후 바로 운전하는 것만 음주운전이라고 생각하지만, 술 마신 다음날 술이 깨지 않은 상태에서 하는 운전도 위험하다는 지적이다. <br/> <br/>▶[김정남 독침 피살] 김정은 권력유지 걸림돌로 생각해 제거 <br/>▶[김정남 독침 피살] ‘볼펜 독침’ 소지 정찰총국 요원 추정 <br/>▶[김정남 독침 피살] 해외 언론에 “삼촌은 독재자”… 김한솔 행방 묘연 <br/>▶“장시호의 폭로는 계속된다” 형광펜까지 동원된 자필 진술서 <br/>▶“돌아온 언니의 뒤태” 이효리 근황 사진 화제 <br/>▶“아직 이혼 못했지만…” 유퉁, 33세 연하 몽골여성과 8번째 결혼 <br/>▶[단독] 최순실, 고영태 부모 찾아가 ‘호빠 다니는 쓰레기’ 협박 지시 <br/>▶“아들 돌봐주는 말기 암 엄마 때문에 변심” 장시호 옥중 인터뷰 <br/>▶“다짜고짜 서두원과 잤냐고 물었다” 맥심, 송가연 인터뷰 추가 공개 <br/> <br/> <br/>한장희 기자 jhhan@kmib.co.kr

언론사: 국민일보-4-742.txt

제목: 스포츠 도박 자금 마련 인터넷 중고거래 사기 10대 구속  
날짜: 20170215  
기자: 울산=조원일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215092944001  
ID: 01100201.20170215092944001  
카테고리: 사회>사건\_사고  
본문: 울산 남부경찰서는 인터넷 중고 거래 장터에 물건을 판다고 속인 뒤 돈을 가로챈 혐의(개인간 직거래 사기)로 김모(19)씨를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br/> <br/>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인터넷 중고품 거래 카페인 ‘중고나라’에 명품 의류 등을 판매한다고 속여 피해자 33명으로부터 총 540만원 상당의 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br/> <br/>김씨는 전화나 카카오톡으로 피해자들과 연락해 물건을 판매할 것처럼 속인 뒤, 계좌로 돈이 입금되면 물건을 보내지 않고 연락을 끊어버렸다. <br/> <br/>경찰 조사에서 김씨는 “<span class='quot0'>스포츠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span>”고 진술했다. <br/> <br/>경찰는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br/> <br/>▶[김정남 독침 피살] 김정은 권력유지 걸림돌로 생각해 제거 <br/>▶[김정남 독침 피살] ‘볼펜 독침’ 소지 정찰총국 요원 추정 <br/>▶[김정남 독침 피살] 해외 언론에 “삼촌은 독재자”… 김한솔 행방 묘연 <br/>▶“장시호의 폭로는 계속된다” 형광펜까지 동원된 자필 진술서 <br/>▶“돌아온 언니의 뒤태” 이효리 근황 사진 화제 <br/>▶“아직 이혼 못했지만…” 유퉁, 33세 연하 몽골여성과 8번째 결혼 <br/>▶[단독] 최순실, 고영태 부모 찾아가 ‘호빠 다니는 쓰레기’ 협박 지시 <br/>▶“아들 돌봐주는 말기 암 엄마 때문에 변심” 장시호 옥중 인터뷰 <br/>▶“다짜고짜 서두원과 잤냐고 물었다” 맥심, 송가연 인터뷰 추가 공개 <br/> <br/> <br/>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

언론사: 국민일보-4-743.txt

제목: 인천장애인 가정방문 컴퓨터 교육 대상자 및 봉사자 3월10일까지 모집  
날짜: 20170215  
기자: 인천=정창교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215092444001  
ID: 01100201.20170215092444001  
카테고리: 사회>장애인  
본문: 인천장애인재활지원센터는 장애로 인해 이동권 제약이 있는 장애인들에게 봉사자가 방문해 교육 대상자의 욕구를 반영한 맞춤형 IT교육을 제공하는 ‘정보요원단 방문 컴퓨터 교육’사업이 2017년에도 계속된다고 15일 밝혔다. <br/> <br/>IT교육이 가능한 자원봉사자와 IT를 배우고자 하는 장애인을 선정해 일대일로 연계한뒤 총 10회에 걸쳐 각자 일정을 정해 교육을 진행하는 방식이다. <br/> <br/>이 사업을 위해 오는 3월 10일까지 교육 대상자와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 <br/> <br/>모집인원은 각각 12명이다. <br/> <br/>접수는 재활협회 홈페이지(www.icsrd.co.kr)에 있는 서류 양식(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을 다운로드 받아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br/> <br/>문의는 인천장애인재활지원센터 김현주 사회복지사에게 하면 된다(032-438-0420~1). <br/> <br/>▶[김정남 독침 피살] 김정은 권력유지 걸림돌로 생각해 제거 <br/>▶[김정남 독침 피살] ‘볼펜 독침’ 소지 정찰총국 요원 추정 <br/>▶[김정남 독침 피살] 해외 언론에 “삼촌은 독재자”… 김한솔 행방 묘연 <br/>▶“장시호의 폭로는 계속된다” 형광펜까지 동원된 자필 진술서 <br/>▶“돌아온 언니의 뒤태” 이효리 근황 사진 화제 <br/>▶“아직 이혼 못했지만…” 유퉁, 33세 연하 몽골여성과 8번째 결혼 <br/>▶[단독] 최순실, 고영태 부모 찾아가 ‘호빠 다니는 쓰레기’ 협박 지시 <br/>▶“아들 돌봐주는 말기 암 엄마 때문에 변심” 장시호 옥중 인터뷰 <br/>▶“다짜고짜 서두원과 잤냐고 물었다” 맥심, 송가연 인터뷰 추가 공개 <br/> <br/> <br/>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

언론사: 국민일보-4-744.txt

제목: [긴급]말레이시아, 한국 정부에 김정남 사망 공식통보  
날짜: 20170215  
기자: 구성찬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215092344001  
ID: 01100201.20170215092344001  
카테고리: 정치>북한  
본문: 말레이시아 당국이 한국 정부에 북한 김정은의 맏형 김정남의 사망 사실을 통보했다고 일본 교도통신이 15일 긴급뉴스로 보도했다. <br/> 교도통신은 말레이 당국이 경찰을 통해 한국에 사망 사실을 통보했다고 전했다. 말레이 당국이 김정남의 사인까지 통보했는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 <br/> <br/>▶[김정남 독침 피살] 김정은 권력유지 걸림돌로 생각해 제거 <br/>▶[김정남 독침 피살] ‘볼펜 독침’ 소지 정찰총국 요원 추정 <br/>▶[김정남 독침 피살] 해외 언론에 “삼촌은 독재자”… 김한솔 행방 묘연 <br/>▶“장시호의 폭로는 계속된다” 형광펜까지 동원된 자필 진술서 <br/>▶“돌아온 언니의 뒤태” 이효리 근황 사진 화제 <br/>▶“아직 이혼 못했지만…” 유퉁, 33세 연하 몽골여성과 8번째 결혼 <br/>▶[단독] 최순실, 고영태 부모 찾아가 ‘호빠 다니는 쓰레기’ 협박 지시 <br/>▶“아들 돌봐주는 말기 암 엄마 때문에 변심” 장시호 옥중 인터뷰 <br/>▶“다짜고짜 서두원과 잤냐고 물었다” 맥심, 송가연 인터뷰 추가 공개 <br/> <br/> <br/>구성찬 기자 ichthus@kmib.co.kr

언론사: 국민일보-4-745.txt

제목: 인천시 농업기술센터 귀농귀촌대학 교육생 90명 모집  
날짜: 20170215  
기자: 인천=정창교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215085544001  
ID: 01100201.20170215085544001  
카테고리: 사회>사회일반  
본문: 인천시 농업기술센터는 귀농·귀촌자에게 영농기술교육과 농업정보를 제공해 농업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귀농·귀촌에 대한 사전준비로 성공적인 농촌 및 영농정착률 제고를 위해 제8기 귀농·귀촌대학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br/> <br/>제8기 귀농·귀촌대학은 4월 4일부터 11월 28일까지 매주 화요일 오후에 농업기술센터 및 현지포장에서 기초 영농기술교육, 농지제도, 귀농귀촌 마인드 정립 등의 내용으로 실시한다. <br/> <br/>교육시간 100시간 이상 이수하면 수료증을 발급한다. <br/> <br/>제8기 귀농·귀촌대학의 교육생 모집인원은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인천시민 90명으로 자체기준에 의한 신청서류 전형으로 선발한다.  <br/> <br/>신청접수는 3월 6일부터 10일까지로 인천시농업기술센터를 방문하여 접수하면 된다. <br/> <br/>자세한 사항은 농업기술센터홈페이지(http://agro.incheon.go.kr)를 참고하거나 인력개발팀(032-440-6910~11)으로 문의하면 된다. <br/> <br/>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span class='quot0'>이번 교육을 통해 영농 정착 수준 및 단계별 교육으로 성공적인 영농정착에 도움을 주고, 현장학습을 겸한 영농교육 실시 및 전문지도사와 유기적인 연결을 통해 귀농자의 성공적인 농촌정착을 유도할 것으로 기대한다</span>”고 말했다. <br/> <br/>▶[김정남 독침 피살] 김정은 권력유지 걸림돌로 생각해 제거 <br/>▶[김정남 독침 피살] ‘볼펜 독침’ 소지 정찰총국 요원 추정 <br/>▶[김정남 독침 피살] 해외 언론에 “삼촌은 독재자”… 김한솔 행방 묘연 <br/>▶“장시호의 폭로는 계속된다” 형광펜까지 동원된 자필 진술서 <br/>▶“돌아온 언니의 뒤태” 이효리 근황 사진 화제 <br/>▶“아직 이혼 못했지만…” 유퉁, 33세 연하 몽골여성과 8번째 결혼 <br/>▶[단독] 최순실, 고영태 부모 찾아가 ‘호빠 다니는 쓰레기’ 협박 지시 <br/>▶“아들 돌봐주는 말기 암 엄마 때문에 변심” 장시호 옥중 인터뷰 <br/>▶“다짜고짜 서두원과 잤냐고 물었다” 맥심, 송가연 인터뷰 추가 공개 <br/> <br/> <br/>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

언론사: 국민일보-4-746.txt

제목: ‘정유라 학사 특혜’ 최경희 전 이대 총장 결국 구속  
날짜: 20170215  
기자: 황인호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215084445001  
ID: 01100201.20170215084445001  
카테고리: 사회>사건\_사고  
본문: 박영수 특별검사팀 ‘구속영장 재청구 1호 피의자’인 최경희(55) 전 이화여대 총장이 15일 최순실(61·구속 기소)씨 딸 정유라(21)씨에 대한 입학·학사 특혜를 승인 내지 지시한 혐의로 결국 구속됐다. <br/> <br/> <br/> <br/>서울중앙지법 성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새벽 2시20분쯤 “<span class='quot0'>추가로 수집된 증거자료 등을 종합할 때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span>”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br/> <br/>앞서 법원은 지난달 22일 최 전 총장에 대한 검찰의 첫 번째 구속영장 청구에 “<span class='quot1'>소명 정도에 비춰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span>”며 기각했다. 특검은 지난 11일 최 전 총장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br/> <br/>전날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특검팀은 박충근 특검보와 신자용 부장검사 등을 투입해 최 전 총장의 구속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추가로 확보한 증거 등도 함께 제시했다. 첫 영장실질심사 때 2시간45분 걸린 것보다 1시간 가까이 더 소요될 정도로 양측 공방은 치열했으나 법원은 특검 쪽 주장을 인정했다. <br/> <br/>특검팀은 최 전 총장이 이대 2015학년도 수시 모집 체육특기자 전형(승마 종목)에서 남궁곤(56·구속 기소) 당시 입학처장으로부터 정씨가 지원했다는 보고를 받고 그를 뽑으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br/> <br/>이어 지난해 1학기에는 최씨의 청탁을 받아 정씨에게 학점 특혜를 주라는 지시를 이인성(54) 의류산업학과 교수에게 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 김경숙(62) 전 신산업융합대학장, 이 교수를 구속 기소하면서 이들 공소장에 최 전 총장의 지시가 있었다고 적시하기도 했다. <br/> <br/> 이대 입·학사 비리 의혹의 정점인 최 전 총장이 구속되면서 관련 수사도 마무리 수순으로 접어들었다. <br/> <br/>▶[김정남 독침 피살] 김정은 권력유지 걸림돌로 생각해 제거 <br/>▶[김정남 독침 피살] ‘볼펜 독침’ 소지 정찰총국 요원 추정 <br/>▶[김정남 독침 피살] 해외 언론에 “삼촌은 독재자”… 김한솔 행방 묘연 <br/>▶“장시호의 폭로는 계속된다” 형광펜까지 동원된 자필 진술서 <br/>▶“돌아온 언니의 뒤태” 이효리 근황 사진 화제 <br/>▶“아직 이혼 못했지만…” 유퉁, 33세 연하 몽골여성과 8번째 결혼 <br/>▶[단독] 최순실, 고영태 부모 찾아가 ‘호빠 다니는 쓰레기’ 협박 지시 <br/>▶“아들 돌봐주는 말기 암 엄마 때문에 변심” 장시호 옥중 인터뷰 <br/>▶“다짜고짜 서두원과 잤냐고 물었다” 맥심, 송가연 인터뷰 추가 공개 <br/> <br/> <br/>황인호 기자 inhovator@kmib.co.kr

언론사: 국민일보-4-747.txt

제목: 황교안 대행, 김정남 피살 관련 NSC 상임위 소집  
날짜: 20170215  
기자: 김철오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215083244001  
ID: 01100201.20170215083244001  
카테고리: 정치>북한  
본문: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의 피살과 관련해 15일 오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소집한다. <br/> <br/> 김정남은 전날 말레이시아 콸라룸푸르공항에서 여성 간첩 2명의 독침 암살로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용의자는 김정남을 살해한 뒤 택시를 탑승하고 도주한 것으로 전해졌다. 말레이시아 경찰은 북한 측의 소행으로 보고 있다. <br/> <br/>김정남은 2011년 11월 사망한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이 첫 번째 부인 성혜림 사이에서 얻은 장남이다. 김정은이 북한에서 정권을 잡은 뒤 프랑스 파리,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등 해외를 전전했다. <br/> <br/>▶[김정남 독침 피살] 김정은 권력유지 걸림돌로 생각해 제거 <br/>▶[김정남 독침 피살] ‘볼펜 독침’ 소지 정찰총국 요원 추정 <br/>▶[김정남 독침 피살] 해외 언론에 “삼촌은 독재자”… 김한솔 행방 묘연 <br/>▶“장시호의 폭로는 계속된다” 형광펜까지 동원된 자필 진술서 <br/>▶“돌아온 언니의 뒤태” 이효리 근황 사진 화제 <br/>▶“아직 이혼 못했지만…” 유퉁, 33세 연하 몽골여성과 8번째 결혼 <br/>▶[단독] 최순실, 고영태 부모 찾아가 ‘호빠 다니는 쓰레기’ 협박 지시 <br/>▶“아들 돌봐주는 말기 암 엄마 때문에 변심” 장시호 옥중 인터뷰 <br/>▶“다짜고짜 서두원과 잤냐고 물었다” 맥심, 송가연 인터뷰 추가 공개 <br/> <br/> <br/>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

언론사: 국민일보-4-748.txt

제목: 인천시, 산업디자인 육성지원 25억원 투입한다  
날짜: 20170215  
기자: 인천=정창교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215083144001  
ID: 01100201.20170215083144001  
카테고리: 경제>산업\_기업  
본문: 인천시는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와 함께 ‘2017년도 인천광역시 디자인 및 해외마케팅 포괄 지원사업 설명회’를 15일 인천종합비즈니스센터 대강당에서 개최했다. <br/> <br/>사업 설명회에서는 올해 인천시 ‘산업디자인 육성 및 지원’ 사업과 ‘해외마케팅 지원’ 사업내용을 설명했다. <br/> <br/>특히 이 설명회는 변화하는 트렌드와 소재, 컨설팅 등에 대한 전문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br/> <br/>인천시는 디자인산업 육성을 위한 각종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다. <br/> <br/>올해는 총 25억원의 예산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br/> <br/>주요 디자인지원 사업으로는 중소기업 디자인개발지원, 인천디자인지원센터 운영을 통한 인천가치 재창조 사업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br/> <br/>‘중소기업 디자인개발 지원사업’에는 기업의 독창적 디자인의 신상품 개발을 촉진하고 기업의 이미지 제고를 목적으로 약 18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90여개 지역 중소기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br/> <br/>제품, 포장, 시각디자인 및 멀티미디어(홍보영상물) 제작 분야의 각 과제당 총 개발비의 80%, 최대 1800만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br/> <br/>개발과정에서 중간점검 및 최종평가를 통해 결과물의 질적 향상과 디자인회사의 경쟁력 제고가 기대된다. <br/> <br/>모집기간은 오는 22일부터 3월 15일까지다. <br/> <br/>접수된 과제에 대해 1차 서류 및 2차 PT 심사를 거쳐 지원과제를 선정하게 된다. <br/> <br/>또한 ‘우수디자인 시제품개발지원’사업은 15개 이상의 지역 중소기업 지원을 목표로 올해 6월 희망 기업을 모집하고 과제당 총 개발비의 80%, 최대 2,500만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br/> <br/>아울러 인천시에서는 올 해 신규로 국비를 유치해 서비스디자인센터, 디자인교육센터를 문을 연다. <br/> <br/>이를 통해 서비스디자인 및 디자인교육을 본격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br/> <br/>또한 마케팅지원사업과 연계해 디자인지원 수혜기업 대상 단체전시회 지원, 해외 수출용 포장디자인 개발지원, 디자인개발 지원 후 외국어 카탈로그 제작 지원 등 마케팅과 연계 가능한 지원 사업들을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다. <br/> <br/>해외마케팅 지원사업의 경우 이날 설명회에서 기존에 지원하고 있는 해외전시(박람회) 지원사업과 시장개척단 지원사업 이외에 올해부터 새롭게 추진하는 글로벌 챌린저 지원사업 및 온라인 B2B 마케팅 지원사업 등 수출 초보기업부터 수출 전문기업까지 다방면으로 활용할 수 있는 단계별 지원사업을 소개하는 자리를 갖기도 했다. <br/> <br/>설명회에 참석한 기업인들은 “<span class='quot0'>평소에 절실히 필요했던 디자인개발과 마케팅을 연계한 지원사업을 인천시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게 되어 만족스럽고 기대가 크다</span>”는 반응을 보였다 <br/> <br/>설명회 자료는 인천디자인지원센터 홈페이지(www.idsc.kr)에서 다운로드 하여 확인할 수 있다. <br/> <br/>자세한 내용 및 문의사항은 전화를(032-260-0238, 0248, 0258) 통해 안내 받을 수 있다. <br/> <br/>▶[김정남 독침 피살] 김정은 권력유지 걸림돌로 생각해 제거 <br/>▶[김정남 독침 피살] ‘볼펜 독침’ 소지 정찰총국 요원 추정 <br/>▶[김정남 독침 피살] 해외 언론에 “삼촌은 독재자”… 김한솔 행방 묘연 <br/>▶“장시호의 폭로는 계속된다” 형광펜까지 동원된 자필 진술서 <br/>▶“돌아온 언니의 뒤태” 이효리 근황 사진 화제 <br/>▶“아직 이혼 못했지만…” 유퉁, 33세 연하 몽골여성과 8번째 결혼 <br/>▶[단독] 최순실, 고영태 부모 찾아가 ‘호빠 다니는 쓰레기’ 협박 지시 <br/>▶“아들 돌봐주는 말기 암 엄마 때문에 변심” 장시호 옥중 인터뷰 <br/>▶“다짜고짜 서두원과 잤냐고 물었다” 맥심, 송가연 인터뷰 추가 공개 <br/> <br/> <br/>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

언론사: 국민일보-4-749.txt

제목: "올해부터 국정교과서로 수업" 곽일천 서울디지텍 교장 강행  
날짜: 20170215  
기자: 천금주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215082844001  
ID: 01100201.20170215082844001  
카테고리: 사회>교육\_시험  
본문: 서울의 한 고등학교가 올해부터 국정 역사 교과서로 수업을 한다고 밝혔다. 국정 교과서로 수업을 하겠다고 나선 학교는 이 학교가 처음이다. <br/> <br/>동아일보는 곽일천 서울디지텍고등학교 교장의 말을 인용해 올해부터 국정 역사 교과서를 활용해 역사 수업을 한다고 15일 보도했다. <br/> <br/>곽 교장은 동아일보에 “<span class='quot0'>서울시교육청의 반대로 연구학교 지정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중요한 것은 수업이기 때문에 올해부터 국정 역사 교과서를 활용해 역사 수업을 할 것</span>”이라고 말했다. <br/> <br/>곽 교장은 또 “<span class='quot0'>검정 교과서와 국정 교과서가 같은 사안을 어떻게 다르게 기술하고 있는지 비교하면서 토론하는 기회를 주는 등 학생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게 하겠다</span>”며 “<span class='quot0'>중요한 것은 국정 역사 교과서가 당초 목적대로 수업에 활용되는 것이고, 수업을 하는 데는 지장이 없다</span>”고 매체에 말했다. <br/> <br/>보도에 따르면 곽 교장은 교육부에 국정 역사 교과서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교육부가 거부할 이유가 없지만 교과서를 보내주지 않을 경우 복사라고 해서 쓰겠다는 방침이다.  <br/> <br/>앞서 지난 9일 서울디지텍고등학교는 연구학교 지정 관련 공문을 전달하지 않은 시교육청에 공문을 전달해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시교육청은 국정 교과서 연구학교는 ‘연구학교 선정 심의회’를 통과하지 못해 지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br/> <br/>시교육청은 또 교육부의 공문도 관내 학교에 전달하지 않았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6곳은 교육부에서 내려온 연구학교 신청 공문을 일선 학교에 전달하지 않았다.  결국 교육부는 연구학교 신청 마감일을 15일로 닷새 연장했다. <br/> <br/>앞서 서울디지텍고등학교는 종업식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비판한 연설을 해 구설에 올랐었다. 해당 영상이 유튜브 등에 올라와 네티즌들의 비난을 받았다. <br/> <br/>▶[김정남 독침 피살] 김정은 권력유지 걸림돌로 생각해 제거 <br/>▶[김정남 독침 피살] ‘볼펜 독침’ 소지 정찰총국 요원 추정 <br/>▶[김정남 독침 피살] 해외 언론에 “삼촌은 독재자”… 김한솔 행방 묘연 <br/>▶“장시호의 폭로는 계속된다” 형광펜까지 동원된 자필 진술서 <br/>▶“돌아온 언니의 뒤태” 이효리 근황 사진 화제 <br/>▶“아직 이혼 못했지만…” 유퉁, 33세 연하 몽골여성과 8번째 결혼 <br/>▶[단독] 최순실, 고영태 부모 찾아가 ‘호빠 다니는 쓰레기’ 협박 지시 <br/>▶“아들 돌봐주는 말기 암 엄마 때문에 변심” 장시호 옥중 인터뷰 <br/>▶“다짜고짜 서두원과 잤냐고 물었다” 맥심, 송가연 인터뷰 추가 공개 <br/> <br/> <br/>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

언론사: 국민일보-4-750.txt

제목: 옐런 의장, 다음달 15일 추가 금리인상 시사  
날짜: 20170215  
기자: 워싱턴=전석운 특파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215075644001  
ID: 01100201.20170215075644001  
카테고리: 국제>미국\_북미  
본문: 재닛 옐런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 의장이 14일(현지시간) 기준금리의 추가 인상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br/>옐런 연준 의장이 구체적인 금리인상 시점이나 인상 기준을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다음달 15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 직후에 인상될 가능성이 크다. <br/> <br/>옐런 의장은 이날 미국 상원 은행위원회의 청문회에 출석해 “<span class='quot0'>앞으로 있을 통화정책 회의에서 고용과 물가상승이 예상대로 진전될 경우 연방기금금리의 추가 조정이 적절하다고 본다</span>”고 밝혔다. <br/> <br/>그는 “<span class='quot0'>통화완화 정책을 없애기 위해 너무 오래 기다린다면 현명하지 못한 일이 될 것</span>”이라며 “<span class='quot0'>시장이 강해지고 있고 인플레도 2%를 향해 움직이고 있다</span>”고 말했다. <br/> <br/>이에 따라 다음달 14~15일 열리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추가 금리 인상이 단행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br/> <br/>옐런 의장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들이 경제전망에 불확실성을 야기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br/> <br/>옐런 의장은 “<span class='quot1'>재정정책의 변화가 미국 정부의 회계를 지속 가능한 궤도로 유지하는 방향으로 이뤄지기를 희망한다</span>”며 트럼프 행정부가 경기부양을 위해 지나치게 채무를 발생시켜서는 안된다고 주문했다. <br/> <br/>▶[김정남 독침 피살] 김정은 권력유지 걸림돌로 생각해 제거 <br/>▶[김정남 독침 피살] ‘볼펜 독침’ 소지 정찰총국 요원 추정 <br/>▶[김정남 독침 피살] 해외 언론에 “삼촌은 독재자”… 김한솔 행방 묘연 <br/>▶“장시호의 폭로는 계속된다” 형광펜까지 동원된 자필 진술서 <br/>▶“돌아온 언니의 뒤태” 이효리 근황 사진 화제 <br/>▶“아직 이혼 못했지만…” 유퉁, 33세 연하 몽골여성과 8번째 결혼 <br/>▶[단독] 최순실, 고영태 부모 찾아가 ‘호빠 다니는 쓰레기’ 협박 지시 <br/>▶“아들 돌봐주는 말기 암 엄마 때문에 변심” 장시호 옥중 인터뷰 <br/>▶“다짜고짜 서두원과 잤냐고 물었다” 맥심, 송가연 인터뷰 추가 공개 <br/> <br/> <br/>워싱턴=전석운 특파원 swchun@kmib.co.kr

언론사: 국민일보-4-751.txt

제목: "추가 증거 범죄 소명된다"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 결국 구속  
날짜: 20170215  
기자: 천금주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215073344001  
ID: 01100201.20170215073344001  
카테고리: 사회>사건\_사고  
본문: 최순실의 딸 정유라씨에게 이화여대 입학‧학사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는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이 결국 구속됐다. <br/> <br/>최 전 총장에 대한 두 번째 구속 전 피의자삼문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성창호 영장점담 부장판사는 15일 오전 2시30분쯤 “<span class='quot0'>추가로 수집된 증거자료 등을 종합할 때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span>”며 영장을 발부했다. <br/> <br/>앞서 특검은 11일 정유라씨에게 학사 특헤를 준 혐의로 최 전 총자으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특검이 한 차례 기각된 구속영장을 재청구한 사례는 최 전 총장이 처음이다. <br/> <br/>지난달 22일 최 전 총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25일 기각됐다. 당시 최 전 총장의 영장 심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0시55분쯤 “<span class='quot1'>입학전형과 학사관리에서 피의자의 위법한 지시나 공모가 있었다는 점에 대해 현재까지의 소명 정도에 비춰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span>”며 최 전 총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br/> <br/>▶[김정남 독침 피살] 김정은 권력유지 걸림돌로 생각해 제거 <br/>▶[김정남 독침 피살] ‘볼펜 독침’ 소지 정찰총국 요원 추정 <br/>▶[김정남 독침 피살] 해외 언론에 “삼촌은 독재자”… 김한솔 행방 묘연 <br/>▶“장시호의 폭로는 계속된다” 형광펜까지 동원된 자필 진술서 <br/>▶“돌아온 언니의 뒤태” 이효리 근황 사진 화제 <br/>▶“아직 이혼 못했지만…” 유퉁, 33세 연하 몽골여성과 8번째 결혼 <br/>▶[단독] 최순실, 고영태 부모 찾아가 ‘호빠 다니는 쓰레기’ 협박 지시 <br/>▶“아들 돌봐주는 말기 암 엄마 때문에 변심” 장시호 옥중 인터뷰 <br/>▶“다짜고짜 서두원과 잤냐고 물었다” 맥심, 송가연 인터뷰 추가 공개 <br/> <br/> <br/>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

언론사: 국민일보-4-752.txt

제목: "박 대통령의 대북 비선은 김정남이었다" 피살 후 재조명  
날짜: 20170215  
기자: 천금주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215063544001  
ID: 01100201.20170215063544001  
카테고리: 정치>청와대  
본문: 김정남이 피살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박근혜 대통령과 김정일을 잇는 비선이 김정남이었다는 언론의 보도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br/> <br/>주간경향은 지난 11일 전 유럽코리아재단 핵심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김정일에게 보낸 박근혜 대통령의 친서는 유럽코리아재단 소장이던 장 자크 그로하가 USB와 출력물 형태로 들고 중국 베이징에 가서 김정남을 만나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br/> <br/>이 관계자는 또 편지는 김정남의 고모부인 장성택 라인을 통해 김정일에게 보고됐다고 부연했다.  <br/> <br/>주간경향은 취재 중 입수한 하드디스크를 분석해 이 같은 사실을 뒷받침한 정황을 발견했으며 2005년 9월17일부터 2006년 3월31일까지로 총 22회 오간 메일을 추가로 입수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2005년부터 유럽코리아 재단 이사로 활동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br/> <br/>앞서 주간경향은 지난해 10월 초 유럽코리아재단의 활동상황 문서와 사진, 동영상 등이 담긴 하드디스크를 단독으로 입수했다고 보도했었다. 하드디스크에는 수천 개 분량의 파일이 담겨 있으며 박근혜 유럽코리아재단 이사가 북한 김정일 북방위원장에게 보낸 편지가 담겨 있었다. <br/> <br/>이 같은 보도가 SNS를 통해 빠르게 확산되며 재조명되고 있다. “<span class='quot0'>박 대통령의 대북 비선이 김정남이라는 기사가 난 직후 피살됐다는 게 꺼림칙하다</span>” “<span class='quot0'>해외 유랑자가 갑자기 피살됐다는 게 이상하다</span>” “<span class='quot0'>북한의 소행이라 단정 짓기 어려운 이유</span>” 등의 반응이 쏟아졌다. <br/> <br/>▶[김정남 독침 피살] 김정은 권력유지 걸림돌로 생각해 제거 <br/>▶[김정남 독침 피살] ‘볼펜 독침’ 소지 정찰총국 요원 추정 <br/>▶[김정남 독침 피살] 해외 언론에 “삼촌은 독재자”… 김한솔 행방 묘연 <br/>▶“장시호의 폭로는 계속된다” 형광펜까지 동원된 자필 진술서 <br/>▶“돌아온 언니의 뒤태” 이효리 근황 사진 화제 <br/>▶“아직 이혼 못했지만…” 유퉁, 33세 연하 몽골여성과 8번째 결혼 <br/>▶[단독] 최순실, 고영태 부모 찾아가 ‘호빠 다니는 쓰레기’ 협박 지시 <br/>▶“아들 돌봐주는 말기 암 엄마 때문에 변심” 장시호 옥중 인터뷰 <br/>▶“다짜고짜 서두원과 잤냐고 물었다” 맥심, 송가연 인터뷰 추가 공개 <br/> <br/> <br/>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

언론사: 국민일보-4-753.txt

제목: 김정남 시신 오늘 부검…사인 확인 후 북한으로 인계  
날짜: 20170215  
기자: 천금주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215055344001  
ID: 01100201.20170215055344001  
카테고리: 국제>아시아  
본문: 김정은의 이복형인 김정남이 말레이시아에서 북한 요원으로 추정되는 2명의 여성의 피습을 받고 숨진 가운데 사인을 밝혀줄 부검이 15일 진행된다. <br/> <br/>영국 BBC방송은 말레이시아 총리실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김정남의 시신이 안치된 푸트라자야 병원 법의학부에서 부검 절차를 밟고 있다고 15일 보도했다. <br/> <br/>말레이사 현지 매체인 더 스타는 북한 대사관에서 김정남의 시신을 인도해 달라는 요청이 왔고 부검을 마친 뒤 인도될 것이라고 전했다. <br/> <br/>앞서 김정남은 13일 오전 9시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 공항에서 피살됐다. 당시 출국을 위해 셀프 체크인기기를 이용하던 김정남은 여성 2명이 뿌린 독이 든 것으로 보이는 액체를 맞고 고통을 호소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 중 숨졌다. <br/> <br/>피살 당시 김정남은 가짜로 추정되는 여권을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여권에는 김철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으며 1970년 6월10일 평양 출생으로 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말레이시아 경찰은 김정남의 시원을 확인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린 것으로 추정된다. <br/> <br/>2명의 여성은 범행 직후 택를 타고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현재 말레이시아 경찰이 행방을 쫒고 있다. 말레이시아 당국은 김정남을 공격한 여성 용의자가 북한에서 파견된 요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br/> <br/>▶[김정남 독침 피살] 김정은 권력유지 걸림돌로 생각해 제거 <br/>▶[김정남 독침 피살] ‘볼펜 독침’ 소지 정찰총국 요원 추정 <br/>▶[김정남 독침 피살] 해외 언론에 “삼촌은 독재자”… 김한솔 행방 묘연 <br/>▶“장시호의 폭로는 계속된다” 형광펜까지 동원된 자필 진술서 <br/>▶“돌아온 언니의 뒤태” 이효리 근황 사진 화제 <br/>▶“아직 이혼 못했지만…” 유퉁, 33세 연하 몽골여성과 8번째 결혼 <br/>▶[단독] 최순실, 고영태 부모 찾아가 ‘호빠 다니는 쓰레기’ 협박 지시 <br/>▶“아들 돌봐주는 말기 암 엄마 때문에 변심” 장시호 옥중 인터뷰 <br/>▶“다짜고짜 서두원과 잤냐고 물었다” 맥심, 송가연 인터뷰 추가 공개 <br/> <br/> <br/>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

언론사: 국민일보-4-754.txt

제목: 反문재인 견제 전선 ‘人海전술’로 넘는다  
날짜: 20170215  
기자: 정건희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215051055001  
ID: 01100201.20170215051055001  
카테고리: 정치>정치일반  
본문: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본격적인 캠프 구상을 연이어 내놓으면서 대규모 세 규합으로 ‘대세론’ 굳히기에 돌입했다. 14일 장차관급 출신으로 구성된 60여명의 자문단 ‘10년의 힘 위원회’ 발족을 시작으로 ‘일자리위원회’ ‘새로운 대한민국 위원회’ 등 캠프 운영의 방점을 담은 조직들을 대거 공개했다. 촘촘하게 조직된 풍부한 ‘인적 네트워크’를 십분 활용해 문 전 대표의 ‘준비된 대통령’ 면모를 집중 부각시킨다는 복안이다. 전열을 가다듬어 지지율 선두의 이면에 자리한 ‘반문(문재인) 정서’와 집중 견제를 돌파하려는 의도도 담겨 있다. <br/> <br/> 문 전 대표의 대선 캠프는 ‘선거 캠프-국민성장-더불어포럼’ 3각 편대를 기본 축으로 한다. ‘후보의 철학과 정책 구상을 사람을 통해 방증하겠다’는 기조 아래 다양한 조직을 확충하고 있다. 문 전 대표측 관계자는 “<span class='quot0'>준비된 후보임을 보여주는 것은 준비된 인사</span>”라면서 “<span class='quot0'>적재적소에 인재를 배치하는 것이 관건이란 점에서 함께 하는 인물군에 힘을 싣고 있다</span>”고 설명했다. <br/> <br/> 대선 준비의 첫 걸음으로 구성된 정책네트워크 ‘국민성장’은 교수·전문가 900여명으로 꾸려졌다. 그간 조윤제 서강대 교수를 좌장으로 정책공약을 개발해 왔다. 문 전 대표는 국민성장이 주최한 6차례의 포럼을 통해 대선공약에 준하는 일련의 정책발표를 이어가고 있다. <br/> <br/> ‘더불어포럼’은 전국 200여개 네트워크로 구성된 문 전 대표 지지모임이다. 채현국 효암학원 이사장을 상임고문으로 김응용 전 한화이글스 감독 등 명망가 23인 공동대표 체제로 운영된다. 지역·부문·계층별 다변화된 포럼으로 분화·결합하면서 지지세 확장의 견인차로 기능하고 있다. <br/> <br/> 외곽부터 조직을 가다듬은 문 전 후보 측은 이제 ‘통합 캠프’를 표방하며 가장 핵심인 선거 캠프를 가다듬고 있다. 통합의 정신에 걸맞게 당 안팎을 아울러 계파색이 적은 인사들에게 주요 직책을 맡겼다. ‘호남 반문정서’를 희석시킬 수 있는 호남 출신 인사들을 전진배치한 것도 눈에 띈다. <br/> <br/> 7인 또는 8인 체제로 구성될 것으로 알려진 공동선대위원장에는 전윤철 전 감사원장이 내정된 가운데 호남 출신 김상곤 전 경기교육감, 4선의 김진표 의원, 5선의 이미경 전 의원 등의 합류가 유력시된다. 캠프 좌장인 총괄본부장은 전남 고흥 출신 송영길 의원이 맡았다. 산하에는 전략·조직·정책·홍보·SNS 본부가 구성됐다. 전병헌 전 의원, 노영민 전 의원, 홍종학 전 의원이 각각 전략, 조직, 정책본부장을 맡는다. <br/> <br/> 본격적인 경선 캠페인에 앞서 공개된 ‘일자리 위원회’와 ‘새로운 대한민국 위원회’는 문 전 대표가 강조해 온 핵심 어젠다인 ‘일자리’와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에 방점을 담은 캠프 핵심 조직이다. 캠프 관계자는 “<span class='quot1'>싱크탱크인 국민성장에서 캠프를 통해 발표한 핵심 정책이 제도화되고 행동지침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앞장서는 기구</span>”라고 설명했다. 위원장 등 구체적 인선은 이르면 이번 주 공개될 예정이다. <br/> <br/> 이날 출범한 자문단 ‘10년의 힘’ 역시 캠프의 구상을 국정 운영으로 이식하기 위한 지원 단체의 성격을 띠고 있다. 문 전 대표는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출범식에서 “<span class='quot2'>정권교체 이후에도 마치 인수위가 국정과제를 정리해 나가듯 다음 정부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 나침반 역할을 해 달라</span>”고 당부했다. 국정 운영 경험이 풍부한 장차관급 자문단이 통상적인 인수위 활동을 상당 부분 대체해 달라는 주문으로 해석된다. <br/> <br/>▶[김정남 독침 피살] 김정은 권력유지 걸림돌로 생각해 제거 <br/>▶[김정남 독침 피살] ‘볼펜 독침’ 소지 정찰총국 요원 추정 <br/>▶[김정남 독침 피살] 해외 언론에 “삼촌은 독재자”… 김한솔 행방 묘연 <br/>▶“장시호의 폭로는 계속된다” 형광펜까지 동원된 자필 진술서 <br/>▶“돌아온 언니의 뒤태” 이효리 근황 사진 화제 <br/>▶“아직 이혼 못했지만…” 유퉁, 33세 연하 몽골여성과 8번째 결혼 <br/>▶[단독] 최순실, 고영태 부모 찾아가 ‘호빠 다니는 쓰레기’ 협박 지시 <br/>▶“아들 돌봐주는 말기 암 엄마 때문에 변심” 장시호 옥중 인터뷰 <br/>▶“다짜고짜 서두원과 잤냐고 물었다” 맥심, 송가연 인터뷰 추가 공개 <br/> <br/> <br/>정건희 기자 moderato@kmib.co.kr, 사진=최종학 선임기자

언론사: 국민일보-4-755.txt

제목: “분노·아픔 딛고… 세상으로 나아갈 용기 얻었어요”  
날짜: 20170215  
기자: 이가현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215050455003  
ID: 01100201.20170215050455003  
카테고리: 사회>사회일반  
본문: 밸런타인데이인 14일 서울 마포구 연남동에서는 특별한 졸업식이 열렸다. ‘희망다미웰니스센터’의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졸업장을 받은 학생은 9명. 모두 소아암을 겪은 어린이다. 졸업생 중 7명은 완치돼 다음달 초등학교에 입학한다. 절반이 넘는 아이들이 여전히 마스크를 쓰고 있었지만, 눈빛은 설렘으로 가득 찼다. 친구들이 졸업장을 받을 때마다 아이들은 소리를 지르며 환호했다. <br/> <br/> 희망다미웰니스센터의 졸업식은 올해가 네 번째다. 신경모세포종, 림프백혈병, 뇌종양, 골수이성형증 등 다양한 이름의 소아암을 앓았거나 치료의 막바지에 있는 아이들이 오랜 투병생활을 마치고 학교 등 일상에 복귀하도록 돕는 곳이다. <br/> <br/> 매년 국내에서 1500여명의 백혈병·소아암 환자가 발생한다. 의학기술의 발달로 완치율이 80%에 육박한다. 이처럼 많은 아이들이 사회로 돌아가고 있지만, 사회는 소아암을 경험한 어린이를 이해하는 데 서투르다. <br/> <br/> 소아암은 치료기간이 평균 3년 안팎이다. 병원 무균실을 오가며 치료를 받아야 한다. 면역력이 약해 집이나 병원을 벗어나기 어렵다. 항암치료 등 집중치료 기간에는 학교를 아예 나가지 못한다. 그런 어린이들이 다시 친구들과 어울리고 뛸 수 있도록 돕는 이 센터는 한국백혈병소아암협회 후원금으로 운영하고 있다. <br/> <br/> 이곳에선 현재 4세에서 8세 사이의 소아암 환아 24명이 무료로 프로그램에 참가하고 있다. 최지희(가명·6)양도 센터를 찾기 전 낯을 많이 가렸다. 어머니 김정현(가명·36)씨는 “지희가 면역력이 약해 밖에 돌아다니지 못하다보니 사회성이 부족했다”며 센터에 온 뒤로 많이 활발해졌다고 전했다. <br/> <br/> 이날 졸업식에서 ‘적극참여상’을 받은 허준석(가명·7)군에 대해 서정은 센터 과장은 “놀랍게 변했다”고 말했다. 서 과장은 “<span class='quot0'>1년 전만 해도 준석이는 남들과 눈을 1초도 마주치지 못할 정도로 사회성이 부족했다</span>”며 장난꾸러기가 된 허군을 흐뭇한 표정으로 지켜봤다. <br/> <br/> 어린 나이에 투병에 시달리다 보니 언어능력이나 인지능력이 부족해 별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도 많다. 신경모세포종을 앓고 있는 박주호(가명·7)군은 언뜻 보기에는 여느 또래와 다를 바 없는 모습이다. 하지만 방사선 치료로 청각뿐 아니라 언어능력도 떨어진 상태다. 박군은 1주일에 두 차례 언어치료를 받고 있다. 박군의 어머니 한영지(가명·40)씨는 “센터에서 제공하는 언어치료를 받고 언어능력이 많이 좋아져 친구들과도 더 잘 어울리게 됐다”고 말했다. <br/> <br/> 이날 축사에 학부모 대표로 나선 한씨는 “<span class='quot1'>한때는 분노와 아픔으로 가득했지만 이 센터가 우리 아이들에게 다시 세상으로 나갈 힘과 용기를 주었다</span>”고 말했다. 천진욱 백혈병소아암협회 사무총장은 “<span class='quot2'>아이들이 초등학교뿐만 아니라 대학교를 졸업하고 건강한 사회의 일원으로 자립할 때까지 함께하자</span>”고 응원의 말을 전했다. 15일은 세계 소아암의 날이다. <br/> <br/>▶[김정남 독침 피살] 김정은 권력유지 걸림돌로 생각해 제거 <br/>▶[김정남 독침 피살] ‘볼펜 독침’ 소지 정찰총국 요원 추정 <br/>▶[김정남 독침 피살] 해외 언론에 “삼촌은 독재자”… 김한솔 행방 묘연 <br/>▶“장시호의 폭로는 계속된다” 형광펜까지 동원된 자필 진술서 <br/>▶“돌아온 언니의 뒤태” 이효리 근황 사진 화제 <br/>▶“아직 이혼 못했지만…” 유퉁, 33세 연하 몽골여성과 8번째 결혼 <br/>▶[단독] 최순실, 고영태 부모 찾아가 ‘호빠 다니는 쓰레기’ 협박 지시 <br/>▶“아들 돌봐주는 말기 암 엄마 때문에 변심” 장시호 옥중 인터뷰 <br/>▶“다짜고짜 서두원과 잤냐고 물었다” 맥심, 송가연 인터뷰 추가 공개 <br/> <br/> <br/>이가현 기자 hyun@kmib.co.kr, 사진=곽경근 선임기자

언론사: 국민일보-4-756.txt

제목: 뜨자마자 암초 만난 ‘고등래퍼’순항할까  
날짜: 20170215  
기자: 박지훈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215050455002  
ID: 01100201.20170215050455002  
카테고리: 문화>방송\_연예  
본문: Mnet이 선보인 고교생 랩 대항전 ‘고등래퍼’(포스터)가 첫 방송과 동시에 화제가 되고 있다. 거침없는 무대와 수준급 랩 실력을 보여준 참가자에게 이목이 집중되는 분위기다. 하지만 일부 참가자가 과거 성매매를 시도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프로그램을 향한 비난의 목소리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br/> <br/> 고등래퍼는 청소년들의 ‘힙합 문화’를 랩 대항전이라는 포맷에 녹여낸 프로그램으로 지난 10일 첫 선을 보였다. 인기 힙합 프로그램 ‘쇼미더머니’ ‘언프리티 랩스타’ 등을 만든 제작진이 의기투합한 프로그램이다. 고등래퍼는 방송인 김구라의 아들인 MC그리, 보이그룹 NCT 멤버 마크 등 인지도 높은 10대 래퍼들이 대거 출연하는 것으로 알려져 방송 전부터 관심을 모았었다. <br/> <br/> 고익조 CP는 지난 10일 서울 영등포구 타임스퀘어에서 열린 제작발표회에서 “청소년들의 생각을 보여주고 싶은 마음에서 프로그램을 기획했다”며 “음악에 대한 열정이 성인 래퍼 못지않았다. 그들이 꿈을 이뤄가는 과정을 보여드리겠다”고 밝혔다. 참가자들 멘토로 출연하는 래퍼 스윙스는 “<span class='quot0'>참가자 중 놀라운 친구들이 많았다</span>”며 “<span class='quot0'>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걸 다시 느꼈다</span>”고 했다. <br/> <br/> 제작진의 자신감처럼 방송에서는 출중한 실력의 고교생들이 대거 출연했다. 10대 특유의 패기와 열정이 느껴지는 무대였다. 참가자들이 자신만의 무대를 선보이고, 곧바로 점수가 매겨져 순위가 뒤바뀌는 이른바 ‘배틀 시스템’은 방송의 긴장감을 끌어올린 요소였다. <br/> <br/> 그러나 첫 방송에서 격찬을 이끌어낸 바른정당 장제원 의원의 아들 장용준이 과거 SNS를 통해 ‘조건만남’을 시도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불거졌다. 장 의원은 비판이 거세지자 지난 12일 당 대변인과 부산시당위원장 직에서 물러났다. 장용준 외에 다른 참가자 중 일부가 과거 ‘일진 전력’이 있다는 온라인 게시글도 등장하고 있어 출연진의 자질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br/> <br/> 제작진은 장용준과 관련, 보도자료를 통해 “장용준이 본인의 어린시절 치기 어린 행동에 대해 가슴 깊이 반성하고 하차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장용준은 Mnet을 통해 공개한 자필 사과문을 통해 “<span class='quot1'>일순간의 호기심으로 트위터를 통해 저급한 말을 내뱉은 것에 대해서도 진심으로 사과한다</span>”며 “<span class='quot1'>하지만 그러한 방식으로 어떠한 만남을 가져본 적은 결단코 없다</span>”고 말했다. <br/> <br/>▶[김정남 독침 피살] 김정은 권력유지 걸림돌로 생각해 제거 <br/>▶[김정남 독침 피살] ‘볼펜 독침’ 소지 정찰총국 요원 추정 <br/>▶[김정남 독침 피살] 해외 언론에 “삼촌은 독재자”… 김한솔 행방 묘연 <br/>▶“장시호의 폭로는 계속된다” 형광펜까지 동원된 자필 진술서 <br/>▶“돌아온 언니의 뒤태” 이효리 근황 사진 화제 <br/>▶“아직 이혼 못했지만…” 유퉁, 33세 연하 몽골여성과 8번째 결혼 <br/>▶[단독] 최순실, 고영태 부모 찾아가 ‘호빠 다니는 쓰레기’ 협박 지시 <br/>▶“아들 돌봐주는 말기 암 엄마 때문에 변심” 장시호 옥중 인터뷰 <br/>▶“다짜고짜 서두원과 잤냐고 물었다” 맥심, 송가연 인터뷰 추가 공개 <br/> <br/> <br/>박지훈 기자

언론사: 국민일보-4-757.txt

제목: 고스펙이 실력보장 못한‘사임당’  
날짜: 20170215  
기자: 박지훈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215050455001  
ID: 01100201.20170215050455001  
카테고리: 문화>방송\_연예  
본문: 톱스타 이영애의 복귀작으로 관심을 모은 SBS 수목극 ‘사임당, 빛의 일기’(이하 사임당)가 방송 초반부터 흔들리고 있다. 상대적으로 ‘스펙’이 떨어지는 경쟁작에 밀리며 고전하는 모습이다. 올해 방송가 최대 기대작이었던 사임당이 용두사미로 전락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까지 나온다. <br/> <br/> 사임당은 이영애가 ‘대장금’(MBC) 이후 13년 만에 선택한 안방극장 복귀작이었다. 작품은 제목에서 짐작할 수 있듯 조선 중기 예술가 신사임당(1504∼1551)의 삶을 다룬다. 현대와 과거를 오가는 얼개를 띤 타임슬립 드라마다. 이영애는 사임당과 현대의 미술사학자 서지윤, 1인 2역을 연기한다. 그림 같은 화면과 세월이 무색하게 느껴지는 이영애의 미모는 방영될 때마다 화제가 되고 있다. <br/> <br/> 사임당은 한한령(限韓令·한류 금지령) 때문에 중국 방송은 무산됐지만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지에서도 방영되고 있다. 제작비가 2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을 만큼 대작 드라마다. <br/> <br/> 사임당은 지난달 26일 1, 2회를 연속 방영할 때만 하더라도 앞날이 창창해보였다. 시청률 조사기관인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1, 2회 시청률은 각각 15.6%, 16.3%에 달했다. 하지만 이달 1일 방영된 3회 시청률이 13%로 추락하더니 이튿날 내보낸 4회는 12.3%로 떨어졌다. <br/> <br/> 경쟁작 ‘김과장’(KBS2)에 덜미를 잡힌 것도 이때부터다. 스토리 전개가 느슨하다는 지적이 나왔고, 이영애의 어린시절을 연기한 배우 박혜수의 연기력 논란도 불거졌다. 급기야 지난 8일 전파를 탄 5회는 10.7%까지 추락했다. 반면 김과장은 배우 남궁민의 코믹 연기로 호평을 이끌어냈다. <br/> <br/> 방송사는 재편집을 통해 자구책 마련에 나서는 등 시청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분주한 모습이다. SBS는 홈페이지를 통해 1∼4회 다시보기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기도 했다. <br/> <br/> 정덕현 대중문화평론가는 “<span class='quot0'>드라마가 성공하려면 극 초반에 힘을 받아야 하는데, 사임당의 경우 이런 힘이 떨어진 게 사실</span>”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중에게 굳어져 있는 ‘사임당=현모양처’라는 이미지를 깨면서 드라마적인 재미가 가미될 때 인기가 올라갈 수 있다”며 “쉽지 않은 일이겠지만 기획 의도가 참신한 만큼 작품의 성패는 좀 더 기다려봐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br/> <br/> 지난 9일 방영된 6회에서는 남자 주인공인 배우 송승헌이 본격적으로 존재감을 드러냈고, 시청률은 반등할 기미를 보였다. 6회 시청률은 12.0%로 5회보다 소폭 상승했다. 사임당은 방송가 안팎의 기대에 상응하는 성과를 거둘 수 있을까. <br/> <br/>▶[김정남 독침 피살] 김정은 권력유지 걸림돌로 생각해 제거 <br/>▶[김정남 독침 피살] ‘볼펜 독침’ 소지 정찰총국 요원 추정 <br/>▶[김정남 독침 피살] 해외 언론에 “삼촌은 독재자”… 김한솔 행방 묘연 <br/>▶“장시호의 폭로는 계속된다” 형광펜까지 동원된 자필 진술서 <br/>▶“돌아온 언니의 뒤태” 이효리 근황 사진 화제 <br/>▶“아직 이혼 못했지만…” 유퉁, 33세 연하 몽골여성과 8번째 결혼 <br/>▶[단독] 최순실, 고영태 부모 찾아가 ‘호빠 다니는 쓰레기’ 협박 지시 <br/>▶“아들 돌봐주는 말기 암 엄마 때문에 변심” 장시호 옥중 인터뷰 <br/>▶“다짜고짜 서두원과 잤냐고 물었다” 맥심, 송가연 인터뷰 추가 공개 <br/> <br/> <br/>박지훈 기자 lucidfall@kmib.co.kr

언론사: 국민일보-4-758.txt

제목: 靑 “주내 대면조사 응하겠다”  
날짜: 20170215  
기자: 권지혜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215050355004  
ID: 01100201.20170215050355004  
카테고리: 정치>청와대  
본문: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를 위한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박 대통령 측의 협상이 14일 재개됐다. 청와대는 주내 조사에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성사 가능성이 주목된다. <br/> <br/> 청와대 관계자는 “<span class='quot0'>우리도 대면조사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span>”며 “<span class='quot0'>특검과 의견을 조율해봐야겠지만 이번 주 안에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본다</span>”고 말했다. 특검은 물론 청와대도 조율 내용은 함구하고 있다. 지난 9일 예정됐던 대면조사가 일정 유출을 이유로 한 차례 불발된 전례를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br/> <br/> 청와대는 사전 일정 비공개를 원하고 있지만 협상 과정에서 한발 물러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청와대는 특검을 통해 흘러나오는 수사 내용이 전부 ‘팩트’로 여겨지는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 대면조사가 성사되면 사실관계를 확실히 바로잡겠다는 입장이다. <br/> <br/> 청와대가 주내 조사 의향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절차상의 문제를 빌미로 끝내 거부할 것이란 관측도 여전히 나온다. <br/> <br/> 청와대는 여당발(發) ‘질서 있는 퇴진론’에 대해선 동의도 부정도 하지 않았다. 한 참모는 “우리 입장에서 아직 그런 얘기를 할 수 없는 것 아니냐”며 “상황을 좀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전날 꺼내든 ‘4월 퇴진, 6월 조기 대선론’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초반 제시됐던 수습책이다. 박 대통령은 3차 대국민 담화(지난해 11월 29일) 때 “<span class='quot1'>진퇴 문제를 국회 결정에 맡기겠다</span>”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야당은 “탄핵을 피하려는 꼼수”라고 반박했었다. 이 때문에 청와대 내부에서도 “야당이 안 하겠다는데 여당이 질서 있는 퇴진을 주장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말이 나온다. <br/> <br/>▶[김정남 독침 피살] 김정은 권력유지 걸림돌로 생각해 제거 <br/>▶[김정남 독침 피살] ‘볼펜 독침’ 소지 정찰총국 요원 추정 <br/>▶[김정남 독침 피살] 해외 언론에 “삼촌은 독재자”… 김한솔 행방 묘연 <br/>▶“장시호의 폭로는 계속된다” 형광펜까지 동원된 자필 진술서 <br/>▶“돌아온 언니의 뒤태” 이효리 근황 사진 화제 <br/>▶“아직 이혼 못했지만…” 유퉁, 33세 연하 몽골여성과 8번째 결혼 <br/>▶[단독] 최순실, 고영태 부모 찾아가 ‘호빠 다니는 쓰레기’ 협박 지시 <br/>▶“아들 돌봐주는 말기 암 엄마 때문에 변심” 장시호 옥중 인터뷰 <br/>▶“다짜고짜 서두원과 잤냐고 물었다” 맥심, 송가연 인터뷰 추가 공개 <br/> <br/> <br/>권지혜 기자 jhk@kmib.co.kr

언론사: 국민일보-4-759.txt

제목: 스마트폰 출고가 줄줄이 뛴다  
날짜: 20170215  
기자: 김준엽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215050355003  
ID: 01100201.20170215050355003  
카테고리: IT\_과학>모바일  
본문: 올해 출시되는 스마트폰 가격이 크게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주요 업체들이 큰 변화를 선언하며 고가의 부품을 채택해 가격 인상이 불가피해진 게 주 원인이다. <br/> <br/> 워싱턴포스트(WP)는 KGI 증권 밍치궈 애널리스트의 보고서를 인용해 올해 출시될 아이폰8(가칭)의 가격이 최대 1000달러를 넘을 것으로 보인다고 1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지금까지 가장 비싼 모델은 지난해 출시된 아이폰7 플러스 256GB로 969달러(국내 출고가 128만3700원)였다. <br/> <br/> 아이폰 가격 인상은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디스플레이 도입이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힌다. 기존에 사용하던 LCD 패널에 비해 OLED 패널은 단가가 비싸다. 디스플레이 업계의 한 관계자는 “<span class='quot0'>OLED는 곡면으로 만들 수 있어서 가격이 비싸지만 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span>”고 설명했다. <br/> <br/> 애플은 다른 부품은 복수 업체로부터 납품받는다. 경쟁을 통해 가격을 낮추는 전략이다. 하지만 스마트폰용 OLED는 삼성디스플레이에서 독점 공급받는다. 다른 업체들이 아직 양산할 기술을 갖추지 못한 탓이다. 때문에 기존보다 비싸게 사올 수밖에 없다. 여기에 램, 저장공간 등이 늘어나고 무선충전 기능을 도입하는 등 이전보다 많은 부품이 들어가면서 가격이 올라가게 된다는 것이다. WP는 “<span class='quot1'>소비자들이 돈을 기꺼이 낼 정도로 OLED와 LCD의 화질 차이가 있을지가 관건</span>”이라고 지적했다. <br/> <br/> 삼성전자 갤럭시S8도 갤럭시S7에 비해 100달러 정도 가격이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갤럭시S8은 5.7인치와 6.2인치 두 가지 크기로 나오는데 두 제품 모두 ‘엣지 스크린’이 탑재된다. 평면 디스플레이보다 가격이 비싸다. 또 그동안 유지해 온 홈버튼을 없애는 등 설계를 변경하고 새로운 부품을 발주하면서 가격 상승 요인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br/> <br/> 다음 달 초 국내 출시를 앞둔 LG전자 G6의 경우 80만원 후반대에 가격이 책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G5(83만6000원)보다 비싸진다. LG전자는 ‘풀비전’으로 명명한 18대 9 디스플레이, 방수방진, 일체형 디자인 채택 등으로 가격 상승 요인이 있다고 보고 있다. 스마트폰 업계 관계자는 “<span class='quot2'>애플, 삼성이 모두 가격을 인상하는 상황이어서 LG전자도 상대적으로 가격 인상에 부담을 느끼지 않을 것</span>”이라고 설명했다. <br/> <br/> 스마트폰 시장이 전반적으로 고급화하는 것도 업체들이 가격 인상에 크게 민감해하지 않는 이유다. ‘빅3’로 급부상한 오포, 비보, 화웨이 등 중국 업체들이 과거 중국 스마트폰과 달리 고가제품 판매를 늘리면서 시장 분위기가 변하고 있다. 시장조사업체 스트래티지 애널리틱스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중국 비보의 스마트폰 평균 판매가격은 218달러였다. 삼성전자(222달러)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애플의 평균 판매가격은 617달러다. <br/> <br/>▶[김정남 독침 피살] 김정은 권력유지 걸림돌로 생각해 제거 <br/>▶[김정남 독침 피살] ‘볼펜 독침’ 소지 정찰총국 요원 추정 <br/>▶[김정남 독침 피살] 해외 언론에 “삼촌은 독재자”… 김한솔 행방 묘연 <br/>▶“장시호의 폭로는 계속된다” 형광펜까지 동원된 자필 진술서 <br/>▶“돌아온 언니의 뒤태” 이효리 근황 사진 화제 <br/>▶“아직 이혼 못했지만…” 유퉁, 33세 연하 몽골여성과 8번째 결혼 <br/>▶[단독] 최순실, 고영태 부모 찾아가 ‘호빠 다니는 쓰레기’ 협박 지시 <br/>▶“아들 돌봐주는 말기 암 엄마 때문에 변심” 장시호 옥중 인터뷰 <br/>▶“다짜고짜 서두원과 잤냐고 물었다” 맥심, 송가연 인터뷰 추가 공개 <br/> <br/> <br/>글=김준엽 기자 snoopy@kmib.co.kr, 그래픽=공희정 기자

언론사: 국민일보-4-760.txt

제목: [여기는 오키나와] 독수리 지옥훈련은 올해도 계속된다  
날짜: 20170215  
기자: 오키나와=모규엽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215050355002  
ID: 01100201.20170215050355002  
카테고리: 스포츠>야구>한국프로야구  
본문: 한화 이글스의 전지훈련 전매특허는 ‘지옥훈련’이다. 이번 오키나와 스프링캠프에서도 지옥훈련은 여전했다. 14일 일본프로야구 라쿠텐 골든이글스와의 연습경기 후에도 선수들은 오후 5시에 고친다구장으로 와 오후 9시까지 훈련에 몰두했다. 김성근 감독은 일흔이 넘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선수들에게 직접 배팅볼을 던져주며 스윙을 체크했다. 전날은 야구장 야간 조명이 들어오지 않아 오후 7시까지 훈련을 가졌다. 선수들은 “<span class='quot0'>오늘은 야간훈련이 없는가 보다</span>”며 크게 기뻐했다. 보통 다른 구단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훈련한다. 연습경기가 끝나면 곧바로 휴식을 가진다. 하지만 한화 선수들은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하루 12시간씩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br/> <br/> 짬을 내 송광민을 만났다. 송광민은 이용규가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대표팀에 차출되면서 한화 임시 주장을 맡았다. 소감을 물어보자 “이용규가 돌아올 때까지 잘 하겠다. 선수들이 힘들고 지칠 때 ‘항상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웃자’고 다독이고 있다”고 답했다. <br/> <br/> 한화는 매년 스프링캠프에서 화제를 몰고 다녔다. 하지만 올해는 사뭇 달랐다. 우승후보가 아니라는 평가에 매스컴의 관심이 떨어졌다. 실제 지난해만해도 한화 스프링캠프에는 하루에 30명 이상의 기자가 몰렸다. 그런데 이날 고친다구장을 찾아온 기자는 단 두 명뿐. 송광민은 “<span class='quot1'>관심을 안받으니 오히려 편하다</span>”고 말했다. <br/> <br/> 그래도 이상하게 오기가 생긴다고 했다. 하위권이 예상된다는 평가가 싫다는 것이었다. 송광민은 “<span class='quot1'>우승후보로 꼽혔던 지난해와 올해 선수 구성이 똑같다</span>”며 “<span class='quot1'>투수들이 재활에 성공해서 돌아온다면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을 것</span>”이라고 강조했다. 어린 선수들의 성장도 잘 이뤄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span class='quot1'>타자 중에서 이동훈과 박상언이 눈에 띈다</span>”며 “<span class='quot1'>이들이 경기에 투입되면 훨씬 팀 스피드가 좋아질 것</span>”이라고 소개했다. 송광민은 “지난해 우승후보라고 했지만 결과가 좋지 않았다. 이제 목표를 우승이라고 하지 않겠다. 포스트시즌 진출을 위해 힘을 보태겠다”고 다짐했다. <br/> <br/> 송광민은 지난 시즌 한화의 클린업트리오에 포함돼 맹타를 휘둘렀다. 타율 0.325로 커리어하이를 기록했다. 올해는 이보다 더 잘 치는 것이 목표다. 그래서 현재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하고 있단다. 송광민은 “<span class='quot1'>현재 공의 회전수를 더 늘리는 타구를 만들고 있다</span>”고 설명했다. <br/> <br/> 몸 상태도 좋다고 했다. 송광민은 2년 전 팔꿈치 부상을 당해 그 해를 통째로 쉬었다. 지난해에도 개막 엔트리에 포함되지 못했고, 4월 말에야 1군에 복귀했다. 송광민은 “<span class='quot1'>올해는 차근차근 준비를 잘 하고 있다</span>”며 “아픈데도 없다”고 환하게 웃었다. 그는 “지난해에는 시즌 초반 팀이 삐걱거려 힘들었다. 이제 개막전부터 잘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오키나와에서 선수들을 잘 이끌어 팀을 가을야구에 진출 시키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br/> <br/>▶[김정남 독침 피살] 김정은 권력유지 걸림돌로 생각해 제거 <br/>▶[김정남 독침 피살] ‘볼펜 독침’ 소지 정찰총국 요원 추정 <br/>▶[김정남 독침 피살] 해외 언론에 “삼촌은 독재자”… 김한솔 행방 묘연 <br/>▶“장시호의 폭로는 계속된다” 형광펜까지 동원된 자필 진술서 <br/>▶“돌아온 언니의 뒤태” 이효리 근황 사진 화제 <br/>▶“아직 이혼 못했지만…” 유퉁, 33세 연하 몽골여성과 8번째 결혼 <br/>▶[단독] 최순실, 고영태 부모 찾아가 ‘호빠 다니는 쓰레기’ 협박 지시 <br/>▶“아들 돌봐주는 말기 암 엄마 때문에 변심” 장시호 옥중 인터뷰 <br/>▶“다짜고짜 서두원과 잤냐고 물었다” 맥심, 송가연 인터뷰 추가 공개 <br/> <br/> <br/>오키나와=모규엽 기자 hirte@kmib.co.kr

언론사: 국민일보-4-761.txt

제목: [인人터뷰] 장태평 前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구제역·AI, 농장주 철저한 방역 의식이 가장 중요”  
날짜: 20170215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215050355001  
ID: 01100201.20170215050355001  
카테고리: 경제>경제일반  
본문: 고은 시인은 20여년 전 왜 시를 쓰느냐는 물음에 “<span class='quot0'>저 소가 울기 때문에 내가 운다고/ 저 송아지가 움메라고 어미를 부르므로 나도 누구를 부른다고/ 시는 무엇을 부르는 것이라고</span>” 했다(2011년 구제역 파동으로 참혹한 죽임을 당하는 영혼을 위무하는 시 ‘명복’ 중). 인간 곁에서 삶의 밑천이 되고 자식들 교육비가 되기도 한 소를 인간의 탐욕으로 떠나보내야 하는 일이 연례행사처럼 되풀이되고 있다. <br/> <br/> 지난 6일 충북 보은 젖소농장에서 올겨울 처음으로 구제역이 발생한 데 이어 전북 정읍, 경기 연천 등 9건으로 구제역이 확산됐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여파가 가시기도 전에 구제역이라는 불청객이 또 찾아왔다. 이번에는 처음으로 A형, O형 두 종류의 구제역 바이러스가 동시에 출현했다. 2000년 이후 16년간 구제역이 8번이나 발생해 살처분 비용 등 3조3000억원의 세금을 쏟아부었는데도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뭘까. 이명박정부에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을 지낸 장태평(68) 더푸른미래재단 이사장을 지난 5일 서울 여의도 국민일보 회의실에서 만나 얘기를 나눴다. <br/> <br/>-구제역이나 AI가 자주 발생하는 이유는. <br/> <br/> “구제역이나 AI 바이러스도 독감과 비슷하다. 독감 백신을 맞아도 효과가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듯이 구제역이나 AI도 바이러스 변형들이 나오고 전파가 빠르다 보니 100% 방역할 수 있는 백신은 없다. 다만 최소화할 뿐이다. 책임자들, 즉 정부의 관리와 농장주의 방역의식도 미흡하다. 축산시설이나 유통과정에서 허점이 많다 보니 자주 발생하고 있다. 선진국이라고 환경이 굉장히 좋지는 않을 것이다. 정부의 체계적인 대응과 농장주의 철저한 방역을 통해 피해가 적어지는 건데 그런 부분에 새로운 변화가 있어야 한다.” <br/> <br/>-AI 사태가 났을 때 일본은 확진 판정 두 시간 만에 아베 신조 총리가 직접 방역을 지시하고 국가재난 상황을 선포하는 등 범정부 대책을 수립해 200만 마리 살처분에 그쳤다. 우리는 우왕좌왕하다가 3200만 마리 넘는 가금류를 살처분했다. 정부는 왜 이리 무능한가. <br/> <br/> “외국과 비교했을 때 제대로 대처를 못한 것은 사실이다. 결과적으로 2010년 구제역 때 3조원 가까이, 이번 AI로 1조원 넘게 피해가 난 것은 정부 책임이 크다. 정부가 먼저 과학적 대응을 해야 한다. AI든 구제역이든 동물 질병에 대한 연구·개발(R&D)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 백신과 진단제 개발 등을 할 수 있는 연구소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다. 두 번째는 일단 발생하면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하는데 그게 미흡하다. 제가 장관 할 때 하지 그랬느냐는 말도 있을 수 있지만 상황이 자꾸 달라질 때 이에 맞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대응해야 한다. 농장주 책임도 크다. 농장주의 방역활동 교육은 시간이나 양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교육을 강화하고 잘못됐을 때 적절하게 책임도 부과해야 한다. 농장주들이 그게 무서워 제대로 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외국 농가와 비교해 보면 우리는 허술하기 짝이 없다. 구제역이나 질병이 발생했을 때 살처분도 하고, 계란 유통도 못하게 하니까 농가 입장에서 보면 당장 불이익이 오니까 신고를 안 한다. 심지어 알고 있으면서도 반출하고 팔고 난 다음 신고하기도 한다. 일차적 책임자인 농가가 잘하도록 제도를 갖추고 교육하는 것도 정부 역할이다.” <br/> <br/>-2010년 구제역으로 348만 마리를 살처분하는 사상 최악의 피해가 난 뒤 백신 접종이 의무화됐다. 그런데도 구제역이 발생했다. 정부는 축산농가가 접종을 제대로 안 했을 가능성을 제기하는데. <br/> <br/> “사실일 수 있다. 백신을 맞고 난 뒤 체중이나 젖소 유량이 감소한다는 설이 있고 하니 농가가 실제 안 맞힌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또 백신을 맞혔다고 해도 100% 항체가 형성되는 것도 아니다. 전문가가 주사를 잘 놔도 87%, 농가가 했을 때는 50여% 정도로 30% 포인트가량 차이가 난다. 아예 백신이 효과 없는 ‘물백신’인 경우도 있었다. 이것도 정부 책임이다. 백신을 접종해도 100% 생성이 안 되면 반복적으로 항체 형성률을 높이는 방안을 연구해야 한다. 구제역에 취약한 곳이 있으면 한 번 더 접종하고 상시 점검하면서 부족한 것은 R&D 투자를 해야 하는데 백신 접종만 하는 선에서 끝난 것 같은 느낌을 준다. 앞으로는 이런 예산도 확보하고 평상시 백신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활동을 해야 한다. 축산농가에만 책임을 지우는 것은 한가한 얘기로 비친다.” <br/> <br/>-AI 확산을 막기 위해서도 백신 접종이 필요한가. <br/> <br/> “백신을 접종했다고 병이 안 생기는 것도 아니고 어려운 점이 있다. 항체 형성을 못하는 경우도 있고 수출을 못하는 등 여러 부작용이 있지만 상시적인 취약지역에 대해선 선택적으로 백신을 줄 수 있다고 본다.” <br/> <br/>-구제역이나 AI가 선진국에서도 발생하지만 우리보다 피해가 적은 것은 밀집사육을 하지 않기 때문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어떻게 생각하는지. <br/> <br/> “유럽과 미국 모두 밀집사육 상한을 재조정하고 있다. 우리도 상한선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 축산업 허가를 내줄 때 기준면적당 사육 마릿수를 다시 조사해서 낮출 필요가 있다.” <br/> <br/>-개선해야 할 다른 문제점은. <br/> <br/> “제일 중요한 게 농장주의 철저한 방역의식이다. 축사시설 소독을 잘하고 외부에서 침투할 수 있는 것을 차단해야 한다. 다른 농장이나 외국에 갔다 왔을 때 농장주 스스로 소독을 철저히 하고 방문자 관리와 가축·사료·약품 등의 유통 관리를 잘해야 한다. 선진국 농가들이 하는 것처럼 똑같이 해야 한다. 방역은 전쟁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적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적당히는 안 된다. 농장주가 철저한 방역의식을 갖도록 하려면 교육을 잘해야 한다. 정부가 교육시스템과 과학적인 시설방역, 신고 대응 체계 등을 갖춰 방역을 상시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으면 좋겠다. AI나 구제역은 겨울에 주로 발생하는데 겨울에 소독하려 하면 소독약이 얼어서 안 된다. 스팀소독이 가능한 시설 등 과학적 방역이 필요하다.” <br/> <br/>-축산업 허가제로 바꾼 뒤 농가에 변화가 있다고 보는지. <br/> <br/> “조금씩 변화가 있고 앞으로도 진전이 있으리라 생각한다. 정부에서 기준 공표를 했을 때 농가가 철저히 움직여줘야 하는데 제대로 안 움직이고 있다. 작년부터 소규모 50㎡ 이상 모든 농가에 대해 축산업 허가제를 하고 있다. 프랑스는 농업이 모두 허가제다. 1, 2, 3등급으로 나눠 교육을 더 많이 받고 시설기준도 엄격하다. 우리나라는 신규의 경우 24시간 교육받는데 이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니다. 너무 형식적으로 끝난다. 교육제도도 확 바꾸고 소독 및 방역시설 기준과 장비 점검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 <br/> <br/>-장관으로 재직하던 2008년부터 2010년에도 AI와 구제역이 발생했다. 당시를 돌아볼 때 아쉬운 점이 있다면. <br/> <br/> “당시 구제역 방역 기준은 가축과 농업인 중심으로 이동제한을 하는 거였다. 강화도에서 나가거나 외부에서 들어오는 가축과 사람을 차단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안동에서 터졌다. 김포에 왔던 사료회사 차가 안동으로 옮겨갔기 때문이었다. 농가와 가축만 이동제한을 할 게 아니라 유통 관련된 모든 차량과 사람도 이동제한을 하고 통제했어야 했다. 방역 권한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방역본부 사람이 지방자치단체에 가서 지자체장이나 공무원에게 얘기하면 말을 잘 안 듣는다. 살처분을 하루 만에 하라고 하면 인원이 부족해 못 한다며 3일, 심지어 1주일 걸린다고 얘기한다. 지자체들이 방역본부 지시에 따라 바로 시행하도록 하고 안 하면 징계할 수 있도록 방역 권한이 강화돼야 한다.” <br/> <br/>-장관 퇴임 후 더푸른미래재단을 만들었는데 어떤 조직인가. <br/> <br/> “청년 농업인을 농업 기업가로 육성하기 위한 경영교육을 하는 곳이다. 2010년 12월 재단을 만들고 지방의 젊은 농업인들이 교수나 세무사, 변호사 등 전문가의 경영 컨설팅을 받을 수 있도록 미래농수산실천포럼을 운영하고 있다. 해남과 남해, 서울 등에 생산자와 소비자 간에 직접 거래할 수 있는 ‘행복한 농부의 정직한 가게’를 오픈하도록 지원하기도 했다. 2013년 5월에는 젊은 농업인들이 자조 협동할 수 있도록 영파머스클럽(Young Farmers Club)을 결성해 운영하고 있다.” <br/> <br/>-앞으로 계획은. <br/> <br/> “영파머스클럽은 농업에 관련된 것인데 이를 확산해서 청소년 교육을 좀 더 잘해보고자 한다. 일본에는 후세대 리더 7∼8명을 뽑아 교육하는 마쓰시다정경숙이 있다. 총리도 배출했고 중의원 의원 30여명이 나왔다. 정신, 문화 등을 후세 지도자들에게 교육하는 일을 하고 싶다. 재단을 활성화해서 쌀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기여하고 싶다.” <br/> <br/>장태평 前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br/> <br/>전남 무안 출생으로 경기고와 서울대 사회학과를 나와 서울대 행정 대학원에서 행정학 석사학위, 미국 오리건 대학에서 경제학 석사학위를 각각 받았다. 행정고시 20회로 재정경제원 법인세제과장, 재산세제과장 등을 거쳐 농림수산식품부 농업정책국장과 농업구조정책국장, 재정경제부 정책홍보관리실장, 국가청렴위원회 사무처장을 지냈다. 2008년 8월부터 2010년 8월까지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을 맡았다. <br/> <br/> 2011년 11월부터 2년 가까이 마사회 회장을 맡았을 때는 경마장을 ‘렛츠런파크’로 명칭을 바꾸고 테마파크로 변신시켜 수익을 다각화했다. 공직에서 퇴임한 뒤에는 다양한 사회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2010년 12월부터 청년 농업 기업가들을 육성하기 위한 더푸른미래재단 이사장을 맡고 있다. 5년 전부터는 성인 혈액암 환자들을 후원하는 혈액암협회 회장도 맡고 있다. 한글과 한국 문화의 멋과 우수성을 캘리그래피를 통해 해외에 알리기 위한 사단법인 한글플래닛 이사장도 맡고 있다. <br/> <br/>▶[김정남 독침 피살] 김정은 권력유지 걸림돌로 생각해 제거 <br/>▶[김정남 독침 피살] ‘볼펜 독침’ 소지 정찰총국 요원 추정 <br/>▶[김정남 독침 피살] 해외 언론에 “삼촌은 독재자”… 김한솔 행방 묘연 <br/>▶“장시호의 폭로는 계속된다” 형광펜까지 동원된 자필 진술서 <br/>▶“돌아온 언니의 뒤태” 이효리 근황 사진 화제 <br/>▶“아직 이혼 못했지만…” 유퉁, 33세 연하 몽골여성과 8번째 결혼 <br/>▶[단독] 최순실, 고영태 부모 찾아가 ‘호빠 다니는 쓰레기’ 협박 지시 <br/>▶“아들 돌봐주는 말기 암 엄마 때문에 변심” 장시호 옥중 인터뷰 <br/>▶“다짜고짜 서두원과 잤냐고 물었다” 맥심, 송가연 인터뷰 추가 공개 <br/> <br/> <br/>글=이명희 논설위원 mheel@kmib.co.kr, 사진=윤성호 기자

언론사: 국민일보-4-762.txt

제목: 4차 산업혁명 좋기만 할까 청년 취업난 더 커질 수도  
날짜: 20170215  
기자: 세종=신준섭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215050255001  
ID: 01100201.20170215050255001  
카테고리: 국제>국제일반  
본문: 제조업과 정보통신기술(ICT) 접목으로 촉발되는 4차 산업혁명이 청년층의 ‘고용절벽’을 더 깊고 가파르게 만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기존 일자리가 사라지면서 등장할 새로운 일자리는 소위 뛰어난 이들과 그렇지 못한 이들의 양극화를 더 심화한다는 지적이다. <br/> <br/> 한국노동연구원과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최근 공동 발표한 ‘양극화 극복을 위한 정책 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청년 고용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 중 29번째 수준이다. OECD는 지난해 10월 한국 15∼29세 청년 실업률을 10.7%로 분석했다. 외환위기 3년차인 2000년 10.8%를 기록한 이후 16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국내 통계지표 역시 암울한 상황을 방증한다. 통계청은 지난해 12월 기준 청년 실업률을 OECD보다 약간 낮은 9.8%로 집계했다. 10명 중 1명이 ‘백수’다. 하지만 비공식 지표를 사용하면 청년 실업률은 22.0%까지 치솟는다. <br/> <br/> 보고서는 4차 산업혁명이 도래하면서 청년 고용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인공지능(AI) 등이 사람을 대체할 수 있는 국내 직업을 계산해 보면 향후 20년 내 관리직 등 57%의 직업이 사라진다는 전망이다. 같은 방식으로 분석했을 때 미국(47%)보다도 높다. 한국고용정보원이 지난달 발표한 국내 전문가 21명에 대한 설문조사는 더 암울하다. 향후 10년 내에 현재 직업 종사자 10명 중 6명 이상이 인공지능·로봇에 자리를 내주게 된다는 평가다. <br/> <br/> 더 심각한 부분은 청년 고용의 양극화가 심화될 거라는 전망이다. 보고서는 향후 발생하는 직업군은 데이터와 지식에 기반한 승자 독식 구조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경험이 없는 청년층에 불리한 구조다. 이미 징후는 보인다. 연세대가 2013년 발표한 ‘장년고용지원을 위한 고용지원금 개편방안 연구’ 보고서를 보면 우리나라는 1년 이하 신입직과 20년 이상 경력직의 임금 격차가 3배 이상 벌어져있다. 일본의 경우 2.4배, 독일은 1.9배 수준에 불과하다. 그나마 우리나라는 실업자들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조차 OECD 국가 중 32위 수준이다. ‘제2의 기회’를 바라기 힘든 구조다. <br/> <br/> 조기 대선을 앞둔 후보들이 앞다퉈 내놓는 4차 산업혁명 공약에 대한 비판도 그래서 나온다. 보고서는 4차 산업혁명에 앞서 강소기업 육성 등 새로운 경제발전전략 수립과 사회보장 시스템 전면 개편, 교육과 인적자원 혁신이 필요하다고 충고했다. <br/> <br/>▶[김정남 독침 피살] 김정은 권력유지 걸림돌로 생각해 제거 <br/>▶[김정남 독침 피살] ‘볼펜 독침’ 소지 정찰총국 요원 추정 <br/>▶[김정남 독침 피살] 해외 언론에 “삼촌은 독재자”… 김한솔 행방 묘연 <br/>▶“장시호의 폭로는 계속된다” 형광펜까지 동원된 자필 진술서 <br/>▶“돌아온 언니의 뒤태” 이효리 근황 사진 화제 <br/>▶“아직 이혼 못했지만…” 유퉁, 33세 연하 몽골여성과 8번째 결혼 <br/>▶[단독] 최순실, 고영태 부모 찾아가 ‘호빠 다니는 쓰레기’ 협박 지시 <br/>▶“아들 돌봐주는 말기 암 엄마 때문에 변심” 장시호 옥중 인터뷰 <br/>▶“다짜고짜 서두원과 잤냐고 물었다” 맥심, 송가연 인터뷰 추가 공개 <br/> <br/> <br/>세종=신준섭 기자 sman321@kmib.co.kr, 그래픽=공희정 기자

언론사: 국민일보-4-763.txt

제목: 다가오는 탄핵열차 불복 후폭풍 어쩌나  
날짜: 20170215  
기자: 김경택 이종선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215050255002  
ID: 01100201.20170215050255002  
카테고리: 정치>국회\_정당  
본문: 정치권에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정 이후에 대한 위기론이 확산되고 있다. 대선을 앞두고 촛불과 태극기로 갈린 민심이 헌재 선고 이후 극단적 방식으로 표출될 수 있다는 우려다. 탄핵 인용이나 기각 중 어떤 결론이 내려지더라도 이를 대선용으로 활용해선 안 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br/> <br/> 바른정당 한 중진 의원은 14일 “<span class='quot0'>자칫 우리나라는 장기 불황에다 정치 혼란까지 겹친 남미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span>”며 “<span class='quot0'>헌재 결정 이후를 대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span>”고 지적했다. 자유한국당에선 “집권여당 지도부가 헌재 선고 이후의 정국 안정에 더 신경써야 한다” “탄핵 인용에 대비해 줄줄이 출마 선언을 하는데 부채질이나 하고 있어선 안 된다” 등의 말이 나왔다. <br/> <br/> 여야 지도부도 헌재 결정 이후의 혼란을 최소화하는 역할에 집중해야 한다는 데 동의하고 있다.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는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span class='quot1'>여야의 유력 대선 주자들이 조속히 자리를 함께해 헌재 결정에 대한 분명한 승복 선언을 해주기를 원한다</span>”고 강조했다. 여야 4당 원내대표는 13일 탄핵심판 결과에 승복하기로 구두 합의한 바 있다. <br/> <br/> 문제는 헌재 결정 이후의 대선 국면에서도 이러한 공감대가 지속될 수 있느냐다.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span class='quot2'>탄핵 이전에도 촛불집회는 정치권이 이끈 게 아니었고 정치권은 우왕좌왕만 했다</span>”며 “<span class='quot2'>더 이상 정치인들이 국민을 이끌어간다고 생각해선 안 된다는 게 촛불민심</span>”이라고 주장했다. 여야의 정치력에만 의존해선 탄핵심판 이후의 국정 혼란을 최소화하기가 쉽지 않다는 의미다. <br/> <br/> 정치권에서는 헌재 결정 이후 상황에 대해 논의하는 ‘여야 4당 협의체’ 구성도 설득력을 얻고 있지만 성사 가능성은 떨어진다. 여권 관계자는 “<span class='quot3'>헌재 선고 이후 곧바로 대선 국면으로 접어드는데 특검 연장 문제 등으로 대립하고 있는 여야 지도부가 머리를 맞대기는 어려워 보인다</span>”고 말했다. <br/> <br/> 여전히 성난 민심에 기름을 붓고 있는 것도 정치권이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움츠러들었던 친박(친박근혜) 인사들은 태극기집회 선봉에 나서기까지 했다. 김문수 전 경기지사는 “<span class='quot6'>태극기집회에 나가는 것이 헌재 판결을 공정하게 할 수 있다</span>”고도 했다. 범여권에선 탄핵심판 이후 보수층 결집을 노리거나 대선판 자체가 요동칠 수 있다는 기대감도 내비치고 있다. 촛불집회에서 차기 대선이나 특정 정파를 겨냥한 일부 정치적 구호를 자제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br/> <br/>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span class='quot4'>헌재 결정을 과도하게 정치적으로만 해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span>”며 “<span class='quot4'>정치권은 파국으로 가지 않게끔 조정하는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span>”고 말했다. 심경수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span class='quot5'>여야 정치권이 정치적 이해관계만 따져 갈등을 부추겨선 안 된다</span>”고 강조했다. <br/> <br/>▶[김정남 독침 피살] 김정은 권력유지 걸림돌로 생각해 제거 <br/>▶[김정남 독침 피살] ‘볼펜 독침’ 소지 정찰총국 요원 추정 <br/>▶[김정남 독침 피살] 해외 언론에 “삼촌은 독재자”… 김한솔 행방 묘연 <br/>▶“장시호의 폭로는 계속된다” 형광펜까지 동원된 자필 진술서 <br/>▶“돌아온 언니의 뒤태” 이효리 근황 사진 화제 <br/>▶“아직 이혼 못했지만…” 유퉁, 33세 연하 몽골여성과 8번째 결혼 <br/>▶[단독] 최순실, 고영태 부모 찾아가 ‘호빠 다니는 쓰레기’ 협박 지시 <br/>▶“아들 돌봐주는 말기 암 엄마 때문에 변심” 장시호 옥중 인터뷰 <br/>▶“다짜고짜 서두원과 잤냐고 물었다” 맥심, 송가연 인터뷰 추가 공개 <br/> <br/> <br/>김경택 이종선 기자 ptyx@kmib.co.kr

언론사: 국민일보-4-764.txt

제목: 점점 힘 실리는 선제타격론… 주요 공격 대상만 700여곳  
날짜: 20170215  
기자: 최현수 군사전문기자, 조성은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215050255003  
ID: 01100201.20170215050255003  
카테고리: 정치>북한  
본문: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조되면서 ‘대북 선제타격론’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해 중순 미국 일각에서 제기됐던 선제타격론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계속 언급되고 있어서다. 그간 발언들이 민간 전문가들의 필요성 제기였다면 최근 언급들은 행정부 인사들로부터 나왔다는 점에서 차원이 다르다. <br/> <br/> 빈센트 브룩스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은 지난 7일 워싱턴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span class='quot0'>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맞서 방어만으로는 불충분하다</span>”고 강조했다. 공격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는 의미였다.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도 대북 선제타격 가능성에 대해 “<span class='quot1'>어떤 것도 (논의의) 테이블에서 배제돼서는 안 된다</span>”고 말했다. 북한이 사전징후 파악이 어려운 신형 고체연료 추진 중거리 미사일을 개발함에 따라 선제타격론이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br/> <br/> 만일 미국이 선제타격을 강행할 경우 북한의 주요 핵·미사일 시설 및 지휘부가 핵심 타격 목표가 될 가능성이 높다. 지난해 미 민간 정보기관이 재공개한 대북 선제타격 시나리오도 북한의 핵심 시설과 장비에 대한 정밀 타격에 초점을 뒀다. 주요 핵시설로는 5㎿급 원자로 등 핵시설이 들어서 있는 영변 핵단지와 평산 우라늄 광산과 가공시설, 평성 과학연구센터, 풍계리 핵실험장이 주요 타격 대상이 될 것이다. 5∼25개로 알려진 핵탄두 관련 장비도 제거 대상이다. 노동 및 무수단 미사일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KN-08, 개발 중인 KN-14가 후진 배치돼 있는 양강도 영저리 등 주요 미사일 기지도 1차 대상이다. <br/> <br/>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과 핵·미사일 운용을 책임지고 있는 김낙겸 전략사령관 등 북한 수뇌부의 집무실, 비밀 아지트도 역시 타격 대상이다. 군 관계자는 14일 “<span class='quot2'>유사시를 대비해 한·미가 주요 공격 대상으로 선정한 곳은 700여곳에 달한다</span>”며 “<span class='quot2'>선제타격이 이뤄진다면 이 중 민감 표적으로 분류된 곳이 먼저 대상이 될 것</span>”이라고 말했다. 선제타격 명령이 내려지면 주일미군기지에 배치된 스텔스 전투기 F-22, 전폭기 B-2 등이 발진해 주요 시설을 타격하고 이어 평양을 비롯한 주요 지역에 핵잠수함과 이지스 구축함에서 발사되는 토마호크 순항미사일 등이 타격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br/> <br/> 그러나 선제타격이 현실화되기는 어렵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일단 선제타격이 성공하려면 주요 시설에 대한 정보가 정확해야 하지만 정확한 정보 획득이 어렵다. 한동대 박원곤 교수는 “<span class='quot3'>이동식 미사일 발사대를 포함해 농축우라늄 시설 등 숨겨진 시설이 적지 않다</span>”며 선제타격이 성공하기는 힘들 것으로 평가했다. 선제타격이 전면전으로 확대돼 수십만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경우는 최악의 시나리오다. 선제타격론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가장 강력한 근거이기도 하다. 지난 1994년 검토됐던 북한 핵시설에 대한 선제타격이 실현되지 않은 것도 100만명이 넘는 사상자가 발생한다는 시뮬레이션 결과가 영향을 미쳤다. 미국이 한국에 알리지 않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가능성도 떨어진다. 한국 내 미국 기업·시민, 군인들의 피해를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서 한국 정부와 협의 없이 선제타격이 이뤄지기 힘들다. <br/> <br/> 아산정책연구원 이기범 연구위원은 “<span class='quot4'>선제타격은 국제법적으로 인정된 개념이 아니라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span>”고 지적했다. 상대방이 공격할 것이라는 분명한 정황이 있어야만 정당화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판단을 내리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또 선제타격에 들어가는 어마어마한 비용을 미국 정부가 감당할 것인지도 의문이다. <br/> <br/>▶[김정남 독침 피살] 김정은 권력유지 걸림돌로 생각해 제거 <br/>▶[김정남 독침 피살] ‘볼펜 독침’ 소지 정찰총국 요원 추정 <br/>▶[김정남 독침 피살] 해외 언론에 “삼촌은 독재자”… 김한솔 행방 묘연 <br/>▶“장시호의 폭로는 계속된다” 형광펜까지 동원된 자필 진술서 <br/>▶“돌아온 언니의 뒤태” 이효리 근황 사진 화제 <br/>▶“아직 이혼 못했지만…” 유퉁, 33세 연하 몽골여성과 8번째 결혼 <br/>▶[단독] 최순실, 고영태 부모 찾아가 ‘호빠 다니는 쓰레기’ 협박 지시 <br/>▶“아들 돌봐주는 말기 암 엄마 때문에 변심” 장시호 옥중 인터뷰 <br/>▶“다짜고짜 서두원과 잤냐고 물었다” 맥심, 송가연 인터뷰 추가 공개 <br/> <br/> <br/>글=최현수 군사전문기자, 조성은 기자 hschoi@kmib.co.kr, 그래픽=이은지 기자

언론사: 국민일보-4-765.txt

제목: [김정남 독침 피살] 北 격변 가능성에 정부·정치권 긴박한 움직임  
날짜: 20170215  
기자: 김경택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215050156001  
ID: 01100201.20170215050156001  
카테고리: 정치>북한  
본문: 청와대와 외교안보라인, 정보 당국 등은 14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이복형인 김정남 피살 사건 경위 파악을 위해 긴박하게 움직였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정보 당국으로부터 관련 보고를 받고 외교안보 부처를 중심으로 대응책을 마련하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할 것도 지시했다. <br/> <br/> 국가정보원 등 정보 당국도 해외 및 남북 파트 요원들을 동원해 관련 정보 수집에 나섰다. 군도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북한군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경찰은 특히 김정남 피살 사실이 알려진 뒤 국내 탈북인사 신변보호 강화 수위를 높이기로 하는 등 바쁘게 움직였다. <br/> <br/> 청와대 관계자는 “현재로선 북한의 특별한 동향이 보고되지 않고 있다. 외교안보 부처 중심으로 대응책을 마련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다만 청와대는 북한에서 이상 동향이 감지될 경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등을 소집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보 당국은 북한 동향을 예의주시하며 말레이시아 현지 관계자 등을 통해 구체적인 피살 정황을 파악하는 데 주력했다. <br/> <br/> 경찰은 24시간 보호 등 높은 수준으로 관리하는 탈북인사들에 대한 신변 보호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경찰은 특히 신변 위협이 우려되는 인사들을 위해 경호 인력을 늘리거나 거주 장소를 이동시키는 등의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span class='quot0'>작년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대사관 공사가 입국한 이후 주요 탈북 인사들의 신변보호 수준을 대폭 높였으나 이번 사건을 계기로 신변보호를 한층 강화할 방침</span>”이라고 말했다. <br/> <br/> 여야는 조속한 진상 파악과 안보 태세 강화를 한목소리로 요구했다. 자유한국당은 “<span class='quot1'>김정은 체제의 불안정성을 보여주는 사건</span>”이라며 북한의 기습 도발 등에 기민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명연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span class='quot2'>김정은은 고모부 장성택을 공개 처형한 것도 모자라 이복형을 독침으로 살해하면서까지 독재 체제를 유지하려 한다</span>”고 했다. <br/> <br/> 바른정당은 15일 오전 국회에서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기로 했다. 오신환 바른정당 대변인은 “<span class='quot3'>북핵 및 미사일 위협에 더해 김정은 공포정치의 끝이 어디인지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span>”며 “<span class='quot3'>정부 당국은 이번 사태에 대한 조속히 진상파악은 물론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은 없는지 예의주시하기 바란다</span>”고 했다. <br/> <br/> 더불어민주당은 “<span class='quot4'>혹시라도 국민이 안보 불안을 느끼지 않게 정부가 사태 파악과 대책 마련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span>”고 지적했다. 윤관석 수석대변인은 “<span class='quot5'>이번 일이 남북 정세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정부의 기민하고 차분한 대처가 중요하다</span>”고 했다. <br/> <br/> 국민의당도 철저한 진상 파악을 당부했다. 김경진 수석대변인은 “<span class='quot6'>정부 당국은 말레이시아 정부를 상대로 신속하게 이번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해 국제사회에 발표해줄 것을 요구한다</span>”고 했다. 박지원 대표 등 당 지도부는 14일 밤 국회 당대표실에서 긴급대책회의를 열었다. <br/> <br/>▶[김정남 독침 피살] 김정은 권력유지 걸림돌로 생각해 제거 <br/>▶[김정남 독침 피살] ‘볼펜 독침’ 소지 정찰총국 요원 추정 <br/>▶[김정남 독침 피살] 해외 언론에 “삼촌은 독재자”… 김한솔 행방 묘연 <br/>▶“장시호의 폭로는 계속된다” 형광펜까지 동원된 자필 진술서 <br/>▶“돌아온 언니의 뒤태” 이효리 근황 사진 화제 <br/>▶“아직 이혼 못했지만…” 유퉁, 33세 연하 몽골여성과 8번째 결혼 <br/>▶[단독] 최순실, 고영태 부모 찾아가 ‘호빠 다니는 쓰레기’ 협박 지시 <br/>▶“아들 돌봐주는 말기 암 엄마 때문에 변심” 장시호 옥중 인터뷰 <br/>▶“다짜고짜 서두원과 잤냐고 물었다” 맥심, 송가연 인터뷰 추가 공개 <br/> <br/> <br/>김경택 기자 ptyx@kmib.co.kr

언론사: 국민일보-4-766.txt

제목: 美 플린 사퇴… 北 미사일 와중에 대북공조 차질  
날짜: 20170215  
기자: 김미나 조성은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215050155002  
ID: 01100201.20170215050155002  
카테고리: 정치>북한  
본문: 마이클 플린(58·사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13일(현지시간) 전격 사임했다. 러시아와 내통했다는 의혹을 극복하지 못하고 사실상 경질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한 지 24일 만이고, 핵심 측근의 첫 낙마다. <br/> <br/> 북한 핵·미사일 위협 방안 마련 등 트럼프의 국가 안보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던 플린이 물러나면서 대북 정책 추진 일정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플린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직후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통화하는 등 한·미 공조를 다진 파트너였다. 특히 아버지가 6·25전쟁 참전용사여서 한국에 각별한 애정을 갖고 있던 인물이기도 해 우리로선 외교적 손실이 작지 않다는 분석이다. 무엇보다 플린을 주된 채널로 트럼프 행정부와 외교적 소통을 해온 우리로선 후임자와 처음부터 다시 외교적 신뢰관계를 쌓아야 하는 부담도 안게 됐다. <br/> <br/>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플린은 지난해 12월 세르게이 키슬랴크 주미 러시아대사와 문자와 전화로 수차례 접촉하면서 통화한 내용을 숨긴 게 경질의 결정적인 원인이었다. 플린은 접촉 때 버락 오바마 당시 행정부의 대러 제재 관련 내용을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민간인 신분이던 플린이 정부 승인 없이 외교 사안에 관여했다면 ‘로건법(Logan Act)’ 위반에 해당한다. 당시 마이크 펜스 부통령 당선인은 플린을 불러 사실 여부를 물었으나 플린은 제재를 논의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펜스는 이후 TV 인터뷰 등에서 플린의 주장을 그대로 반복하며 그를 옹호했다. <br/> <br/> 플린은 아울러 2015년 플린이 러시아 언론사 ‘러시아투데이’ 행사 일환으로 호화여행을 하고 푸틴 옆에서 시간을 보냈던 사실도 추가로 드러났다. <br/> <br/> 플린은 사직서에서 “<span class='quot0'>주미 러시아대사와의 통화내용을 부주의하게 펜스 부통령 당선인에게 충분히 보고하지 못했다</span>”고 사과했다. <br/> <br/> 플린이 불명예 퇴진하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위기에 직면했다. 트럼프는 플린의 사직서를 즉각 수리하며 국정 수습에 나섰지만 안보 혼란은 불가피한 모습이다. <br/> <br/> 트럼프는 국가안보보좌관 대행으로 조지프 키스 켈로그 국가안보회의(NSC) 사무총장을 임명했다. 플린의 비서실장 역할을 해 온 켈로그는 대선 당시 트럼프 캠프 국방 참모로 활약했고 정권인수위원회가 꾸려진 후 국방 분과에서 일했다. 육군에서 30여년간 복무했고 베트남전에 두 차례 참전했다. 국가안보보좌관에는 켈로그와 함께 데이비드 퍼트레이어스 전 중앙정보국(CIA) 국장, 로버트 하워드 전 합동참모본부 부의장, 스티븐 해들리 전 국가안보보좌관 등이 거론된다. <br/> <br/> 백악관 비서실장과 대변인 교체가 임박했다는 예측도 나왔다. 반(反)이민 행정명령 후폭풍을 감당하지 못한 라인스 프리버스 비서실장은 능력 부족이라는 거센 질타에 직면했다. 후임으론 크리스 크리스티 뉴저지 주지사가 물망에 오른다. <br/> <br/> 트럼프가 숀 스파이서 대변인도 못마땅하게 여긴다는 얘기도 있다. 스파이서가 지난달 첫 정례 브리핑 때 CNN방송 기자에게 질문 기회를 부여해 공방을 벌인 것과 최근 브리핑에서 “<span class='quot1'>켈리앤 콘웨이 백악관 선임고문이 트럼프의 맏딸 이방카를 옹호해 주의 조치를 받았다</span>”고 공개한 것에 불만을 품었다는 것이다. <br/> <br/> 트럼프 행정부의 ‘인사 참사’는 사실상 예견된 일이었다. 정치 경험이 부족한 엘리트 강성 인사에 대한 우려는 조각 당시부터 쏟아졌다. 장관 15명 중 윌버 로스 상무장관, 앤드루 푸즈더 노동장관 등 6명이 여전히 상원 인준을 통과하지 못했다. <br/> <br/> 이번 사태로 트럼프의 대러 정책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여론을 의식해 러시아를 향한 강력한 메시지나 기조를 표명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br/> <br/>▶[김정남 독침 피살] 김정은 권력유지 걸림돌로 생각해 제거 <br/>▶[김정남 독침 피살] ‘볼펜 독침’ 소지 정찰총국 요원 추정 <br/>▶[김정남 독침 피살] 해외 언론에 “삼촌은 독재자”… 김한솔 행방 묘연 <br/>▶“장시호의 폭로는 계속된다” 형광펜까지 동원된 자필 진술서 <br/>▶“돌아온 언니의 뒤태” 이효리 근황 사진 화제 <br/>▶“아직 이혼 못했지만…” 유퉁, 33세 연하 몽골여성과 8번째 결혼 <br/>▶[단독] 최순실, 고영태 부모 찾아가 ‘호빠 다니는 쓰레기’ 협박 지시 <br/>▶“아들 돌봐주는 말기 암 엄마 때문에 변심” 장시호 옥중 인터뷰 <br/>▶“다짜고짜 서두원과 잤냐고 물었다” 맥심, 송가연 인터뷰 추가 공개 <br/> <br/> <br/>워싱턴=전석운 특파원, 김미나 조성은 기자 swchun@kmib.co.kr

언론사: 국민일보-4-767.txt

제목: [& And 스페셜/정치탐구] 간판 바꾸면 선거 때 먹힌다고? 54년간 195개 ‘출몰’  
날짜: 20170215  
기자: 권지혜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215050155001  
ID: 01100201.20170215050155001  
카테고리: 정치>국회\_정당  
본문: 한국 정치사에서 당명 교체는 주로 선거용 이합집산의 결과였다. ‘호박에 줄 긋기’라는 비난을 듣고도 정당이 위기 때마다 간판을 바꿔 달았던 것은 당명 교체 이후 선거에서 효과를 봤기 때문이다. 1987년 대통령 직선제 개헌 이후 치러진 6번의 대선과 8번의 총선에서 여야는 새 이름과 로고로 단장하고 지지를 호소했다. 그렇게 해서 이긴 전례가 적지 않다. <br/> <br/> 가상준 단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14일 “<span class='quot0'>과거 잘못을 반성하고 새로운 모습을 보여야 할 때 당명부터 개정한다</span>”며 “<span class='quot0'>우리나라에서 유독 당명 교체가 잦은 것은 선거에서 효과가 있다는 의미</span>”라고 말했다. 1963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창설 이후 등록된 정당은 195개(자유한국당 포함)에 달한다. <br/> <br/> <br/> <br/> 與, 과거 지우기 <br/> <br/> 보수정당은 비교적 장수했다. 자유당에서부터 최근 자유한국당에 이르기까지 60여년간 7번 이름이 바뀌었다. 물론 이는 민주화 이전 독재 정권의 장기 집권에서 비롯된 측면이 크다. 민주공화당은 박정희 전 대통령 재임 시기와, 민주정의당은 전두환 전 대통령 재임 시기와 거의 일치한다. 자유한국당이 뿌리로 삼는 민주자유당 시절부터 치면 27년간 4번 당명이 교체된 셈이다. <br/> <br/> 민정당은 1987년 6월항쟁으로 창당 이래 최대 위기를 맞았다. 그해 대선에선 야권 후보 분열로 노태우 대통령이 당선돼 간신히 집권여당의 명맥은 유지했다. 그러나 이듬해 치러진 13대 총선에선 125석을 얻는 데 그쳤다. 야3당을 합하면 164석으로 헌정 사상 첫 ‘여소야대’가 펼쳐졌다. 민정당은 이 판을 뒤집기 위해 김영삼(YS) 총재가 있던 통일민주당, 김종필(JP) 총재가 이끌던 신민주공화당과 손을 잡았다. ‘3당 합당’이었다. 이렇게 민정당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1990년 2월 민주자유당(민자당)으로 간판이 바뀌었다. 거대 여당이 된 민자당은 1992년 총선에서 과반에 가까운 149석을 얻었고, 그해 대선에선 YS를 후보로 내세워 집권에도 성공했다. <br/> <br/> 그런데 얼마 못 가 민자당 내부에서 분열이 싹텄다. JP 대표 체제에 YS계가 불만을 드러내면서다. 결국 JP는 탈당해 자유민주연합(자민련)을 창당하고, 민자당은 당명을 신한국당으로 바꾸면서 각자 새출발했다. 신한국당으로 이름을 바꾼 데는 총선을 앞두고 구속된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영향이 컸다. 노 전 대통령은 1995년 11월 거액 수뢰 혐의로, 전 전 대통령은 그해 12월 군사반란 주도 혐의로 구속 수감됐다. 이런 악조건 속에서도 신한국당은 두 달 후 치러진 15대 총선에서 139석을 얻어 원내 1당이 됐다. <br/> <br/> 신한국당은 당명을 바꾼 지 2년도 안 돼 다시 한나라당으로 간판을 바꾸는 모험을 했다. 1997년 12월 대선을 불과 한 달 앞둔 시점이었다. 이회창 총재 아들의 병역 비리와 IMF 외환위기로 민심이 급격히 돌아서던 상황이었다. 하지만 당명 교체에도 선거 결과는 패배였다. 한나라당은 1997년, 2002년 대선에서 연달아 져 10년 야당의 길을 걷게 됐다. <br/> <br/> 그럼에도 한나라당은 2012년 2월 ‘박근혜 비대위’ 시절 새누리당으로 옷을 갈아입기 전까지 14년3개월간 명맥을 유지했다. 1987년 체제 이후로는 최장수 당명이다. 새누리당은 2012년 대선 때 박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원내 과반을 점한 집권여당이 됐다. 그러나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맞아 보수정당 역사상 첫 분당 사태를 겪었다. 새누리당도 결국 자유한국당으로 당명을 고쳤다. <br/> <br/> 野, 분열과 통합의 역사 <br/> <br/> 야권에선 정치적 이념을 좇아 분당·탈당했다가 다시 합당하는 경우가 많았다. 당명 개정은 세력 재편을 위한 포장이었다. 1955년 9월 민주당 창당 이후 20번 넘게 이름이 바뀌는 와중에도 ‘민주’란 단어는 놓지 않았다. 당명끼리 연결성이 별로 없는 보수정당과의 가장 큰 차이점이다. <br/> <br/> 1990년 3당 합당 이후 야권은 신민주연합당(신민당)으로 이름을 바꾼 평민당과, 3당 합당에 반대해 통일민주당에 잔류한 일명 ‘꼬마민주당’을 중심으로 민주당(1991년 9월)이 만들어졌다. DJ는 1992년 대선에서 YS에게 패배한 뒤 정계를 은퇴했다가 2년7개월 만에 복귀하면서 새정치국민회의(국민회의)를 창당했다. 이때가 1995년 9월이다. 기존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대거 국민회의로 둥지를 옮겼다. 세가 불은 국민회의는 1997년 대선에서 DJ를 후보로 내세워 헌정 사상 첫 수평적인 정권 교체를 이뤄냈다. <br/> <br/> DJ 집권 후 국민회의는 시민사회세력을 흡수해 새천년민주당으로 확대 개편됐다. 새천년민주당은 당명 개정 후 석 달 만에 치러진 16대 총선에선 한나라당에 패했지만 2002년 대선 때는 정권 재창출에 성공했다. <br/> <br/> 여당이 된 새천년민주당 역시 얼마 지나지 않아 열린우리당과 민주당으로 갈라졌다. 이는 민주당계 정당 분열의 신호탄으로 꼽힌다. 정치개혁과 지역주의 타파를 내세운 열린우리당은 ‘노무현 대통령 탄핵 반대’ 촛불 민심을 등에 업고 2004년 17대 총선에서 과반을 확보하는 깜짝 돌풍을 일으켰다. <br/> <br/> 이후 야권에선 탈당과 분당, 합당이 쉴 새 없이 이어졌다. 2007년 대선 직전 열린우리당은 탈당 사태를 맞아 대통합민주신당으로 재편됐다가, 다시 새천년민주당과 합당해 통합민주당(2008년 2월)이 됐다. 이후 통합민주당은 2011년 12월 문재인 전 대표와 시민사회세력을 받아들여 다시 민주통합당으로 이름을 바꿨는데, 이듬해 치러진 총선과 대선에서 연이어 패하는 시련을 겪었다. 이때 반대편에서 새누리당 총선을 진두지휘하고 대선 후보로 선출된 사람이 박근혜 대통령이다. 민주통합당은 대선 패배 후 비대위 체제로 들어갔다. 서울 영등포에 있던 당사를 여의도로 이전하고 당색을 파란색으로 바꾸는 대대적인 쇄신을 벌였다. 당명은 돌고 돌아 민주당이 됐다. <br/> <br/> 이후 민주당은 안철수 전 대표를 주축으로 한 새정치연합과 통합해 새정치민주연합으로 당명을 바꿨다. 새정치연합은 오래가지 못했다. 20대 총선 직전인 2015년 12월 안 전 대표와 비주류의 탈당으로 지금의 더불어민주당이 됐다. 안 전 대표는 총선 두 달 전 국민의당을 창당해 38석을 확보하며 양당 체제를 흔들었다. 20년 만에 원내 3당 체제가 재연된 것이다. <br/> <br/> 정당정치 후진성 반영 <br/> <br/> 2년에 한 번꼴로 치러지는 전국 선거 때마다 새로운 정당이 생겼다 사라지는가 하면 권력 교체기에 당명도 덩달아 바꾸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다. 내용을 바꾸기보다 급한 대로 외관을 뜯어고쳐 세력을 연장해 왔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가상준 교수는 “<span class='quot1'>당명이 워낙 자주 바뀌다 보니 받아들이는 국민도 ‘얼마 못 가 또 바뀌겠거니’ 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span>”고 지적했다. <br/> <br/> 당명 교체를 쇄신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는 긍정적인 의견도 있었다. 김용철 부산대 행정학과 교수는 “<span class='quot2'>정치가 불안정하고 정당정치가 제대로 안 돼 정당 수명이 짧은 것</span>”이라며 “<span class='quot2'>그래도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원동력이나 쇄신의 계기로 평가할 수는 있다</span>”고 말했다. <br/> <br/>▶[김정남 독침 피살] 김정은 권력유지 걸림돌로 생각해 제거 <br/>▶[김정남 독침 피살] ‘볼펜 독침’ 소지 정찰총국 요원 추정 <br/>▶[김정남 독침 피살] 해외 언론에 “삼촌은 독재자”… 김한솔 행방 묘연 <br/>▶“장시호의 폭로는 계속된다” 형광펜까지 동원된 자필 진술서 <br/>▶“돌아온 언니의 뒤태” 이효리 근황 사진 화제 <br/>▶“아직 이혼 못했지만…” 유퉁, 33세 연하 몽골여성과 8번째 결혼 <br/>▶[단독] 최순실, 고영태 부모 찾아가 ‘호빠 다니는 쓰레기’ 협박 지시 <br/>▶“아들 돌봐주는 말기 암 엄마 때문에 변심” 장시호 옥중 인터뷰 <br/>▶“다짜고짜 서두원과 잤냐고 물었다” 맥심, 송가연 인터뷰 추가 공개 <br/> <br/> <br/>글=권지혜 기자 jhk@kmib.co.kr, 그래픽=안지나 기자

언론사: 국민일보-4-768.txt

제목: 중국 사모펀드계 ‘신의 손’ 1조8400억 벌금… 사상 최대  
날짜: 20170215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215050055002  
ID: 01100201.20170215050055002  
카테고리: 국제>중국  
본문: 중국에서 금융계의 큰손으로 불리는 ‘악어’ 사냥이 본격화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올가을 중국공산당 제19차 전국대표대회(19차 당대회)를 앞두고 주식시장을 배경으로 얽혀 있는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겠다는 당국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br/> <br/> 류스위 증권감독관리위원회 주석은 지난 10일 전국 증권선물공작 감독관리회의에서 “<span class='quot0'>자본시장의 큰 악어를 잡아들일 것</span>”이라고 밝혔다. 류 주석은 “<span class='quot1'>이들이 증시에 혼란을 초래하거나 개인투자자들의 피를 빨아먹고 가죽을 벗기는 일은 용인하지 않을 것</span>”이라고 경고했다. <br/> <br/> 특히 14일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 사모펀드 업계에서 ‘신의 손’으로 불리던 쉬샹 쩌시투자관리유한공사 대표가 지난달 산둥성 칭다오 중급인민법원에서 징역 5년6개월에 110억 위안(약 1조8400억원)의 벌금 처분을 받았다. 벌금은 쩌시투자관리가 운용하던 자산 200억 위안의 절반이 넘는 것으로 금융범죄 사상 최대 규모다. <br/> <br/> 쉬샹은 17세에 3만 위안(약 500만원)으로 주식투자를 시작한 뒤 40세에 개인 자산을 40억 위안 규모로 키우면서 금융계의 스타로 떠올랐다. 하지만 내부자 거래와 주가 조작을 일삼고 2015년 증시 폭락의 주범으로도 지목되면서 체포됐다. 올리버 뤼 중국유럽국제공상학원 교수는 “<span class='quot2'>당국이 거액의 벌금을 물린 것은 금융 범죄를 저지르면 심각한 금전적 손실을 볼 수 있다는 금융계 전체에 보내는 경고</span>”라고 말했다. <br/> <br/> 지난달 홍콩에서 연행돼 중국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샤오젠화 밍톈그룹 회장 사건도 악어 사냥에 일조하고 있다. 샤오젠화는 1999년 밍톈그룹을 세운 후 증권, 은행, 보험, 신탁 등을 이용한 금융투자로 자산을 불려 지난해 중국 내 부자 중 32위를 차지했다.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의 친누나 등 고위층의 재산 증식에도 연루된 것으로 알려졌다. <br/> <br/> 재신망에 따르면 샤오젠화의 조사가 시작된 이후 셰전장 증권일보 사장이 엄중한 기율 위반으로 면직과 함께 공산당적도 박탈당하고 조사를 받고 있다. 증권일보는 샤오젠화가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언론사다. <br/> <br/>▶[김정남 독침 피살] 김정은 권력유지 걸림돌로 생각해 제거 <br/>▶[김정남 독침 피살] ‘볼펜 독침’ 소지 정찰총국 요원 추정 <br/>▶[김정남 독침 피살] 해외 언론에 “삼촌은 독재자”… 김한솔 행방 묘연 <br/>▶“장시호의 폭로는 계속된다” 형광펜까지 동원된 자필 진술서 <br/>▶“돌아온 언니의 뒤태” 이효리 근황 사진 화제 <br/>▶“아직 이혼 못했지만…” 유퉁, 33세 연하 몽골여성과 8번째 결혼 <br/>▶[단독] 최순실, 고영태 부모 찾아가 ‘호빠 다니는 쓰레기’ 협박 지시 <br/>▶“아들 돌봐주는 말기 암 엄마 때문에 변심” 장시호 옥중 인터뷰 <br/>▶“다짜고짜 서두원과 잤냐고 물었다” 맥심, 송가연 인터뷰 추가 공개 <br/> <br/> <br/>베이징=맹경환 특파원 <br/> <br/> khmaeng@kmib.co.kr

언론사: 국민일보-4-769.txt

제목: 해외 브랜드가 장악한 반려동물 먹거리시장… 국내 식품업계, 고급화 ‘승부수’  
날짜: 20170215  
기자: 김유나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215050055001  
ID: 01100201.20170215050055001  
카테고리: 경제>유통  
본문: 반려동물을 특별하게 키우려는 고객들을 겨냥한 고급 사료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 시장은 해외 브랜드가 장악하고 있다. 이에 맞서 국내 업체들이 프리미엄 원료를 내세워 본격 공략에 나섰다. <br/> <br/> 국내 반려동물 돌봄인구는 1000만명을 넘어섰다. 업계에서는 전체 인구의 20% 이상이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매년 규모는 증가해 현재 2조원 수준인 반려동물 산업이 2020년에는 약 6조원대까지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br/> <br/> 시장이 급속히 커지자 식품업계도 반려동물 시장을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출산율은 매년 줄어들고 있지만 1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도 점점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단순히 인구만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소비력도 높아지고 있다.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키우는 ‘펫팸족’(Pet과 Family의 합성어)이 증가하면서 비싸더라도 기꺼이 반려동물을 위해 지갑을 여는 이들이 늘어난 것이다. <br/> <br/> 특히 반려동물 사료 시장의 경쟁이 뜨겁다. 그동안 국내 반려동물 사료 시장은 네슬레(2014년 롯데가 인수), 로얄캐닌, 시저, ANF 등 글로벌 브랜드 점유율이 70%에 달할 정도로 해외 업체들의 각축장이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국내 업체들도 차별화된 원료와 유기농 콘셉트를 내세워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br/> <br/> 지난 9일 KGC인삼공사는 반려동물 건강식 브랜드 ‘지니펫’을 통해 신제품 영양제 ‘홍삼함유 북어농축액 분말’을 출시했다. 정관장 6년근 홍삼성분과 북어농축액 분말을 결합해 반려견의 면역력과 원기 회복에 도움을 준다는 것이다. 앞서 KGC인삼공사는 홍삼을 함유한 사료를 콘셉트로 한 지니펫 브랜드를 출시했는데 매달 1만 세트 이상 팔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br/> <br/> 사조동아원은 지난달 18일 유기농 사료인 ‘오러브잇’을 출시했다. 사조그룹 사조펫연구소와 영국 프리미어사 기술제휴를 통해 출시된 오러브잇은 오리·호박·고구마, 양고기·귀리, 연어·아마씨·참깨 등 첨가 재료에 따라 5종으로 선보였다. 서울우유협동조합은 올 초 반려동물 전용 우유인 ‘아이펫밀크’를 내놓기도 했다. 반려동물의 경우 체내 유당 분해요소인 락타아제가 없는 점을 고려해 유당을 분해하고 콜라겐, 타우린, 칼슘, 비타민 등 영양 성분도 첨가했다. <br/> <br/> 이달 초 LG생활건강 역시 펫 푸드 브랜드 ‘시리우스 윌’을 선보이며 본격적인 시장 진출을 선언하기도 했다. 풀무원건강생활은 반려동물 먹거리 브랜드 ‘아미오’를 운영하며 건강 상태에 맞게 선택할 수 있는 간식 ‘아미오 헬씨믹스 트릿’ 등을 선보였다. 사람도 먹을 수 있는 프리미엄 원료를 사용해 관절, 장, 피부 등 건강에 도움을 주는 성분으로 구성됐다. 2014년 반려동물사료 브랜드 ‘오네이처’를 론칭한 CJ제일제당은 올해 반료동물 사료로 200억원의 매출을 올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br/> <br/>▶[김정남 독침 피살] 김정은 권력유지 걸림돌로 생각해 제거 <br/>▶[김정남 독침 피살] ‘볼펜 독침’ 소지 정찰총국 요원 추정 <br/>▶[김정남 독침 피살] 해외 언론에 “삼촌은 독재자”… 김한솔 행방 묘연 <br/>▶“장시호의 폭로는 계속된다” 형광펜까지 동원된 자필 진술서 <br/>▶“돌아온 언니의 뒤태” 이효리 근황 사진 화제 <br/>▶“아직 이혼 못했지만…” 유퉁, 33세 연하 몽골여성과 8번째 결혼 <br/>▶[단독] 최순실, 고영태 부모 찾아가 ‘호빠 다니는 쓰레기’ 협박 지시 <br/>▶“아들 돌봐주는 말기 암 엄마 때문에 변심” 장시호 옥중 인터뷰 <br/>▶“다짜고짜 서두원과 잤냐고 물었다” 맥심, 송가연 인터뷰 추가 공개 <br/> <br/> <br/>김유나 기자 spring@kmib.co.kr

언론사: 국민일보-4-770.txt

제목: 머스크 “노동인구 12∼15%, 20년 내 AI에 일자리 뺏길 것”  
날짜: 20170215  
기자: 구성찬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215050055003  
ID: 01100201.20170215050055003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최고경영자 엘론 머스크(사진)가 인공지능(AI)의 비약적 발전을 전망하며 인간과 기계의 결합에 대해 언급했다. <br/> <br/> 아랍에미리트연합(UAE) 두바이에서 열린 ‘월드거번먼트서밋(WGS)’에 참석한 머스크는 13일(현지시간) “<span class='quot0'>시간이 지나면서 생물체의 지능과 디지털 지능이 더 가깝게 결합할 것</span>”이라면서 인간의 뇌와 AI가 결합하면 더 많은 정보를 빠르게 처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br/> <br/> AI 시대가 사람들의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도래할 것이라고 예상한 그는 자신 회사의 자율주행차량이 대표해 온 일반 AI를 넘어선 ‘딥(deep) AI’에 대한 걱정스러운 전망도 함께 내놨다. 머스크는 “<span class='quot0'>딥 AI가 지구상의 가장 똑똑한 인간보다 더 영리하다</span>”면서 “<span class='quot0'>앞으로 20년 안에 전 세계 노동인구의 12∼15%가 딥 AI로 인해 실업 상태에 빠질 것</span>”이라고 우려했다. <br/> <br/> 가장 미래지향적 사업가 중 하나인 그는 인간이 기계와 결합해 일종의 사이보그가 될 필요가 있다는 다소 엉뚱한 공상과학적 대안도 내놨다. <br/> <br/> 머스크는 “<span class='quot0'>컴퓨터가 초당 1조 비트를 처리할 수 있는 데 비해 인간은 모바일 기기와 손가락으로 1초에 10비트밖에 처리할 수 없다</span>”면서 정보에 빠르게 접근할 수 있고 AI를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종류의 뇌’가 출현할 것이라고 예견했다. 그는 “<span class='quot0'>뇌에 대한 고주파수대역폭 인터페이스는 사람과 AI의 공생에 도움이 될 것이며 제어와 유용성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을 것</span>”이라고 덧붙였다. <br/> <br/> 한편 AI와 함께 4차 산업혁명의 또 다른 총아로 각광받고 있는 드론 분야에서도 새 지평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UAE 두바이 도로교통청은 14일 자율운항식 유인(有人) 드론 ‘이항(億航)184’를 이르면 올해 7월 시험 비행한다고 밝혔다. 중국 드론 제조사가 지난해 1월 세계 최대 가전박람회인 미국 CES에서 처음 공개한 이항184는 사람이 탈 수 있게 상용화된 최초의 드론이다. 콜택시 방식으로 선보일 ‘하늘을 나는 자동차’는 승객이 기내 태블릿에 목적지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날아간다. <br/> <br/>▶[김정남 독침 피살] 김정은 권력유지 걸림돌로 생각해 제거 <br/>▶[김정남 독침 피살] ‘볼펜 독침’ 소지 정찰총국 요원 추정 <br/>▶[김정남 독침 피살] 해외 언론에 “삼촌은 독재자”… 김한솔 행방 묘연 <br/>▶“장시호의 폭로는 계속된다” 형광펜까지 동원된 자필 진술서 <br/>▶“돌아온 언니의 뒤태” 이효리 근황 사진 화제 <br/>▶“아직 이혼 못했지만…” 유퉁, 33세 연하 몽골여성과 8번째 결혼 <br/>▶[단독] 최순실, 고영태 부모 찾아가 ‘호빠 다니는 쓰레기’ 협박 지시 <br/>▶“아들 돌봐주는 말기 암 엄마 때문에 변심” 장시호 옥중 인터뷰 <br/>▶“다짜고짜 서두원과 잤냐고 물었다” 맥심, 송가연 인터뷰 추가 공개 <br/> <br/> <br/>구성찬 기자 ichthus@kmib.co.kr

언론사: 국민일보-4-771.txt

제목: [친절한 쿡캐스터] “봄의 불청객 미세먼지가 왔어요” 일교차 주의  
날짜: 20170215  
기자: 천금주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215050044001  
ID: 01100201.20170215050044001  
카테고리: 사회>날씨  
본문: 2월15일 수요일 아침 출근길은 쌀쌀합니다. 하지만 낮에는 기온이 크게 올라 포근하겠습니다. 바람이 다소 불지만 한겨울 찬바람 보다는 봄기운을 머금은 바람입니다. 그 바람에 봄의 불청객인 미세먼지도 함께 찾아왔습니다. 출근길 마스크 챙기는 게 좋습니다. <br/> <br/>기상청이 오전 4시 발표한 기상정보에 따르면 오늘은 중국 상해 부근에서 서해상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br/> <br/> <br/> <br/>기온은 평년보다 조금 높아 포근합니다. 다만 일교차가 커 옷차림에 주의해야 합니다. 오전 4시30분 현재 기온은 서울이 영하 3도, 강원도 춘천이 영하 6.8도, 대전이 영하 3.9도, 대구가 영하 3.0도, 부산이 3도, 제주 3.3도입니다. <br/> <br/>낮에는 기온이 크게 올라 전국 대부분이 7~10도를 기록하겠습니다. 서울이 7도, 춘천이 8도, 대구가 12도, 부산이 13도, 제주가 11도로 예상됩니다. 이런 날에는 두꺼운 겨울 외투보다는 얇은 옷들을 겹쳐 입는 게 좋습니다. <br/> <br/> <br/> <br/>기온이 봄을 향해 달려가는 만큼 봄의 불청객인 미세먼지도 찾아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경기 북부와 강원 영서를 중심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까지 치솟겠고, 수도권과 충청권, 전북 대구, 경북은 오전에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오후에는 대기가 확산되면서 남쪽부터 농도가 낮아지겠습니다. <br/> <br/>16일 목요일이 내일은 비 소식이 있습니다. 오후부터 차차 흐려지면서 밤에 서울‧경기, 강원 영서, 전남, 경남에 비가 오겠고, 충청도와 그 밖의 남부지방, 제주도에도 밤부터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비는 모레인 17일 금요일 아침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br/> <br/>◆주의사항◆ <br/>출근길 : 마스크 챙기세요. <br/>등굣길 : 마스크 챙기세요. 얇은 옷 겹쳐 입어요. <br/>산책길 : ★★★☆☆ <br/> <br/>◇국내 최초 모바일 전용 날씨 정보 콘텐츠 [친절한 쿡캐스터]는 매일 아침 국민일보 독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커밍 쑤운~~~!! <br/> <br/>▶[김정남 독침 피살] 김정은 권력유지 걸림돌로 생각해 제거 <br/>▶[김정남 독침 피살] ‘볼펜 독침’ 소지 정찰총국 요원 추정 <br/>▶[김정남 독침 피살] 해외 언론에 “삼촌은 독재자”… 김한솔 행방 묘연 <br/>▶“장시호의 폭로는 계속된다” 형광펜까지 동원된 자필 진술서 <br/>▶“돌아온 언니의 뒤태” 이효리 근황 사진 화제 <br/>▶“아직 이혼 못했지만…” 유퉁, 33세 연하 몽골여성과 8번째 결혼 <br/>▶[단독] 최순실, 고영태 부모 찾아가 ‘호빠 다니는 쓰레기’ 협박 지시 <br/>▶“아들 돌봐주는 말기 암 엄마 때문에 변심” 장시호 옥중 인터뷰 <br/>▶“다짜고짜 서두원과 잤냐고 물었다” 맥심, 송가연 인터뷰 추가 공개 <br/> <br/> <br/>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

언론사: 국민일보-4-772.txt

제목: 이재명 “대통령 되면 한상균 사면해 노동부 장관 삼고파”  
날짜: 20170215  
기자: 김철오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215013644001  
ID: 01100201.20170215013644001  
카테고리: 국제>국제일반  
본문: 이재명 성남시장이 “<span class='quot0'>대통령으로 당선하면 노동부 장관으로 현재 수감 중인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을 사면해 임명하고 싶다</span>”고 말했다. <br/> <br/> 이 시장은 14일 밤 SBS ‘대선주자 국민면접’에서 세 번째 대선후보로 출연해 “노동현장에 애정이 있고, 노동자에게 애정이 있는 노동자 출신 중 노동부 장관을 임명하고 싶다. 행정 관료는 안 된다”며 이렇게 말했다. <br/> <br/> 이 시장은 ‘내각에서 가장 먼저 임명하고 싶은 장관은 누구이며 기준은 무엇인가’에 대한 검증단의 질문을 받고 고용노동부를 지목했다. 그는 “<span class='quot0'>노동부는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노동환경을 국가발전에 도움되는 방향으로 이끄는 곳</span>”이라고 강조했다. <br/> <br/> ‘중앙정치 경험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을 선박으로 비유해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나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등에게 반격했다. <br/> <br/> 그는 “<span class='quot0'>선장은 큰 선박의 요리장이나 항해사보다 작은 배의 선장을 했던 사람에게 맡기는 편이 낫다</span>”며 “<span class='quot0'>우리는 큰 배의 갑판원이었던 사람이 큰 배의 선장을 해야 한다는 착각을 갖고 있다</span>”고 말했다. <br/> <br/>▶[김정남 독침 피살] 김정은 권력유지 걸림돌로 생각해 제거 <br/>▶[김정남 독침 피살] ‘볼펜 독침’ 소지 정찰총국 요원 추정 <br/>▶[김정남 독침 피살] 해외 언론에 “삼촌은 독재자”… 김한솔 행방 묘연 <br/>▶“장시호의 폭로는 계속된다” 형광펜까지 동원된 자필 진술서 <br/>▶“돌아온 언니의 뒤태” 이효리 근황 사진 화제 <br/>▶“아직 이혼 못했지만…” 유퉁, 33세 연하 몽골여성과 8번째 결혼 <br/>▶[단독] 최순실, 고영태 부모 찾아가 ‘호빠 다니는 쓰레기’ 협박 지시 <br/>▶“아들 돌봐주는 말기 암 엄마 때문에 변심” 장시호 옥중 인터뷰 <br/>▶“다짜고짜 서두원과 잤냐고 물었다” 맥심, 송가연 인터뷰 추가 공개 <br/> <br/> <br/>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

언론사: 국민일보-4-773.txt

제목: ‘인천 배구’ 짜다, 짜∼  
날짜: 20170215  
기자: 인천=박구인 김태현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215011655001  
ID: 01100201.20170215011655001  
카테고리: 스포츠>농구\_배구  
본문: 인천 연고의 남녀 프로배구팀인 대한항공과 흥국생명은 나란히 선두에 올라 사상 첫 동반 우승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만년 우승후보였던 양 팀은 기복 없는 플레이를 펼치는 외국인 선수와 걸출한 토종 공격수 그리고 안정적인 세터를 앞세워 선전하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br/> <br/> 남자부 대한항공은 14일 인천계양체육관에서 열린 한국전력과의 2016-2017 NH농협 V리그 경기에서 3대 2(25-8 17-25 23-25 25-21 15-12)로 이기며 4연승을 달렸다. 승점 61점(21승8패)을 획득한 대한항공은 2위 현대캐피탈(승점 52)에 승점 9점 차로 앞서 있다. 앞선 경기에서 흥국생명은 현대건설에 세트 스코어 3대1(25-23, 22-25, 26-24, 25-20)로 승리했다. 이 승리로 흥국생명은 승점 52점(18승7패)으로 단독선두를 굳게 지키며 2위 IBK기업은행(승점 48)과의 승점 차를 4점으로 늘렸다. 흥국생명은 3세트에서 19-24로 뒤져 있다가 뒤집는 파란을 일으켰다. <br/> <br/> 대한항공과 흥국생명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외국인 선수다. 공교롭게도 두 팀은 외국인선수 트라이아웃 1순위를 보유하고 있다. 대한항공 미차 가스파리니(33·라이트)는 2015년 유럽선수권대회에서 슬로베니아를 준우승으로 이끈 실력파다. 2012-2013 시즌 현대캐피탈에서 뛰었던 경험이 있어 V-리그를 잘 알고 있다. <br/> <br/> 가스파리니는 명품 서브로 박기원 대한항공 감독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 비슷한 공격성공률에서 승부를 가르는 것들 중 하나가 바로 서브다. 서브 득점 1위를 달리고 있는 가스파리니는 이날도 3개의 서브를 성공시켜 팀의 공격에 활기를 불어넣었다. 대한항공은 안정적인 서브 리시브와 윙 스파이커들의 지원사격을 바탕으로 가스파리니의 공격력을 극대화하고 있다. <br/> <br/> 흥국생명의 타비 러브(26·라이트)도 박미희 감독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다. 러브는 캐나다 국가대표 출신으로 폴란드, 아제르바이잔, 독일 등 유럽리그에서 뛴 경험이 있다. 196㎝의 큰 키에서 뿜어져 나오는 강력한 스파이크는 상대 코트를 초토화시킨다. <br/> <br/> 두 팀의 또 다른 자랑거리는 외국인 선수 못지않은 실력을 가진 토종 공격수다. 대한항공 김학민(34·레프트)은 나이를 거꾸로 먹고 있는 것 같다. 철저한 자기관리로 공격 성공률과 후위공격에서 모두 선두에 올라 있다. 흥국생명의 이재영(21·레프트)은 프로 3년차를 맞아 공격과 수비에서 한층 성숙해진 기량을 뽐내고 있다. 24경기에서 386득점을 올려 국내 선수들 가운데 1위를 달리고 있다. 특히 불안했던 리시브가 많이 좋아져 만능선수로 성장하고 있다. <br/> <br/> 양 팀 세터의 활약도 빼놓을 수 없다. 남자부 연봉킹인 대한항공의 한선수(32)는 2014년 12월 오른쪽 어깨 수술을 받은 뒤 기량이 예전 같지 않다는 평가도 있지만 다년간 쌓은 노하우로 안정적인 경기를 운영하고 있다. 올해로 프로 6년차를 맞은 흥국생명의 조송화(24)는 경기를 보는 시야가 한층 넓어졌다. 현재 세트당 평균 12.39개의 세트를 성공시키며 1위를 달리는 등 커리어 하이를 기록하고 있다. <br/> <br/> 한편 이날 한국전력 세터 강민웅의 유니폼 문제로 경기가 20분 중단되는 해프닝이 일어났다. 강민웅은 원정경기인데 홈경기 때 입는 빨간색 유니폼을 가져왔다. 이에 동료들과 같은 색인 파란색 계통의 유니폼을 구해왔다. 하지만 동료들과는 달리 지난 시즌에 입었던 민소매였다. 경기는 1세트 대한항공이 14-12로 앞선 상황에서 중단됐다. KOVO 관계자들과 한국전력 신영철 감독, 대한항공 박기원 감독은 이 사안을 놓고 맞서면서 경기는 약 20분 중단됐다. 결국 규정을 어긴 강민웅은 퇴장당했다. 경기는 14-12에서 14-1로 돌아갔다. 한국전력의 ‘1점’은 강민웅이 투입되기 전의 점수다. <br/> <br/>▶[김정남 독침 피살] 김정은 권력유지 걸림돌로 생각해 제거 <br/>▶[김정남 독침 피살] ‘볼펜 독침’ 소지 정찰총국 요원 추정 <br/>▶[김정남 독침 피살] 해외 언론에 “삼촌은 독재자”… 김한솔 행방 묘연 <br/>▶“장시호의 폭로는 계속된다” 형광펜까지 동원된 자필 진술서 <br/>▶“돌아온 언니의 뒤태” 이효리 근황 사진 화제 <br/>▶“아직 이혼 못했지만…” 유퉁, 33세 연하 몽골여성과 8번째 결혼 <br/>▶[단독] 최순실, 고영태 부모 찾아가 ‘호빠 다니는 쓰레기’ 협박 지시 <br/>▶“아들 돌봐주는 말기 암 엄마 때문에 변심” 장시호 옥중 인터뷰 <br/>▶“다짜고짜 서두원과 잤냐고 물었다” 맥심, 송가연 인터뷰 추가 공개 <br/> <br/> <br/> 인천=박구인 김태현 기자 <br/> <br/>taehyun@kmib.co.kr

언론사: 국민일보-4-774.txt

제목: [김정남 독침 피살] 김정은 권력유지 걸림돌로 생각해 제거  
날짜: 20170215  
기자: 김현길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215005155001  
ID: 01100201.20170215005155001  
카테고리: 정치>북한  
본문: 말레이시아에서 피살된 김정남은 이전에도 여러 차례 암살 위협을 받았다.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의 장남으로, 이복동생인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경쟁자로 일찌감치 지목돼왔기 때문이다. 이번 피살 사건 역시 김정남이 김 위원장의 권력 유지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2011년 말 집권한 김 위원장이 올해 우상화 작업을 본격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와중에 ‘백두혈통’인 이복형을 살해했다는 것이다. <br/> <br/> 김정남 암살 시도설은 김정은 위원장의 집권 훨씬 이전부터 제기됐다. 2004년 11월 김정남이 오스트리아를 방문하던 중 암살될 위협에 처했으나 오스트리아 정보기관의 밀착 경호로 위기를 넘겼다는 보도가 나왔다. 당시 김정남의 권력 승계를 우려한 김정철, 김정은 형제의 측근이 암살을 기획했다는 설이 제기됐다. 2010년에도 중국 베이징에서 북한의 암살 시도에서 겨우 살아남은 것으로 알려졌다. <br/> <br/> 김정은이 2011년 말 집권하면서 권력에서 밀려난 김정남이 피살된 이유 역시 과거 암살 시도와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정남이 밀려나긴 했지만 북한 내부에선 나이가 어린 김정은보다 김정남이 후계자로 더 적합하다는 분위기 역시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특히 중국이 김정남을 김정은의 대안으로 눈여겨보고 있다는 설도 많다. 잇따른 핵실험 및 미사일 개발을 통해 국제사회와 마찰을 빚고 있는 김정은을 압박하기 위해 중국이 김정남을 관리해왔다는 것이다. <br/> <br/> 특히 북한이 올해 8월 ‘백두산 위인 칭송대회’를 기획하는 등 김정은에 대한 우상화 작업을 강화하며 유일지배체제를 만드는 상황에서 김정남이 장애가 됐을 거라는 분석도 나온다. 탈북자 출신인 최경희 한양대 현대한국연구소 연구위원은 14일 “남자 형제들이 있을 경우 주위의 시선이 분산된다. 북한에서는 시선이 곧 권위라고 보면 김정남 피살도 그 일환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도 “<span class='quot0'>최고 지도부 입장에서 봤을 때 김정남을 제거하지 않으면 김정은 체제의 개인숭배가 강화되는 데 방해요소가 된다고 생각했을 수 있다</span>”고 설명했다. <br/> <br/> 김정은의 어머니가 재일교포 출신 고용희로 백두혈통에 대한 콤플렉스가 있었다는 점도 이러한 분석을 뒷받침한다. 반면 김정남은 김정일의 첫 번째 아들로 북한 여성이 낳은 백두혈통의 적장자로 분류된다. 김정일은 김정남이 어린 나이에 해외 유학을 가게 됐을 때 딸을 시집보내는 어머니처럼 울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질 정도로 각별한 애정을 쏟은 것으로 전해졌다. <br/> <br/> 김정은 집권 이후 해외에서 떠돌던 김정남의 망명 시도가 이번 사건의 배경이 됐다는 지적도 있다. 북한의 3대 세습 비판 등으로 본국으로 귀국하기 힘든 김정남이 최근 들어 자금이 고갈되는 등 어려움을 겪자 최근 망명을 시도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span class='quot1'>아들이 해외에서 유학 중이고 자신의 미래를 생각했을 때 한국이든 미국이든 망명을 하려는 시도가 북한 당국에 포착됐을 수 있다</span>”고 말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도 “<span class='quot2'>암살은 김정은의 직접 승인이나 동의 없이 이뤄질 수 없는 일</span>”이라며 “<span class='quot2'>최근 한 언론이 김정남의 망명 시도를 구체적으로 보도해 김정은이 격분했을 가능성이 있다</span>”고 밝혔다. <br/> <br/> 김정은을 둘러싼 북한 내부의 과잉충성 세력이 이번 사태의 배후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고 교수는 “북한 내부에서 과잉충성 세력이 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세력들이 미래의 화근이 될 수 있는 김정남을 제거하려 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br/> <br/>▶[김정남 독침 피살] 김정은 권력유지 걸림돌로 생각해 제거 <br/>▶[김정남 독침 피살] ‘볼펜 독침’ 소지 정찰총국 요원 추정 <br/>▶[김정남 독침 피살] 해외 언론에 “삼촌은 독재자”… 김한솔 행방 묘연 <br/>▶“장시호의 폭로는 계속된다” 형광펜까지 동원된 자필 진술서 <br/>▶“돌아온 언니의 뒤태” 이효리 근황 사진 화제 <br/>▶“아직 이혼 못했지만…” 유퉁, 33세 연하 몽골여성과 8번째 결혼 <br/>▶[단독] 최순실, 고영태 부모 찾아가 ‘호빠 다니는 쓰레기’ 협박 지시 <br/>▶“아들 돌봐주는 말기 암 엄마 때문에 변심” 장시호 옥중 인터뷰 <br/>▶“다짜고짜 서두원과 잤냐고 물었다” 맥심, 송가연 인터뷰 추가 공개 <br/> <br/> <br/>김현길 기자 hgkim@kmib.co.kr

언론사: 국민일보-4-775.txt

제목: [김정남 독침 피살] ‘볼펜 독침’ 소지 정찰총국 요원 추정  
날짜: 20170215  
기자: 조성은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215004855001  
ID: 01100201.20170215004855001  
카테고리: 국제>미국\_북미  
본문: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맏아들 김정남을 살해해 말레이시아 경찰의 추적을 받고 있는 북한 여성 2명은 정찰총국 소속 공작원으로 추정된다. 이들이 “마사지를 해주겠다”며 김정남에게 접근한 뒤 눈가리개를 씌우고 팔에 독침을 놓았다는 얘기도 흘러나온다. <br/> <br/> 북한 공작원들은 볼펜이나 만년필, 손전등 등의 형태로 위장한 독침을 소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펜 형태는 독침을 1개만 쏠 수 있지만 손전등은 3개 이상 장전이 가능하다. 침에 맞으면 따끔할 뿐이지만 곧 근육경직과 질식으로 숨이 멎을 정도로 치명적이다. <br/> <br/> 정찰총국은 북한군 총참모부 직속 기구로 요인 암살과 납치 등 테러 임무를 담당한다. 김정남 감시 역시 정찰총국이 담당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서방국가는 물론 남한 내부에서도 암약하며 반북인사 살해를 시도해 왔다. 사이버 공격 등 테러활동을 벌인 혐의로 미국 행정부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블랙리스트에 등재돼 있기도 하다. 특히 여성 공작원들도 독침 사용법, 산악훈련, 사격 등 특수훈련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br/> <br/> 2010년 정찰총국 소속 공작원 3명은 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를 살해하고자 탈북자로 위장해 남한에 잠입했다 검거됐다. 정찰총국과 연계된 남한 범죄 조직이 북한산 마약을 밀매하면서 황 전 비서와 독일인 북한 인권활동가를 암살하라는 지령을 받은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 <br/> <br/>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처조카 이한영이 피살된 사건도 정찰총국 소행이다. 이한영은 1997년 자신이 살던 아파트 엘리베이터 앞에서 공작원 2명의 총격을 받았다. 그는 직후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열흘 뒤 숨졌다. 북한 공작원이 남한 내 탈북자를 살해한 첫 사례였다. <br/> <br/>▶[김정남 독침 피살] 김정은 권력유지 걸림돌로 생각해 제거 <br/>▶[김정남 독침 피살] ‘볼펜 독침’ 소지 정찰총국 요원 추정 <br/>▶[김정남 독침 피살] 해외 언론에 “삼촌은 독재자”… 김한솔 행방 묘연 <br/>▶“장시호의 폭로는 계속된다” 형광펜까지 동원된 자필 진술서 <br/>▶“돌아온 언니의 뒤태” 이효리 근황 사진 화제 <br/>▶“아직 이혼 못했지만…” 유퉁, 33세 연하 몽골여성과 8번째 결혼 <br/>▶[단독] 최순실, 고영태 부모 찾아가 ‘호빠 다니는 쓰레기’ 협박 지시 <br/>▶“아들 돌봐주는 말기 암 엄마 때문에 변심” 장시호 옥중 인터뷰 <br/>▶“다짜고짜 서두원과 잤냐고 물었다” 맥심, 송가연 인터뷰 추가 공개 <br/> <br/> <br/>조성은 기자 <br/> <br/>jse130801@kmib.co.kr

언론사: 국민일보-4-776.txt

제목: [김정남 독침 피살] 해외 언론에 “삼촌은 독재자”… 김한솔 행방 묘연  
날짜: 20170215  
기자: 이종선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215004755001  
ID: 01100201.20170215004755001  
카테고리: 정치>북한  
본문: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이 피살되면서 그의 아들 김한솔(22) 등 다른 가족들의 신변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그들 역시 신변에 이상이 생겼을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김정은 위원장의 형 김정철(36)과 이복누나 김설송(43),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이복동생 김평일(63) 등 다른 ‘백두혈통’의 행방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br/> <br/> 김정남과 둘째 부인 이혜경 사이에서 태어난 김한솔은 프랑스 파리정치대학 재학 중이던 지난 2014년 10월 국내 취재진과 마주친 이후 행방이 묘연하다. 그는 2011년 보스니아에 있는 국제학교에 유학한 뒤 2013년 프랑스 명문대에 입학해 국제사회의 큰 주목을 받았다. 김정남의 후견인 역할을 했던 장성택 전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이 처형된 후 신변에 대한 우려로 프랑스 경찰의 밀착 경호를 받았다. 김한솔은 수년 전 핀란드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삼촌은 독재자”라고 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김정남의 딸 김솔희, 첫째 부인 신정희, 둘째 부인 이혜경과 김정남의 다른 동거녀들도 모두 행방이 묘연한 상태다. <br/> <br/> 김정은 위원장의 형인 김정철 역시 북한에 있을 것으로 관측될 뿐 행방이 불투명하다. 그는 2015년 5월 영국 런던에서 열린 팝스타 에릭 클랩튼의 콘서트장에서 목격된 뒤 공식석상에서 모습을 감췄다. 국가정보원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김정철이 권력에서 철저히 소외된 채 감시받으며 생활하고 있으며, 호텔에서 술에 취하면 술병을 깨고 행패를 부리는 등 정신불안 증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br/> <br/> 외교관으로 해외를 전전해오던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이복동생 김평일의 행방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김일성종합대학을 졸업한 그는 1988년 헝가리 주재 대사부터 시작해 불가리아·핀란드·폴란드 대사를 거쳐 체코 주재 대사를 역임했다. 지난해 11월 홍콩의 한 주간지는 북한 안팎에서 김 위원장 대신 숙부인 김평일을 옹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그후 행적에 대해서는 확인되지 않았다. 지난해 노동당 조직지도부 부부장을 맡으며 주목받았던 김정은 위원장의 이복누나 김설송 역시 올 들어 공개석상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br/> <br/>▶[김정남 독침 피살] 김정은 권력유지 걸림돌로 생각해 제거 <br/>▶[김정남 독침 피살] ‘볼펜 독침’ 소지 정찰총국 요원 추정 <br/>▶[김정남 독침 피살] 해외 언론에 “삼촌은 독재자”… 김한솔 행방 묘연 <br/>▶“장시호의 폭로는 계속된다” 형광펜까지 동원된 자필 진술서 <br/>▶“돌아온 언니의 뒤태” 이효리 근황 사진 화제 <br/>▶“아직 이혼 못했지만…” 유퉁, 33세 연하 몽골여성과 8번째 결혼 <br/>▶[단독] 최순실, 고영태 부모 찾아가 ‘호빠 다니는 쓰레기’ 협박 지시 <br/>▶“아들 돌봐주는 말기 암 엄마 때문에 변심” 장시호 옥중 인터뷰 <br/>▶“다짜고짜 서두원과 잤냐고 물었다” 맥심, 송가연 인터뷰 추가 공개 <br/> <br/> <br/>이종선 기자 remember@kmib.co.kr

언론사: 국민일보-4-777.txt

제목: 靑 “김정남 피살 보고 받아… NSC 개최 여부 미정”  
날짜: 20170215  
기자: 김철오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215003444001  
ID: 01100201.20170215003444001  
카테고리: 정치>북한  
본문: 청와대가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의 피살과 관련해 “<span class='quot0'>외교부와 국가정보에서 관련 보고를 받았다</span>”고 밝혔다. <br/> <br/> 청와대 관계자는 14일 뉴시스와 전화통화에서 “<span class='quot1'>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 외교부와 국정원 보고가 올라왔다</span>”며 “<span class='quot1'>관련 보고가 사실인지 관계 부처에서 확인 중</span>”이라고 말했다. <br/> <br/> 이 관계자는 “<span class='quot2'>사실 여부를 확인하면 외교부에서 대응할 것</span>”이라며 “<span class='quot2'>다만 현재로서 NSC 개최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다</span>”고 덧붙였다. <br/> <br/> 김정남은 전날 말레이시아 콸라룸푸르공항에서 여성 간첩 2명의 독침 암살로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용의자는 김정남을 살해한 뒤 택시를 탑승하고 도주한 것으로 전해졌다. <br/> <br/> 말레이시아 경찰은 북한 측의 소행으로 보고 있다. 말레이시아 정부가 김정남의 사망과 관련해 공식적으로 발표할 가능성도 있다. <br/> <br/> 김정남은 2011년 11월 사망한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이 첫 부인 성혜림 사이에서 얻은 장남이다. 김정은이 북한에서 정권을 잡은 뒤 프랑스 파리,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등 해외를 전전했다. <br/> <br/>▶[김정남 독침 피살] 김정은 권력유지 걸림돌로 생각해 제거 <br/>▶[김정남 독침 피살] ‘볼펜 독침’ 소지 정찰총국 요원 추정 <br/>▶[김정남 독침 피살] 해외 언론에 “삼촌은 독재자”… 김한솔 행방 묘연 <br/>▶“장시호의 폭로는 계속된다” 형광펜까지 동원된 자필 진술서 <br/>▶“돌아온 언니의 뒤태” 이효리 근황 사진 화제 <br/>▶“아직 이혼 못했지만…” 유퉁, 33세 연하 몽골여성과 8번째 결혼 <br/>▶[단독] 최순실, 고영태 부모 찾아가 ‘호빠 다니는 쓰레기’ 협박 지시 <br/>▶“아들 돌봐주는 말기 암 엄마 때문에 변심” 장시호 옥중 인터뷰 <br/>▶“다짜고짜 서두원과 잤냐고 물었다” 맥심, 송가연 인터뷰 추가 공개 <br/> <br/> <br/>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

언론사: 국민일보-4-778.txt

제목: [일산 신경락한의원 조병준 원장의 해독이야기] ⑨ “생활습관 고쳐야 질병 원인 치료”  
날짜: 20170215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215001955001  
ID: 01100201.20170215001955001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누구나 건강하기를 원하지만 계속 몸이 아픈 환자는 많아져간다. 병원이 늘어나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다. 불시에 어려운 질병이 걸렸을 때 보통 사람들의 반응은 ‘왜 하필 내게 이런 병이 찾아왔을까’ 원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질병에 걸렸다면 분명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 그리고 내가 살아온 길을 한번 뒤돌아보는 지혜가 필요하다. <br/> <br/> 내가 뭘 즐겨 먹으며 살아왔는지, 어떤 생활습관을 가지고 살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면 건강이 나빠진 원인을 찾을 수 있다. 고혈압 당뇨 변비 아토피 심장병 치매 관절염 암에 이르기까지 현대인의 난치·불치병은 한마디로 ‘생활습관병’이다. 내가 그런 병들에 걸릴 수밖에 없는 생활습관을 갖고 살아온 것이다. <br/> <br/> 사람과 모든 자연생명체는 본래 병이 잘 안 걸리고 걸려도 쉽게 낫는 게 정상이다. 의사들 가운데 “<span class='quot0'>병이 걸리기가 쉬울까요, 낫기가 쉬울까요</span>”라고 질문하면 거의 “병이 걸리기 쉽다”고 답변하는데 정답은 “낫기가 쉽다”라는 것이다. <br/> <br/> 사람의 몸은 원래는 병이 잘 안 걸리도록 돼 있다. 그런데 음식을 가공해서 먹는다든지, 밤늦게 자는 습관, 불규칙한 생활, 과도한 경쟁, 많아진 욕구 등에서 오는 과다한 스트레스, 과식 간식 야식등의 습관이 병에 걸리게 만든다. 주로 앉아 생활하는 습관도 그런 원인중 하나다. 우리가 잘 먹고, 편리한 생활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환자는 많아져만 가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다. 생활습관병은 병원 치료보다 우선 자신의 생활을 점검해 고쳐야 원인치료가 된다. <br/> <br/> 생활습관이 잘못돼 병이 왔는데 그 습관은 고치지 않고 약을 써서 병만 치료하려니 병이 나을 리 없다. 약을 써서 일시적으로 증상이 개선되더라도 약을 끊으면 재발할 수밖에 없다. 자칫하면 평생 약을 먹어야 할 수 있다. 평생 약을 먹어야 한다면 불치병이라는 뜻이다. <br/> <br/> 가령 고혈압과 당뇨로 평생 약을 먹어 수치를 관리해야 한다면 불치병이 되는 셈인데, 생활 관리를 잘 해가면 약을 끊고도 약 먹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생활 관리만 잘 해도 난치병은 난치병이 아닐 수 있고 불치병은 불치병이 아닐 수 있게 되는 것이다. <br/> <br/> 카페를 운영하던 40대 후반의 A씨는 8년 전 갑상선암 진단을 받았다. 자궁과 난소도 좋지 않다고 진단받아 갑상선과 자궁, 한쪽 난소를 들어내는 수술을 받았다. <br/> <br/> 수술 후 항상 피곤을 달고 살았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걷잡을 수 없이 짜증이 나고 또 몸이 차가워지며 붓기도 했다. 생리 주기도 불규칙하며 폭식증까지 생겨 항상 소화불량에 시달렸다. 부친이 젊은 나이에 위암으로 돌아가셔서 이렇게 살다 위암까지 걸리는 건 아닐까 불안감도 커졌다. <br/> <br/> 내 몸부터 챙겨야겠다는 절박한 생각에 잘 운영되던 카페를 접고 한의원을 방문했다. 상담 후 이대로만 하면 건강을 되찾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해독 프로그램대로 열심히 따라하며 식생활습관을 고쳐 나갔다. <br/> <br/> 고등학교 3학년 아들이 있어서 항상 새벽 2시가 넘어서야 잤는데 갑상선은 빛에 대한 스트레스가 주요한 원인으로 늦게 자는 습관이 주원인이라는 얘기를 듣고 밤10시면 취침했다. 해독치료를 시작하자 첫 주부터 피로가 덜해지고 몸이 붓는 것도 덜해지고 2개월쯤부터는 확연하게 피로를 잘 못 느끼게 됐다. 깊은 잠을 잘 수 있게 되면서 혈색도 좋아지고 우울증, 불안감도 사라져 표정이 밝아졌다. 주위 사람들이 무슨 관리를 받느냐는 질문을 많이 해온다고 한다. 몸이 좋아지니 일하고 싶은 열정이 생기고 의욕도 생겨 조만간 다시 일을 시작하려고 분당에 카페를 계약했다고 자랑했다. <br/> <br/> 생활습관에서 해독을 적극적으로 하는 것은 현대인이 난치병에서 벗어나는 중요한 베이스가 된다. 우리는 병에 걸리면 우선적으로 병원에 모든 걸 의지하고 병원치료를 통해 회복되길 기대한다. 허나 생활습관이 잘못돼 병이 올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병원치료를 하더라도 우선해야 할 일은 자신의 생활 속에 병이 드는 습관을 찾아 없애는 것이 가장 중요한 치료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br/> <br/><기획특집팀>

언론사: 국민일보-4-779.txt

제목: 뜨거워지는 후분양제 논란  
날짜: 20170215  
기자: 박세환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215000855001  
ID: 01100201.20170215000855001  
카테고리: 경제>부동산  
본문: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후분양제 관련 연구용역에 착수하면서 부동산 업계가 술렁이고 있다. 올해 공급과잉 우려가 커지면서 투기수요 억제 및 역전세난 방지 방안으로 후분양제가 거론되지만 건설업계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 <br/> <br/> HUG는 오는 17일 발주하는 주택금융시스템 발전방안 연구용역에 ‘후분양제 도입의 장단점 및 시장 영향에 대한 분석’을 포함시켰다고 14일 밝혔다. HUG 관계자는 “<span class='quot0'>지난해 후분양제 논의가 업계에 흘러나와 연구용역 과제에 포함시킨 것</span>”이라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도 정동영 국민의당 의원이 지난해 후분양제를 명시한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논의를 촉발시켰다. <br/> <br/> 후분양제란 건설사가 주택을 일정 수준 이상 지은 뒤 입주자를 모집하는 제도다. 정부는 2003년 후분양제 전면 도입을 검토했다가 2008년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유야무야됐다. 현재 건설사들은 분양 후 주택 건설을 시작하는 선분양제를 시행하고 있다. 주택사업자가 대지 소유권을 우선 확보한 뒤 분양보증을 받고, 청약을 통해 입주자를 모으는 방식이다. <br/> <br/> 후분양제는 입주 전 차익을 노린 단기투기가 어렵고, 새 아파트에 따라 기존 아파트값이 덩달아 오르는 부작용을 막을 수 있어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된다. 11·3 부동산대책 이후 공급과잉 공포가 커지면서 후분양제를 통한 공급관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br/> <br/> 그러나 건설업계는 공사비 부담을 감당할 수 없다며 강력 반대하고 있다. 건설업계의 한 관계자는 “<span class='quot1'>후분양제가 본격화되면 자금 여력이 없는 중견 건설사가 공급량을 줄이고, 기존 주택가격이 오르면서 서민들이 대출을 늘려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span>”며 “<span class='quot1'>대단지 아파트에 수요가 몰리는 전통적 분양 시장엔 후분양제가 맞지 않다</span>”고 말했다. <br/> <br/>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4일 성명을 내고 국회 차원에서 후분양제법(주택법)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 관계자는 “<span class='quot2'>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의 경우 일부 후분양제를 이미 시행하고 있다</span>”며 “<span class='quot2'>후분양제를 통해 부동산 거품을 제거하고 주택시장을 정상적으로 만들어야 한다</span>”고 말했다. <br/> <br/>▶[김정남 독침 피살] 김정은 권력유지 걸림돌로 생각해 제거 <br/>▶[김정남 독침 피살] ‘볼펜 독침’ 소지 정찰총국 요원 추정 <br/>▶[김정남 독침 피살] 해외 언론에 “삼촌은 독재자”… 김한솔 행방 묘연 <br/>▶“장시호의 폭로는 계속된다” 형광펜까지 동원된 자필 진술서 <br/>▶“돌아온 언니의 뒤태” 이효리 근황 사진 화제 <br/>▶“아직 이혼 못했지만…” 유퉁, 33세 연하 몽골여성과 8번째 결혼 <br/>▶[단독] 최순실, 고영태 부모 찾아가 ‘호빠 다니는 쓰레기’ 협박 지시 <br/>▶“아들 돌봐주는 말기 암 엄마 때문에 변심” 장시호 옥중 인터뷰 <br/>▶“다짜고짜 서두원과 잤냐고 물었다” 맥심, 송가연 인터뷰 추가 공개 <br/> <br/> <br/>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

언론사: 국민일보-4-780.txt

제목: 강하늘의 행복론 “찌푸리고 살면 피곤하니까” [인터뷰]  
날짜: 20170215  
기자: 권남영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215000355002  
ID: 01100201.20170215000355002  
카테고리: 문화>영화  
본문: 마치 흰 도화지 같다. 흔할지라도, 배우 강하늘(본명 김하늘·27)에게는 더없이 잘 어울리는 비유다. 티 없이 말간 얼굴로 온갖 색깔의 감정들을 그려낸다. 기쁨 슬픔 그리움 미움…. 그의 눈빛에는 더 깊은 이야기가 실려 있다. <br/> <br/> 15일 개봉하는 영화 ‘재심’(감독 김태윤)에서는 살인 누명을 쓰고 10년간 감옥살이를 해야 했던 한 남자의 억울함을 담아냈다. 2000년 전북 익산 약촌오거리에서 발생한 택시기사 살인사건을 토대로 한 작품에서 강하늘은 경찰의 강압수사와 증거조작에 범인으로 몰린 청년 현우를 연기했다. <br/> <br/> “제가 좀 억울하게 생겼나요? 저한테서 그런 느낌이 풍기나 봐요. 아하하.” 전작 ‘동주’(2016)에 이어 또 짠한 캐릭터를 맡았다는 말에 그가 내놓은 쿨한 대답. 최근 서울 종로구의 한 카페에서 만난 강하늘은 가지런한 이를 한가득 드러내고 연신 환히 웃었다. 유쾌 발랄한 그의 성품은 강렬했던 극 중 모습을 지워버리고도 남았다. <br/> <br/> “<span class='quot0'>실화 자체가 아닌 시나리오에 집중하려 했다</span>”는 강하늘은 일단 ‘착한 아이가 억울한 일을 당했다’는 일차원적 설정을 피하기로 했다. 날카로운 인상을 주기 위해 살부터 뺐다. 불량함을 더하려 장발머리에 브리지 염색을 했고, 몸에는 문신을 잔뜩 그려 넣었다. 그는 “매 작품마다 좀 더 나은 표현법이 없을까 고민한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였다”고 했다. <br/> <br/> 현우를 돕는 변호사 준영 역의 정우와는 영화 ‘쎄시봉’(2015), 예능 ‘꽃보다 청춘-아이슬란드’(tvN)에 이어 세 번째 만났다. 강하늘은 “<span class='quot1'>정우 형이랑 워낙 친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소통을 했다</span>”며 “<span class='quot1'>정말 편하게 연기한 것 같다</span>”고 흡족해했다. <br/> <br/> “촬영 현장에서 제 모토는 ‘다 같이 즐기면서 웃자. 얼굴 찌푸리는 사람 없게 하자’는 거예요. 제가 원래 되게 많이 긍정적인 사람이거든요. 찌푸리는 일을 별로 만들고 싶지 않아요. 그러면 서로 피곤해지잖아요. 상대를 긍정적인 마음으로 대하면 그 기운이 내게도 돌아오더라고요.” <br/> <br/> 과연 ‘미담의 아이콘’다운 발언이다. 스스로 선한 이미지를 유지해야 한다는 부담감이라도 있는 걸까. “요즘 그런 질문을 정말 많이 받는다”는 강하늘은 “약간 어리둥절하다. 저는 그저 예의를 중시할 뿐이다. 그렇게 착한 사람은 아니다”라며 웃음을 터뜨렸다. <br/> <br/> 2006년 뮤지컬 ‘천상시계’로 데뷔해 ‘상속자들’(2013·SBS) ‘미생’(2014·tvN) 등 드라마를 통해 주목받은 강하늘은 단숨에 충무로 기대주로도 떠올랐다. 최근 2년간 무려 다섯 편의 영화를 선보였다. 그럼에도 ‘대세’라는 수식어엔 여전히 몸서리치는 그다. “겸손 떠는 게 아니라 진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제 역량 안에서 좋은 작품들을 만났으면 좋겠다는 바람뿐입니다.” <br/> <br/> 연기자의 길이 맞나 고민할 만큼 힘든 시기를 겪기도 했다. 윤동주 시인을 연기한 ‘동주’ 촬영 당시 적잖은 부담감에 시달렸던 탓이다. 다행히 지금은 훌훌 털어냈다. 명상 등 자신만의 해소법을 찾았다. “한 단계 더 나은 사람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지금을 사는 법’을 많이 배우고 있어요.” <br/> <br/> “<span class='quot0'>나는 그저 행복하게 살고 싶은 사람</span>”이라는 강하늘에게 ‘지금은 행복하느냐’고 물었다. 그는 지체 없이 그렇다고 했다. “항상 사람들은 다 지나고 나서 ‘그때가 행복했다’고 하잖아요. 그 당시에는 행복하다는 말을 하지 않죠. 그러니까 특별히 불행하지 않다면 그게 행복한 것 같아요(웃음). 지금도 열심히 행복하려고 노력하는 중입니다.” <br/> <br/>▶[김정남 독침 피살] 김정은 권력유지 걸림돌로 생각해 제거 <br/>▶[김정남 독침 피살] ‘볼펜 독침’ 소지 정찰총국 요원 추정 <br/>▶[김정남 독침 피살] 해외 언론에 “삼촌은 독재자”… 김한솔 행방 묘연 <br/>▶“장시호의 폭로는 계속된다” 형광펜까지 동원된 자필 진술서 <br/>▶“돌아온 언니의 뒤태” 이효리 근황 사진 화제 <br/>▶“아직 이혼 못했지만…” 유퉁, 33세 연하 몽골여성과 8번째 결혼 <br/>▶[단독] 최순실, 고영태 부모 찾아가 ‘호빠 다니는 쓰레기’ 협박 지시 <br/>▶“아들 돌봐주는 말기 암 엄마 때문에 변심” 장시호 옥중 인터뷰 <br/>▶“다짜고짜 서두원과 잤냐고 물었다” 맥심, 송가연 인터뷰 추가 공개 <br/> <br/> <br/>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

언론사: 국민일보-4-781.txt

제목: 장하나·리디아 고, LPGA투어 시즌 첫 출전… 마음의 상처·슬럼프 벗어 던질까  
날짜: 20170215  
기자: 박구인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215000355004  
ID: 01100201.20170215000355004  
카테고리: 스포츠>골프  
본문: 지난해 싱가포르 가방 사건으로 마음의 상처를 입은 장하나(25)와 지난해 하반기 이유 없는 슬럼프에 빠진 여자 골프 세계 1위 리디아 고(20). 잊고싶은 2016년을 보낸 이들이 호주에서 열리는 미국여자프로골프(LPGA)투어에 올 시즌 첫 출격하면서 반전을 꾀할지 주목된다. <br/> <br/> 세계랭킹 6위 장하나는 16∼19일 호주 애들레이드 로열 애들레이드 골프장(파73)에서 열리는 ISPS 한다 호주 여자오픈(총상금 130만 달러)에 출전한다. <br/> <br/> 장하나는 지난해 시즌 초인 2월 코츠 골프 챔피언십, 3월 HSBC 위민스 챔피언스에서 우승하며 상승세를 탔다. 하지만 위민스 챔피언십을 앞두고 터진 이른바 ‘공항 가방 사건’ 이후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았다. <br/> <br/> 싱가포르 공항에서 장하나의 아버지가 에스컬레이터에서 떨어뜨린 가방이 전인지와 부딪혀 부상으로 이어지면서 여론의 뭇매를 맞았고, 심리적 부담감을 떨쳐내지 못했다. 심지어 그의 과도한 우승 세리머니까지 비판받는 등 때아닌 ‘국민밉상’ 이미지까지 덧칠해졌다. 장하나는 지난해 10월 대만 챔피언십에서 시즌 3승째를 올리며 부진에서 탈출했지만 이미지를 완전히 회복하기에는 여전히 2% 부족한 상태다. <br/> <br/> 장하나는 이번 호주오픈에서 산뜻한 마음으로 새 시즌을 맞이하며 지난해의 악몽을 씻겠다는 입장이다. <br/> <br/> 뉴질랜드 교포 리디아 고 역시 호주오픈을 와신상담의 기회로 삼고 있다. 그는 지난해 초반 4승을 거두며 승승장구했으나, 8월 리우데자네이루올림픽 이후 무승에 그치는 등 슬럼프에 빠졌다. 연말에는 지난해 10월 통산 10승을 합작한 캐디 제이슨 해밀턴, 11월 스윙코치 데이비드 레드베터와 모두 결별했다. 지난 3년간 사용했던 캘러웨이 클럽 대신 신생브랜드 PXG의 클럽을 올해부터 사용하는 등 그야말로 모든 것을 바꿨다. 한마디로 승부수를 띄운 것인데 이번 호주대회에서 변신의 효과를 가늠할 수 있게 됐다. <br/> <br/> 다행히도 호주 대회는 리디아 고가 2013년부터 참가해 우승 1회, 준우승 1회, 3위 2회를 기록하는 등 톱3 밖으로 벗어난 적이 없을 정도로 강세다. 골프팬에게 자신의 재기를 보여주는데 더할 나위없이 좋은 무대인 셈이다. <br/> <br/>▶[김정남 독침 피살] 김정은 권력유지 걸림돌로 생각해 제거 <br/>▶[김정남 독침 피살] ‘볼펜 독침’ 소지 정찰총국 요원 추정 <br/>▶[김정남 독침 피살] 해외 언론에 “삼촌은 독재자”… 김한솔 행방 묘연 <br/>▶“장시호의 폭로는 계속된다” 형광펜까지 동원된 자필 진술서 <br/>▶“돌아온 언니의 뒤태” 이효리 근황 사진 화제 <br/>▶“아직 이혼 못했지만…” 유퉁, 33세 연하 몽골여성과 8번째 결혼 <br/>▶[단독] 최순실, 고영태 부모 찾아가 ‘호빠 다니는 쓰레기’ 협박 지시 <br/>▶“아들 돌봐주는 말기 암 엄마 때문에 변심” 장시호 옥중 인터뷰 <br/>▶“다짜고짜 서두원과 잤냐고 물었다” 맥심, 송가연 인터뷰 추가 공개 <br/> <br/> <br/>박구인 기자 captain@kmib.co.kr

언론사: 국민일보-4-782.txt

제목: ‘신입사원 지원’ 이메일 열었더니 PC먹통… 한국형 랜섬웨어 피해 주의보  
날짜: 20170215  
기자: 윤성민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215000255003  
ID: 01100201.20170215000255003  
카테고리: 사회>사회일반  
본문: 한글 이메일을 통해 유포되는 ‘한국형 랜섬웨어’가 빠르게 퍼지고 있어 경찰이 주의보를 내렸다. 랜섬웨어는 컴퓨터의 파일을 암호화한 뒤 이를 푸는 대가로 돈을 요구하는 악성 프로그램이다. <br/> <br/> 경찰청은 한글 이메일을 통해 소규모 업체와 공공기관 등에 신종 랜섬웨어인 ‘비너스락커(Venuslocker)’가 전파되고 있다며 14일 주의를 당부했다. 지금까지 랜섬웨어는 영문 이메일에 첨부돼 발송되거나, 특정 웹사이트에 접속한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되는 경우가 일반적이었다. 랜섬웨어가 한글 이메일에 첨부돼 전파된 사례는 비너스락커가 처음이다. <br/> <br/> 비너스락커는 이메일 수신자가 파일을 무심코 열어보기 쉽도록 공격 대상자에게 맞춤형 이메일로 발송된다는 점이 특징이다. 비너스락커는 여행업체에는 여행 예약 문의 이메일로, 인쇄업체에는 명함 제작 의뢰 이메일로, 공공기관에는 신입사원 지원 이메일로 보내졌다. 또 지난해 12월에는 연말정산 관련 내용으로, 지난달에는 인사발령 내용으로 특정 시기에 맞춰 다른 내용으로 전파되기도 했다. <br/> <br/> 랜섬웨어 이메일 수신자가 여행 일정, 명함 디자인 등으로 위장한 첨부파일을 열면 컴퓨터의 파일들은 암호화돼 열 수 없는 상태가 된다. 해커는 암호를 풀려면 온라인상 가상화폐 1비트코인(현재 120만원 상당)을 72시간 내 입금하라고 요구한다. 비트코인은 익명거래가 가능한 가상통화다. 경찰은 랜섬웨어 피해를 막으려면 출처가 불분명한 이메일의 첨부파일은 실행하면 안 된다고 조언했다. <br/> <br/>▶[김정남 독침 피살] 김정은 권력유지 걸림돌로 생각해 제거 <br/>▶[김정남 독침 피살] ‘볼펜 독침’ 소지 정찰총국 요원 추정 <br/>▶[김정남 독침 피살] 해외 언론에 “삼촌은 독재자”… 김한솔 행방 묘연 <br/>▶“장시호의 폭로는 계속된다” 형광펜까지 동원된 자필 진술서 <br/>▶“돌아온 언니의 뒤태” 이효리 근황 사진 화제 <br/>▶“아직 이혼 못했지만…” 유퉁, 33세 연하 몽골여성과 8번째 결혼 <br/>▶[단독] 최순실, 고영태 부모 찾아가 ‘호빠 다니는 쓰레기’ 협박 지시 <br/>▶“아들 돌봐주는 말기 암 엄마 때문에 변심” 장시호 옥중 인터뷰 <br/>▶“다짜고짜 서두원과 잤냐고 물었다” 맥심, 송가연 인터뷰 추가 공개 <br/> <br/> <br/>윤성민 기자 woody@kmib.co.kr

언론사: 국민일보-4-783.txt

제목: ‘對러 제재’ 관련 내용 러시아 대사에 전달  
날짜: 20170215  
기자: 김미나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215000157002  
ID: 01100201.20170215000157002  
카테고리: 국제>러시아  
본문: 러시아와의 유착 의혹이 불거진 마이클 플린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13일(현지시간) 불명예 퇴진하면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위기에 직면했다. 트럼프는 플린의 사직서를 즉각 수리하며 국정 수습에 나섰지만 안보 혼란은 불가피한 모습이다. <br/> <br/>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플린은 지난해 12월 세르게이 키슬랴크 주미 러시아대사와 수차례 문자와 전화를 이용해 접촉하면서 버락 오바마 당시 행정부의 대러 제재 관련 내용을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민간인 신분이던 플린이 정부 승인 없이 외교 사안에 관여했다면 ‘로건법(Logan Act)’ 위반에 해당한다. 또한 두 사람의 대화는 정권인수위원회 차원에서 오갈 수 있는 통상적 범위를 넘어섰다는 게 중론이다. 그간 플린은 “<span class='quot0'>외국 장관, 대사들과 통화를 했다</span>”고 인정하면서도 “<span class='quot0'>원활한 정권 이양을 위한 것</span>”이라고 선을 그었다. <br/> <br/> 그러나 두 사람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 만한 접촉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플린은 결국 사임을 표명했다. WSJ는 정부 조사 결과 두 사람이 지난해 대선 최대 이슈였던 러시아의 사이버 공격과 미 대선 개입 의혹 등 민감한 이야기를 나눈 것으로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플린은 키슬랴크과 단 한 차례 통화를 했고 당시 트럼프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간의 대화를 준비했다고 밝혔지만 사정 당국은 두 사람 사이에 한 번 이상의 전화 통화가 오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여기에 플린이 2015년 크렘린이 후원한 러시아 언론사 ‘러시아투데이’ 행사에 참석해 푸틴과 시간을 보냈다는 사실이 추가로 드러나면서 해명의 진정성마저 의심받고 있다. <br/> <br/> 트럼프는 국가안보보좌관 대행으로 조지프 키스 켈로그 국가안보회의(NSC) 사무총장을 즉각 임명했다. 플린의 비서실장 역할을 맡아 온 켈로그는 지난해 대선 당시 트럼프 캠프의 국방 참모로 활약했고 정권인수위원회가 꾸려진 후에는 국방 분과에서 일했다. 육군에서 30여년간 복무했고 베트남전에 두 차례 참전했다. 이라크전쟁 이후 2003∼2004년엔 이라크 연합군 임시행정처(CPA)를 이끌었다. 은퇴한 뒤 IT 기업 오라클에서 안보 고문 역할을 했다. <br/> <br/> 차기 국가안보보좌관에는 켈로그와 함께 데이비드 퍼트레이어스 전 중앙정보국(CIA) 국장, 로버트 하워드 전 합동참모본부 부의장, 조지 W 부시 행정부 당시 국가안보보좌관을 역임한 스티븐 해들리 등이 거론된다. 퍼트레이어스가 14일 트럼프와 회동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가장 유력한 후보로 떠올랐지만 2012년 자신의 자서전을 집필하던 작가 폴라 브로드웰과의 불륜 스캔들로 CIA 국장직에서 물러난 약점이 있다. 국가안보보좌관은 상원 비준 없이 대통령이 임명한다. <br/> <br/> 백악관 비서실장과 대변인 교체도 임박했다는 예측도 나왔다. 반(反)이민 행정명령 후폭풍을 감당하지 못한 라인스 프리버스 비서실장은 능력 부족이라는 거센 질타에 직면했다. 후임으론 크리스 크리스티 뉴저지 주지사가 물망에 오른다. 그는 대선 과정에서 정권인수위원장까지 맡았지만 트럼프와 사이가 틀어져 부위원장으로 강등된 뒤 막후로 사라졌던 인물이다. <br/> <br/> 트럼프가 숀 스파이서 대변인도 못마땅하게 여긴다는 얘기도 나왔다. 스파이서가 지난달 첫 정례 브리핑 때 트럼프가 싫어하는 매체인 CNN방송 기자에게 질문 기회를 부여해 공방을 벌인 것과, 최근 브리핑에서 맏딸 이방카를 옹호한 켈리앤 콘웨이 백악관 선임고문이 ‘주의 조치를 받았다’고 공개한 것에 불만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br/> <br/> 트럼프 행정부의 ‘인사 참사’는 사실상 예견된 일이었다. 정치 경험이 부족한 엘리트 강성 인사들에 대한 우려는 조각 당시부터 쏟아졌다. 장관 15명 중 윌버 로스 상무장관, 앤드루 푸즈더 노동장관, 릭 페리 에너지장관 내정자 등 6명이 여전히 상원 인준을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br/> <br/>▶[김정남 독침 피살] 김정은 권력유지 걸림돌로 생각해 제거 <br/>▶[김정남 독침 피살] ‘볼펜 독침’ 소지 정찰총국 요원 추정 <br/>▶[김정남 독침 피살] 해외 언론에 “삼촌은 독재자”… 김한솔 행방 묘연 <br/>▶“장시호의 폭로는 계속된다” 형광펜까지 동원된 자필 진술서 <br/>▶“돌아온 언니의 뒤태” 이효리 근황 사진 화제 <br/>▶“아직 이혼 못했지만…” 유퉁, 33세 연하 몽골여성과 8번째 결혼 <br/>▶[단독] 최순실, 고영태 부모 찾아가 ‘호빠 다니는 쓰레기’ 협박 지시 <br/>▶“아들 돌봐주는 말기 암 엄마 때문에 변심” 장시호 옥중 인터뷰 <br/>▶“다짜고짜 서두원과 잤냐고 물었다” 맥심, 송가연 인터뷰 추가 공개 <br/> <br/> <br/>김미나 기자 mina@kmib.co.kr

언론사: 국민일보-4-784.txt

제목: 헌재, 불출석 증인 취소·朴측 추가 신청도 기각  
날짜: 20170215  
기자: 이경원 나성원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215000156003  
ID: 01100201.20170215000156003  
카테고리: 사회>사회일반  
본문: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기일을 13번째 진행한 헌법재판소가 불출석 증인들의 신문을 취소하고 대통령 측의 추가 증인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탄핵심판이 다시 속도를 내자 박 대통령 대리인단은 ‘김수현 녹취파일’ 2300여개를 모두 들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br/> <br/> 14일 열린 탄핵심판 제13차 변론기일에서 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 김홍탁 플레이그라운드 대표, 김형수 전 미르재단 이사장은 예정된 증인신문에 나오지 않았다. 이에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span class='quot0'>지난 변론기일에 증인이 불출석하면 재판부에서 납득할 수 있는 사유가 아닌 이상 재소환하지 않겠다고 했다</span>”며 증인채택 결정을 취소했다. 헌재는 13일 박 대통령 측이 추가로 증인신청한 이진동 TV조선 기자, 최철 전 문화체육관광부 정책보좌관에 대해서도 “<span class='quot1'>탄핵소추사유와 무관하고, 다른 많은 증거가 있다</span>”며 채택하지 않기로 했다. <br/> <br/> 변론절차 종료가 선언되자 박 대통령 측은 황급히 발언을 신청했다. 손범규 변호사는 “<span class='quot2'>이진동(TV조선 기자)이라는 존재는 핵심인물들을 들여다보는 빅브러더</span>” “<span class='quot2'>트로이의 목마처럼 김수현(전 고원기획 대표)이라는 사람을 최순실과 고영태(전 더블루케이 이사)에게 보낸 사람</span>”이라고 말했다. 그는 언론의 국정농단 의혹 제기를 두고 “<span class='quot2'>정상적인 프로세스가 아니라 기획적인 폭로 공작</span>”, “<span class='quot2'>순수하지 못한 동기에서 조작돼 여기까지 왔다</span>”고 주장했다. <br/> <br/> 결국 김씨의 녹취파일 전부를 들어보고 추가로 증거를 신청하겠다는 게 박 대통령 측의 주장이었다. 주심인 강일원 재판관은 “<span class='quot3'>신청서를 내면 재판부가 협의하겠다</span>”면서도 별다른 의미 없이 계속되는 증거신청에 불편함을 내비쳤다. 그는 “양측 대리인이 재판부를 못 믿는 듯한데, 재판부는 증거능력이 있는 건 다 파악하고 있다. 이 사건에 대해서 대리인들보다 저희 재판부가 더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 측이 중대성을 역설한 김씨의 녹취파일들에 대해서는 “<span class='quot1'>중국 음식을 주문하는 등 불필요한 것이 많다</span>”고 말했다. <br/> <br/> 그간 비공식 법률자문을 하다 최근 대통령 측 대리인단에 합류한 헌법재판관 출신 이동흡(66·사법연수원 5기·사진) 변호사는 이날 탄핵소추가 기각돼야 한다는 진술을 15분 가까이 이어갔다. 그는 “대통령은 부양할 자식도 없이 대한민국과 결혼했다는 말을 들으며 애국심 하나로 조국과 국민에게 헌신했다. 애국심을 존중해 달라는 말은 못해도 조금은 따뜻한 시각에서 봐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방청석의 노년층 방청객들은 “속이 다 시원하다. 이동흡이 똑똑하다”고 입을 모았다. <br/> <br/>▶[김정남 독침 피살] 김정은 권력유지 걸림돌로 생각해 제거 <br/>▶[김정남 독침 피살] ‘볼펜 독침’ 소지 정찰총국 요원 추정 <br/>▶[김정남 독침 피살] 해외 언론에 “삼촌은 독재자”… 김한솔 행방 묘연 <br/>▶“장시호의 폭로는 계속된다” 형광펜까지 동원된 자필 진술서 <br/>▶“돌아온 언니의 뒤태” 이효리 근황 사진 화제 <br/>▶“아직 이혼 못했지만…” 유퉁, 33세 연하 몽골여성과 8번째 결혼 <br/>▶[단독] 최순실, 고영태 부모 찾아가 ‘호빠 다니는 쓰레기’ 협박 지시 <br/>▶“아들 돌봐주는 말기 암 엄마 때문에 변심” 장시호 옥중 인터뷰 <br/>▶“다짜고짜 서두원과 잤냐고 물었다” 맥심, 송가연 인터뷰 추가 공개 <br/> <br/> <br/>이경원 나성원 기자 neosarim@kmib.co.kr

언론사: 국민일보-4-785.txt

제목: 흡연 여학생, 거식증 위험 3배 높다  
날짜: 20170215  
기자: 민태원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215000155004  
ID: 01100201.20170215000155004  
카테고리: 국제>미국\_북미  
본문: 담배 피우는 학생은 건강에 해로운 극단적 살 빼기에 매몰될 위험이 크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특히 흡연 여학생은 거식증(신경성 식욕부진증)을 일으키는 ‘식사 후 구토’나 이뇨제·설사약 복용 등 잘못된 다이어트 시도 비율이 비흡연 여학생보다 3배나 높았다. <br/> <br/> 인제대 서울백병원 가정의학과 조영규 교수팀은 2014년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참가자 중 다이어트 경험이 있는 중고생 3만1090명(흡연 남학생 13.3%, 흡연 여학생 3.8%)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4일 밝혔다. <br/> <br/> 흡연 여학생의 극단적 다이어트 경험률은 15.1%였다. 비흡연 여학생은 5.2%였다. 식사 후 구토와 이뇨제·설사약을 복용해 살 빼기를 시도한 흡연 여학생은 각각 7.9%, 5.6%로 비흡연 여학생(각각 2.4%, 1.9%)보다 3배 많았다. 흡연 남학생도 극단적 살 빼기를 약 1.5배 더 많이 시도했다. <br/> <br/>▶[김정남 독침 피살] 김정은 권력유지 걸림돌로 생각해 제거 <br/>▶[김정남 독침 피살] ‘볼펜 독침’ 소지 정찰총국 요원 추정 <br/>▶[김정남 독침 피살] 해외 언론에 “삼촌은 독재자”… 김한솔 행방 묘연 <br/>▶“장시호의 폭로는 계속된다” 형광펜까지 동원된 자필 진술서 <br/>▶“돌아온 언니의 뒤태” 이효리 근황 사진 화제 <br/>▶“아직 이혼 못했지만…” 유퉁, 33세 연하 몽골여성과 8번째 결혼 <br/>▶[단독] 최순실, 고영태 부모 찾아가 ‘호빠 다니는 쓰레기’ 협박 지시 <br/>▶“아들 돌봐주는 말기 암 엄마 때문에 변심” 장시호 옥중 인터뷰 <br/>▶“다짜고짜 서두원과 잤냐고 물었다” 맥심, 송가연 인터뷰 추가 공개 <br/> <br/> <br/>민태원 기자 twmin@kmib.co.kr

언론사: 국민일보-4-786.txt

제목: 잠자는 내 돈 fine.fss.or.kr서 찾아보세요  
날짜: 20170215  
기자: 조효석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215000055001  
ID: 01100201.20170215000055001  
카테고리: 경제>금융\_재테크  
본문: 오랜만에 꺼내든 외투 주머니에서 잊고 지낸 현금을 발견하는 경우가 있다. 이처럼 잊고 있었던 금융계좌에 ‘잠든 돈’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금융감독원은 14일 휴면예금, 미환급 공과금 등 ‘휴면금융재산’을 찾는 방법을 소개했다. <br/> <br/> 금감원이 지난해부터 운영 중인 금융정보 포털 웹사이트 ‘파인’(fine.fss.or.kr)은 ‘잠자는 내 돈 찾기’ 메뉴를 신설, 15일부터 서비스한다. 기존에 각종 금융정보 웹사이트에 분산되어 있던 휴면재산 찾는 통로 9곳을 한 데 모았다. <br/> <br/> 각 부문 조회에 필요한 건 공인인증서와 주민등록번호다. 종류에 따라 휴대폰 본인인증을 요구하기도 한다. 은행 예금은 30만원 이하 소액 계좌를 조회한 뒤 바로 환급할 수 있다. 주식의 경우 한국예탁결제원이 보관하고 있는 미수령 주식과 배당금 조회가 가능하다. <br/> <br/> 특히 카드 포인트는 소멸 시기가 정해져 있어 빠른 확인이 요구된다. 이용 중인 카드사를 선택하면 잔여 포인트와 소멸될 포인트, 시기를 함께 확인할 수 있다. 환급받지 못한 세금도 한꺼번에 조회와 환급 신청이 가능하다. 단 통신 미환급금 등 일부는 해당 웹사이트에서 개별 신청해야 한다. <br/> <br/> 지난해 9월 말 기준 국내 휴면 금융재산 규모는 약 4조3846억원에 달한다. 비중이 가장 높은 건 카드 포인트로 이 중 절반 수준인 2조1914억원이다. <br/> <br/>▶[김정남 독침 피살] 김정은 권력유지 걸림돌로 생각해 제거 <br/>▶[김정남 독침 피살] ‘볼펜 독침’ 소지 정찰총국 요원 추정 <br/>▶[김정남 독침 피살] 해외 언론에 “삼촌은 독재자”… 김한솔 행방 묘연 <br/>▶“장시호의 폭로는 계속된다” 형광펜까지 동원된 자필 진술서 <br/>▶“돌아온 언니의 뒤태” 이효리 근황 사진 화제 <br/>▶“아직 이혼 못했지만…” 유퉁, 33세 연하 몽골여성과 8번째 결혼 <br/>▶[단독] 최순실, 고영태 부모 찾아가 ‘호빠 다니는 쓰레기’ 협박 지시 <br/>▶“아들 돌봐주는 말기 암 엄마 때문에 변심” 장시호 옥중 인터뷰 <br/>▶“다짜고짜 서두원과 잤냐고 물었다” 맥심, 송가연 인터뷰 추가 공개 <br/> <br/> <br/>글=조효석 기자, 그래픽=이석희 기자

언론사: 국민일보-4-787.txt

제목: “디지털 변신” 앞세워 오프라인 수수료 만드는 은행  
날짜: 20170215  
기자: 우성규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215000055003  
ID: 01100201.20170215000055003  
카테고리: IT\_과학>인터넷\_SNS  
본문: 불황에 저금리, 디지털 변신이란 삼각파도를 맞고 있는 은행권이 기존에 없던 수수료를 신설하는 방식으로 영업 전략을 바꾸고 있다. KB국민은행은 올해 안에 고객이 창구에서 입출금을 할 때도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한국씨티은행도 다음달 8일부터 1000만원 이하 계좌를 가진 신규 고객에게 월 5000원의 계좌유지 수수료를 매달 받겠다고 고지했다. 이들 은행은 한목소리로 ‘모바일 비대면 채널 강화’를 내세우는데, 모바일 당근책이 아닌 오프라인 벌칙성 수수료를 새로 만드는 방식으로 고객의 동의를 얻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br/> <br/> KB국민은행 관계자는 14일 “<span class='quot0'>인터넷 모바일 비대면 채널 활성화를 위해 창구거래 수수료를 금융당국과 협의 중</span>”이라며 “<span class='quot0'>아직 시행시기 범위 조건 등은 결정된 바 없다</span>”고 말했다. 창구거래 수수료라는 명칭 역시 확정된 바가 아니다. 디지털 뱅킹과 자동입출금기(ATM)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창구에 찾아와 직원을 붙잡고 단순 입출금 거래를 하는 고객에게 수수료를 물리는 정책으로 파악된다. <br/> <br/> 한국씨티은행은 지난 8일 계좌유지 수수료 제도를 도입한다고 홈페이지를 통해 한 줄 공시했다. 지난해 넉 달 넘게 금융당국과 협의했고,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 개정 사항이어서 시행일인 3월 8일 한 달 전에 고지하게 된 것이다. 씨티은행 측은 “<span class='quot1'>인터넷 모바일 고객은 수수료가 면제되며, 디지털 뱅킹이 어려운 노년층과 어린이도 부과 대상에서 빠진다</span>”고 강조한다. <br/> <br/> 은행권 수수료 신설 및 인상 움직임은 지난해부터 본격화됐다. 2015년 8월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span class='quot2'>은행 가격 결정에 자율성을 주겠다</span>”면서 수수료 인하 지도 및 실태 점검 등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이후부터다. 당국은 자율화를 주문했는데, 은행들은 릴레이 인상 및 수수료 신설 움직임으로만 가고 있다. 타행과 다른 가격 자율성을 위해 수수료를 내린 곳은 없었다. <br/> <br/> 계좌유지든 창구거래 명목이든 은행들이 수수료를 새로 만드는 이유는 일정 금액 이하의 계좌 유치가 의미 없다는 인식 때문이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1.25%로 내린 이후 시중 부동자금이 요구불예금에 몰리는 등 은행은 손쉽게 자금을 조달하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14%의 인력을 희망퇴직으로 내보낸 국민은행을 필두로 은행권 구조조정이 병행되며 지점 폐쇄 및 창구 인력 축소가 가속화하고 있다. 고액 자산가를 위한 프라이빗 뱅킹(PB) 서비스가 아니라면 창구 자체를 향후 없애야 할 비용으로 보고 있다. <br/> <br/> 당장 소비자 불편이 불보 듯하다. 금융소비자연맹 강형구 금융국장은 은행권 수수료 신설 움직임에 대해 “<span class='quot3'>은행 수익에 도움이 안 되고 불필요한 고객을 멀리하기 위한 것</span>”이라고 말했다. 없던 수수료를 새로 만들어서 오프라인 징벌로 모바일 비대면 채널을 강화하려는 것도 억지 전략이라고 논평했다. 강 국장은 “<span class='quot3'>외환위기 당시 거대 공적자금이 투입된 은행 산업이 공공성을 외면해선 안 된다</span>”고 강조했다. <br/> <br/>▶[김정남 독침 피살] 김정은 권력유지 걸림돌로 생각해 제거 <br/>▶[김정남 독침 피살] ‘볼펜 독침’ 소지 정찰총국 요원 추정 <br/>▶[김정남 독침 피살] 해외 언론에 “삼촌은 독재자”… 김한솔 행방 묘연 <br/>▶“장시호의 폭로는 계속된다” 형광펜까지 동원된 자필 진술서 <br/>▶“돌아온 언니의 뒤태” 이효리 근황 사진 화제 <br/>▶“아직 이혼 못했지만…” 유퉁, 33세 연하 몽골여성과 8번째 결혼 <br/>▶[단독] 최순실, 고영태 부모 찾아가 ‘호빠 다니는 쓰레기’ 협박 지시 <br/>▶“아들 돌봐주는 말기 암 엄마 때문에 변심” 장시호 옥중 인터뷰 <br/>▶“다짜고짜 서두원과 잤냐고 물었다” 맥심, 송가연 인터뷰 추가 공개 <br/> <br/> <br/>글=우성규 기자 mainport@kmib.co.kr, 그래픽=이석희 기자

언론사: 국민일보-4-788.txt

제목: [국민만평-서민호 화백] 호랑이 없는 자유당…  
날짜: 20170215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215212055001  
ID: 01100201.20170215212055001  
카테고리: 국제>미국\_북미  
본문: ▶[김정남 독침 피살] 김정은 권력유지 걸림돌로 생각해 제거 <br/>▶[김정남 독침 피살] ‘볼펜 독침’ 소지 정찰총국 요원 추정 <br/>▶[김정남 독침 피살] 해외 언론에 “삼촌은 독재자”… 김한솔 행방 묘연 <br/>▶“장시호의 폭로는 계속된다” 형광펜까지 동원된 자필 진술서 <br/>▶“돌아온 언니의 뒤태” 이효리 근황 사진 화제 <br/>▶“아직 이혼 못했지만…” 유퉁, 33세 연하 몽골여성과 8번째 결혼 <br/>▶[단독] 최순실, 고영태 부모 찾아가 ‘호빠 다니는 쓰레기’ 협박 지시 <br/>▶“아들 돌봐주는 말기 암 엄마 때문에 변심” 장시호 옥중 인터뷰 <br/>▶“다짜고짜 서두원과 잤냐고 물었다” 맥심, 송가연 인터뷰 추가 공개 <br/> <br/> <br/>서민호 min3018@kmib.co.kr

언론사: 국민일보-4-789.txt

제목: [포토]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날짜: 20170215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215175755001  
ID: 01100201.20170215175755001  
카테고리: 사회>사회일반  
본문: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의 대리인 서석구 변호사가 13차 변론기일인 1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가방에서 태극기를 꺼내 펼쳐들었다. 사진은 방청석의 사진기자들을 향해 10초가량 포즈를 취하다 심판정을 소란케 한다며 헌재 직원에게 주의를 받는 장면. 그는 '탄핵을 탄핵한다'는 책을 꺼내 들고 재판관석을 비장한 표정으로 바라보기도 했다. 판사 출신인 서 변호사는 대한민국어버이연합의 법률고문을 맡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br/> <br/>▶“장시호의 폭로는 계속된다” 형광펜까지 동원된 자필 진술서 <br/>▶“돌아온 언니의 뒤태” 이효리 근황 사진 화제 <br/>▶“아직 이혼 못했지만…” 유퉁, 33세 연하 몽골여성과 8번째 결혼 <br/>▶서석구, 헌재 대심판정서 태극기 퍼포먼스 <br/>▶채동욱 전 검찰총장 변호사 못한다… 변협이 신고서 반려한 이유 <br/>▶[단독] 최순실, 고영태 부모 찾아가 ‘호빠 다니는 쓰레기’ 협박 지시 <br/>▶“아들 돌봐주는 말기 암 엄마 때문에 변심” 장시호 옥중 인터뷰 <br/>▶“다짜고짜 서두원과 잤냐고 물었다” 맥심, 송가연 인터뷰 추가 공개

언론사: 국민일보-4-790.txt

제목: [살며 사랑하며-윤고은] 자존감 테스트  
날짜: 20170215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215174755001  
ID: 01100201.20170215174755001  
카테고리: 미분류  
본문: 그가 자존감 테스트를 해봤는데 23점이 나왔다며 좀 낮은 것 같다고 했다. 평균은 25점인데, 35점 이하는 자존감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 휴대폰 화면에 나오고 있었다. 건강한 자존심 지수가 65점 이상이라기에 나는 가볍게 그 테스트를 시작했다. 문항은 모두 50개였고 ‘아니다’부터 ‘그렇다’까지 네 단계의 답변을 선택할 수 있었다. 글쓰기란 자존감의 근력운동이나 마찬가지라고 강조하며, 자존감이 인간에게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 역설하며 테스트에 몰입했는데, 내 결과는 9점이었다. <br/> <br/> 9점이라니, 참으로 당황스러운 결과였다. 주변에 이 테스트를 해보라고 권한 건 나 나름의 통계를 내보기 위함이었는데(이 테스트에 대한 의심과 함께) 35점, 19점, 27점, 21점, 그리고 40점도 있었다. 아아 자존감이 뭐지, 하고 있을 때 한 친구가 이렇게 말했다. <br/> <br/> “<span class='quot0'>처음엔 13점이 나왔는데, ‘실수를 인정하는 것에 두려움을 느끼며’ 다시 했더니 27점이 나온 거야.</span>” <br/> <br/> 테스트의 문항이 많고, 게다가 비문도 있고, 자존감보다도 집중력 저하를 느꼈기 때문에 오기로 다시 해봤다는 거였다. 그러자 다른 친구가 자신도 노력해서 40점을 받았다며, ‘약간 그렇다’와 같은 애매한 표현을 배제한 채 분명하게 대답하라고 했다. 그건 아까 27점을 맞은 친구의 요령과 겹쳐질 수가 없는 것이어서 나를 더 어리둥절하게 만들었는데, 단지 상반된 요령 때문만은 아니었다. 이 과정에서 어떤 확신이 들기 시작했던 것이다. 이게 뭐라고, 너는 몇 점 나왔니, 한번 해서 나온 거 맞니, 내가 정말 자존감이 낮아 보이니, 자꾸 옆에 물어보는 내 모습이 정말 자존감 결핍의 증상 같지 않은가? 테스트에서 내가 ‘아니다’를 선택했던 그 항목들까지 다시 찾아서 ‘그렇다’고 실토해야 할 판이었다. 결국 나는 한 번 더 했는데, 테스트에서 본 어느 문항처럼 ‘확인과 동의를 강하게 필요로’ 하기 때문이었다. 이번엔 어땠느냐고? 더 이상 의심하지 말라는 듯, 단호한 결과랄까. 무려 ‘-6점’이었다. <br/> <br/>▶“장시호의 폭로는 계속된다” 형광펜까지 동원된 자필 진술서 <br/>▶“돌아온 언니의 뒤태” 이효리 근황 사진 화제 <br/>▶“아직 이혼 못했지만…” 유퉁, 33세 연하 몽골여성과 8번째 결혼 <br/>▶서석구, 헌재 대심판정서 태극기 퍼포먼스 <br/>▶채동욱 전 검찰총장 변호사 못한다… 변협이 신고서 반려한 이유 <br/>▶[단독] 최순실, 고영태 부모 찾아가 ‘호빠 다니는 쓰레기’ 협박 지시 <br/>▶“아들 돌봐주는 말기 암 엄마 때문에 변심” 장시호 옥중 인터뷰 <br/>▶“다짜고짜 서두원과 잤냐고 물었다” 맥심, 송가연 인터뷰 추가 공개 <br/> <br/>글=윤고은(소설가), 삽화=공희정 기자

언론사: 국민일보-4-791.txt

제목: ‘쇼핑의 신세계’… ‘스타필드 하남’ 140일 만에 1000만명 돌파  
날짜: 20170215  
기자: 김혜림 선임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215174155001  
ID: 01100201.20170215174155001  
카테고리: 경제>서비스\_쇼핑  
본문: 정용진 신세계 부사장의 야심작 ‘스타필드 하남’의 방문 고객이 1000만명을 돌파했다. <br/> <br/> 스타필드 하남은 지난해 9월 9일 그랜드 오픈 이후 140일 만인 지난 1월 26일 누적 방문 고객 1000만명을 넘어섰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당초 예측보다 3주 이상 앞선 수치다. <br/> <br/> 일평균 방문객은 7만1000명 수준이다. 이를 연간으로 환산할 경우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이 넘는 2600만명 이상이 스타필드 하남을 방문할 것으로 신세계프라퍼티 측은 예측했다. 아시아에서 방문객이 가장 많은 도쿄 디즈니랜드(연간 1600만명 방문)보다 1000만명 이상 많은 수준이다. 스타필드 하남의 식음료 매장에서는 매일 2만명분의 음식이 판매된다. 물놀이 시설인 아쿠아필드에는 지금까지 총 20만명이 방문한 것으로 집계됐다. 주차장은 오픈 후 지금까지 총 200만대가 이용했다. <br/> <br/> 신세계프라퍼티는 스타필드 하남의 성공 요인으로 쇼핑, 먹거리, 엔터테인먼트, 힐링 등을 한 공간에서 모두 경험할 수 있고, 처음 접하는 새로운 콘텐츠가 많다는 점을 꼽았다. 스타필드 하남에는 백화점, 창고형 할인매장, 차별화된 전문점, 럭셔리 브랜드부터 다양한 패션 브랜드까지 다양한 쇼핑 형태를 갖추고 있다. 또 쇼핑 테마파크답게 엔터테인먼트 시설, F&B 시설, 힐링 공간 등 다양한 카테고리의 테넌트들이 입점해 있다. <br/> <br/> 신세계프라퍼티 임영록 대표는 “<span class='quot0'>단순한 상품 판매에서 벗어나 고객의 시간, 기억, 경험을 교감하고 라이프 셰어 공간으로 거듭나려는 노력이 맞아떨어진 것 같다</span>”고 말했다. <br/> <br/>▶“장시호의 폭로는 계속된다” 형광펜까지 동원된 자필 진술서 <br/>▶“돌아온 언니의 뒤태” 이효리 근황 사진 화제 <br/>▶“아직 이혼 못했지만…” 유퉁, 33세 연하 몽골여성과 8번째 결혼 <br/>▶서석구, 헌재 대심판정서 태극기 퍼포먼스 <br/>▶채동욱 전 검찰총장 변호사 못한다… 변협이 신고서 반려한 이유 <br/>▶[단독] 최순실, 고영태 부모 찾아가 ‘호빠 다니는 쓰레기’ 협박 지시 <br/>▶“아들 돌봐주는 말기 암 엄마 때문에 변심” 장시호 옥중 인터뷰 <br/>▶“다짜고짜 서두원과 잤냐고 물었다” 맥심, 송가연 인터뷰 추가 공개 <br/> <br/>김혜림 선임기자 mskim@kmib.co.kr

언론사: 국민일보-4-792.txt

제목: “대기업 그늘 탈출”… 광주 ‘中企 공동브랜드’ 떴다  
날짜: 20170215  
기자: 광주=장선욱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215173855002  
ID: 01100201.20170215173855002  
카테고리: 지역>지역일반  
본문: 광주지역 중소기업 공동브랜드가 첫 성과를 거뒀다. 대기업 생산라인 이전으로 한동안 매출 감소에 시달리던 지역 중소기업과 적정 가격의 우수제품 찾기에 나선 중견 건설업체가 상생의 손을 잡은 결과다. <br/> <br/> 광주광역시는 “<span class='quot0'>중흥건설㈜이 생활가전업체 ㈜광진산업과 ‘대기전력 자동 차단 콘센트’ 구매계약을 체결했다</span>”고 14일 밝혔다. 계약 액수는 50억원이다. <br/> <br/> 이번 계약은 광주시의 ‘광주형 공동브랜드 프로젝트’에 따른 것이다. 시는 삼성전자 백색가전 생산라인 일부가 해외로 이전하자 지난해 10월 지역 가전업체와 건설업체 간 협력을 꾀했다. 위기에 직면한 지역 업체 생산품 가운데 아파트 등에 공급이 가능한 제품을 건설업체가 우선 구매하는 ‘지역 가전제품 판로지원 상생협약’을 추진한 것이다. <br/> <br/> 중흥건설 등 15개 지역 건설업체는 이 같은 취지에 공감해 협약서에 서명했다. 광주 지역내총생산(GRDP)의 17.5%를 차지해온 삼성전자 광주사업장 냉장고 생산라인 3개 중 김치냉장고를 전담하는 1개 라인의 베트남 이전이 지난해 1월 결정되자 시는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해 중소기업 공동브랜드 프로젝트에 착수했다. <br/> <br/> 그동안 부품 납품에 주력해온 ㈜광진산업과 ㈜디케이산업 등 6개 주관기업, 15개 참여기업과 함께 공동브랜드 ‘MIG(메이드 인 광주)’ 상표를 부착한 완제품을 협업·생산하는 방식으로 경쟁력을 키우기로 한 것이다. 그 결과 중흥건설과 광진산업이 첫 결실을 맺은 것. <br/> <br/> 윤장현 광주광역시장은 지역 가전제품 판로지원에 힘써준 정창선 중흥건설 회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br/> <br/>▶“장시호의 폭로는 계속된다” 형광펜까지 동원된 자필 진술서 <br/>▶“돌아온 언니의 뒤태” 이효리 근황 사진 화제 <br/>▶“아직 이혼 못했지만…” 유퉁, 33세 연하 몽골여성과 8번째 결혼 <br/>▶서석구, 헌재 대심판정서 태극기 퍼포먼스 <br/>▶채동욱 전 검찰총장 변호사 못한다… 변협이 신고서 반려한 이유 <br/>▶[단독] 최순실, 고영태 부모 찾아가 ‘호빠 다니는 쓰레기’ 협박 지시 <br/>▶“아들 돌봐주는 말기 암 엄마 때문에 변심” 장시호 옥중 인터뷰 <br/>▶“다짜고짜 서두원과 잤냐고 물었다” 맥심, 송가연 인터뷰 추가 공개 <br/> <br/>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

언론사: 국민일보-4-793.txt

제목: 제주에 지진 나면? 걱정말고 오세요！  
날짜: 20170215  
기자: 제주=주미령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215173855001  
ID: 01100201.20170215173855001  
카테고리: 지역>제주  
본문: 제주도가 ‘안전하고 편안한 섬’을 목표로 예방 중심의 지진방재 대책을 추진한다. <br/> <br/> 제주도는 내진시설 대상물조사·투자계획 마련 등을 위해 ‘제주형 지진방재 종합대책’을 올해 처음 수립했다고 14일 밝혔다. <br/> <br/> 도는 우선 도로시설물(성신교·위귀교·제2송천교·영실교·한라교·한밝교) 등 9곳에 대한 보강공사를 벌이고 제주개발공사 감귤1공장·제3·4산록교 등 15곳에 대해 내진성능 평가를 진행할 방침이다. <br/> <br/> 공공시설물 내진보강은 제주도 1청사 별관, 제주종합경기장 주경기장, 서귀포시 동부보건소 등 3곳의 건축물에 대해 이뤄진다. <br/> <br/> 보강공사는 건축 구조물의 경우 기둥과 벽체를, 교량시설은 교각 단면 확대 등을 시행한다. <br/> <br/> 올해 9곳의 내진보강 공사가 완료되면 제주도 소관 공공시설물(1142곳) 중 모두 542곳에 내진성능이 갖춰져 내진확보율은 46.7%에서 47.5%가 된다. <br/> <br/> 도는 2020년까지 도로·수도·어항·항만·공공하수처리·병원 등 공공시설물에 대한 내진확보율을 55% 이상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br/> <br/>▶“장시호의 폭로는 계속된다” 형광펜까지 동원된 자필 진술서 <br/>▶“돌아온 언니의 뒤태” 이효리 근황 사진 화제 <br/>▶“아직 이혼 못했지만…” 유퉁, 33세 연하 몽골여성과 8번째 결혼 <br/>▶서석구, 헌재 대심판정서 태극기 퍼포먼스 <br/>▶채동욱 전 검찰총장 변호사 못한다… 변협이 신고서 반려한 이유 <br/>▶[단독] 최순실, 고영태 부모 찾아가 ‘호빠 다니는 쓰레기’ 협박 지시 <br/>▶“아들 돌봐주는 말기 암 엄마 때문에 변심” 장시호 옥중 인터뷰 <br/>▶“다짜고짜 서두원과 잤냐고 물었다” 맥심, 송가연 인터뷰 추가 공개 <br/> <br/>제주=주미령 기자 lalijoo@kmib.co.kr

언론사: 국민일보-4-794.txt

제목: 밀양여름축제·마산만날제 등 6개 사업, 경남 대표 공연예술제 선정… 9억 예산 확보  
날짜: 20170215  
기자: 창원=이영재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215173755001  
ID: 01100201.20170215173755001  
카테고리: 지역>경남  
본문: 경남도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16개 시·도를 대상으로 공모한 올해 ‘지역대표 공연예술제 지원사업’에 밀양여름공연예술축제 등 6개 사업이 선정돼 국비 9억2000만원을 확보했다고 14일 밝혔다. <br/> <br/> 올해 선정된 사업은 창원시 ‘마산만날제’와 진주시 ‘촉석산성아리아 및 진주대첩 승전 재현행사’, 통영시 ‘통영연극예술축제’와 ‘윤이상 국제음악콩쿠르’, 김해시 ‘김해 가야금 페스티벌’, 밀양시 ‘밀양여름공연예술축제’ 등이다. <br/> <br/> 지역대표 공연예술제 지원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실시하는 공모사업으로 경남은 서울(13개), 경기(7개)에 이어 전국 3번째로 많은 사업이 선정됐다. <br/> <br/> 올해 사업은 지난해 12월 전국 시·도의 신청을 받아 행사 실적과 사업계획 충실성, 실현 가능성 등에 대해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됐다. <br/> <br/> 장순천 도 문화예술과장은 “<span class='quot0'>지역대표 공연예술제가 도민들에게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내실있는 행사를 선보일 수 있도록 하겠다</span>”며 “<span class='quot0'>나아가 더 많은 독창적인 공연예술행사를 발굴·육성해 지역 문화예술의 질을 높여나가겠다</span>”고 말했다. <br/> <br/>▶“장시호의 폭로는 계속된다” 형광펜까지 동원된 자필 진술서 <br/>▶“돌아온 언니의 뒤태” 이효리 근황 사진 화제 <br/>▶“아직 이혼 못했지만…” 유퉁, 33세 연하 몽골여성과 8번째 결혼 <br/>▶서석구, 헌재 대심판정서 태극기 퍼포먼스 <br/>▶채동욱 전 검찰총장 변호사 못한다… 변협이 신고서 반려한 이유 <br/>▶[단독] 최순실, 고영태 부모 찾아가 ‘호빠 다니는 쓰레기’ 협박 지시 <br/>▶“아들 돌봐주는 말기 암 엄마 때문에 변심” 장시호 옥중 인터뷰 <br/>▶“다짜고짜 서두원과 잤냐고 물었다” 맥심, 송가연 인터뷰 추가 공개 <br/> <br/>창원=이영재 기자 yj3119@kmib.co.kr

언론사: 국민일보-4-795.txt

제목: “무너지는 보수 바로 세워야” 김관용, 대권레이스 본격화  
날짜: 20170215  
기자: 안동=김재산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215173655001  
ID: 01100201.20170215173655001  
카테고리: 사회>사회일반  
본문: 김관용(사진) 경북지사가 마침내 대권레이스를 위한 본격 행보에 나섰다. <br/> <br/> 김 지사는 14일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 ‘용포럼’ 창립대회에 참석해 축사를 했다. 김지사는 “몇몇 정치인 손에서 시꺼먼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다. 북한을 제일 먼저 방문해야 한다는 등 엄청난 주장들을(하고 있어) 이 먹구름을 국민의 힘으로 걷어내야 한다”며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를 직접 겨냥했다. <br/> <br/> 그는 “다시 한번 대한민국 개조하고 이 나라 자본주의 시장과 시장경제가 중흥할 수 있는 조국을 지켜야 한다”며 “보수가 분열됐지만 언제가 다시 뭉쳐 보수 전선을 다시 한번 수리해서 재출발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br/> <br/> 용포럼은 김 지사의 오래된 지지모임인 ‘느티나무회’가 확대된 것으로, 대구·경북을 비롯해 전국에서 2개월 만에 7만여명의 지지자가 가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br/> <br/> 용포럼은 창립선언문에서 “<span class='quot0'>무너져가는 보수이념을 바로 세우고 분열된 보수진영의 대통합으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희망을 밝히고자 한다</span>”며 창립 목적을 밝혔다. <br/> <br/> 이날 정관을 확정하고 경북 상주 출신의 벤처기업가 신동우씨를 중앙회장을 선출한 용포럼은 보수 결집과 보수정권 재창출을 위해 포럼, 세미나, 학술대회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또 김 지사의 대외 행보를 널리 알리는 등 외곽 지원 역할에도 적극 나설 것으로 보인다. <br/> <br/> 창립대회 행사장에는 자유한국당 TK 의원들이 총출동하다시피 했다. 백승주 자유한국당 경북도당 위원장을 비롯해 강석호·이완용·조원진·김상훈·박명재·김광림·김상훈·정종섭·이만희·최교일·장석춘 국회의원이 참석했고 권영진 대구시장은 축전을 보내왔다. <br/> <br/> ‘용포럼’ 외에도 김 지사의 정책지원 그룹인 ‘미래분권포럼’을 비롯한 몇 개의 외곽 지원모임이 더 생겨날 전망이다. <br/> <br/>▶“장시호의 폭로는 계속된다” 형광펜까지 동원된 자필 진술서 <br/>▶“돌아온 언니의 뒤태” 이효리 근황 사진 화제 <br/>▶“아직 이혼 못했지만…” 유퉁, 33세 연하 몽골여성과 8번째 결혼 <br/>▶서석구, 헌재 대심판정서 태극기 퍼포먼스 <br/>▶채동욱 전 검찰총장 변호사 못한다… 변협이 신고서 반려한 이유 <br/>▶[단독] 최순실, 고영태 부모 찾아가 ‘호빠 다니는 쓰레기’ 협박 지시 <br/>▶“아들 돌봐주는 말기 암 엄마 때문에 변심” 장시호 옥중 인터뷰 <br/>▶“다짜고짜 서두원과 잤냐고 물었다” 맥심, 송가연 인터뷰 추가 공개 <br/> <br/>안동=김재산 기자 jskimkb@kmib.co.kr

언론사: 국민일보-4-796.txt

제목: 울산―부산， ‘관광객 모시기’ 올인  
날짜: 20170215  
기자: 울산·부산=조원일 윤봉학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215173555001  
ID: 01100201.20170215173555001  
카테고리: 지역>울산  
본문: 울산시와 부산시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광객 유치에 적극 나섰다. <br/> <br/> 울산시는 올해 광역시 승격 20주년을 맞아 14일 서울 더 플라자호텔에서 ‘2017 울산 방문의 해’ 선포식을 열고 본격적인 손님맞이에 나섰다. <br/> <br/> 울산시는 ‘울산방문의 해’에 ‘울산이 부른다’라는 슬로건으로 관광객 400만명을 유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br/> <br/> 이날 선포식에는 곽성문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사장, 김홍주 한국관광협회장, 변우희 한국관광학회장, 국내외 여행사 관계자 300여명이 참석했다. <br/> <br/> 김기현 시장은 선포식에 앞서 기자간담회에서 전국 7대 도시 중 한국 대표관광지 100선에 가장 많이 선정된 저력과 울산의 숨겨진 매력을 적극 홍보했다. <br/> <br/> 시는 선포식에서 울산의 5대 관광자원(산업관광, 생태관광, 산악관광, 해양관광, 역사·문화관광)과 최근 한국관광공사에서 발표한 ‘우리나라 대표 관광지 100선’에 소개된 4곳(태화강대공원, 간절곶, 대왕암공원, 영남알프스) 등 울산의 다채로운 매력을 알렸다. <br/> <br/> 선포식 후 김 시장을 비롯한 여행사 관계자들은 서울광장에 마련된 울산홍보관을 찾아 친절캠페인과 홍보마케팅 활동을 펼쳤다. 울산관광 홍보관은 서울광장에서 14∼16일 3일간 운영된다. <br/> <br/> 시는 ‘울산 방문의 해’ 추진으로 울산관광소비액이 3511억원에 이를 것으로 분석했다. <br/> <br/> 부산시도 외국인 관광객 310만명 유치를 위한 5대 관광 마스터플랜을 마련했다. 마스터플랜은 특색있는 관광콘텐츠 개발·확대, 관광객 유치전략 다변화, 관광산업 기반 조성, 부산의 멋을 살린 관광인프라 조성, 감동을 주는 서비스 제공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br/> <br/> 특색 있는 관광콘텐츠 개발·확대 전략은 부산을 상징하는 영화와 해양, 건강·미용 도시의 매력을 담은 관광콘텐츠를 육성하고 부산 대표음식의 글로벌화, 근대역사 콘텐츠를 활용한 투어코스 개발, 부산 야경 등 부산에서만 즐길 수 있는 상품을 개발하는 것이다. 또 산복도로와 서부산 개발 등 도시 재생사업에 관광 콘셉트를 반영하고 불꽃축제, 유채꽃 축제, 바다축제 등을 체류형 관광상품으로 개발할 계획이다. <br/> <br/> 국내외 관광객 유치를 다변화하기 위해 최근 사드 관련 중국정부 규제에 대응해 중국 유력여행사와 공동사업을 확대하고 홍콩·대만 등 중화권과 신규 시장인 동남아 지역 및 작년부터 회복세를 보이는 일본 시장 등 국가별로 다양한 유치 전략을 시행할 계획이다. <br/> <br/> 아울러 부산의 멋을 살린 관광인프라 조성을 위해 태종대·용두산공원을 부산의 랜드마크로 재개발하고 개항지, 임시수도 등 근현대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관광벨트를 조성하는 한편 송도 명물 복원과 황령산 전망타워 등 관광자원도 적극 개발할 계획이다. <br/> <br/>▶“장시호의 폭로는 계속된다” 형광펜까지 동원된 자필 진술서 <br/>▶“돌아온 언니의 뒤태” 이효리 근황 사진 화제 <br/>▶“아직 이혼 못했지만…” 유퉁, 33세 연하 몽골여성과 8번째 결혼 <br/>▶서석구, 헌재 대심판정서 태극기 퍼포먼스 <br/>▶채동욱 전 검찰총장 변호사 못한다… 변협이 신고서 반려한 이유 <br/>▶[단독] 최순실, 고영태 부모 찾아가 ‘호빠 다니는 쓰레기’ 협박 지시 <br/>▶“아들 돌봐주는 말기 암 엄마 때문에 변심” 장시호 옥중 인터뷰 <br/>▶“다짜고짜 서두원과 잤냐고 물었다” 맥심, 송가연 인터뷰 추가 공개 <br/> <br/>울산·부산=조원일 윤봉학 기자 wcho@kmib.co.kr

언론사: 국민일보-4-797.txt

제목: [졸업유예도 빈부격차] ‘금수저’엔 도전의 기회… ‘흙수저’엔 생존의 선택  
날짜: 20170215  
기자: 임주언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215173555002  
ID: 01100201.20170215173555002  
카테고리: 사회>사회일반  
본문: 3년6개월을 돌고 돌아 다시 취업준비생이 됐다. 지난해 하반기에 작은 회사만 골라 10곳에 지원했다. 대기업 공채에는 자기소개서조차 내지 않았다. 그런데도 모두 탈락했다. 2013년 8월 서울의 한 사립대를 졸업한 박수연(가명·28·여)씨는 “아르바이트보다 낫기만 하면 어디든 좋다는 생각이 들다가도 앞으로 결혼도 해야 하는데 하는 걱정이 밀려온다”며 복잡한 심정을 드러냈다. <br/> <br/> 박씨는 2013년 2월 60만원을 내고 초과 학기를 등록했다. 학자금 대출을 3번 받았던 박씨에게는 적은 돈이 아니었다. 게다가 아버지가 은퇴한 뒤라 교사인 어머니의 외벌이로 네 식구가 먹고살아야 하는 상황이었다. 그래도 무턱대고 백수가 되고 싶지는 않았다. 홀로 고민하던 박씨는 “<span class='quot0'>학점을 다 채우지 못해 초과 학기를 들어야 한다</span>”는 핑계를 대고 부모님에게 돈을 받았다. 딱히 도움을 청할 교수님이나 조언을 구할 만한 선배도 떠오르지 않았다. <br/> <br/> 졸업을 유예하고 스펙 쌓기에 들어갔지만 쉽지 않았다. 결국 공무원시험 준비를 결심하고 한 학기 만에 졸업을 결정했다. 유예비용보다 저렴한 인터넷 강의를 듣고 독서실을 다니며 공부했지만 공무원시험의 문턱은 높았다. 3년을 돌아와 박씨는 다시 취업준비생이 됐다. 박씨는 취업준비생의 기본인 컴퓨터활용능력 자격증부터 다시 따기 위해 애쓰고 있다. <br/> <br/> 많은 대학생이 졸업유예 기간을 취업 준비의 발판으로 삼고 있지만 똑같은 높이로 도약하진 못한다. 전문가들은 이 차이가 부모의 소득과 무관치 않다고 본다. 졸업유예자에게 부모의 소득 수준은 경제적 영향에다 심리적 부담까지도 주기 때문이다. 저소득층의 경우 짧은 유예기간 동안 빨리 결과를 내야 한다는 압박감이 더 심할 수밖에 없다. 유예를 길게 끌수록 비용과 시간적 부담은 커진다. <br/> <br/> 반면 고소득층은 부모의 지원이 상대적으로 넉넉하다. 2015년 8월 사립대 영어영문학과를 졸업한 이모(32)씨가 그랬다. 이씨는 2014년 2학기에 60만원을 내고 한 학기 졸업을 미뤘다. 그 기간 집에서 월 100만원 이상 지원받아 원어민 영어 강의를 들었다. 대기업이 요구하는 인문학적 소양을 쌓기 위해 한 달에 10만원은 책을 사는데 썼다. 아르바이트나 과외는 하지 않았다. 부모의 월소득이 800만원 정도 되기에 가능했다. 이씨는 대기업에 취직했다. <br/> <br/> 신광영 중앙대 사회학교 교수는 “<span class='quot1'>고소득층의 경우 부모 소득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일종의 ‘완충지대’라 할 수 있는 안전판을 갖고 있어 미래에 대한 전망도 그렇게 부정적이지 않다</span>”며 “<span class='quot1'>미래를 더 확실하게 다지기 위해 졸업을 유예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다</span>”는 의견을 내놓았다. <br/> <br/> 최종렬 계명대 사회학과 교수는 “<span class='quot2'>부모가 잘살면 미래도 다양한 가능성으로 열린다</span>”며 “<span class='quot2'>한쪽에는 탐색이나 도전 기회가 되고, 다른 한쪽에는 생존을 위해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선택만이 기다리고 있는 셈</span>”이라고 진단했다. <br/> <br/> 졸업유예를 조언해주는 사람도 차이가 있다. ‘대학생 졸업유예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에 따르면 부모 월평균 소득이 150만원 미만인 학생은 졸업을 미룰 때 조언받는 이 가운데 주변 지인(친구와 선배 제외)의 비율이 22.7%로 다른 소득층에 비해 높았다. 월소득 800만원 이상인 고소득층은 교수(21.9%)와 부모(12.5%)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았다. <br/> <br/> 이러한 결과는 부모의 소득 차이가 자녀의 사회적 자본 격차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신동준 국민대 사회학과 교수는 “<span class='quot3'>고소득층은 부모의 연결망을 활용할 수 있는 반면 저소득층은 부모의 연결망을 동원해서 도움 얻을 부분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다</span>”며 “<span class='quot3'>이런 부분에도 경제적인 영향이 크게 작용할 수밖에 없다</span>”고 꼬집었다. <br/> <br/> 최 교수는 “<span class='quot2'>비슷한 경제·사회·문화적 수준에서는 얘기를 나눠도 확장이 되질 않는다</span>”며 “<span class='quot2'>지금 사회는 젊은이들을 경제적으로 빈곤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사회적 관계망마저 쪼그라들게 만들고 있다</span>”고 지적했다. <br/> <br/>▶“장시호의 폭로는 계속된다” 형광펜까지 동원된 자필 진술서 <br/>▶“돌아온 언니의 뒤태” 이효리 근황 사진 화제 <br/>▶“아직 이혼 못했지만…” 유퉁, 33세 연하 몽골여성과 8번째 결혼 <br/>▶서석구, 헌재 대심판정서 태극기 퍼포먼스 <br/>▶채동욱 전 검찰총장 변호사 못한다… 변협이 신고서 반려한 이유 <br/>▶[단독] 최순실, 고영태 부모 찾아가 ‘호빠 다니는 쓰레기’ 협박 지시 <br/>▶“아들 돌봐주는 말기 암 엄마 때문에 변심” 장시호 옥중 인터뷰 <br/>▶“다짜고짜 서두원과 잤냐고 물었다” 맥심, 송가연 인터뷰 추가 공개 <br/> <br/>글=임주언 기자 eon@kmib.co.kr, 그래픽=전진이 안지나 기자

언론사: 국민일보-4-798.txt

제목: [졸업유예도 빈부격차] 저소득층에겐 졸업유예도 ‘좁은 문’  
날짜: 20170215  
기자: 임주언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215173455001  
ID: 01100201.20170215173455001  
카테고리: 사회>교육\_시험  
본문: 저소득층 학생에게는 졸업유예라는 선택지조차 없을 수도 있다. 다음 주 대학을 졸업하는 김모(26·여)씨도 비용 때문에 졸업유예를 포기했다. 졸업을 미루려면 추가학기를 들어야 하는데 여기에 70만원이나 필요했다. 김씨가 대학에 입학했을 때만 해도 졸업유예에 별도 비용이 들지 않았지만 제도가 바뀌었다. 김씨는 “<span class='quot0'>소득분위가 2분위 정도인 집안 사정상 돈을 내면서까지 졸업을 유예하고 싶진 않았다</span>”고 말했다. <br/> <br/> 14일 ‘대학생 졸업유예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에서 2015년 기준 전국 93개 대학의 졸업유예제도 현황을 조사한 결과 졸업유예 시 의무적으로 강의를 들어야 하는 학교가 57곳(61.3%)으로 절반 이상이었다. 졸업유예 시 돈을 내야 하는 학교도 77곳(82.8%)이나 됐다. <br/> <br/> 국회도 이 같은 문제를 인식하고 있다.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지난해 10월 대학이 졸업유예자에게 학생 신분 유지를 이유로 수강을 강요하거나 등록금을 받지 못하게 하고 정부가 대학을 평가할 때 졸업유예자 수로 불리한 처분을 하면 안 된다는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일부 개정안을 내놓았다. <br/> <br/> 대학 측은 재학생으로 분류되는 졸업유예자 수의 증가는 대학 평가지표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고 본다. 졸업유예자 수가 늘면 교원 1인당 학생수가 증가하기 때문이다. 또한 졸업유예생 때문에 행정업무가 늘어난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서울의 한 사립대 학사업무 담당자는 “<span class='quot1'>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수업도 안 듣고 재학생 신분을 유지하는 건 학사제도를 무시하는 것</span>”이라고 말했다. <br/> <br/> 전문가들은 졸업유예제가 대학의 돈벌이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입을 모았다. 신동준 국민대 사회학과 교수는 “<span class='quot2'>(졸업유예로) 돈벌이를 하면 안 되는 건 당연한 것</span>”이라며 “<span class='quot2'>행정적으로 필요한 비용만 적용되는 게 맞는다고 본다</span>”고 했다. 신광영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도 “<span class='quot3'>집안 상황이 어려운 학생도 많은데 졸업유예 비용을 등록금 형태로 부과하는 자체가 큰 문제</span>”라며 “<span class='quot3'>유예한 학생들이 도서관 다니는 비용도 학교 입장에서는 큰 돈이 아니다</span>”라고 지적했다. <br/> <br/> 무작정 졸업유예자를 늘릴 수 없는 학교 입장을 이해한다는 의견도 있다. 다만 학교가 학생의 사회 진출을 지원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조언이다. 최종렬 계명대 사회학과 교수는 “<span class='quot4'>대학 입장에서는 학생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건 어렵긴 하다</span>”며 “<span class='quot4'>졸업유예를 고민하는 학생의 사회 진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수단이 뭔지 대학이 고민해야 할 때</span>”라고 강조했다. <br/> <br/>▶“장시호의 폭로는 계속된다” 형광펜까지 동원된 자필 진술서 <br/>▶“돌아온 언니의 뒤태” 이효리 근황 사진 화제 <br/>▶“아직 이혼 못했지만…” 유퉁, 33세 연하 몽골여성과 8번째 결혼 <br/>▶서석구, 헌재 대심판정서 태극기 퍼포먼스 <br/>▶채동욱 전 검찰총장 변호사 못한다… 변협이 신고서 반려한 이유 <br/>▶[단독] 최순실, 고영태 부모 찾아가 ‘호빠 다니는 쓰레기’ 협박 지시 <br/>▶“아들 돌봐주는 말기 암 엄마 때문에 변심” 장시호 옥중 인터뷰 <br/>▶“다짜고짜 서두원과 잤냐고 물었다” 맥심, 송가연 인터뷰 추가 공개 <br/> <br/>글=임주언 기자, 그래픽=안지나 기자

언론사: 국민일보-4-799.txt

제목: [이번 주말 여기 어때요?] 2월 셋째 주  
날짜: 20170215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215172255001  
ID: 01100201.20170215172255001  
카테고리: 문화>전시\_공연  
본문: ◆뮤지컬 <br/> <br/>그날들(∼3월 5일 예술의전당 오페라극장) <br/> <br/>연출: 장유정 <br/> <br/>출연: 유준상 이건명 민영기 오만석 오종혁 양요섭 등 <br/> <br/>내용: ‘창작뮤지컬계 재주꾼’ 장유정이 쓰고 연출한 이 작품은 가수 김광석의 노래로 만든 주크박스 뮤지컬. 청와대 경호실을 배경으로 과거와 현재를 넘나들며 전개되는 미스터리한 사건을 그렸다. 쉽게 예측할 수 없는 스토리 외에 애절한 삼각관계, 무술이 결합된 군무 등이 작품의 매력을 더한다. 2013년 초연부터 호평받으며 매년 무대에 오르고 있다. <br/> <br/>◎한줄평: 가수 김광석의 노래를 흥미로운 이야기 속에 잘 버무렸다. <br/> <br/>장지영 기자 별점: ★★★★ <br/> <br/> <br/>◆연극 <br/> <br/>NT 라이브의 ‘제인 에어’(19·24·25일 국립극장 해오름극장 <br/> <br/>연출: 샐리 쿡슨 <br/> <br/>출연: 마들렌 워럴 등 <br/> <br/>내용: ‘NT 라이브’는 영국 국립극장이 연극계 화제작을 생중계 또는 앙코르 상영하는 프로그램. 국내에서는 ‘워호스’ ‘코리올라누스’ ‘리어왕’ 등이 상연돼 큰 사랑을 받았다. 2015년 런던 리틀튼 극장에서 공연된 ‘제인 에어’는 영국 여성작가 샬롯 브론테의 동명 소설이 원작이다. 고통스런 삶 속에서도 당당하게 성장하는 여인의 모습을 그렸다. <br/> <br/>◎한줄평: 영국 연극계 화제작을 스크린으로 가깝게 만난다. <br/> <br/>장지영 기자 별점: ★★★★☆ <br/> <br/> <br/>◆영화 <br/> <br/>맨체스터 바이 더 씨(15일 개봉) <br/> <br/>감독: 케네스 로너건 <br/> <br/>배우: 케이시 애플렉, 미셸 윌리엄스, 카일 챈들러 등 <br/> <br/>내용: 형의 갑작스런 죽음으로 고향 맨체스터에 돌아온 리(케이시 애플렉)가 조카(루카스 헤지스)의 후견인이 되어 새 삶을 시작하는 이야기. 피하고 싶던 과거와 마주한 인물의 복잡한 내면을 감정과잉 없이 전달해낸다. 맷 데이먼이 제작자로 참여한 작품. 오는 26일 열리는 제89회 아카데미 시상식 6개 부문에 노미네이트됐다. <br/> <br/>◎한줄평: 잔잔하게 요동치는 온갖 감정의 소용돌이. <br/> <br/>권남영 기자 별점: ★★★★☆ <br/> <br/> <br/>◆영화 <br/> <br/>재심(15일 개봉) <br/> <br/>감독: 김태윤 <br/> <br/>배우: 정우 강하늘 김해숙 이동휘 이경영 등 <br/> <br/>내용: 살인사건을 목격했다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10년간 감옥살이를 한 현우(강하늘)가 변호사 준영(정우)의 도움으로 진실을 밝히기 위해 분투한다. 2000년 발생한 약촌오거리 살인사건을 영화화한 작품. 너무 쉽게 진실이 가려져버리는 현실에 탄식하면서도 희망을 잃어선 안 된다는 진심을 전한다. <br/> <br/>◎한줄평: 짠하고 아픈 극한의 상황을 견딘 끝에 만난 휴머니즘. <br/> <br/>권남영 기자 별점: ★★★☆ <br/> <br/> <br/>◆전시 <br/> <br/>훈데르트바서: 그린 시티(∼3월 12일 세종문화회관 미술관) <br/> <br/>내용: 오스트리아 생태주의 건축가이자 화가 프리덴슈라이히 훈데르트바서(1928∼2000) 회고전. 직선을 극도로 혐오했다는 훈데르트바서는 달팽이 껍데기, 숫양의 뿔, 나비의 코 등 자연에서 얻은 곡선의 영감을 건축에 도입했다. 앞 뒤 동(棟)이 나선형으로 연결되어 있는 아파트, 개구쟁이 스머프의 버섯 집 같은 주유소…. 아파트만 보아온 우리에겐 상상 초월의 실제 건축물이 사진과 모형을 통해 펼쳐진다. <br/> <br/>◎한줄평: 방학을 맞아 온 가족이 함께 가면 좋은 전시 <br/> <br/>손영옥 선임기자 별점: ★★★★ <br/> <br/>▶“장시호의 폭로는 계속된다” 형광펜까지 동원된 자필 진술서 <br/>▶“돌아온 언니의 뒤태” 이효리 근황 사진 화제 <br/>▶“아직 이혼 못했지만…” 유퉁, 33세 연하 몽골여성과 8번째 결혼 <br/>▶서석구, 헌재 대심판정서 태극기 퍼포먼스 <br/>▶채동욱 전 검찰총장 변호사 못한다… 변협이 신고서 반려한 이유 <br/>▶[단독] 최순실, 고영태 부모 찾아가 ‘호빠 다니는 쓰레기’ 협박 지시 <br/>▶“아들 돌봐주는 말기 암 엄마 때문에 변심” 장시호 옥중 인터뷰 <br/>▶“다짜고짜 서두원과 잤냐고 물었다” 맥심, 송가연 인터뷰 추가 공개 <br/> <br/>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

언론사: 국민일보-4-800.txt

제목: 민소매 유니폼이 뭐길래…V리그 규정 살펴보니  
날짜: 20170214  
기자: 인천=박구인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214222244001  
ID: 01100201.20170214222244001  
카테고리: 스포츠>스포츠일반  
본문: 한국전력의 주전 세터 강민웅(32)이 프로배구연맹(KOVO)에 등록되지 않은 유니폼을 입고 경기에 출전해 경기가 중단되는 웃지 못할 해프닝이 발생했다. <br/> <br/>한국전력은 14일 인천 계양체육관에서 대한항공과 V-리그 경기를 치렀다. 이날 경기에 앞서 강민웅은 홈에서 입는 빨간색 유니폼을 가져와 선발 라인업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br/> <br/>1세트 대한항공이 4-1로 앞선 상황. 강민웅이 푸른색 원정 유니폼을 입고서 교체 투입됐다. 하지만 동료들이 입고 있는 반팔이 아닌 민소매 유니폼이었다. 이 민소매 유니폼은 지난해 연맹에 등록된 유니폼인 것으로 확인됐다. <br/> <br/>이에 대해 대한항공 박기원 감독이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며 한차례 어필했다. 하지만 경기감독관의 판단 하에 경기는 계속 진행됐다. <br/> <br/>그러나 1세트 대한항공이 14-12로 앞선 상황에서 다시 경기가 중단됐다. KOVO 측은 규정상 강민웅의 민소매 유니폼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결국 강민웅은 부정선수로 판단돼 퇴장당했다. <br/> <br/>강민웅은 동료선수의 반팔 유니폼을 입고 그 위에 민소매 유니폼을 입고 경기를 치르려 해봤지만 결국 이마저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경기는 약 25분간 중단됐다. 관중석의 배구팬들은 경기 재개가 늦춰지자 야유를 보내기도 했다. <br/> <br/>경기는 점수가 14-12에서 14-1로 정정된 후 재개됐다. 1점은 강민웅이 최초 민소매 유니폼을 입고 교체 투입된 시점이었다. <br/> <br/>‘2016-2017 V리그 운영요강’에서 강민웅의 이번 유니폼 해프닝과 관련된 부분을 살펴보면 내용은 아래와 같다. <br/> <br/> <br/>제 47 조 (유니폼 승인 및 등록) <br/> 1. 각 팀은 시즌 중 정규리그에 착용할 홈경기용과 원정경기용 유니폼, 리베로 유니폼의 디자인 시안을 대회 40일전까지 KOVO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유니폼을 제작하여야하며, 제작된 유니폼 각 한 벌씩을 대회 20일전까지 KOVO에 제출하여 최종 승인 받아야 한다. <br/> 2. 시즌 중 당초 등록 된 것과 다른 유니폼을 착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주일 전에 전항의 절차에 따라 승인 받아야 한다. <br/> <br/>제 48 조 (유니폼 색상) <br/> 1. 한 팀의 모든 선수는 같은 색과 디자인의 유니폼을 착용하여야 한다.(리베로 제외). 경기당일 일부 선수가 다른 팀원들과 다른 유니폼을 착용하였을 경우 해당 선수는 다른 팀원들과 같은 유니폼을 착용하기 전까지는 경기에 참여할 수 없고 다른 팀원들과 같은 유니폼을 착용한 후 경기에 참여할 수 있다. 이에 따른 징계는 징계 및 징계금 부과 기준에 따른다. <br/> <br/>제 49 조 (유니폼 상의) <br/> 4. 남녀 모두 소매의 유무와 길이에는 제한이 없다. 단, 소매가 팔꿈치 아래로 내려올 수 없다. <br/> 5. 유니폼 상의에 KOVO 로고를 부착한다. <br/>   ① 위치(남녀 공통) <br/>      1) 반팔 : 유니폼 상의 좌, 우측 소매 바깥쪽 <br/>      2) 민소매 : 우측 가슴에 부착 <br/> <br/> <br/>V리그 운영요강 49조 4항에 따르면 유니폼 상의의 민소매·반팔 여부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다만 48조 1항에 따라 민소매 유니폼을 입으려면 팀원들도 모두 민소매로 통일해야 한다. 또한 47조 2항에 따라 문제가 불거진 민소매 유니폼을 최소 1주일 전 연맹에 제출해 미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강민웅의 민소매 유니폼은 유니폼 상의에 부착하는 ‘KOVO 로고’의 위치도 달랐다. <br/> <br/>애초 강민웅이 경기에 적합한 유니폼을 챙겨오지 못한 게 화근이었다. 다만 규정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고 경기를 진행한 감독관의 판단도 아쉬운 부분이다. 애꿎은 배구팬들은 20분 이상 기다려야 했고, 한국전력의 11점은 없던 일이 됐다. <br/> <br/>▶[김정남 독침 피살] 김정은 권력유지 걸림돌로 생각해 제거 <br/>▶[김정남 독침 피살] ‘볼펜 독침’ 소지 정찰총국 요원 추정 <br/>▶[김정남 독침 피살] 해외 언론에 “삼촌은 독재자”… 김한솔 행방 묘연 <br/>▶“장시호의 폭로는 계속된다” 형광펜까지 동원된 자필 진술서 <br/>▶“돌아온 언니의 뒤태” 이효리 근황 사진 화제 <br/>▶“아직 이혼 못했지만…” 유퉁, 33세 연하 몽골여성과 8번째 결혼 <br/>▶[단독] 최순실, 고영태 부모 찾아가 ‘호빠 다니는 쓰레기’ 협박 지시 <br/>▶“아들 돌봐주는 말기 암 엄마 때문에 변심” 장시호 옥중 인터뷰 <br/>▶“다짜고짜 서두원과 잤냐고 물었다” 맥심, 송가연 인터뷰 추가 공개 <br/> <br/>인천=박구인 기자 captain@kmib.co.kr

언론사: 국민일보-4-801.txt

제목: "딸 주려고" 밸런타인데이에 초콜릿 훔친 아버지  
날짜: 20170214  
기자: 박효진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214175544001  
ID: 01100201.20170214175544001  
카테고리: 사회>사건\_사고  
본문: 밸런타인데이에 중학생 딸에게 주려고 초콜릿을 훔친 40대 아버지가 경찰에 붙잡혔다. <br/> <br/>청주 상당경찰서는 14일 편의점에서 밸런타인데이 초콜릿을 훔친 혐의로 46살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br/> <br/>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일 오후 1시쯤 청주 상당구의 한 편의점 실외 진열대에서 1만 6천원 어치의 밸런타인데이 선물용 초콜릿 2박스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br/> <br/>A씨는 자신이 사는 아파트 근처 편의점 앞을 지나다가 진열대 바닥에 떨어진 초콜릿을 보고는 그대로 집어 들고 달아났으나 편의점 CCTV를 분석한 경찰은 8일 A 씨를 붙잡았다. <br/> <br/>택시 운전기사로 일하는 A씨는 경찰에서 "밸런타인데이에 딸에게 선물로 주려고 훔쳤다"고 진술했다. <br/> <br/>경찰은 A씨가 먹지 않고 집에 보관하고 있던 훔친 초콜릿 2박스를 회수했다. <br/> <br/>▶“장시호의 폭로는 계속된다” 형광펜까지 동원된 자필 진술서 <br/>▶“돌아온 언니의 뒤태” 이효리 근황 사진 화제 <br/>▶“아직 이혼 못했지만…” 유퉁, 33세 연하 몽골여성과 8번째 결혼 <br/>▶서석구, 헌재 대심판정서 태극기 퍼포먼스 <br/>▶채동욱 전 검찰총장 변호사 못한다… 변협이 신고서 반려한 이유 <br/>▶[단독] 최순실, 고영태 부모 찾아가 ‘호빠 다니는 쓰레기’ 협박 지시 <br/>▶“아들 돌봐주는 말기 암 엄마 때문에 변심” 장시호 옥중 인터뷰 <br/>▶“다짜고짜 서두원과 잤냐고 물었다” 맥심, 송가연 인터뷰 추가 공개 <br/> <br/>박효진 기자 imhere@kmib.co.kr